

발 간 등 록 번 호

52-6260000-000619-01

경상좌수영 보존활용 방안 연구

2022. 10.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제 출 문

경상좌수영 보존활용 방안 연구

본 보고서를 경상좌수영 보존활용 방안 연구
용역의 최종 결과물로 제출합니다.

2022. 10.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경상좌수영성지 전경



25의용단 전경



선소 추정지와 동문터 전경



고지도(1872년 지방지도)에서 본 선소와 동문



1952년 경상좌수영성지의 전경 (출처: 부산근현대사료연구소)



1953년경 경상좌수영성지와 수영만 전경 (출처: 부산근현대사료연구소)



한말 경상좌수영의 모습 (출처: Bibliotheque du Musée d'Arts Décoratifs)



한말 경상좌수영의 수군 (출처: Bibliotheque du Musée d'Arts Décoratifs)

목 차

1 계획의 개요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9
1) 계획의 배경	9
2) 계획의 목적	10
1.2 계획의 범위 및 방법	10
1) 공간적 범위	10
2) 내용적 범위	11
3) 계획의 방법	12
1.3 계획의 진행과정	13
1) 계획의 과정	13
2) 사업수행 관계자	14
3) 계획의 진행내용	15

2 역사적 고찰

2.1 경상좌수영의 역사	19
1) 조선 초기 경상도 수군의 창설과 진영의 설치	19
2) 경상좌수영의 이전	21
3) 경상좌수영 관하 수군진	29
2.2 경상좌수영의 편제와 운영	35
1) 조선 후기 경상좌수영의 역할과 위상	35
2) 조선 후기 경상좌수영의 편제	36
3) 조선 후기 경상좌수영의 운영체계	37

2.3 경상좌수영의 성곽	47
1) 경상좌수영성지의 위치	47
2) 경상좌수영성의 축성 및 증·개축	57
3) 경상좌수영성지의 범위	60
4) 경상좌수영성지의 평면 형태와 규모	64
5) 성벽 잔존 현황 및 축조 방법	66
6) 성문	74
7) 성벽 부속시설	77
8) 내부 공간	79
2.4 경상좌수영의 공해	84
1) 조선후기 경상좌수영의 관아 조영	84
2) 성 내외 시설	85
2.5 경상좌수영의 전선과 병기	110
2.6 경상좌수영의 수조	113
2.7 경상좌수영의 봉수 통신	114
2.8 경상좌수영의 문화와 민속	119
1) 경상좌수영 민속 현황	119
2) 조사내용 및 방법	120
3) 경상좌수영 지역의 개관	121
4) 경상좌수영 사람들의 살림살이	130
5) 경상좌수영 지역의 제의와 의례 변화	139
6) 경상좌수영의 민속 문화 보존과 활용 방안	149

3 일반현황

3.1 수영구 일반현황	157
1) 개관	157
2) 자연환경	157
3) 인문환경	160

3.2 경상좌수영성지 주변 현황	165
1) 자연환경	165
2) 역사 문화환경	166
3) 토지이용 현황	174
4) 교통체계 현황	176
3.3 관련 계획 및 법규	178
1) 관련 계획	178
2) 관련 법규	179
3.4 국내외 사례 검토	197
1) 국내 사례	197
2) 국외 사례	200
3.5 종합분석	202

4 보존활용계획

4.1 기본방향	205
1) 정비 방향의 설정	205
2) 정비계획의 기본전제	206
3) 추진 사업의 내용	207
4.2 토지이용 및 동선계획	208
1) 토지 이용계획	208
2) 동선계획	209
4.3 세부 사업계획	211
1) 조사·연구계획	211
2) 정비계획	216
3) 활용계획	232
4.4 역사·문화환경 정비계획	243
1) 경상좌수영성지의 역사·문화환경 특성	243

2) 경상좌수영성지의 역사·문화환경 보존	245
3) 현행 현상변경허용기준 검토	250
4) 현상변경허용기준 조정(안)	254

5 사업추진계획

5.1 사업계획 수립	263
1) 사업추진 방향	263
2) 사업추진 절차	264
3) 단계별 사업계획	265
5.2 사업비 산출	266
1) 사업별 투자계획	266
2) 연차별 투자계획	267
5.3 관리 운영계획	269
1) 관리 운영체계	269
2) 관리 운영사항	270

부록

1. 자문 의견	275
2. 참고문헌	295



제 I 장

계획의 개요

-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2 계획의 범위 및 방법
- 3 계획의 진행과정

1. 계획의 개요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1) 계획의 배경

- 부산 수영구 망미동·광안동 일대에 위치한 경상좌수영성지(慶尙左水營城址)는 조선시대 경상좌도 수군의 총지휘관인 정3품의 수군절도사가 머물던 진영(鎭營)이었다. 경상좌수영성은 원래 부산포에 있었다가 여러 번 옮겨진 뒤 효종 3년(1652) 다시 해운포로 옮겨져 고종 32년(1895) 구 군사제도가 폐지될 때까지 사용되었다. 수영성을 처음 쌓은 정확한 때는 알 수 없으나 현재의 것은 숙종 18년(1692) 경상좌수사 장우상(張宇相)이 다시 쌓은 것이며, 둘레는 약 2,785m, 높이는 4m이며, 우물 4개, 성문 4개, 수구 4개, 성 바깥에 쌓은 옹성과 치성이 있었다.
- 경상좌수영성과 수군의 주요시설인 선창(船艙), 수조처(水操處), 요망대 등의 입지와 형태는 고지도와 문헌자료를 통해 파악할 수 있으며 본격적인 도시화가 진행되기 이전 관아의 배치와 가로체계, 주변환경에 대한 내용은 일제강점기 자료와 1950년대의 항공사진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 경상좌수영성은 일제강점기와 근현대기를 거치며 대부분의 유구가 훼손되었고 지금은 성벽과 남문(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이 남아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 수군 제도와 운영을 살필 수 있는 문헌자료가 풍부하고, 유적 일부가 1972년부터 부산광역시 기념물로 지정되어 보존·관리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와 수영구의 노력으로 유구에 대한 발굴조사와 관련 정비계획 수립도 꾸준히 이루어져 역사적 가치와 활용도는 제고되고 있다.
- 현재 국내에 남아있는 조선시대 수영성(水營城)급 유적은 보령 충청수영성(사적), 해남 전라우수영(사적), 울산 개운포좌수영성(울산광역시 기념물) 등 소수에 불과하나 이들 수영성은 문화재 지정 후 보존관리에 집중하여 발굴 조사시 확인된 성벽 일부를 노출 정비하거나 주민과 외부 관람객의 역사 유적공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수영성이 지닌 고유한 특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성벽 중심의 일반적인 성곽 정비 방법, 제한적인 정비 범위와 주민 및 탐방객의 흥미와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콘텐츠 부족 등으로 활용적인 면은 저조한 편이다.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경상좌수영성이 지닌 조선시대 수군 성곽으로서의 역사 고고학적 가치를 고양하고 지속 가능한 문화재 보존 및 활용을 위해서는 먼저 유구 현황과 보존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선행된 발굴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성곽 유적의 보존관리 방향 설정과 문화콘텐츠 개발 등의 활용 방안 모색, 추가 학술조사 및 정비복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 최근 경상좌수영성의 문화재적 가치가 새롭게 부각되고, 지역주민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어 따라 경상좌수영성의 활용 및 보존정비에 대한 지역사회의 기대와 열망이 높아지고 있다. 향후 정비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경상좌수영성은 역사·교육적 활용도 및 도시경관 개선, 관광자원으로의 가치 제고 측면에서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계획의 목적

- 부산광역시 수영구는 최근 기존 도심에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각종 예술문화 관련 시설이 유치되어 수영구가 문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맞고 있는 시점에 문화관광자원 및 주민 휴식공원으로서 개발 잠재력이 큰 경상좌수영성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합리성을 확보한다.
- 경상좌수영성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와 성곽사적 가치, 성곽 유구의 제반 특성을 규명한다. 이를 통해 조선 후기 경상좌도수군절도사영성으로서의 역사적 가치를 부각시키며, 국가와 지역을 지키기 위한 선조들의 상무(尙武) 정신을 일깨움으로써 지역 주민의 역사적 자긍심을 고양시킨다.
- 더불어 역사, 민속 문화, 주민 생활이 어우러진 쾌적한 역사공원 및 역사문화탐방형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한 실천 가능한 추진전략 및 세부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악화된 경상좌수영성 주변 지역의 환경 및 경관 개선의 기회가 되도록 한다.
- 따라서 본 과업은 경상좌수영성과 주변 지역의 제반환경 및 성곽 유구에 대한 현황조사와 기록, 문헌과 고지도 등의 자료분석에 의한 역사적 가치의 재정립, 당시 수군제도와 경상좌수영의 운영방법 규명, 보수 및 정비활용 등에 대한 기본방향과 성곽의 보존정비의 계획수립 등에 대한 사항, 주변 유적과의 연계와 활용 방안, 향후 수영성과 관련 문화유산 활용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경상좌도 최고의 수군성곽으로서의 가치와 위상을 재정립하고 품격 높은 문화재로 보존하면서 누구나 즐겨 찾는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종합 정비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2 계획의 범위 및 방법

1) 공간적 범위

- 과 업 명 : 경상좌수영 보존·활용 방안 연구용역
- 문화재명
 - 주 대상 문화재 : 경상좌수영성지 (부산광역시 기념물, 1972. 06. 26. 지정)
 - 관련 문화재 : 경상좌수영 남문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1972. 06. 26. 지정)
 - 수영야류 (국가무형문화재, 1971. 02. 24. 지정)

좌수영어방놀이 (국가무형문화재, 1978. 05. 09. 지정)

부산 좌수영성지 곶술 (천연기념물, 1982. 11. 09. 지정)

부산 좌수영성지 푸조나무 (천연기념물, 1982. 11. 09.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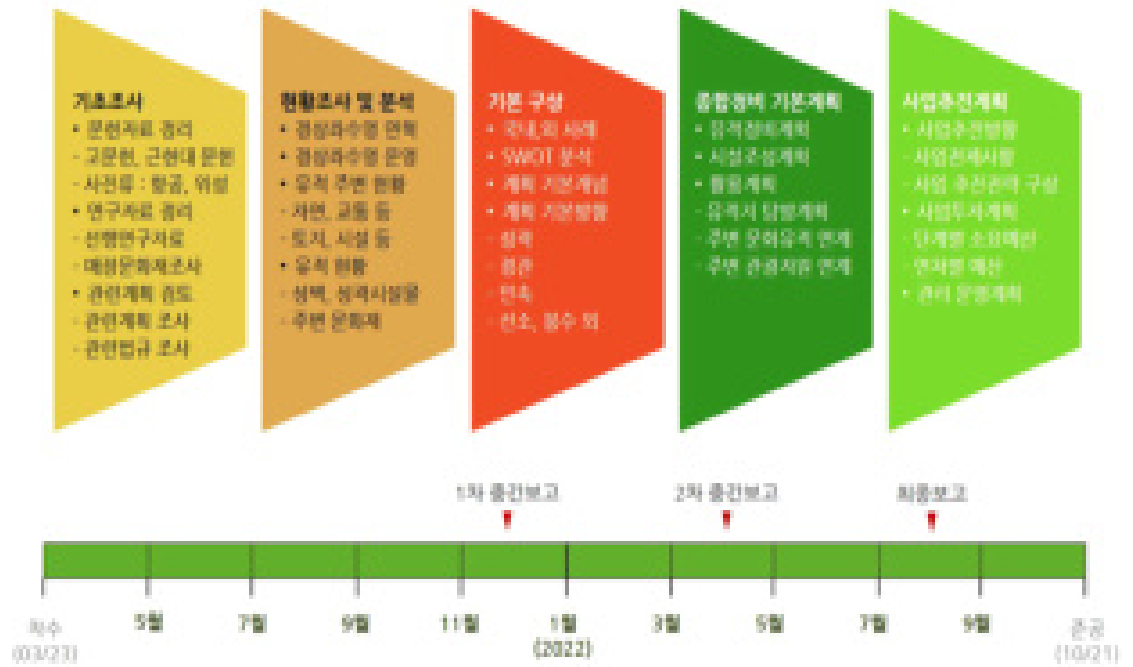
경상좌수영선생안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2015. 08. 19. 지정)

-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성로 43 일원 (경상좌수영성지)
- 규모 및 대상 : 성곽 일원 8,351m²
- 세부대상 : 성벽, 내부 관아 건물지, 출입시설(城門), 선입지(船入址), 제당 등

2) 내용적 범위

- 경상좌수영의 역사적·학술적 가치 발굴
 - 경상좌수영 관련 고문헌 조사
 - 수영에 관한 일반적 고찰
 - 경상좌수영의 연혁과 직제
 - 경상좌수영의 운영
 - 경상좌수영의 공간구성과 공해(公廨)
 - 경상좌수영의 전선과 병기
 - 경상좌수영과 수조(水操)
 - 경상좌수영과 봉수(烽燧)
- 경상좌수영성의 구조와 특성
 - 경상좌수영성의 축조 과정
 - 경상좌수영성의 구조
 - 경상좌수영성의 특성
- 합리적인 보전·정비 방안, 사업 추진계획
 - 국내·외 정비사례
 - 보전·정비의 방향과 범위
 - 세부 추진 사업
 - 주변 역사유적 및 문화관광자원 연계 계획
 - 문화콘텐츠의 내용과 방법
 - 활용 및 교육프로그램

3) 계획의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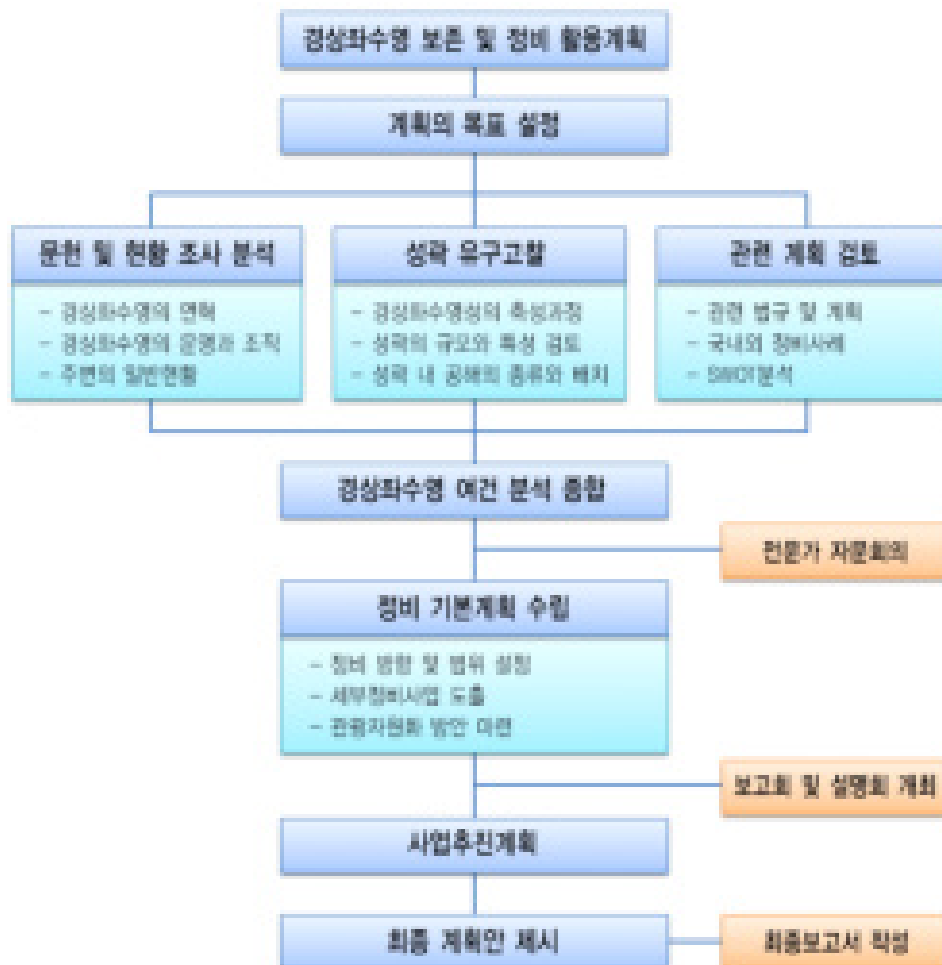


경상좌수영 입지 (출처: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13 계획의 진행 과정

1) 계획의 과정

경상좌수영 보존활용방안 수립



2 사업수행 관계자

- 자문위원

정진술(전 해군사관학교 교수,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
 강봉원(경주대학교 명예교수,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강동진(경성대학교 교수,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오세길(동의과학대 겸임교수)
- 총괄책임연구원

이호열(부산대 교수, 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 분과책임연구원

장동표(부산대학교 교수)
 구경모(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권순강(우리문화재연구원 조사연구부장)
- 공동연구원

박춘영(동춘당건축사사무소 소장)
 손희경(부산대 박사과정)
 김윤정(부산대 연구교수)
- 연구보조원

손영림(부산대 박사과정)
- 공동연구기관

(사)가운문화유산연구원
 이철영(전 울산과학대학교 교수, 전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
 여미나(가운문화유산연구원 실장)
- 부산광역시

구순본(부산광역시청 문화유산과장)
 배강주(부산광역시청 문화유산과 유산활용등재팀장)
 문종식(부산광역시청 문화유산과 주무관)

3) 계획의 진행내용

• 과업 기간 : 2021. 04. 14. ~ 2022. 10. 21.(19개월)

구 분	보 고 내 용	사 전
착수보고 (2021. 04.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업의 개요 - 연구진 구성 - 경상좌수영성 현황 - 과업 수행계획 - 향후 과업수행 일정 논의 	
1차 중간보고 (2021. 12.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업의 개요 - 경상좌수영성 연혁 - 주변 현황 조사 - 경상좌수영성 관련사료 고찰 - 경상좌수영성 원형 고증 - 국내외 정비사례 - 전문가 자문 - 정비 기본개념 설정 - 부문별 정비사업 구상 	
2차 중간보고 (2022. 04. 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현황 조사 - 민속자원 보완조사 - 경상좌수영성 관련사료 고찰 - 경상좌수영성 원형 고증 - 경상좌수영성 선소 고증 - 국내외 정비사례 - 전문가 자문 - 정비 기본개념 설정 - 부문별 정비사업 구상 	
최종보고 (2022. 08.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현황 조사·분석 - 경상좌수영성 가치 정립 - 경상좌수영성 원형 고증 - 국내외 정비사례 및 시사점 - 전문가 자문 - 정비 기본개념 설정 - 부문별 정비사업 확정 - 사업비 산출 - 사업추진계획 수립 	



용역보고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



경상좌수영성 현장 조사



제Ⅱ장

역사적 고찰

1. 경상좌수영의 역사
2. 경상좌수영의 관제와 운영
3. 경상좌수영의 성곽
4. 경상좌수영의 공해
5. 경상좌수영의 전선과 병기
6. 경상좌수영의 수조
7. 경상좌수영의 봉수 통신
8. 경상좌수영의 문화와 민속

2 역사적 고찰

2.1 경상좌수영의 역사

1) 조선 초기 경상도 수군의 창설과 전영의 설치

남부 지방의 해안 지역이 군사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고려말 왜구의 침입이 극심해지면서였다. 공민왕 대에 이르러 왜구의 노략질이 격심하게 되어 그 피해가 커지자 그에 대한 대응책의 하나로 선군(船軍) 즉 수군(水軍)이 재건되었다. 고려말의 수군(水軍)은 육군인 병마절도사의 관할 하에 있었기 때문에 독립된 지휘체제를 갖추지 못했다.

수군은 조선왕조 개창과 함께 도별(道別)로 수군도절제사가 설치되면서 독립된 지휘 편제를 갖게 되었다.¹⁾ 각 도에 1인 또는 2인의 수군도절제사가 지휘하는 수영(水營)이 설치되었고, 다시 각 바닷가 요새지에는 도만호, 만호 등을 지휘관으로 하는 포진(浦鎭)이 설치되었다. 수군도절제사는 세종 2년에 일시 혁파되었다가 이듬해에 수군도안무처치사(水軍都安撫處置使)로 다시 설치되었다.²⁾

수군의 분포는 경상도와 전라도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다음으로 충청, 경기, 황해도에 배치되어 있었다. 남부의 해안 지역이 해로(海路)를 통한 왜적의 침입에 대처하여야 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영진군(營鎭軍)도 바다와 인접한 지역에 배치되었는데, 왜적이 침입할 때 수군이 제 일선인 바다에서 제지하고, 왜적이 상륙하는 경우 영진군이 나서서 육지에서 제압하게 되어 있었다.

군항으로서의 포진은 해상 방어에 적합한 입지 조건을 갖춘 곳에 설치되었다. 포진은 바람이 없고 광활하며 선박이 자유롭게 왕래 정박할 수 있는 자연의 요새로서 U자형의 지형이 적합하였다. 바다 밑에 암석이 없고 사토(沙土)가 좋아야 하며, 썰물 때도 정박시킬 수 있고, 포진 밖에 병선(兵船)을 정박시킬 수 있어야 했다. 또한 포진은 주변의 백성과 토지를 보호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했으며, 주변 영진(營鎭)과의 관계나 왜구의 침입로인 요해처(要害處) 및 포간(浦間)의 거리도 고려되었다.³⁾

조선 초의 수군 체제 개편에 따라 동래의 부산포에는 경상좌도(慶尙左道) 수군도안무처치사진(水軍都按撫處置使鎭)이, 해운포와 다대포에는 만호진(萬戶鎭)이 각각 설치되었다. 부산지역에 수군진(水軍鎭)들이 정확하게 언제 설치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적어도 1407년(태종 7) 이전에는 설치되었을 것이다.⁴⁾ 그런데 이 시기는 수군의 배치가 처음 이루어지는 시기로서 포진의 이전과 설치 및 폐지가 빈번하게 일어나던 시기였다.

1) 육군본부, 『한국군제사(근세조선 전기 편)』, 1968, 105~108쪽.

2) 『세종실록』 11, 3년 2월 12일 을사.

3) 방상현, 『조선 초기 수군 제도』, 민족문화가, 1991, 39~41쪽.

4) 『태종실록』 14, 7년 7월 27일 무인.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조선 초기 1432년(세종 14) 무렵의 수군 규모 및 도별 방위 상태 등이 잘 나타나 있다. 그중 경상도 지역 수군의 편제와 분포 상황을 정리해보면 아래 표1.과 같다. 부산포에는 33척의 병선(兵船)과 1,779명의 선군(船軍)을 갖고 있었다.

표1. 조선 초기(세종대) 경상도 수군의 편제

장관명(將官名)	포진 소재지(浦鎭 所在地)	선수(船數)	수군수(水軍數)
좌도 수군도안무처치사	동래 부산포(富山浦)	33	1,779
도만호(都萬戶)	울산 염포(鹽浦)	7	502
만호(萬戶)	영해 축사포(丑山浦)	12	429
만호	영덕 오포(烏浦)	8	353
만호	흥해 통양포(通洋浦, 今泊豆毛赤浦)	8	218
만호	장기 포이포(包伊浦, 今泊加嚴浦)	8	589
만호	경주 감포	6	387
만호	울산 개운포(開雲浦)	12	420
만호	울산 서생포(西生浦)	20	767
만호	기장 두모포(豆毛浦)	16	843
만호	동래 해운포(海雲浦)	7	589
만호	동래 다대포(多大浦)	9	723
우도 수군도안무처치사	거제 오아포(吾兒浦)	28	2,601
도만호	고성 가배량(加背梁, 今泊巨濟玉浦)	22	1,122
만호	김해 제포(薺浦)	9	882
만호	거제 영등포	8	700
만호	거제 견내량(今泊巨濟玉浦)	20	940
만호	고성 번계(今泊固城唐浦)	15	722
만호	진주 구양량(仇良梁, 今泊固城蛇梁)	16	748
만호	진주 적량(赤梁, 今泊加乙串)	13	720
만호	진주 노량(露梁, 今泊平山浦)	8	568
합계		285	16,594

2) 경상좌수영의 이전

조선 초기에 경상좌수영은 동래현 부산포에 있었으나 처음 설치된 시기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경상좌수영에 관한 첫 기록으로 1413년(태종 13)에 “경상수군도절제사(都節制使)를 좌·우도로 분치(分置)하고, 그 자리에 김문발(金文發)·김을우(金乙雨)를 임명했다”고 한 것이⁵⁾ 남아 있다. 이 기록으로 보아 15세기 초에는 설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1457년(세조 3)에 전국의 군사 방어체계를 진관(鎭管)체제로 재편하는 획기적인 조치가 있었고, 이때 수군도 진관체제(鎭管體制)에 맞추어 재편되었다. 1459년(세조 5)에는 동래 부산포에 있던 경상좌도 수군도안무처치사(水軍都安撫處置使)의 본영을 울산 개운포로 이전했다.⁶⁾ 부산포에 있던 수영(水營)을 울산 개운포로 옮긴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하나는 삼포개항 이후 왜인(倭人)들의 왕래가 잦아지면서 그 첫 길목인 부산포에 수영이 위치해서는 곤란하다는 점이었다. 조선 수군의 여러 정보가 왜인에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영을 울산 개운포로 이전했다. 수영을 울산 개운포로 이전하니 부산포의 왜인들은 따라오지 않았다.⁷⁾ 다른 하나는 경상좌도 수영의 관할 구역이 낙동강 하구 동쪽으로부터 동해안의 영해에 이르는데, 이 긴 구간의 원활한 통제와 일 처리를 위해 중간지점에 수영이 위치해야 했다. 이 점에서 울산 개운포는 거의 중간지점으로서 수영의 최적합지로 주목받았다.

1466년(세조 12)에 관제(官制)가 개편되면서 관직의 명칭도 바뀌었다. 수군도안무처치사가 수군절도사로, 도만호는 첨절제사로 변경되었다. 수군의 진관체제와 지휘체계도 일원적으로 확립되었다. 즉 주진(水營), 거진, 제진(諸鎭)의 진관 편성에 따라 각각 수군절도사, 첨절제사, 만호가 배치되게 되었다. 당시 각도의 수군 최고 지휘관은 정3품 수군절도사였는데, 경상도는 전라도와 함께 그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2인의 전임 수군절도사가 배치되어 있었다. 경상좌도의 수군절도사는 주진인 울산 개운포에 있었고, 경상우도의 수군절도사는 주진인 거제 오아포에 있었다. 그런 가운데 여러 포진은 좌도의 거진인 부산포와 우도의 거진인 제포 등 두 진관 하에 각기 편성되어 있었다. 다만 수군의 진관 편제는 육군의 그것과는 달라서 반드시 행정조직과 일치되지 않았고 전략상 요충지에 포진을 설치한 것이 상례였다.⁸⁾ 세조 대에 확립되어 『경국대전』에 실린 경상도 수군의 편제를 병선 보유 상황과 함께 살펴보면 표 2.와 같다.⁹⁾

5) 『태종실록』 25, 13년 4월 7일(을묘), 1번째 기사.

6) 『세조실록』 15, 5년 1월 20일(계묘), 『慶尙道續撰地理誌』蔚山郡, 關防.

7) 『세조실록』 20, 6년 6월 6일 신해. 이때 “병조에서는 慶尙道 都體察使의 單子에 따라” 慶尙左道 水營을 옮겨 설치할 것을 이미 살펴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왜인들은 邊將의 營에 섞여서 거처하는 것이 불가하니 옮기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하여 왕의 허락을 받았다. 이 기사는 1년 전에 부산포에서 개운포로 수영을 옮긴 사실을 말해주며, 이때 왜인들이 수영이 있는 개운포로 옮겨오지 않았다는 것도 알 수 있다. 그러나 『경상좌수영성지』(부산박물관, 2001, 13쪽)에서는 이 기사를 개운포에서 부산포로 수영을 옮기려는 논의의 증거로 잘못 제시하고 있다.

8) 육군본부, 『한국군제사(근세조선 전기 편)』, 1968, 280~28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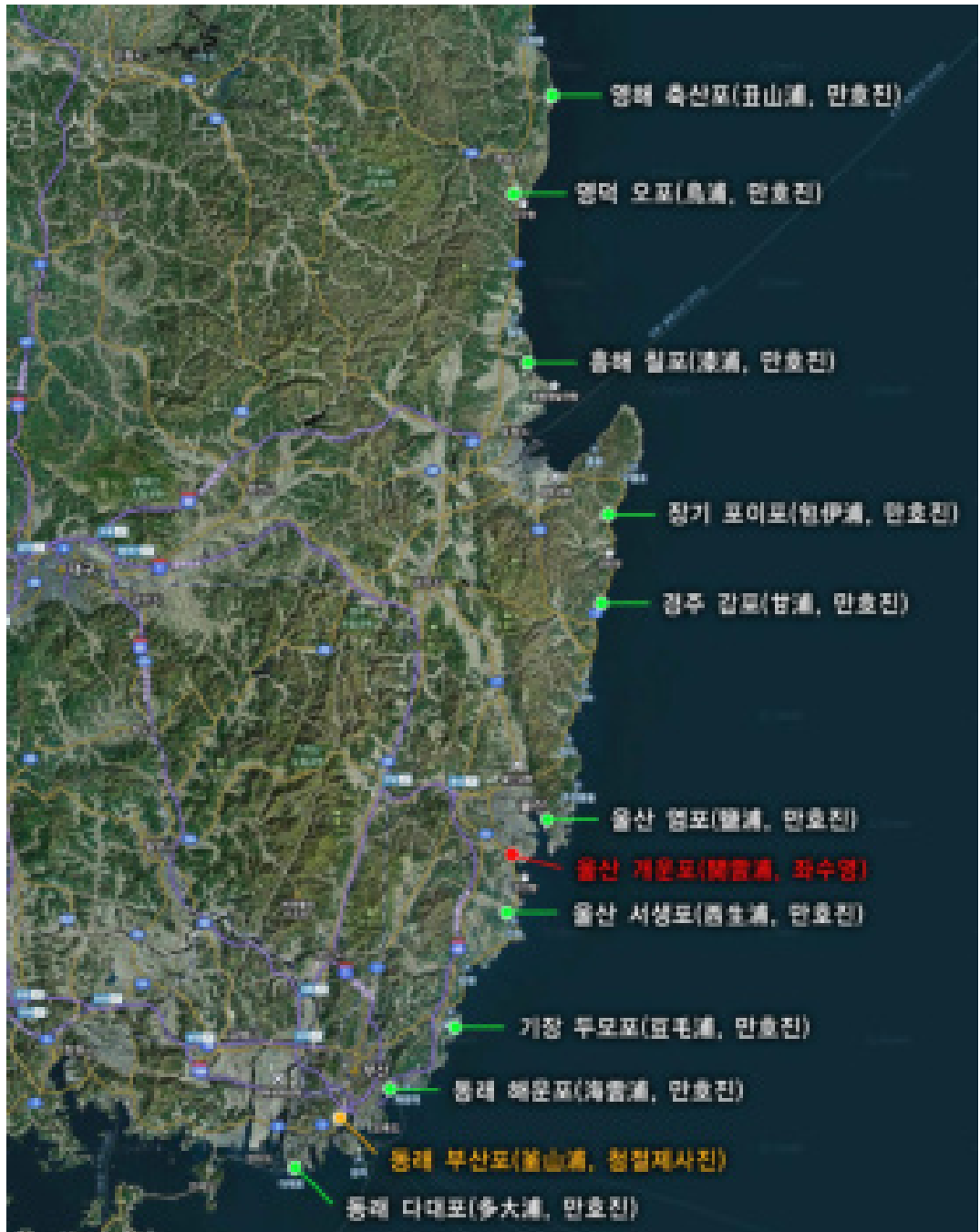
9) 『경국대전』, 兵典, 諸道兵船, 경상도.우인수, 『조선시대 울산지역사 연구』, 국학자료원, 2009, 58~59쪽 참조. 그런데 진단학회에서 편찬한 『韓國史(近世前期篇)』(1962, 249쪽)에는 『經國大典』에 근

표2. 세조~성종대 경상도 수군의 편제와 병선 보유

장관명 (將官名)		포진 소재지 (浦鎮 所在地)	병선 수(兵船 數)				
			대맹선 (大猛船)	중맹선 (中猛船)	소맹선 (小猛船)	무군소맹선 (無軍小猛船)	소계 (小計)
좌도수군절도사 (左道水軍節度使)		울산 개운포 (蔚山 開雲浦)	2	7	6	2	17
부 산 포 진 관	첨절제사	동래 부산포	1	3	5	1	10
	만호	영해 축산포	-	-	6	1	7
	만호	영덕 오포	-	-	4	1	5
	만호	흥해 칠포	-	-	4	1	5
	만호	장기 포이포	-	1	6	1	8
	만호	경주 감포	-	-	6	1	7
	만호	울산 염포	1	4	5	2	12
	만호	울산 서생포	1	1	4	1	7
	만호	기장 두모포	1	3	3	1	8
	만호	동래 해운포	1	1	4	1	7
	만호	동래 다대포	1	2	6	1	10
우도수군절도사 (右道水軍節度使)		거제 오아포 (巨濟 吾兒浦)	2	11	8	10	31
제 포 진 관	첨절제사	웅천 제포	1	5	5	5	16
	만호	웅천 안골포	1	2	3	4	10
	만호	거제 지세포	1	4	7	5	17
	만호	거제 조라포	1	2	3	3	9
	만호	거제 옥포	1	5	4	6	16
	만호	거제 영등포	1	3	3	6	13
	만호	고성 사랑	1	2	4	5	12
	만호	고성 당포	1	4	3	5	13
	만호	진주 적량	1	3	3	6	13
	만호	남해 평산포	1	3	3	6	13
합계			20	66	105	75	266

거하여 육군과 수군의 진관체제 조직표를 만들면서 당시 경상좌도의 수영을 울산의 개운포가 아니라 동래라고 잘못 파악했다. 이후 많은 연구서에서 이를 그대로 轉載했기 때문에 오류가 수정되지 못하고 확대 재생산되었다. 육군본부 편찬의 『韓國軍制史(近世朝鮮前期篇)』(1968, 164쪽),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제23권)』(1994, 239쪽), 方相鉉의 『朝鮮前期 水軍制度』(민족문화사, 1991, 63쪽), 『慶尙南道史』(경상남도사편찬위원회, 1988, 810쪽), 『釜山市史』(부산시사편찬위원회, 1989, 595쪽), 『慶尙北道史』(경상북도사편찬위원회, 1983, 713쪽) 등이 그 예이다.

위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운포는 경상좌도 수군절도사가 머무는 주진(主鎭)으로서 수하에 부산포 진관을 두고 총괄하고 있었다. 동래 부산포에는 거진(巨鎭)으로서 수군첨절제사가 배치되어 있었고, 나머지 10곳에는 만호가 배치되어 있었다. 병선도 개운포에 가장 많이 배치되어 있었는데, 크고 작은 군함을 합쳐서 총 17척을 보유하고 있었다. 수군은 이 병선들에 나누어 타고 바다 위에서 경계하면서 외적의 침입과 같은 비상시에 대비했다.



조선 전기(세조~중종) 경상도 수군의 편제(Daum 위성사진)

이후 개운포에 있는 수영을 동래의 해운포로 옮기려는 의논이 여러 번에 걸쳐 있었다. 먼저 1477년(성종 8)에 이조참판 이파(李坡)와 호조 참판 이서장(李恕長)은 부산포와 같은 요해지의 방어가 부실하다는 것을 이유로 수영을 다시 부산포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했다.¹⁰⁾ 그러나 이 건의는 별다른 호응을 받지 못하고 호지부지되었다.

지금의 부산 쪽으로 수영을 옮기려는 논의는 1510년(중종 5)에 일어난 삼포왜란을 계기로 다시 활발하게 일어났다. 주지하듯이 삼포왜란은 삼포 즉 제포·부산포·염포에 머물면서 각종 경제적 활동을 하던 왜인(倭人)들이 일으킨 난동으로 이때 부산포 침사가 왜인(倭人)에 의해 죽임을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선인 수백 명이 죽임을 보는 큰 피해를 보았다. 이에 따라 삼포 지역에 머물던 왜인들은 모두 자국으로 돌려보내는 조치가 취해지고, 양국의 우호적인 교류도 전면 중단되었다. 조선은 왜인들의 침략이 예상되는 동래 지역의 방어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 되었다. 그를 위해 수영을 다시 동래 지역으로 옮겨서 군사력을 증강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하고자 했다.

삼포왜란이 일어난 이듬해인 1511년(중종 6) 방어청에서 경상좌도 수영을 부산 쪽으로 옮기는 일은 널리 의견을 구한 다음에 결정해야 한다고 건의하는 것으로¹¹⁾ 미루어 보아 이미 삼포왜란 이후에 수영 이전 문제가 거론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방어청의 건의에 따라 중종은 의정부 대신을 비롯한 병조와 지변사재상(知邊事宰相)들에게 좌수영 이전의 득실을 따져보게 하였다. 다수의 재상은 장단점이 교차하고 있어 선불리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였다. 부산 쪽으로 옮기면 왜적(倭敵)이 들어오는 첫머리인 관계로 방어하기는 편한 장점이 있으나 수영이 너무 한 곳에 치우치는 단점이 발생하게 되는 점을 우려하면서 경상도 관찰사·병사·수사의 의견을 들어본 후 다시 의논하자고 하였다.¹²⁾ 지방 장관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조정에서는 부산 쪽으로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으나, 다만 시기가 농사철이니 추수 후로 미루는 것이 좋겠다면서 결정을 미루었다.¹³⁾

1513년(중종 8)에도 경상좌수영 이전 논의가 마무리되지 못하였다. 오히려 수영 이전에 대한 회의론이나 반대론이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 그동안 바뀐 경상도 관찰사는 수영의 부산포 이전에 대하여 회의적인 의견을 개진하였는데, 수영이 관할 구역의 한쪽에 너무 치우치게 되는 점, 부산포가 협소하여 수영의 구성원들을 수용할 수 없는 점, 수영과 수사가 왜인에게 노출되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다시 제기하며 어려워하는 기색을 보였다.¹⁴⁾ 이어 원로인 영사(領事) 김응기(金應箕)도 다음과 같이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

경상좌도 수영이 지금 개운포(開雲浦)에 있으니, 부산포로 옮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50여

10) 『성종실록』 77, 8년 윤 2월 11일 기유.

11) 『중종실록』 13, 6년 2월 22일 계묘.

12) 『중종실록』 13, 6년 2월 22일 계묘.

13) 『중종실록』 13, 6년 4월 13일 임진.

14) 『중종실록』 18, 8년 8월 9일 갑진.

석을 파종할 수 있는 둔전(屯田)과 노비 60여 구(口)는 수영의 소유입니다. 울산에서 폐단이 없었는데, 갑자기 부산포를 옮긴다면 두 성을 수축해야 하므로 더욱 안 되며 노비 60여 구가 어떻게 백 리 길을 왕래하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각사(各司)의 노비를 서로 바꾸어야 할 터이니, 더욱 안 될 일입니다. 당초에 주장(主將)은 왜인이 왕래하는 첫 길목에 있어서는 안 되므로 수영을 개운포로 옮겼습니다. 이제 가령 왜인이 많이 나온다면, 제포와 부산포 두 길이 다 접대하는 곳이 되니, 부산포로 결코 옮겨서는 안 됩니다. 애초 수영을 개운포에 둔 것은 주장이 가운데에서 처치하기 위함이었는데, 이제 왜 갑자기 고침니까?¹⁵⁾

즉 김응기는 왜인이 왕래하는 첫 길목에 수영이 위치해서는 안 된다는 점, 좌수영 전역을 가운데에서 골고루 통제하고 처치하기 어렵다는 점, 수영에 소속된 둔전과 노비의 이전이 어려운 점 등을 지적한 것이었다. 이로써 수영의 부산포 이전은 당분간 논의의 대상으로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나 이전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었다. 1521년(중종 16)부터는 동래의 해운포가 수영의 이전 처로 새롭게 거론되고 논의되기 시작하였다.¹⁶⁾ 1534년(중종 29)에 비록 채택되지는 못했지만, 부산포를 다대포로 옮기고, 부산포 자리에 좌수영을 설치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다.¹⁷⁾ 그 뒤에 다대포는 좌수영의 이전 장소로 거론되기도 하였다.¹⁸⁾ 이렇게 동래 쪽으로 좌수영을 옮기는 데 있어 그 후보지로 부산포, 해운포, 다대포 등이 거론되면서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였다.

드디어 1544년(중종 39) 9월 14일과 18일의 기사를 보면 해운포가 경상좌수영의 최적지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¹⁹⁾ 이어 중종실록 9월 26일자 기사에는 좌수영이 해운포에 위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나오고 있다.

좌도(左道)의 형세는 수영이 해운보(海雲堡)에 있어서 북으로 동래(東萊)와 5리 떨어지고 서쪽으로 부산포와 15리 떨어졌으므로, 동래의 군줄을 거느리고 부산포와 다대포(多大浦)를 구원하고, 또 양산(梁山)과 울산(蔚山) 좌병영(左兵營)이 그 뒤에서 이어 구원합니다.²⁰⁾

이로 미루어 보아 1544년(중종 39) 무렵 경상좌수영이 울산 개운포에서 동래 해운포로 이전한 것으로 보인다.²¹⁾ 그로부터 몇 년 뒤인 1547년(명종 2)에는 개운포 만호가 새로 임명된 기록이 명종실록에 나오는 것을²²⁾ 볼때 1544년 무렵의 경상좌수영 이전은 더욱 확실

15) 『중종실록』 18, 8년 8월 12일 정미.

16) 『중종실록』 42, 16년 8월 10일 기축 ; 『중종실록』 53, 20년 2월 12일 신축.

17) 『중종실록』 78, 29년 9월 29일 임진.

18) 『중종실록』 104, 39년 9월 14일 경술 ; 『중종실록』 104, 39년 9월 18일 갑인.

19) 위와 같음.

20) 『중종실록』 104, 39년 9월 26일 임술.

21) 그 후 경상좌도 수군절도사영은 1636년(인조 14)부터 1652년(효종 3)까지 10여 년간 동래 감만이 포로 옮겨 설치된 기간을 제외하고는 1895년(고종 32) 7월 경상좌수영이 폐지될 때까지 해운포에 있었다.

시된다. 그리고 1544년 이후 조선왕조실록에서 더 이상 ‘해운포’란 단어가 나타나지 않는 것도 또 다른 측면에서의 방증 자료가 될 수 있다. 즉 해운포에 좌수영이 들어서게 됨에 따라 더 이상 ‘해운포’라는 단어로 그곳을 나타낼 필요가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개운포에 경상좌도(慶尙左道) 수군절도사영(水軍節度使營)이 존속한 기간은 1459년(세조 5)부터 1544년(중종 39)까지 약 85년간이었다.

이즈음 수군 제도에도 몇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제승방략(制勝方略) 체제가 수군에도 적용되면서 연해(沿海) 지역 여러 군현이 직접 수사(水使)의 관할 아래 들어가는 변화가 있었다. 이에 따라 해당 군현의 수령들도 군선(軍船)을 타고 직접 해안 방어의 일선에 나서야 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정비되었던 수군은 차츰 열악한 근무 조건 때문에 방군수포(放軍收布)가 일반화되어 갔다. 부유한 수군들은 사람을 사서 군역을 대신하게 했으며, 첨사(僉使)와 만호들은 수군에게 면포를 받고 군역을 면제시켜 주었다. 또한 양천(良賤) 불명자(不明者)나 죄인 등이 수군에 충원되면서 수군(水軍)역은 천역화(賤役化)하기 시작했다.

한편 군선(軍船)으로 판옥선(板屋船)이 개발되는 변화가 있었다. 판옥선은 1555년(명종 10) 개발되면서 임진왜란이 발발하는 1592년(선조 25)까지 약 40년 동안 기존 맹선(猛船) 체제(體制)를 판옥선 중심 체제로 바뀌었다. 맹선(猛船)은 일종의 평선(平船)이며, 상장(上裝)이 중시되는 후기의 판옥선과는 다른 구식(舊式)의 군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크기나 규모를 자세히 알고 있지 못하다. 판옥선은 큰 것은 저판장(底板長)이 65~70척, 탑승 인원은 160명, 노는 16자루 정도였으며, 조금 작은 것은 저판장이 50~55척, 탑승 인원은 125명, 노는 12~14자루 정도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병선의 편제는 대형 병선인 판옥전선(板屋戰船)·거북선, 중형 병선인 방선(防船)·병선(兵船), 소형 병선인 사후선(伺候船)을 적절히 배합한 형태가 되었다. 이와 함께 함선에 장착하는 화기도 개발되어 천자포(天字砲)와 지자포(地字砲) 등의 해상용 중화기가 생산되었다. 해상용 대형 화기의 등장은 판옥선의 탄생과 때를 같이하는 것으로서 수군의 위력을 극대화했다.

한편 해운포로 옮겨온 경상좌수영은 그 후 선창(선소) 입구가 좁고 모래가 쌓여 선로(船路)가 불통하여 1636년(인조 14)에 감만이포(戡蠻夷浦, 지금의 남구 감만동)로 다시 이설되었다.²²⁾ 그러나 감만이포가 왜관(倭館)과 수로로 10리도 안 되어 군사기밀이 누설될 위험이 있어 주장(主將)이 머물 곳으로 적당하지 않다고 해서 감만이포로 옮겨진 직후부터 곧 다대포로의 이설이 논의되었다. 그리고 결국 1652년(효종 3)에 동래 남촌 구기(南村 舊基), 즉 오늘날의 경상좌수영성지로 다시 이전했다. 현재의 위치로 경상좌수영을 옮긴 이후에도 영진(營鎭) 자체의 이설 또는 선창의 이설 등이 논의되었다.

결국 동래부의 다대·개운·두모·서평·부산 등 5진(鎭)과 포이진은 그대로 두고 1751

22) 『명종실록』 5, 2년 1월 18일 신미.

23) 『인조실록』 32, 14년 1월 24일 경오.

년(영조 27)에 수영성 근처에 있던 경주의 감포, 영해의 축산포, 흥해 등 칠포를 혁파했다. 이로써 좌수영 관하 3개 진보가 혁파되고 7진(鎭) 체제가 확립되었다. 이후에도 좌수영에 대한 이설은 계속 논의되었으나 실시되지 못하고 해로(海路) 요충지로서 절영도의 중요성이 제기되어 개운·서평진 등을 없애고 절영진을 신설하여 6진 체제로 갖추었다. 그리고 1895년의 경상좌수영 폐영시 여타의 속진도 함께 파진되었다.²⁴⁾ 1895년(고종 32) 7월 군제 개혁으로 좌수영이 혁파되기까지 250여 년간 경상좌수영은 현 수영구 수영동에 있었다.

이처럼 국가 간 전면전인 임진·정유 양 왜란을 거치면서 울산의 북쪽에 있던 군항들은 모두 폐지되고 수군 기지는 거의 동래 근처로 집중되었다. 1785년(정조 9)에 편찬된 『대전통편』에 수록된 조선 후기 경상도 지역의 수군 편제 상황은 표3.과 같다.²⁵⁾

표3. 조선 후기(영조 대) 경상도 수군의 편제

장관 명(將官名)			포진(浦鎭) 소재지
통제사 (우도수군 절도사 겸) 통영 통제영	좌도 수군절도사		통령 좌수영
	부산포진관	첨절제사	동래 부산포
		동첨절제사	울산 서생포
		만호	기장 두모포
		만호	울산 개운포
		만호	장기 포이포
		만호	동래 서평포
	다대포진관	첨절제사	동래 다대포
	우도 수군절도사		통영 우수영
	가덕진관	첨절제사	웅천 가덕진
		동첨절제사	칠원 구산포
		만호	웅천 천성포
		만호	웅천 안골포
		만호	거제 조라포
		만호	거제 옥포
		만호	거제 지세포
		만호	고성 가배량
	미조항진관	첨절제사	남해 미조항
		동첨절제사	진주 적량
		만호	웅천 제포
		만호	남해 평산포
		만호	고성 사랑
		만호	고성 당포
		만호	거제 영등포

24) 『동래부읍지』(1895년), 진보조(鎭堡條).

25) 『대전통편(大典通編)』 권 4, 병전, 외관직, 경상도조.



조선 후기(영조대) 이진(移鎭) 후의 경상도 수군 편제(Daum 위성사진)



조선 후기 감만포에 있었던 수영의 위치(서울대 규장각 소장 「경상적수영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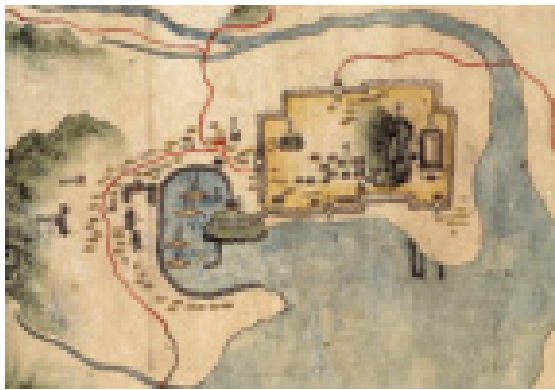
3) 경상좌수영 관하 수군진

조선 후기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1751년(영조 27)에 현 좌수영성 근처에 있던 경주의 감포, 영해의 축산포, 흥해 등 칠포가 혁파되어 경상좌수영 관하에는 부산지역 중 동래의 다대·개운·두모·서평·부산 등 5진과 포이진, 울산의 서생진만 남아 7진만 남게 되었다. 7진 체제시 이들 수군 진(鎭)의 내력과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부산진(釜山鎭)

1403년(태종 3) 경상도 해안에 대한 방어의 목적으로 부산포<富(釜)山浦>에 수군첨절제사(水軍僉節制使)를 두었으며, 1421년(세종 3) 2월에는 경상도를 좌우도로 나누고 좌도(左道)의 수군도안무처치사<水軍道按撫處置使(수사, 정 3품)>를 부산포(富山浦)에 두고 그 밑에 첨사영(僉使營) 1개소, 만호영(萬戶營) 11개소를 배속시켰다.

당시 부산포(富山浦)에는 내성(內城)과 외성(外城)이 있었다고 한다. 그 규모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488년(성종 19)에 ‘부산포진성을 쌓았는데, 둘레가 5,356척’이다. 1490년(성종 21) 8월 기사에 ‘부산포성은 둘레 2,026척, 높이 13척’ 등의 기록이 있어 그 크기로 볼 때 전자(前者)는 내성, 후자(後者)는 외성을 말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내성인 모성(母城)은 해발 120m의 증산 아래를 둘러싸고 있던 성으로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좌천동 일대로 추정되고, 자성인 외성은 지금의 부산진성 일대였다.



부산진 지도(조선 후기 지방지도, 1872년)



부산진 전경 (근대기 촬영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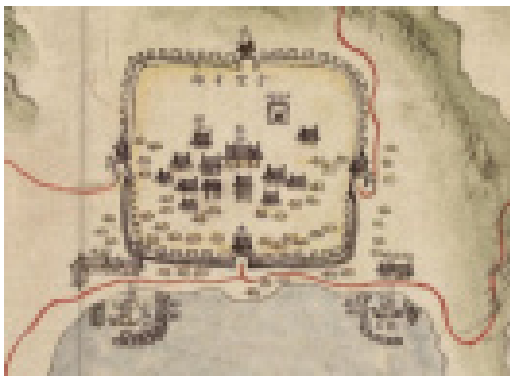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부산포성(釜山浦城)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규모에 대해 ‘석성으로 둘레 511.8m, 높이 4m’라고 했다. 임진왜란 때 부산첨사 정발이 왜군의 선봉과 싸워 장렬하게 전사한 첫 격전지로서 1592년 음력 4월 13일 일본의 조선 원정군 제1진 18,700여 명이 부산 앞바다에 쳐들어오자 정발은 부산진성을 굳게 지켜 성안의 군민과 더불어 끝까지 항전하다 전사했다.

왜란(倭亂)이 끝난 후 부산진성을 중심으로 성을 넓게 다시 쌓고, 부산진첨사영(釜山鎭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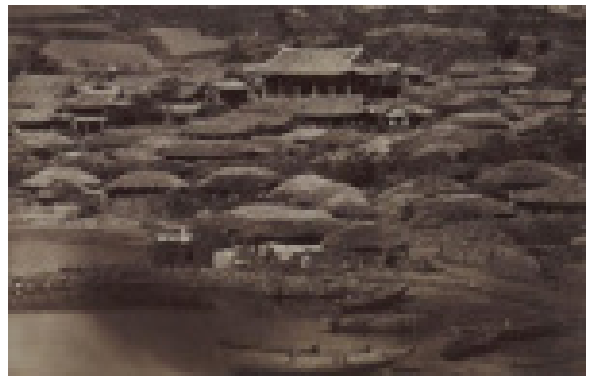
使營)으로 삼아 두모포, 해운포, 염포, 감포, 포이포, 칠포, 오포, 축산포, 다대포, 서생포를 관할했다. 당시 성은 둘레 1,689척, 높이 13척이었으며, 동문을 진동문(鎭東門), 서문을 금루문(金壘門), 남문을 종남문(鍾南門), 북문을 구장루(龜藏樓)라 하였고 성 내외에 19동의 건물이 있었다. 부산진성의 진남대 옆에는 임진왜란에 참가한 명장(明將) 천만리(千萬里)의 후손이 세운 「총독장화산군영양천공지비(總督將花山君潁陽千公之碑)」가 남아있고, 동쪽 산록에는 「최영장군 비각」이 보존되어 있다.

(2) 다대진(多大鎭)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다대초등학교 일원에 있었다. 경상좌도 부산포진 관하의 수군진성으로서, 조선 초기 1490년(성종 21) 11월에 축조했다. 다대진성은 둘레 1,806척, 높이 13척의 석성으로 동서남북에 네 성문이 있었다. 병선 9척을 갖고 수군 723명이 수비했다. 종4품의 무관이 지휘하는 만호영(萬戶營)이었으나 곧 정 3품의 수군첨절제사의 첨사영(僉使營)으로 승격되었다. 조선 초기에 다대포진은 장림포(長林浦)에 있었는데 현 위치로 옮기면서 본격적인 축성이 있었고, 1589년(선조 22) 성터를 보수, 신축하여 둘레 1,870척으로 증축한 것으로 보인다. 이때 축조된 성은 임진왜란으로 파괴되었다가 다시 쌓은 것으로 보인다. 1895년(고종 32)의 기록에 성의 둘레가 1,918척이라고 되어 있다.



다대진 지도(조선 후기 지방지도, 1872)



다대진 근경 (근대기 촬영 사진)

부산박물관에서 1998년에 다대동 181, 181-1번지를 정밀하게 지표 조사한 바 있다. 잔존 외벽은 높이 1.6m 정도이며, 가로 50~70cm, 세로 40~50cm 크기의 안산암 또는 역암의 활석을 10cm 내외 크기의 잔돌로 틈새가 없이 끼워 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벽의 경계는 확실하지 않으나 외벽에서 안쪽으로 7m까지 성 둘이 보이는데, 외벽에서 안쪽으로 2m 지점이 외벽과 동시에 축조된 듯하며, 흘러내린 석축 위로 3.3m, 4.3m, 6.3m 지점에서 막쌓기한 석축이 계단상을 보여 후대 증·개축된 것으로 추정된다.

외벽에서 안쪽으로 3.3m 지점에서부터 복토한 토층이 나타나는데, 이 토층은 현재 노출

된 석축의 상부 경사면을 따라 비스듬히 다져져 있어 계단상의 성벽 위로 황갈색토와 흑갈색 점질토를 덮은 것으로 보인다. 내벽 쪽 석재의 한계 최저지점에서 외벽 최상부까지의 성벽 높이는 2.5m로, 석축 상태나 범위로 볼 때 전체 성벽의 폭은 5m 전후로 추정된다.

(3) 서평진(西平鎭)

부산시 사하구 구평동 일대에 있었으며, 『대동지지(大東地志)』에 서남 49리로 기록되어 있다. 1592년에 쌓은 소형 석축 성으로 둘레 1,689척, 높이 13척였다. 이전에 지금의 구평동인 옛 서평동(舊 西平洞)에 토성 터가 최근까지 남아있었는데, 신라 토기가 출토되어 신라 때 쌓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임진왜란 후 다대진으로 이진(移鎭)되었다가 다대포진이 좁아 1668년(현종 9) 다시 서평포로 돌아왔는데, 성은 이때 쌓은 것으로 추정된다. 1966년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남아 있었는데 근대 이후 공장 등을 세우면서 멸실되었다.



서평진 지도(조선 후기 지방지도, 1872)

(4) 두모진(豆毛鎭)

두모진은 원래 부산광역시 기장군 죽성리 47번지 일대에 자리 잡고 있었다. 현재 육안으로 확인되는 것은 죽성리 왜성의 지성 부분에서 동남쪽으로 내려오는 능선 위에서 확인되는 치성(雉城)에서 죽성리 46-1번지 일대와 청강천이 굽어지는 곳에서 서남쪽으로 논을 가로질러 축조되어 있었다.

성벽은 기단석과 그 위로 성벽인 대형 판석(板石)만 남아있는 상태이며, 죽성리 662번지 옆 현재 기장으로 가는 도로의 축대로 사용되고 있는 민가의 뒤편에 성돌이 가장 양호하게 남아있다. 잔존 성벽의 높이는 2.5m로, 하부에 2.0×1.5m 크기의 대형 판석을 놓고, 그 위에 50~70cm×40~50cm 크기의 돌을 사용하여 내탁식으로 성을 축조했다.

두모포 진성은 고려 초 왜구(倭寇)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애초 토성(土城)으로 쌓았으나 자주 무너져 1510년(중종 5)에 둘레 1,250척, 높이 10척 규모의 석성으로 개축(改築)했다. 임진왜란 후인 1629년(인조 7)에 성을 그대로 두고 영(營)을 현재의 부산시 수정동으로 이전하고도 이름은 그대로 두모포영이라 했다. 이에 기장현 두모포(豆毛浦)란 지명을 두호(豆湖)로 개칭했다. 진성의 둘레는 약 600m이고, 성의 높이는 약 3m이다. 종4품의 수군만호(萬戶)를 두었는데, 부산포진에 있는 수군 첨사의 지휘를 받았고 병선 16척과 군사 843명이 있었다.



두모진 지도(조선 후기 지방지도, 1872)

『내영지(萊營誌)』에 의하면 부산첨사 휘하의 두모포 만호영에는 수군만호 1명을 비롯하여 군관 8명, 진리 11명, 지인 10명, 사령 5명이 있었고, 수군으로는 포수 24명, 능로군(能櫓軍) 120명이 있었다. 또한 두모포 진에는 해양 방어를 위한 병선(兵船), 사후선(伺候船) 등이 있었다. 두포모 만호영의 경우 병선 1척, 사후선 2척이 있었으며 군량은 선상미(船上米)가 18섬 11말, 찌쌀 3섬, 미숫가루 1섬이 있었다. 두모포 만호영의 수군과 병선, 군량은 근본적으로 해양 방어를 위한 것이었다.

(5) 개운진(開雲鎭)

개운포에 만호영이 처음 설치된 시점은 불분명하지만 1457년(세조 3)에 만호영이 일시적으로 혁파되었다가 1458년(세조 4)에 다시 만호영이 설치되는 과정을 거쳤다. 1459년(세조 5)에 동래 부산포에 있던 경상좌도 수군도안무처치사영(水軍都安撫處置使營)이 울산의 개운포로 이설(移設)되면서 개운포는 수영(水營)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1544년(중종 39) 무렵 개운포에 있던 경상좌도수군절도사영을 다시 동래 해운포로 이전함에 따라 개운포는 다시 만호진으로 되돌아갔다.

이후 각종 왜변(倭變)과 임진왜란을 겪은 후에 가장 먼저 전투가 벌어진 부산의 중요성이 이때 재인식되었다. 이 과정에서 경상좌도수군절도사영을 비롯한 수군 진영이 부산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이 과정에서 개운포 만호영도 1629년(인조 7)에 부산지역으로 옮겨 오게 되었다. 『동래부지』에 의하면 “개운포는 부의 남쪽 21리에 있고 수군만호가 있다” 라고 되어 있다. 「두모진지도」(1872년 지방지도)에도 부산진의 남쪽 정공단 바로 아래에 ‘개운진’ 이라고 표기한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개운진은 현 부산시 동구 좌천동 일대 즉 조선 시기 사도촌(沙道村) 일원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6) 포이진(包伊鎭)

임진왜란 때 수군의 패배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경상좌도수군절도사영[慶尙左水營] 관할 하에 있던 장기현의 포이포만호영(包伊浦萬戶營)을 동래부 남촌면으로 옮겨 왜군의 침입에 대비했다. 1895년(고종 32) 7월에 있었던 軍制 개편으로 전통 수군이 모두 혁파되면서 이 수군 만호영도 함께 혁파되었다.

(7) 서생진(西生鎭)

서생포에 만호가 배치된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조선이 개창된 직후로 짐작되며, 적어도 1407년(태종 7) 이전에 설치된 것은 분명하다. 그만큼 일찍부터 서생포진은 군항으로서 중요성을 인정받았다. 서생포에는 조선 태종 때 만호진을 두었다가, 세종 때 한동안 도만호진(都萬戶鎭)을 두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만호진을 두었다.

조선 전기의 서생진성은 지금의 울주군 서생면 화정리 산68번지 일대에 있었는데, 즉 서생면 구진마을에 있는 삼거리 변의 남쪽 야산 일원이다. 성의 북쪽에 저습지와 동서 방향으로 흐르는 회야강이 위치하고, 회야강과 동해의 합수부가 성의 동쪽 1.5km에 있어 이 일원은 수운(水運) 활동에 매우 유리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임진왜란 때 서생포진은 왜군의 공격을 받아 함락되었다.²⁶⁾ 이듬해인 1593년(선조 26)부터 왜장(倭將)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는 인근에 서생포왜성을 축조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서생포진성을 헐어 거기서 나온 성 돌을 서생포왜성을 축성하는 데 사용했다. 임

26) 『선조 수정 실록』 26, 25년 4월 경인.

진왜란 7년 동안 서생포왜성은 왜군의 중요한 전진기지이자 후방 기지로 사용되었다.

임진왜란이 끝난 후 왜군에 의해 파괴된 서생포진성을 대신하여 서생포왜성을 활용하기로 하고 거기에 <경상좌도수군동첨절제사영>을 두었다. 이렇게 결정된 데에는 서생포왜성이 워낙 견고하여 이용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임란 후 서생포왜성에 동첨절제사영을 둔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1600년(선조 33)에는 서생포에 만호(萬戶)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²⁷⁾ 1604년(선조 37) 서생포에 첨사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므로²⁸⁾ 임진왜란 직후인 1600년과 1604년 사이에는 서생진이 설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1895년까지 약 300년 동안 서생포왜성은 부산지역 이북의 유일한 수군동첨절제사영으로 사용되었다.



울산 서생진 지도 (조선 후기 지방지도, 1872)

27) 『선조실록』 132, 33년 12월 정축.

28) 『선조실록』 172, 37년 3월 기묘.

22 경상좌수영의 관계와 운영

1) 조선 후기 경상좌수영의 역할과 위상

경상좌수영은 경상좌도수군절도사영(慶尙左道水軍節度使營)의 약칭이며, 영명(營名)을 동래수영(東萊水營), 영좌수영(嶺左水營), 유영(柳營) 혹은 동래수영을 줄여서 내영(萊營)이라 했다. 경상좌수영은 조선 시기 경상좌도 수군의 주진(主鎭)으로 여러 번의 이설(移設) 끝에 1652년(효종 3)에 동래부 남촌(해운포, 현 경상좌수영성지)에 설치되었다. 동래부(동래도호부)는 조선 건국 당시 동래현이라 불렸던 곳으로 일본과 근접해 있다는 이유로 1599년(선조 32)에 도호부로 승격되었다.

1655년(효종 6)에 동래도호부는 독진(獨鎭)으로 승격하여 경상좌병영 관하의 거진(巨鎭)이 되었고, 임진왜란 이후 전국 단일의 왜관(倭館)이 두모포에 완전히 자리 잡게 되었다. 이로써 조선 후기의 동래부는 국방의 요새지이자 대왜(對倭) 외교 창구로 중시되었다. 바다 건너 바로 왜와 마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육군보다 수군의 역할이 더욱 중시되었다. 이 때문에 경상좌수영은 왜구의 침입에 대비한 최전방 전초기지가 되었고, 수군이 주둔해 있었던 하삼도(下三道, 즉 경상도·충청도·전라도)를 통틀어 가장 비중이 컸다. 그러나 이곳은 1895년(고종 32) 칙령에 따라 폐영(廢營)되었고, 1907년(융희 1) 군대 해산령에 따라 수영이 폐지된 후 일제의 대대적인 시가지 계획에 의해 그 흔적이 사라지게 되었다.

조선 후기의 경상좌수영은 정3품 무관의 수군절도사(이하 수사)가 주재했고, 관하에 7개의 진(鎭)을 두고 있었다. 이 중 6개 진(鎭), 즉 거진인 부산진과 다대진 및 제진(諸鎭)으로 두모포, 개운포, 서평포, 포이포도 동래부 관내(管內)에 위치했다. 이로써 동래부는 관내에 경상좌수영과 6개의 진보(鎭堡)를 둔 조선 후기 최대의 수군 기지였다. 여기에는 수사의 속관(屬官)인 첨사(수군첨절제사)와 만호(萬戶) 등이 주재하면서 수사와 함께 수군을 통솔하며 이에 수반되는 제반 행정 업무를 수행했다. 이뿐만 아니라 기장현과 울산부(울산도호부)를 속읍(屬邑)으로 두었으며 동래부 관내 몇 개의 마을들도 관할 방리(防里)로 따로 설정하여 관리했다.

수사(水使)는 여기에 수반되는 제반 행정업무들을 모두 주관해야 했으므로 경상좌수영은 수군을 관리하는 군사기관이자 동래부의 또 다른 행정기관이기도 했다. 따라서 수사를 위시한 수군들이 수행한 모든 행정을 ‘수군(水軍) 행정’ 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군적(軍籍)의 관리와 군포(軍布)의 징수를 말하는 군정(軍政)과 함께 민정(民政)과 같은 지방의 일반 행정업무도 일부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동래부사와 다른 관할 지역의 수령 및 기타 상관(上官)들과 직무상의 중복으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동래부 내의 왜관(倭館)과 함께 양국의 교린(交隣)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경상좌수영 및 관하 진(鎭)들은 엄연히 동래부라는 동일 지역 내에서 왜관 및 일반 행정체계와 연계되어 지방사회 통치구조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었다.

2) 조선 후기 경상좌수영의 편제

조선 후기 경상좌수영은 2개의 거진(巨鎭, 즉 첨사진인 부산진과 다대진)과 5개의 제진(諸鎭, 즉 만호진)을 거느리고 있었다. 또한 수영 내에는 정4품의 우후(虞侯)가 수사와 함께 주재하며 주진(主鎭)의 부지휘관으로 있었고 좌수영의 속읍인 울산부와 기장현의 수령인 종3품의 울산부사와 종6품의 기장 현감도 좌수사의 속관(屬官)이었다. 이러한 체계는 수조(水操) 및 유사시 수군 편제의 바탕이 되었다.

경상우수사 겸직의 통영을 중영(中營)으로 삼고 전라좌수영, 경상좌수영, 전라우수영, 충청수영이 각기 전·좌·우·후영의 5영(營) 체제를 이루었고, 각 영하(營下)는 5사(司), 각 사하(司下)는 5초관(哨官)으로 구성되었다. 각 도(道)의 수사는 영장(營將), 우후와 첨사는 각사파총(各司把總), 만호 및 각 읍의 수령 등은 각 초관(哨官)을 맡았다. 따라서 경상좌수영의 수군 편제는 좌영장인 좌수사를 필두로 하여 부산진·다대진의 첨사가 각각 우사 파총, 좌사파총이 되고 부산진·다대진의 2호 전선 선장(船將)은 전초관(前哨官), 두모포·서생포 만호는 우초관(右哨官), 개운포·서평포 만호는 좌초관(左哨官), 기장현감·울산부사는 후초관(後哨官)이 되었으며 수영의 3호 전선 선장은 우선봉(右先鋒), 포이포 만호는 좌선봉(左先鋒)이 되었다.

이처럼 경상좌수영의 행정체계는 ‘관찰사·통제사-경상좌수사-부산진·다대진 첨사-서생포 동첨절제사 및 두모포·개운포·포이포·서평포 만호’로 연결되어 일원적인 계통이 확립되긴 했지만 사실 그리 단순하지만은 않았다. 왜냐하면 군사 행정기관인 좌수영이 속읍인 울산부와 기장현 외에도 경상좌도 연해(沿海) 읍(邑)과 대다수의 진보(鎭堡)가 위치한 동래부를 군역, 공납 및 진상을 비롯한 재정 운용의 기반으로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영지(萊營誌), 1850』에 의하면 본영이 위치한 마을이라 하여 영저(營底)에 657호가 모여 큰 마을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들은 좌수영이 관할하는 총 24개 리(里)에 거주하는 민호(民戶)로서 수영서 최대 20리 내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거진(巨鎭)인 부산진과 다대진에서도 진하(鎭下)에 관할 마을을 두고 있었는데, 『영남진지, 1895년』의 기록에 의하면 부산진은 총 11개 리(里)에 994호(戶), 다대진은 총 16개 리(里)에 976호(戶)를 각각 관할했음을 알 수 있다.

즉 경상좌수영의 관할했던 24개 마을 중 서면(西面)과 읍내면(邑內面)의 3개 리(里)를 제외하면 21개 리가 바다와 인접한 남촌면(南村面)과 동하면(東下面)에 있었으며, 그 영역의 범위가 비교적 넓고 대개 해안가에 위치하는 마을임을 알 수 있다.

『내영지』와 『영남진지(嶺南鎭誌)』에 기재되어 있는 관할 마을 수는 좌수영 657호(戶)·부산진 994호·다대진 976호이며, 이중 중복되는 호수(戶數)를 제외하면 대략 총 2,551호가 좌수영과 예하 진보의 관할 하에 있었다. 『경상도읍지』의 신묘식(辛卯式, 1831) 호구 통계를 보면 당시 동래부의 호수는 7,910호, 인구는 32,158구(1호당 4구)였다. 이를 고려하면, 조선 후기 동래부 호구의 약 32%(약 10,204구)가 경상좌수영과 예하 진(鎭)의 수군

으로 차출됨과 동시에 각종 잡역(雜役) 및 요역(徭役)에 동원되었으며, 나아가 수군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했음을 알 수 있다.

3) 조선 후기 경상좌수영의 운영체계²⁹⁾

전술한 체계를 바탕으로 수사(水使)와 예하 진장(鎭將)들은 각자의 영문(營門) 내에서 해양 방어(海防)의 막중한 소임을 다했는데, 번다한 직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각 영문 내 다수의 막료를 휘하에 두고 있었다. 당시 좌수영 내에는 수사를 보좌하는 우후(虞候)를 필두로 하여 다수의 장졸(將卒)을 두고 있었다. 이에 관한 『여지도서』와 『내영지』의 기록을 비교하면 아래 표4와 같다.

표4. 조선 후기 경상좌수영의 군직(軍職)

군직 출전	비장 裨將	병방 軍房	화사 軍司	영리 營吏	마도 馬徒	진무 鎭撫	지인 知印	함정 기패관	진습 기고관	도훈도	대변 군관	영노 營奴
여지 도서	9	1	1	30	3	113	32	15	50	6	100	20
		1				12		6			30	
내영지	9		1	38	7	40	33	58			30	15
군직 출전	영비 營婢	사령 使令	군비 軍牢	사부 射夫	포수 砲手	교사 敎師	기수군 旗手軍	능노군 能櫓軍	기고관 旗鼓官	훈도 訓導	별차 別差	사자 寫字
여지 도서	20	28	29	132	106	20	143	616	2	1	1	
		6	4				40					
내영지	11	27	24							1	1	1

총 24 직관으로서 지인(知印)과 마도(馬徒), 영노(營奴) 이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군관급이었다. 『내영지』의 군직란에 토사부(土射夫)에서 기고관(旗鼓官)까지 등장하지 않는 것은 「주사군액(舟師軍額)」에 따로 좌수영 소속의 승선원으로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중 주목해야 할 군직은 ‘영리(營吏)’이다. 군현 통치에 있어 수령을 보좌하며 실질적인 군현 통치기능을 전담하는 향리(鄉吏)를 읍리(邑吏)라고 한다면, 영리(營吏)는 수영에서 수사를 보좌하며 수군 행정실무를 담당했던 향리였다. 이들은 중앙의 육조 체제를 모방한 육방에 분속 되어 특정직임을 맡아보았다.

방(房)이란 행정 업무를 기능적으로 구분한 행정부서로서, 각 부서 내에서 특정 업무를 관장하는 이원(吏員)을 의미하기도 하여 각 방(부서)의 방임(房任)으로서의 육방(이방, 호방 등)이 있었다. 또한 각 방(房)의 소관 업무 중 특정 업무를 분장했던 색리(色吏)가 있었는데 이들은 방임(房任)인 육방과 상하 관계도 명령과 복종의 관계도 아니었으며 방임 간에도 위계가 없었다. 일반적으로 색리와 육방을 구분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들은 그저 요임(要任)

29) 한시진, 2014, 「문서 행정을 통해 본 조선 후기 경상좌수영의 수군 행정 운영」, 부경대 석사논문.

이나 아니냐의 차이만 있었을 뿐 실은 육방도 다 같은 색리(色吏)였다. 즉 육방은 상위 관부에 첩보(牒報)하고 인접한 군현(隣邑)에 보내면(移文) 각면(各面)에 전령(傳令)을 내리는 등의 기능적 특성으로 인하여 각 방을 대표하는 수임(首任)일 뿐이었다. 따라서 수영 내의 육방부서에 속하여 행정 실무를 담당한 영리(營吏)들은 수사를 정점으로 병렬적인 체계를 이루고 있었다.

한편 경상좌수영은 군사기관이자 행정기관으로서 성내(城內)에서도 그 기능을 구분하여 업무를 체계적으로 운영했음을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경상도좌수영관아배설도」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우선 경상좌수영성 내부는 원문(轅門)을 기준으로 하여 원문 안쪽은 객사, 동헌, 내아 및 우후영 등 전패(殿牌) 봉안 및 좌수사, 우후가 업무를 보는 영역이고, 원문 바깥은 수군의 지휘관들과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영리 등이 머무는 영역이다. 또한 원문을 기준으로 동쪽으로는 군사적 기능을 담당하는 군관청(軍官廳), 장관청(將官廳) 등이 있고 남쪽으로는 영리청(營吏廳), 길청(吉廳) 등이 자리하여 행정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다. 특히 행정 실무를 담당했던 관아를 좌수영 관할의 남촌면(南村面) 마을과 바로 연결되는 남문 근처에 배치한 것은 영리(營吏)들이 군사 업무와 충돌 없이 대민 행정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수군 행정실무를 담당한 관아와 그 소속 관원을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표5. 조선 후기 경상좌수영의 수군 행정 실무 담당

구분	관아	소속 관원
상영 (上營)	길청 (衙前廳)	이방(吏房) 1명, 부이방(副吏房) 1명, 삼번(三番)이방 1명 및 병(兵)·호(戶)·공(工)·둔창(屯倉)·병선(兵船)·진창(賑倉)·회계(會計)·영수(領收)·지방(支放)·영선(營繕)·군기(軍器) 등 11명의 색리와 승발(承發) 2명
	영리청 (百和堂)	병(兵)·리(吏)·형(刑)·예(禮)·계서(契書) 등 5명의 영리(營吏) 및 사자(寫字) 1명
	호방(戶房)	서리(書吏) 1명, 고자(庫子) 1명
중영	중영, 길청	이방 1명, 색리 3명

「경상도좌수영관아배설도」에 의하면 길청(吉廳)은 아전청(衙前廳)이라 하여 영리(營吏)를 일컫는 서리(胥吏) 또는 아전(衙前)이 일을 보던 관아였다. 여기에는 표5.에서 보듯이 이방·부이방(副吏房)·삼번이방(三番吏房)을 비롯한 각종 명목의 색리(色吏) 11명이 승발(承發)과 호방(戶房)의 서리(書吏)와 함께 수군 행정의 실무를 담당했다. 이들은 모두 수사와 직결되어 직능 상의 구분만 있을 뿐 상하 관계가 아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편 『다대진사례(多大鎭事例)』에서도 수영의 영리(營吏)와 같이 행정 실무를 맡았던 향리로서 진리(鎭吏) 16인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방·호방·병방의 업무 내용에 대해서도 비교적 상세히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좌수영의 예하 각진(鎭) 내에도 이러한

내부 행정체계를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다대진사례』에도 보이는 서리와 승발(承發)은 행정 업무상 필요한 모든 공문서의 작성과 수발을 전담하는 문서 행정 담당 색리로서 서계색(書契色), 문서색(文書色) 등도 그 일종이었다. 따라서 육방 및 색리를 포함한 모든 영리(營吏)나 진리(鎭吏)는 수영 및 예하 진에서 수사와 진장(鎭將)을 보좌하며 실질적인 수군 행정의 운영을 전담함으로써 그 역할과 책임이 막중했던 만큼 수군 행정체계에 있어 필수적인 영역을 차지하고 있었다.

좌수영과 예하 진(鎭)에서 동래부와 별개로 각각의 관할 마을을 두고 그곳의 민(民)들로 하여금 업무에 수반되는 각종 노동력과 물자 공급을 부담하게 한 점 등 군정(軍政) 이외에 민정(民政)을 포함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다. 더불어 경상좌수영은 임진왜란 이후 전국 유일의 왜관을 비롯한 대일관계의 거점이자 해방의 요충지인 동래부 관내에 설치된 이유로 양국 간의 교린에 있어 중요한 소임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경상좌수사는 다른 곳의 수사에 비해 그 책임과 역할이 더욱 막중했으며, 이는 예하 진장(鎭將)들도 마찬가지였다. 이 점은 곧 다른 수영과 달리 관하의 진(鎭)과 함께 경상좌수영만이 수행했던 특유의 행정업무라 할 수 있으며 그 내용과 성격에 따라 분류해 보면 표 6과 같다

표6. 수군 행정의 분류 및 주요 업무

분류	업무 내용		비고
일반 행정	민정(民政, 관할 읍민 관리 감독)		
	환곡(還穀)		
	진공(進供)		단오(음 5/5) · 동지(음 11월 중)
	방물(方物)		정조(음 1/1) · 동지 · 탄일(誕生日)
	전문(箋文)		
	인사 행정(殿最 · 포폄)		음 6/15 · 음 12/15
	사법 행정		
군사 행정 (軍政)	관할 진보(鎭堡) 관리		
	봉수(烽燧) 관리		
	전기(戰器) · 전구(戰具) · 무기 관리		
	전선(戰船) 및 선박 관리		점고(點考, 10월)/병조 보고:세초시(歲抄時)
	군정(軍丁) 관리	세초(歲抄)	음 6월 · 12월
		군적(軍籍)	매 6년 작성(병조 보고)
		군역(軍役)	첩역(疊役)문제 발생
		방번전<防(番)錢> 징수관리	매달 징수 → 체납(滯納) 문제 발생
	수조(水操)		
독제(蠶祭)			
특수 행정	해폐(海弊) 교정		
	대일 행정	왜관(倭館) 관련 업무	왜관(倭館) 건물 상태 보고 (매달 말, 부산첨사 → 관찰사)
		표류 왜선(倭船) 처리	
		이양선(異樣船) 처리	
	송정(松政)	봉산(封山) 관리	
		벌목자(伐木者) 처벌	
풍낙송(風落松) 처리			

행정 업무의 특성상 중첩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크게 일반 행정과 군사 행정 그리고 특수 행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일반 행정은 민정, 재정(財政), 인사행정(人事行政), 사법행정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는 물론 내용의 차이는 있겠지만 각 지방의 수령이 군현 통치를 위해 수행한 기본적인 행정 업무의 형태와 비슷했다. 특히 민정과 환곡 행정은 각 관할 마을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수사와 진장(鎭將)들은 그들이 관할하는 읍민(邑民)에 대해서는 목민관으로서 그들의 생활 안정과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둘째, 군사 행정은 수군의 군무(軍務) 수행에 따르는 제반 업무를 일컫는데, 이는 수사가 해방(海防)을 관장하는 군영(軍營)의 장(將)으로서 당연히 그리고 철저하게 수행하여 조금의 허점도 보여서는 안 될 가장 기본적인 임무였다. 봉수와 무기류 및 전선(戰船)·병선(兵船) 등의 관리와 수군으로 차출되는 군정(軍丁)의 관리 등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이 중에서도 수군 훈련인 수조(水操)야말로 수사가 수행한 가장 대표적인 군무였다. 마지막으로 특수 행정은 대일 행정과 송정(松政)으로 구분되는데, 특히 대일 행정은 경상좌수영이 왜관(倭館)의 존재로 인해 왜인의 왕래가 잦았던 동래부에 위치하는 까닭으로 삼도의 수영 중에서도 가장 직접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업무였다. 또한 소나무는 병선(兵船)을 건조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재료로 소나무에 관한 업무 즉, 송정(松政)은 모든 수사의 대표적인 주요 임무 중 하나였다. 요컨대 경상좌수사는 이렇게 일반 행정, 군사 행정, 특수 행정이라는 큰 틀 속에서 다양한 수군 행정 업무를 처리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일반 행정은 다른 수영에서도 공통적으로 수행한 일반적인 업무였고 이는 군사 행정도 마찬가지였지만, 좌수사 및 예하 진장들은 군정을 수행 함에 있어 유독 동래부사와 잦은 마찰을 일으켰다. 이는 경상좌수영과 대부분의 예하 진(鎭)이 설치된 동래부 관내에 왜관이 있었을 뿐 아니라 부사가 독진(獨鎭)의 장(將)으로 무관 종3품의 병마첨절제사를 겸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로 발생하는 문제였다. 이로써 경상좌수영의 군사행정은 수행과정에서 타 수영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특히 동래부 내의 왜관(倭館)은 전국 유일의 것이었기 때문에 왜관 관련 업무는 경상좌수영에서만 볼 수 있는 특수한 업무였다. 따라서 특수 행정 중 대왜(對倭) 행정은 다른 수영에서는 볼 수 없는 것으로 경상좌수영의 역할이 단연 두드러지는 업무였다.

경상좌수사가 약 2년(720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다양하고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많은 임무가 워낙 막중했기 때문에 일을 조금이라도 그르치면 상관인 통제사나 관찰사에게 치죄 당하기 일쑤여서 오히려 직무 이행을 태만하게 수행하여 각종 비리의 온상이 되기도 했다.

이러한 수군 행정 업무의 내용과 이를 어떻게 수행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수사를 위시한 다수 막료들이 임기 동안 정기적으로 수행했던 수군 행정 업무를 『내영지(萊營誌)』의 기록을 중심으로 정리해보면 표 7.과 같다.

표 7. 정기적인 수군 행정 업무 내용

기한		업무 내용
매년	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량(砲糧) · 포목(砲木)을 순영의 관문에 의거 각 읍에서 나누어 거둠(→호방고) 수미(需米) → 영수고(營需庫)
	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영과 울산의 둔전에서 벼와 보리를 거둠<관비 · 관노의 방료(放料)> →관청
	추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미(需米) → 영수고(營需庫) 본영과 울산의 둔전에서 벼와 보리를 거둠<관비 · 관노의 방료> → 관청
	만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물(方物), 전문(箋文) 올림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향미(餉米), 모조(耗條)를 각 읍에서 구획하여 거둠<→ 지방고(支放庫)>
월별 (음력)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죽(箭竹) 거둠 → 별조고(別造庫) 춘조(春操) 경칩 - 독제(蠶祭)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오(5/5) - 진공(進貢)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사(歲抄) 6/15 - 전최(殿最)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포전(匠布錢) 거둠 → 공고(工庫)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조(秋操)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납(上納) 용 국마(國馬)를 거둠 → 병고(兵庫) 유황전(硫黃錢) 거둠 → 별조고(別造庫) 상강 - 독제(독제)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포구의 배 점고(點考) → 관청(官廳) 음 10월 1일 - 장대에서 무사들의 무예를 시험 동지 - 진공(進貢), 방물(方物) · 전문(箋文) 올림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초(歲抄) 정조(正朝, 1월 1일)-방물(方物), 전문(箋文) 올림 양산 신흥 지통(紙桶)에서 종이사음→지창(紙倉) 유황전(硫黃錢) 거둠 → 별조고(別造庫) 음 12월 15일 - 전최(殿最)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식년(매 3년) - 총 쏘는 과녁을 주사(舟師)가 있는 각 읍 · 진에서 거둠 → 軍器庫 / - 꿩깃[雉羽] 거둠 → 별조고(別造庫) 매 6년 - 군적(軍籍) 작성 · 보고 수시로 특별히 전문(箋文) 올림

※ (→) 는 해당 업무와 관련있는 창고를 표시한 것임

정기적인 업무는 기한이 정해져 있어 기한 내에 꼭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서 1년마다, 매 달 또는 정해진 달마다. 그리고 몇 년에 한 번 해야 하는 업무들도 있었다. 특히 이 중에는 수영의 창고마다 담당 고자(庫子) 및 색리(色吏)가 직접 수행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다.

본영(本營)의 일상 생필품 마련을 위한 수미(需米), 소속 관원과 군사들의 급료로 나누어 준 향미(餉米), 장포전(匠布錢), 방전(防錢), 포량(砲糧)·포목(砲木) 등 또는 기타 운영비로 소용된 각종 포목(布木) 등을 주관하는 일이다. 이는 곧 수군 행정 업무에 수반되는 제반 물자의 공급 및 관리 등의 재정업무로서 조금만 차질이 생겨도 수영과 수군의 안정적인 유지가 어려워지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업무였다.

한편 이러한 온갖 세목의 조세는 동래부 관내의 각 관할 마을들과 속읍(屬邑)인 울산부, 기장현 그리고 경상좌도 연해읍(沿海邑)의 민호(民戶)가 자연히 그 징수 대상이 되었다.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업무는 비교적 이들 민호와 가까이에 있으며 대민행정을 담당하고 있었던 영리(營吏)의 책임이었다. 즉 수사는 이 업무에 대해서는 단지 보고를 받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거나 지시·명령만 할 뿐 직접적인 권한은 영리에게 있었다.

반면 수사가 직접적으로 담당한 업무로는 전문(箋文) 작성, 방물(方物) 마련 그리고 진공(進貢)이 있다. 이는 공통적으로 수사가 관직을 제수받은 외관(外官)으로써 당연히 수행해야 하는 일이었다. 우선 전문(箋文)은 왕 또는 왕실의 귀인에게 올리는 글의 한 형식으로 대개 찬송의 내용을 담는데, 정월 초하루와 동지 그리고 왕의 탄생일 뿐 아니라 나라에 경사가 있으면 의례적으로 수사가 직접 써서 왕에게 바쳤다.

방물은 보통 전문(箋文)과 함께 정월 초하루와 동지 그리고 왕의 탄생일에 왕에게 올리는 지방 토산물이며, 진공 또한 지방 외관으로서 단오와 동지에 왕에게 올리는 예물이었다. 이는 모두 왕에 대한 업무로서 행정적으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수행해야 했다. 때문에 경상좌수사 강응환(姜膺煥)은 1793년(정조 17)에 단오 때 진상할 부채를 제조할 기술자를 보내달라는 관문(關文)을 밀양에 여러 번 발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일을 지체시키자 담당 색리를 상사(上使)시킨 일이 있었다. 또한 다대진에 관문(關文)을 내려 단오에 진상할 부채와 여기에 드는 경비를 빨리 낼 것을 독촉했는가 하면 수영의 승발(承發)이 직접 다대진에 사통(私通)을 보내서 진상할 청어의 품삯과 경비 납부를 독촉하기도 했다.

또한 동지 진상 때 드는 청어를 관할 진(鎭)의 각 포구에 있는 지토선(地土船)에서 1척당 3마리씩 부담시키며 여기에 드는 잡비는 또 관하의 구관포(舊館浦) 및 남천포(南川浦)의 조림(條簾)에서 충당하도록 하는 정식(定式)을 성책(成冊)하여 관찰사에게 첩보한 예로 보아, 진공 및 방물의 마련은 결국 관하의 진보와 관할 마을의 부담으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수사는 한 도(道)의 수군을 관장하는 주진의 장(將)으로서 독제(蠟祭), 수조(水操) 그리고 수사의 고유권한이었던 전최(殿最)를 직접 수행하였다. 우선 독제(또는 뚝제)란 군령권(軍令權)을 상징하는 ‘독(蠟)’ 즉 대장기(大將旗)에 지내는 제사로 1년에 두 번, 경칩(음력 2월)과 상강(음력 9월)에 치러졌다. 국가의 군사권을 상징하는 제사로 유일하게 무관들이 주관한 제사라는 점에서 경상좌수영에서도 큰 행사였다. 이는 좌수영성 서문 가까이 언덕 위에 있었던 독당(蠟堂)에서 거행되었는데, 여기에 드는 염소와 돼지 또한 관할 마을에서 봉헌(奉獻)했다.

수조(水操)는 좌수영 수군의 전투력 향상과 유사시의 대비를 위해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조련으로, 1660년대 후반에 춘추 수조(水操)로 제도화되었다. 2월에 실시된 춘조(春操)는 통제사 주관하에 삼도 수군 이상이 연합 선단을 구성하는 합조(合操)를 했으며, 8월의 추조(秋操)는 각 도(道)의 수사가 주관하는 도수조(道水操, 營操)를 하는 것으로 정례화되었다. 이 밖에 진(鎭) 단위에서 주관하는 진조(鎭操)도 있었다. 이 중 추조(秋操)는 충실하게 시행되었으나 합조는 1694년(숙종 20)부터 잠정적으로 폐지되어 18세기 후반까지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수조(水操)는 통영의 전령(傳令)을 받아 거행하게 되는데 영장(營將)이 된 수사를 필두로 하여 관하의 진장(鎭將)과 속읍의 수령이 파총(把總) 혹은 초관(哨官)이 되어 조련에 참여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그런데 경상좌수영의 속읍으로서 수군의 초관이 된 울산부사와 기장 현감은 각각 경상 좌병영과 동래 독진(獨鎭)의 육조(陸操)에도 참가해야 하므로 간혹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했다. 수조와 육조는 본래 경중(輕重)이 차이가 없어 군사의 기율이 모두 엄격하므로 둘이 상치하면 수군은 초관(哨官)이 된 수령이, 육군은 좌수(座首)가 데리고 참가하도록 했다.

수조와 함께 경상좌수사의 대표적인 업무였던 전최(殿最)가 있었다. 예하 7진의 장수의 근무 성적을 평가하는 것으로 그간의 고과를 매년 6월과 12월에 감영 및 통영과 함께 의논한 후 장계(狀啓)를 만들어 올렸다. 이는 수사가 대상이 된 예하 7진의 진장(鎭將)과 소속 전선(戰船)의 대장들을 직접적으로 통할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이었으며 전최(殿最)의 대상자들은 이로 인해 파직(罷職)될 것을 두려워했다. 이 때문에 전최를 앞두고 선처를 청탁하고자 개운포와 두모포의 만호가 본영의 비장청(裨將廳)에 뇌물을 바치는 사건이 발생하여 수사가 엄하게 처벌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경상좌수사는 위와 같은 정기적인 업무 외에도 비정기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업무도 많았다. 비정기적인 업무는 일정한 기한이 없는 것으로서 일상적으로 해야 하는 일과 어떤 사건이나 일이 생기면 그때마다 해결해야 하는 일도 처리해야 했다. 물론 수사의 직무는 중요한 직임이었던 만큼 임기가 끝나는 동안 어느 하나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그것들이 대부분이었다.

우선 일상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업무에는 관하의 진보 및 관할 읍·민의 관리·감독과 환곡 행정 그리고 봉산(封山)과 봉수 및 병선을 비롯한 각종 군기(軍器)의 관리와 군정(軍丁)을 관리하는 일 등이 있었다. 주지한 바와 같이 수사는 지방관으로서 자신이 관할하는 구역에 거주하는 민호(民戶)의 생활을 안정 및 향상시킬 책임이 있었다. 따라서 수사는 관할 민호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각 동(洞)에 전령(傳令)을 내려 각 호(戶)의 성별, 가구(家口)를 비롯하여 보유하고 있는 전답 및 우마(牛馬)와 곡식 등의 수량을 조사하여 성책(成冊)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동시에 극심한 흉년에 대비하여 술을 빚어 곡식을 축내는 일이 없도록 양조(釀造) 금지령을 내리기도 했다.

또한 관하의 진(鎭)도 관할하는 마을이 따로 있어 이곳의 진장(鎭將)도 수사(水使)와 같이 각 민호를 돌봐야 했다. 이에 다대진 첨사는 장맛비로 유실된 전답 독과 무너진 가옥을 수축하는데 장정(壯丁)을 조달해주며 각 읍이 서로 도울 것을 독려하는 전령(傳令)을 관할 마을에 보내는가 하면, 마을을 돌아다니며 행패를 부리는 유임(儒任)이나 향임(鄉任)과 이러한 민폐를 목인하는 동임(洞任)을 신칙(申飭)했다.

한편 환정(還政)은 바로 환곡과 관련된 행정을 말하는 것으로서 빈민을 구휼하고 군자미(軍資米)를 매년 새로운 곡식으로 전환하고자 한 것이다. 조선 후기가 되면 춘궁기에 농민들에게 빌려준 곡식을 추수 뒤에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 국가 재정이 날로 어려워져 갔다. 특히 경상좌수영은 각종 명목의 비용으로 재정 지출이 많아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환곡제 운용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으므로 수사는 관할 민호(民戶)에 대여한 환곡을 거두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했다. 이는 관할 민호뿐 아니라 수영(水營)의 재정 문제와도 직결되는 문제여서 조선 후기에 경상좌수사는 재임 기간 내내 환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갖은 방법을 동원하며 술한 공문(公文)을 써내야 했다.

본영(本營)의 부족한 환곡을 여유가 있는 읍(邑)의 환곡으로 이전하여 획급(劃給)해줄 것을 관찰사에게 누차 알리는가 하면, 고성현의 남는 종자벼로 충당하라는 관찰사의 회제(回題)로 고성현에 빨리 그 기일을 알려줄 것을 재촉하는 관문(關文)을 보내기도 했다. 또 관하의 서생진 전첨사(前僉使)가 환곡을 함부로 범한 일에 대해 엄하게 징벌하는 등 경상좌수사는 관하의 군민(軍民)을 구제하기 위해 환정(還政)에 많은 애를 썼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관할 읍·민의 관리나 환곡 행정이 수사의 일반 행정 업무였다면 병선을 비롯한 각종 군기(軍器)와 봉수의 관리, 송정(松政) 그리고 군정(軍丁) 관리 등의 업무는 수사의 군사 행정 업무를 대표하는 것이다.

조선 후기에는 재해(災害), 기근, 전염병과 임진왜란 이후 사회경제적인 불안정을 비롯한 삼정 문란과 같은 재정 악화로 인해 수군 훈련인 수조(水操)가 수시로 정지되는 등 수군의 방어 능력이 떨어지고 기강이 해이해졌다. 이 때문에 주楫(舟楫)과 군기(軍器)의 관리는 자연히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다. 이에 수사는 자신의 소관 업무로서 매 연말에 병선 및 집물(什物)의 수를 갖추어 병조에 보고하는 일, 연한이 찬 전선(戰船)과 병선의 부패 여부를 살펴 왕에게 보고하는 일 등에 있어 심각성을 느꼈다. 병선(兵船)은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을 허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군사들이 개인적으로 겨울철 어로·채취시 해한(海漢, 즉 바다사람)들에게 세(稅)를 받고 배를 빌려준 일에 대해 엄히 처벌하고 이렇게 군기(軍器)를 함부로 하는 폐단이 다시는 없도록 친비(親裨)로 하여금 적간(摘奸)하게 하며 집이(執頃)한 것은 개·보수하여 다시 보고할 것을 주사(舟師)가 있는 각 읍진에 관문(關文)을 보내 재차 독촉했다. 그런데 경비만 받고 허위로 보고하는 일이 발생하자 수사는 관찰사에게 이를 엄하게 처벌할 것을 첩보하기도 했다. 이는 변방의 업무에 있어 더없이 중요한 임무였다.

이밖에 봉수(烽燧)의 유지 관리 또한 경상좌수사에게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업무였다.

봉수(烽燧)는 변경의 정세를 살펴 중앙에 급히 전달하는 군사용 통신수단으로서 조선 후기 경상좌수영의 봉수망에는 동래부 관내의 황령산봉수, 계명산봉수, 응봉봉수, 간비오봉수, 구봉봉수를 비롯하여 기장, 울산, 경주, 장기, 영일, 홍해, 청하, 영덕, 영해 등 경상좌도 연해읍에 분포해있는 연변봉수들까지 총 27곳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중에서도 경상좌수영은 좌표(左標)에 있어서는 간비오봉수의 봉군(烽軍)이 최초 관측을 보고하도록 하고 우표(右標)로는 구봉봉수의 봉수군이 최초 관측하여 보고하도록 했다. 한편 동래부 관내의 5개 봉수대는 각각 관장하는 기관이 달랐는데 황령산과 계명산 봉수는 동래부에서, 응봉봉수는 다대진, 구봉봉수는 부산진, 간비오봉수는 경상좌수영에서 각각 맡아서 관리했다.

또한 봉산(封山)을 관장하는 일도 좌수영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였는데, 특히 전선(戰船)을 고쳐 만들 때 필요한 많은 재목을 봉산에서 조달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함부로 벌목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소나무는 수군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던 것으로 봉산이 있는 각 고을의 수령도 항상 봉산을 점검해야 할 정도로 송정(松政)은 국가적인 관심사 중 하나였다. 때문에 경상좌수사는 임기 동안 동래, 기장, 울산, 경주, 장기, 영일, 홍해, 양산, 밀양 등지에 총 28곳의 봉산을 관리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다음 군정(軍丁) 관리 업무는 군역(軍役)의 충당과 군포(軍布) 징수가 주요 골자로서 수영(水營)이 유지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육·수군을 막론하고 군대가 운영·유지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군정(軍丁)과 군포였다. 이 때문에 당시 16~65세의 양인 남정(男丁)들은 군적(軍籍)에 편입되어 평상시에는 생업에 종사하다가 특정 시기가 되면 이 군적에 따라 소속 군영(軍營)에 입번하여 군역에 종사해야 했다. 한편 육군 정병(正兵)이 4번 교대로 1년간 3개월을 복무했던 것에 비해 수군은 2번 교대로 1년에 6개월을 복무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해상 방어라는 임무의 특성상 역(役)의 부담이 훨씬 컸다. 게다가 원칙적으로 수군에게는 잡역을 면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연해 둔전의 경작, 어염(魚鹽), 병선의 수리, 조운, 축성 등의 각종 잡역과 요역 및 공물·진상품의 비납(備納)에도 수시로 동원되었다. 이에 양인 남정(男丁)들은 수군역을 꺼리게 되었고 결국 포(布)를 받고 군역을 면해주는 방군수포(放軍收布)와 일정한 대가를 주고 군역을 대신시키는 대립납포(代立納布) 현상이 심화되었다. 수군은 특성상 수영 주변에 살며 물에 익숙한 자들이 입번(入番)하게 되는데 경상좌수영에는 관할 읍민 즉 동래부 관내의 양인 남정(良人男丁)들이 그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기본적으로 수영에 정식 차정(差定)된 자가 아니라 원래 동래부나 또 다른 기관에 정식 차정되어있는 자들이었다. 이들은 일정한 대가를 받고 수군에 고용되긴 했지만 워낙 고역이었고 다른 원래의 역(役)에도 동원되어야 했기 때문에 첩역(疊役)의 피해자가 되었다. 반면 원래 경상좌수영에 차정된 경상좌도의 양인 남정들은 거리가 멀고 내륙민으로 물에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번(番)을 서는 대신 돈을 내는데, 이 방전(防錢)이 바

로 수군에 고용된 자들에게 대가로 주는 것이었다. 방전은 매달 각 읍에서 거두어들인데 수군의 운용과 직결되는 것으로 절대 지체되어서는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체납이 되는 일이 잦았다.

이상에서 본 경상좌수사의 일상적인 업무 외에도 불시에 혹은 수시로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기에는 각종 범죄의 죄인을 적간(摘奸)하여 처벌하거나 상부로 압송하는 일 또는 관할 민의 정소(呈訴)를 처분하는 일 등의 사법행정 업무가 있었다. 수사는 자신의 제반 업무와 관련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일정한 사법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소홀히 하거나 남용해서도 안 됐다.

또한 수사는 바다를 관장함으로써 바다에서 일어나는, 또는 바다 및 수군과 관련한 제반 행정업무의 폐단(海弊)을 교정·개혁해야 했다. 예를 들면 수영의 전선(戰船)을 개조하는 일로 동래의 동하리(東下里), 남촌리(南村里)와 부산의 선주(船主) 등을 격군(格軍)으로 뽑아 정하는 일에 담당 감색(監色)이 농간을 부리는 폐단, 본영과 각 진(鎭)의 사후선은 군기(軍器)로서 아무데나 사용할 수 없으며 원래 물자 운송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물(公物) 운반에 이용되는 폐단 그리고 울산부에서 관하 선주(船主)에게서 일용할 목청어(目靑魚)를 사사로이 책납(責納)하게 한 폐단 등을 수사와 각 진장(鎭將)이 함께 소상하게 논의하여 관찰사에게 처분해 줄 것을 첩보한 것이다.

한편 똑같이 왜구의 침입에 대비한 삼도(三道)의 수영 중 유독 경상좌수영만은 같은 지역 내에 왜관(倭館)과 함께 자리하고 있어 대외 행정 업무에 있어 가장 구체적인 역할을 맡고 있었다. 특히 조선 후기에는 연해에 자주 출몰하는 이양선(異樣船)을 조치하는 문제가 대두했는데, 이는 봉군(烽軍)이 먼바다에서 들어오는 이양선을 발견하고 이를 각 영문(營門)에 보고하는 것으로 업무가 시작되었다. 간비오봉군의 보고를 받은 경상좌수사는 재빨리 각 진(鎭)에 알려 그 동향을 파악하고 통영 및 감영에 보고해야 했고, 봉군의 보고를 받은 진장(鎭將)과 동래부사도 이를 재빨리 감영·통영·수영에 보고해야 할 책임이 있었으며, 수사의 지시를 받아 수영의 우후 및 역학(譯學)과 함께 문정(問情)에도 함께 임해야 했다.

이는 변방에 관계되는 업무로서 절대 일을 지체시키거나 실수를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바다의 사정에 따라 낮 밤의 사정에 따라 정확하게 보고되지 못하거나 보고가 지체되는 상황이 생기기 마련이었다. 이에 수사는 각 진(鎭)에 관문(關文)을 보내 이러한 사정의 곡절을 물어 신척하며 좀 더 각별히 관측하고 신속히 보고하여 기일에 맞춰 장계를 올릴 수 있도록 지시했다. 또한 각 진장(鎭將)은 담당 봉군과 봉대 별장(別將) 및 봉대 감고(監考) 등을 심문하고 엄하게 신척했다. 이와 더불어 왜선(倭船)이 표류해 들어오는 경우와 왜관과 관련된 문제도 모두 수사의 관할 사항이었다. 그런데 표류 왜선과 왜관에 관련된 일은 수사보다도 동래부사와 부산진 첨사가 실질적인 담당자로서 그 역할과 책임이 막중했다.

23 경상좌수영의 성곽

1) 경상좌수영성지의 위치

경상좌수영성지는 행정구역상 부산시 수영구 수영동 229-1번지 일원에 자리 잡고 있다. 수리 좌표는 35° 10'13.67"북, 129° 06'56.52"동이다. 주변의 수계(水系)를 살펴보면 남해안의 수영만에 유입되는 수영강(舊 大川) 하류 우안(右岸)에 있는 소천(小川)과 중천(中川) 사이의 침식성 독립 저 구릉에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수영강이 위치한 곳은 조수(潮水)의 영향을 받는 곳이며, 또한 강물이 바닷물과 섞이는 기수역이다. 한편 수영강은 조선시대 동해와 남해의 기준이 되어³⁰⁾ 수영강의 좌안(左岸)은 동해이며, 우안(右岸)은 남해이다. 이처럼 경상좌수영성은 동해안과 남해안의 경계 지점에 자리 잡고 있었다.

침식성 독립 저 구릉은 북쪽에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 소천, 남쪽에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 중천이 각각 구릉을 침식시켜 동서로 긴 형태를 이루었다. 동쪽에는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수영강이 동쪽 구릉 말단부를, 서쪽에는 과거 소천과 중천이 구릉을 침식시켜 전체적으로 평면이 ‘ㄴ’ 자형인 능선을 형성하고 있다. 능선은 다시 부분적인 침식으로 인해 3개의 봉우리를 형성하고 있으며, ‘ㄴ’ 자형 능선의 서쪽 시작점에는 2기의 봉우리가 있다. 나머지 하나의 봉우리는 꺾임부(수영사적공원 내 야외놀이마당)에 위치하며, 이 봉우리에서 동쪽 말단부까지는 침식 지형으로 단면이 ‘ㄴ’ 자형이다. 수영사적공원에 있는 봉우리에서 현 수영동 행정복지센터까지는 다소 급한 경사를 이루다가 여기서 동쪽 말단부 즉 동문까지는 매우 완만하게 높아진다. 동문 인근 지역은 수영강에 의해 매우 급하게 침식되어 급한 경사를 이루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지금은 퇴적물이 쌓여 경사면을 볼 수 없다.

침식성 저 구릉의 꺾임부 봉우리는 해발고도 26.4m이고, 동쪽의 말단부는 해발고도 5~6m로, 구릉은 서고동저형(西高東低形)이다. 경상좌수영성지의 동쪽 성벽은 구릉 말단부에, 서쪽 성벽은 놀이마당이 있는 봉우리에 조성되어 있다. 북쪽 성벽은 능선의 북쪽 말단부에, 남쪽 성벽은 능선의 남쪽 말단부에 각각 위치하고 있다.

이 침식성 저 구릉을 이루는 기반암은 중생대 백악기 유천층군·대덕층군(K3)이다.³¹⁾ 「정밀토양도」에서 침식성 저 구릉의 정상부는 봉산통과 안룡통의 적황색토, 동쪽의 구릉은 석토통의 퇴적토가 각각 분포하고 있다. 그리고 소천과 중천 그리고 수영강 우안에 금지통의 회색토가 분포하는데, 회색토는 하해(河海) 혼성 층에서 나타나므로 과거 바다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소 중천이 있는 수문까지 하해 혼성 층이 나타나므로 과거에 바다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북문과 동문 사이에도 하해 혼성 층이 있어 과거 바다로 추정되며, 이곳은 표고가 가장 낮은 곳이기도 하다.

30) 海防 南海之岸 自慶尙道 東萊 南乃浦 至全羅道光陽向西 乍轉而南 自順天至海南, 1808, 『萬機要覽』. 남내포는 고려대 소장 地圖 二의 동래 지도에서 오류도의 북쪽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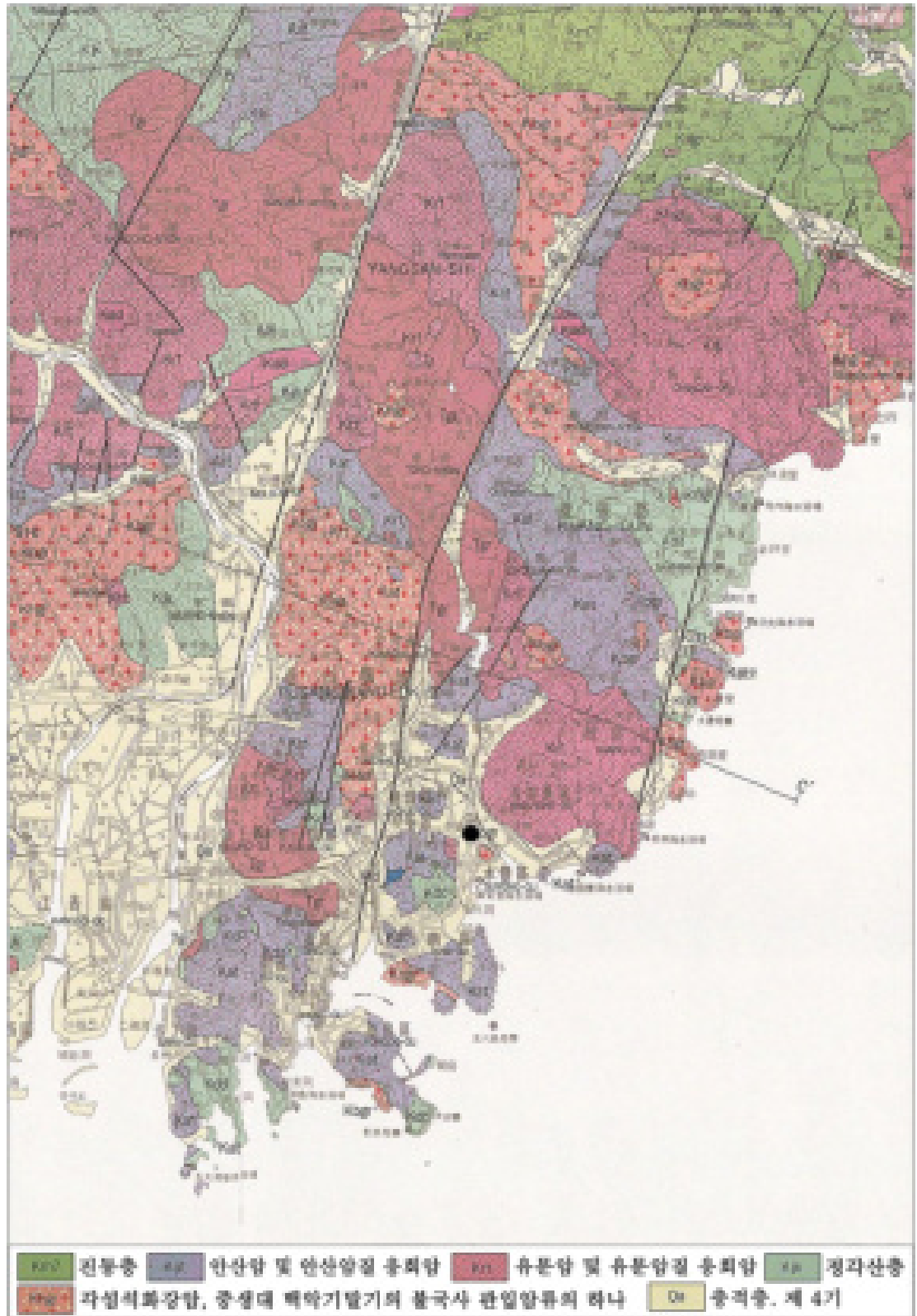
31) 한국지질자원연구원(1:1,000,000 지질도, <https://data.kigam.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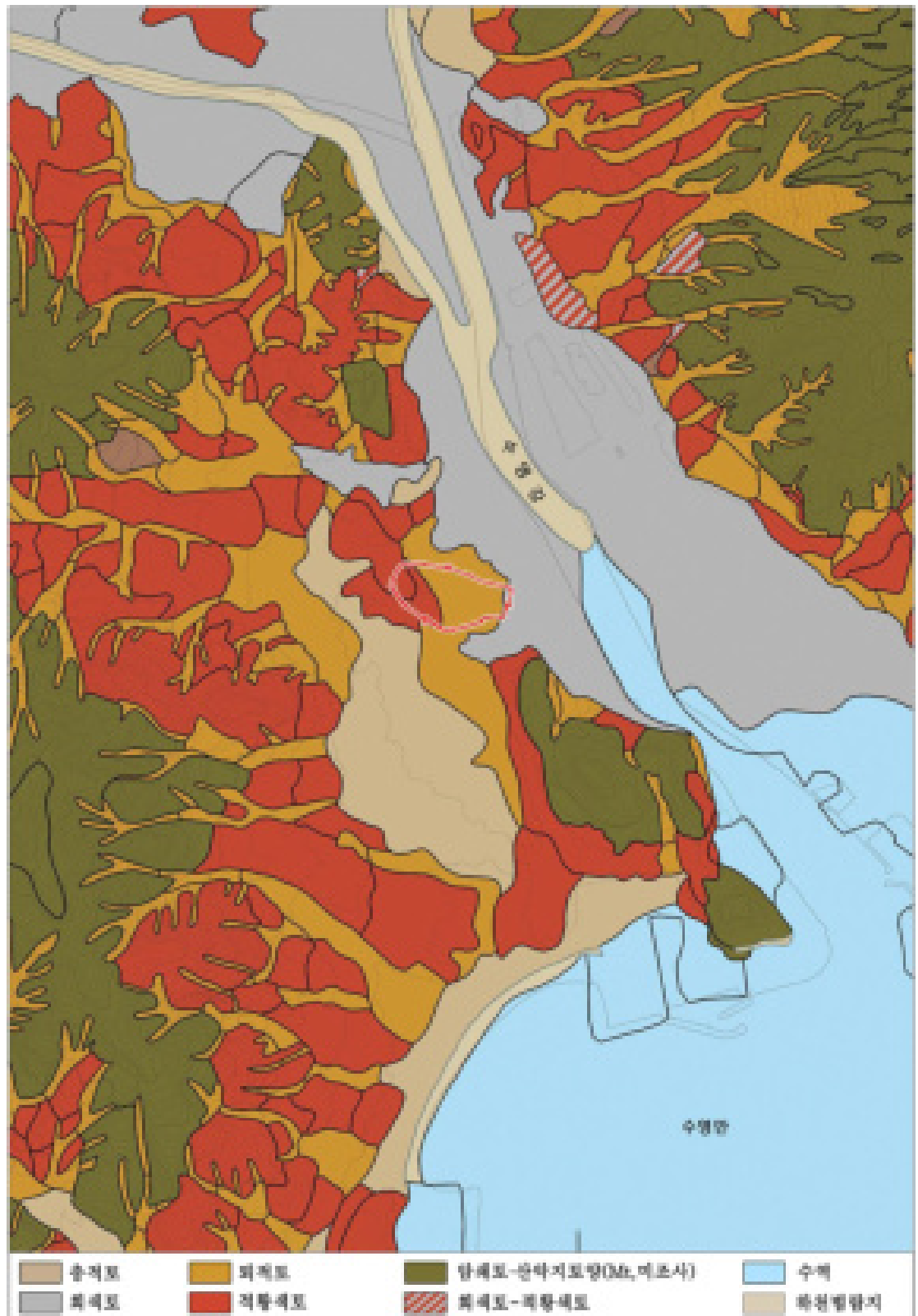
경상좌수영성지 주변의 문화재와 문화 유적 (S=1/25,000 지형도)



경상좌수영성지 주변의 문화재와 문화 유적(Daum 위성사진, S=1/25,000)



경상좌수영성지(●) 주변의 지질 (S=1/250,000)



경상좌수영성지 주변 일대의 대토양군 분포 (S=1/2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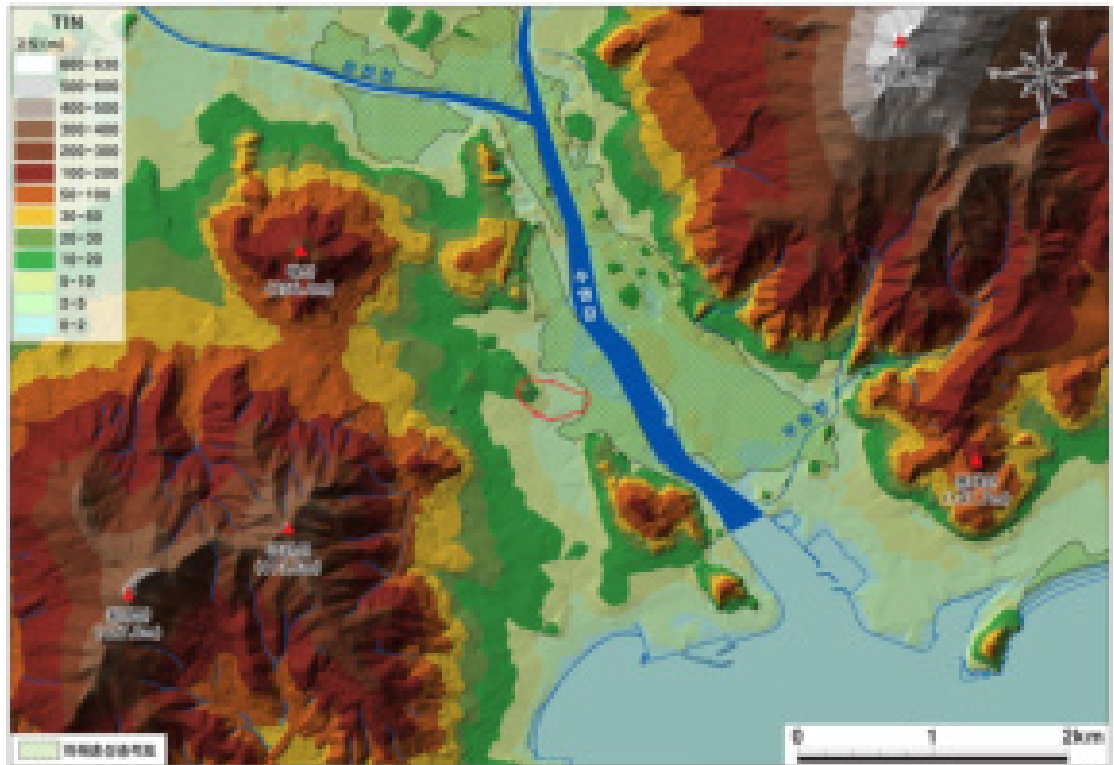
경성좌수영성지의 공간적 범위 및 현황 (S=1/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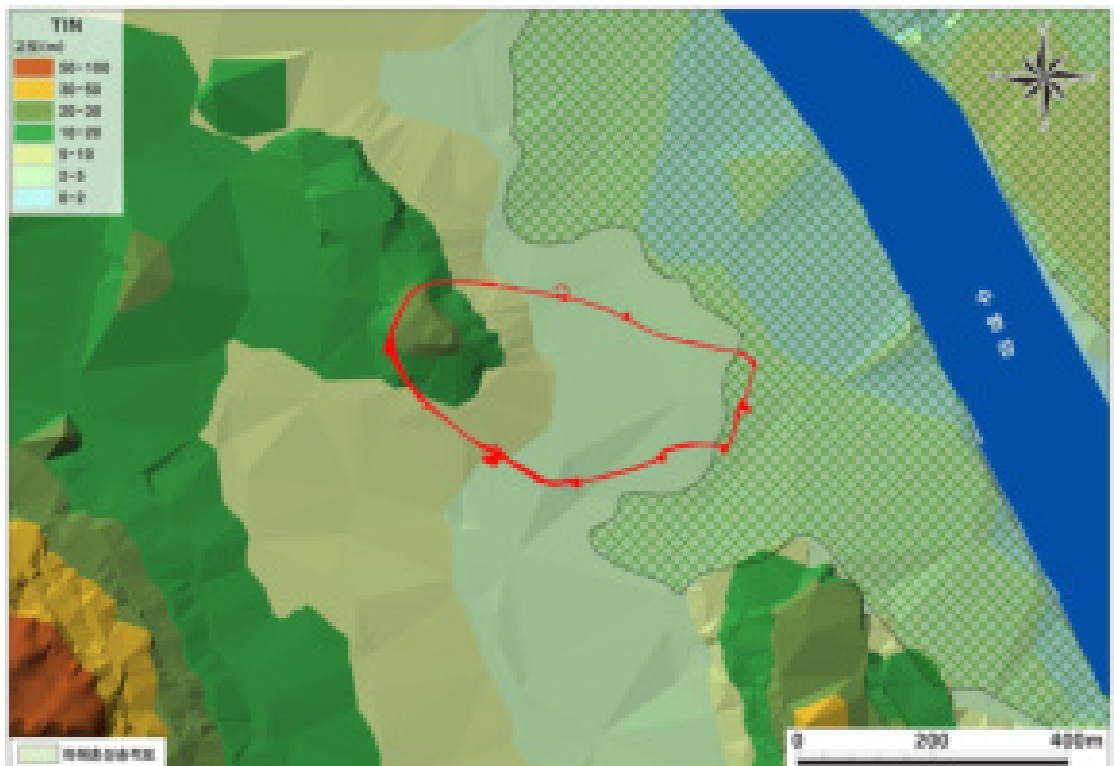
지적원도에 보이는 경상좌수영성지(1913년 측량, 국가기록원 제공)



1950년, 경상좌수영성지 항공사진(국토지리정보원 제공)



경상좌수영성지 주변의 광역 지형도와 TIN Model (1/50,000)



경상좌수영성지 주변 지형도(확대)와 TIN Model (1/10,000)

동래읍성 서편에 동래왜성(東萊倭城)이 입지하는 것으로 보아 조선 중기에는 거기까지 선박이 들어올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50년도 항공사진에서도 수영강 우안(右岸)에 있는 자연 제방(조선시대 염전) 및 그 서편의 배후 습지(조선시대 논)를 확인할 수 있다. 즉 경상좌수영성지의 북문지와 북동 성벽의 북쪽에 배후 습지가 있었고, 성벽의 북동쪽 모서리는 자연 제방과 연결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 성벽은 배후 습지, 자연 제방과 연결되어 있고, 남동, 남중 성벽은 배후 습지 내지 중천의 옛 하도(河道)와 이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남문과 북문은 지대가 낮은 이곳을 피해 위치했으며, 동문은 배후 습지와 연결되어 있어 다른 지역과 연결되기 어려웠으며, 따라서 동문은 선소(船所)와 연결되는 특수한 목적의 문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2) 경상좌수영성의 축성 및 증·개축

현존하는 경상좌수영성의 경우 초축 및 수축·개축 시기가 뚜렷하지 않다. 이는 성곽에 대한 문헌 기록이 단편적이고, 전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과도 관련이 있다. 수차의 시발굴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축 시기 그리고 성벽의 구조 형식 등을 어느 정도 파악한 정도에 머물러 있다. 현재 일부 구간에만 2~3단 정도의 성벽이 남아있고, 문헌 및 시발굴조사 등을 통해 성문지, 주요 관아지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수군성을 특징짓는 선소 관련 유구는 아파트 및 각종 개발 사업으로 멸실(滅失)되어 지상에서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멸실된 선소(船所) 자리에 대한 시 발굴조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조선 초기의 경상좌수영(경상좌도수군절도사영의 줄임)은 동래현 부산포에 있었다. 그러나 부산에 있던 왜인(倭人)들에게 군사 정보가 썰 수 있다고 해서 1459년에 울산 개운포로 이전했다가 울산에 병영과 수영이 같이 있어 백성들의 부담이 심하다고 해서 1544년에 동래 남촌 해운포(海雲浦, 현 수영구 수영동)로 돌아왔다. 그 후 다시 감만리포로 옮겼다가 1652년에 동래 남촌 해운포(海雲浦)로 되돌아왔다. 1895년(고종 32)의 군제 개혁으로 경상좌수영이 혁파될 때까지 250여 년간 경상좌수영은 지금의 수영동에 자리 잡고 있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23권 동래현 관방조)』에는 조선 초 부산포에 있었던 <좌도수군첨절제사영성>에 대해 “부산포 진성은 현의 남쪽 20리에 있는데 석성이고, 둘레는 1,689척이다” 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둘레가 1,689척이었던 당시 성은 수군첨절제사영(초기 즉 경상좌수영)이 처음 설치되었을 때의 진성이었다. 하지만 이는 조선 초기 <좌도수군첨절제사영성>으로 후대의 경상좌수영성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1544년에 울산 개운포에 있던 경상좌수영을 옮겨온 곳은 해운포영(海雲浦營)이었다. 해운포영은 수군첨절제사 휘하의 수군만호가 통솔하던 연안포소(沿岸浦所)의 하나로, 1514년(중종 9)에 영성(營城)을 축조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동래현의 동쪽 9리에 있다. 1514년(正德, 갑술)에 처음 쌓기 시작한 석성으로 둘레는 1,036척, 높이 13척, 성안에 연못 1개소가 있다” (23권 동래현 관방조)는 기록이 남아있다. 이 기록을 통해 당시 해운포영성의 둘

레가 1,036척이었음을 알 수 있고, 이 성이 서애 류성룡의 『징비록』에 보이는 구 영성(舊營城)이다. 그 후 잠시 감만이포로 경상좌수영을 옮겼다가 1652년(효종 3)에 다시 해운포로 이전했다.

당시 조선의 사정은 1637년(인조 15)에 청과 맺은 「정축약조(丁丑約條)」로 인해 군비 강화 및 성지 수축, 성곽 축조 등을 하기 어려웠다. 임란 때 파괴된 동래읍성도 전후에 복구하지 못하다가 140여 년이 지난 1730년(영조 6)에 비로소 수축했다. 감만이포에서 지금의 경상좌수영성지(해운포)로 돌아왔을 때는 병자호란이 끝나고 16년밖에 지나지 않은 때여서 성곽을 새롭게 수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1692년에 이르러 비로소 좌수사 이만하(李萬夏)가 좌수영성의 성곽을 크게 증·개축하여 지금과 같은 성곽의 모습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영성을 처음 축조한 후에도 여러 차례 수축, 개축했을 것으로 보이나 문헌에는 1692년(숙종 18)과 1873년(고종 10)에 수축한 기록만 남아있다. 선창(船倉, 선소)에 대해서는 1670년(현종 11)과 1728년(영조 4), 1788년(정조 12), 1810년(순조 10) 등 수차례 걸쳐 석축 공사를 한 기록이 남아있다. 문헌에 보이지는 않지만 좌수사가 부임할 때마다 크고 작은 수축 및 개축 공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1692년(숙종 18)에 개축한 기록으로, 18세기 말에 편찬한 『좌수영지』 「성지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인다. “임신년 개축시 동문과 북문 두 곳에 웅성을 축조하고, 훼손·파괴된 여장 327타(垛) 중 198타는 영삼척(營三隻), 66타는 이선(二船), 63타는 포이(包伊)가 각각 맡아 수축하도록 했다(壬申改築時 東北甕城二庫 毀破三百二十七垛內 一百九十八垛 營三隻次知 六十六垛 二船次知 六十三垛 包伊次知). 이 기록으로 17세기 말에 동문과 북문 앞에 웅성을 추가로 축조하고 훼손 및 파괴된 330여 개의 여장을 대폭 수리하는 등 경상좌수영성의 모습을 전반적으로 일신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성곽을 개축·수축한 것으로 보이지만 『내영지』의 「기문조(記文條)」에는 좌수사 이언섭(李彦燮)이 1747~49년에 성문을 개축하고 성첩(城堞)을 수축한 기록만 남아있다. 이언섭은 두 차례에 걸쳐 좌수사로 재임했으며, 그는 축성공사 외에도 원문루(轅門樓), 한동루(閑東樓), 척분정(滌氛亭) 등을 중건하고 단청을 올리는 등 경상좌수영성과 공해의 면모를 새롭게 했다. 이 밖에도 1777년(정조 1)에는 좌수사 류진항(柳鎭恒)이 성첩과 관아를 수축하고, 수륙 병기를 정비 및 수선했다.

18세기 말인 1780년(정조 4)에도 좌수사 신응주(申應周)가 천여 개의 치첩(雉堞)을 수리하고, 포루(鋪樓) 3개, 치성(雉城) 6개를 설치한 바 있다. 다른 문헌에도 포루 3곳과 치첩 6~7곳을 갖추었다는 기록이 보여 조선 후기 좌수영성의 수축공사는 무너진 성벽을 수축 및 보충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겠다. 주목할 점은 18세기 말에 포루, 치성, 여장 등으로 새롭게 정비했다는 점이다. 경상좌수사 신응주는 성첩(城堞)의 수축은 물론 선위정(宣威亭) 즉 장대(將臺)도 지었다. 당시 경상좌수영은 동헌(東軒)과 그 위쪽의 결승당(決勝堂)이 시원하게 들어서고 산정(山亭)과 영파당(寧波堂), 즉 임금을 상징하는 전패(殿牌)를 모신 객사가 위아

래로 비늘처럼 늘어서 있었다.

1740년에 간행된 『동래부지(東萊府誌)』 「관방조」에 “좌수영성은 해운포의 옛터로… 석성(石城)이었으나 지금은 거의 무너졌다”는 기록이 있어, 이 기록으로 보아 성곽의 유지 관리를 제때 하지 않아 무너지고 황폐해진 성곽을 40여 년이나 지나 수리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 성곽 개축공사는 1873년(고종 10)에 있었다. 1894년에 간행된 『영남영지(嶺南營誌)』에는 당시의 좌수영성 성곽 개축공사 기록이 남아있다. 이밖에 1872년(고종 9) 8월부터 1874년 5월까지 좌수사로 재임한 유기대(柳冀大)는 동문, 북문에 석홍예를 시설했다.

1895년(고종 32)에 간행된 『영남영지(嶺南營誌)』에 보이는 조선 말기의 경상좌수영성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석성으로 규모는 둘레 1,193보(步), 높이 13척, 부속시설로는 여장 375타, 옹성 3곳, 치성 6곳, 동문 누각 6칸, 남문 누각 홍예 6칸, 북문 누각 3칸, 포루(鋪樓) 3곳을 갖추고 있었다. 체성(體城)과 여장, 치성, 포루 등의 규모는 18세기에 간행된 다른 문헌의 기록과 다르지 않다.



경상좌수영 영지도형(營址圖形, 1872년 지방지도)

『영남읍지(嶺南營誌)』에는 성문의 형태에 대해 남문에만 홍예(虹蜺)라 표기하고, 동문과 북문에는 칸수만 표기했다. 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고종 대 좌수사 유기대가 동문과 북문에도 석홍예를 새로 시설했으며, 그 외 공역(工役)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 수 없다.

수영사적공원에 남아 있는 좌수사 유기대의 영세불망비에 ‘좌수사 유기대가 부임하고 한 두 해 동안 수영을 크게 키우고 둔전(屯田)을 설치해서 기계를 수선했으며 루(壘), 즉 진지를 견고하게 하고 군사의 수를 늘였다’는 내용이 있어 그가 퇴락한 좌수영의 성곽과 공해를 수축 정비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때는 수시로 출몰하는 양이선(洋夷船)에 대비하여 연해 지역을 중심으로 군비(軍備)를 강화하던 시기로, 좌수사 유기대의 공역은 이 같은 사정을 반영하고 있다. 이때 동래부사 정현덕(鄭顯德)도 대원군의 지시로 읍성, 공해를 대대적으로 개축했다. 따라서 1873년에 있었던 수사 유기대의 성곽 개축공사는 좌수영성의 마지막 수리였다.

그 밖의 수축·개축공사는 기록이 미비하여 자세하게 살펴볼 수 없다. 관련 문헌에 보이는 경상좌수영성의 둘레·높이·여장·치성·옹성 등의 규모는 18세기 이후 여러 문헌의 기록이 크게 다르지 않다. 1692년에 이르러 좌수사 이만하(李萬夏)가 수축한 경상좌수영성의 기본 구조는 1895년 혁파 시까지 큰 변화가 없었으며 성문에 홍예를 추가하고 무너진 체성(體城)이나 여장을 수축하는 정도의 수리 및 개축공사가 있었다.

3) 경상좌수영성지의 범위

(1) 외부 범위

좌수영의 운영과 지원을 위해 동래부에 속한 일부 행정구역을 분리하여 경상좌수영성의 성안뿐만 아니라 주변 마을<영저(營底)마을·성저(城底)마을>을 경상좌수영에 배속시켰다. 좌수영에 속한 행정구역으로 먼저 동래 남촌(南村)을 살펴보고자 한다. 경상좌수영이 자리 잡은 남촌은 본래 동래 관할 구역으로 지금의 면(面) 단위였다.³²⁾

『내영지(萊營誌)』의 기록에 “남촌은 영내(營內)로 서삼리, 서이리, 서일리, 동삼리, 동이리, 東一里), 감포리, 축산리, 칠포리, 포이리, 구낙리, 판곶리, 울리, 토현리, 재송리, 동하리, 청사리, 남천리, 분포리, 감만리, 대연리, 용당리, 우암리, 양정리가 있다³³⁾” 고 했다. 『호구총수』에도 “남촌에는 북문외리, 동부리, 서부리, 승정리, 감포리, 축산리, 포이리, 칠포리, 대동리, 남천리, 분포리, 돌포리, 우암리, 감만리, 용당리가 있다³⁴⁾” 고 했다. 근대 지명으로 동래군 남면에 광안동, 남촌동, 남수동, 망미동과 서면의 당감동, 대연동, 우암동, 용호동, 용당동, 감만동³⁵⁾이 속해 있었다. 이 마을들은 현 수영구와 남구, 부산진구 일부에

32) 『萊營誌』, ...建置沿革條...蔚山府 舊開雲浦移設于 東萊府十里設南村地...

33) 『萊營誌』坊里條 ...營內 西三里(營基), 西二里(水門), 西一里(東門), 東三里(山亭), 東二里(北門), 東一里, 甘浦里, 丑山里(今廢), 漆浦里(今廢), 包伊里, 求樂里, 板串里(在營東五里), 栗里(在西五里), 兔峴里(在北五里), 栽松里(在東五里), 東下里(在東五里), 靑沙里(在東二十里), 南川里(在南十里), 盆浦里(在南二十里), 戡蠻里(在南東二十里), 大淵里(在南十五里), 龍塘里(在南二十里), 牛巖里(在南二十里), 羊亭里(在西十里) .

34) 『戶口總數(1789)』東萊條 ...南村面 北門外里, 東部里, 西部里, 崇禎里, 甘浦里, 丑山里, 包伊里, 漆浦里, 大洞里, 南川里, 盆浦里, 芻浦里, 牛巖里, 戡蠻里, 龍塘里...

35) 越智唯七, 1917, 『新舊對照 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 pp. 594~595.

걸쳐 있는 황령산 주변 수영강과 동천 사이에 위치했고, 이들 마을을 관리하는 공해로 면소(面所)가 있었다. 경상좌수영은 군현의 치소(治所)와 달리 풍수상의 진산(鎭山)은 따로 두지 않은 특징을 보인다. 향교·성황사를 비롯 단묘(壇廟) 건축인 사직단, 여제단도 확인되지 않는다. 경상좌수영의 외부에는 감포, 축산포, 칠포, 포이포 등 4개 진(鎭)이 영저(營低) 마을에 각각 배치되어 있었다.³⁶⁾

(2) 경상좌수영성의 해로(海路)

일본(倭)과 상통(相通)하는 해로 중에서 먼저 일본에서 조선으로 통하는 해로(海路)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만기요람』의 「군정편 4」에는 해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고, 이항복(李恒福)도 왜구의 대책에서 해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³⁷⁾ 첫째, 규슈(九州)의 고토(五島, 나가사키현 고토열도)에서 동남풍을 타고 삼도(三島, 현 거문도)로 와서 밤을 지내고, 선산도(仙山島, 현 청산도)를 지나 바로 고금도(古今島)와 가리포(加利浦, 현 완도향) 등의 방면으로 출입했다. 둘째, 대마도에서 동북풍을 타고 연화도(蓮花島)와 욕지도(欲智島) 사이에 이르러서 밤을 지내고, 곧장 남해의 미조(彌助)·방답(防踏) 등의 지방으로 진입했다. 이 해로들은 전라도로 입구(入寇)하는 뱃길이었다. 그런데 그 뱃길이 상당히 먼 거리여서 결코 아침에 출발해서 저녁에 닿을 수 없으며, 반드시 중간 섬에서 밤을 지내야 한다. 바람 형편이 좋은 때는 바다에서 정박했다가 이튿날 바람이 순풍이 아닐 때는 또 얼마 동안(順夷) 기다려야 된다.

이른바 연화도와 욕지도는 바로 경상도우수영(右水營)이 있는 곳인데, 연대(도)와 탁 트여 가로막힌 것이 없어 적선(賊船)의 왕래를 뚜렷이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오도의 적이 거문도와 청산도를 지나 고금도를 침범하는 일은 늘 뜻밖에 일어나며, 마도의 적이 연화도·욕지도를 거쳐 남해 등지에 침입할 경우 금방 알아차린다. 다만 이것이 대마도에서 부산에 이르는데, 동풍을 만나면 금방 도달할 수 있어 부산에서 믿는 것은 좌수영뿐이었다.

그러나 좌수영과 대마도는 반대 방향에 있고 바람의 순역(順逆)도 달라 적이 순풍을 이용하여 부산으로 향하게 되면 좌수영에서 도리어 역풍이 된다. 더구나 물운대와 해운대 아래에는 큰 물결이 세차서 배 다니기가 불편하니 갑자기 경보를 접하더라도 서로 구원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므로 적들로서는 자질구레한 한낱 도적으로서 그 목적을 노략질에 두고 몰래 출몰하는 자들이라면 전라도에서 주의해야 할 것이고, 만일 대군을 가지고 큰길로 오는 목적이 공격과 함락에 있는 것이라면 경상도가 적의 공격을 받는 문호(門戶)가 된다. 임진왜란 당시 왜적들은 부산포로 침입했다. 그러므로 수군 대장을 부산에 두고 남은 군병을 나누어 전내량의 입구를 지키고, 고금도의 앞을 점령해야 장구한 계책이 될 것이다.

36) 故慶州之甘浦，寧海之丑山浦，興海之漆浦，長鬚之包伊浦，壬辰以後知其爲無所用。故自本道監營狀聞，移處於東萊水營城底，此蓋水營策應之所，而非以移處之地爲關陬要害而然也。(『英祖實錄』 73권, 영조 27년 1월 3일 신축 1번째 기사)

37) 『고전국역총서 萬機要覽Ⅱ』, 재단법인 민족문화추진회, 1989(중판), 476-478.

한편 김세렴도 왜구(倭寇)에 대한 대책에서 좌수사가 매년 3월에 부산을 방어하던 것을 ‘풍화(風和)’라 하고, 8월 이후에 ‘풍고(風高)’라 하여 방어를 그만두었다. 통영에서 부산까지가 3일 길이니 적이 만일 바람을 이용하여 돛을 올린다면, 이는 우리 배로서는 역풍이 된다. 부산포에서 가덕도까지는 1일 거리이다.³⁸⁾ 또한 부산포와 경상좌수영은 대마도에서 울산 염포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어 해방(海防)에서 가장 중요한 곳임을 알 수 있다. 조선 초기에는 제포, 부산포, 염포를 각각 운영했으나 삼포왜란을 계기로 부산포로 통합되어 한일 외교에 중요한 거점이 되었다. 그래서 부산포는 대규모 왜적의 방어와 왜관(倭館)의 통제를 위해 조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경상도 남부지역의 교통로와 삼포 개항지

(3) 경상좌수영성의 광역 육로

영남대로는 조선시대 동래와 한양을 이어주던 도로였다. 이 영남대로는 고려시대 개성과 일본 후쿠오카(福岡)와 연결되는 동남 축선 상의 도로이기도 했다. 이 대로는 한양에서 동래 부산포에 이르는 최단(最短) 길로, 총연장 약 380km이다. 영남대로는 노선별로 중로(中路) · 좌로(左路) · 우로(右路) 3개의 노선으로 구분되며, 왜(倭)의 사신과 조선 통신사가 이

38) 재단법인 민족문화추진회, 1989(중판), 『고전국역총서 만기요람Ⅱ』, 478~479.

용하던 길이기도 했다.³⁹⁾ 임진왜란 때에 왜군은 동래를 교두보로 삼고 제1군은 중로를 제2군은 좌로를 제3군은 우로를 이용하여 한양으로 진격했다.

1426년(세종 8)에 삼포를 개항한 후 왜(倭) 사신의 상경로 상에 있는 군현의 접대 및 지원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영남대도가 상경로로 확정되었다. 상경로 주변의 백성들에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경로와 귀국길이 겹치지 않도록 하였다. 즉 왜의 사신이 울산 염포로 들어오면 울산·경주·영천·단양·충주·여흥·양근·평구를 경유하는 좌로(左路)를 상경로로 이용했다. 부산포로 들어오면 동래·양산·밀양·청도·대구·인동·상주·문경·연풍·괴산·광주·광진을 경유하는 중로로 상경했다. 웅천 내이포(제포)에 정박하면 창원·성주·옥천·청주·진천·죽산·용인·한강을 경유하는 우로를 상경로로 이용했다.

각 포구의 공궤(供饋) 및 얼음이 녹았을 때 수로(水路)를 이용한 왕환(往還)은 예조의 계목(啓目)에 따라 네 가지 상경로를 확정해 두고 있었다.⁴⁰⁾ 염포·부산포·내이포(제포)에서 상경하는 도로로 각각 좌로·중로·우로를 사용하도록 했고, 내륙 수로로는 낙동강 수로를 이용했다. 수로(水路)는 휴대 화물이 많고 무거울 때 이용했는데, 그 기착지는 김해 불암진·삼랑진·수산진·용당포·주물연진·무계진·왜관·동안진·낙동진·여차니진 등이었다.⁴¹⁾ 임진왜란 이후 왜사(倭使)의 상경은 금지되었고, 사절단은 초량왜관에서만 체류하도록 했다. 그래서 외교 활동은 초량왜관에서만 허용되었고, 영남대로는 우리나라 통신사(通信使)만 이용했다.

(4) 경상좌수영성의 세부 육로

좌수영에서 부산진과 동래부 그리고 해운대로 통하여 기장으로 통하는 길이 있다. 먼저 동래부에는 토현(兎峴)을 통해 온천천에 있는 이섭교(利涉橋)를 건너 동래읍성과 휴산역에 이르며, 거리는 10리였다. 이 휴산역을 통해 십휴정과 소산역을 거쳐 배야현을 넘어 양산읍성에 이른다. 부산진에는 두응현(斗應峴)과 판현(板峴)을 넘어 이르는데, 거리는 20리(里)이다. 부산진에는 영가대를 통해 일본으로 출항했고, 부산진에서 더 해안을 따라 서쪽으로 가면 왜관(倭館)에 도달할 수 있었다.

기장에 이르는 길은 경상좌수영성의 남쪽 포이진(包伊鎭)을 통과하여 진선(津船)을 타고 수영강 하구를 건너 동쪽 해운대를 끼고 돌면 기장읍성에 이르며, 거리는 약 30리(里)이다.

39) 영남대로는 최영준이 붙인 명칭이며 慶尙忠淸大路, 慶尙大路, 東南低釜山第四路 등으로 불렸다. 이대로 상에 있는 밀양 삼랑진에 있는 작원진석교비에는 대로(大路)로 기록되어 있다. 보고서에서는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최영준의 제안을 따라 영남대로나 했음.(최영준, 1983, 『嶺南路景觀變化』, 『地理學』 제28호, p.9.)

40) ... “故各官各驛之民, 奔走失農, 漸以流亡... 下政府諸曹同議, 僉曰: “由鹽浦來者, 經蔚山, 慶州, 安東, 榮川, 丹陽, 忠州, 驪興, 楊根, 平丘; 由富山浦來者, 經東萊, 梁山, 密陽, 淸道, 大丘, 仁同, 尙州, 聞慶, 延豐, 槐山, 陰城, 陰竹, 利川, 廣州, 廣津; 由乃而浦來者, 經昌原, 星州, 沃川, 淸州, 鎭川, 竹山, 龍仁, 漢江入京。其各浦供饋及解冰時水路往還, 請依啓目施行”。從之, (『세종실록』 55권, 세종 14년(1432) 1월 8일)

41) 김성한, 1966, 「한·낙동 양강의 내륙수로로서의 가치에 대한 연구」, 『지리』 2(1), p.3.
최영준, 2004, 『한국의 옛길 嶺南大路』, p.138에서 재인용.

해안선을 통과하지 않고 기장읍성으로 가는 길도 있었다. 경상좌수영성이 있는 수영강 좌안을 통해 북쪽으로 가면 온천천을 만난다. 수영강의 우안(右岸)을 따라 북으로 계속 가면 구천산[현 옥봉산] 나오고 그 동편으로 돌아 동천교(東川橋)를 이용하여 수영강을 건널 수 있다. 동쪽 석대천을 따라 상류로 가면 기장 신명역(新明驛)이 나오고 이를 지나 이천현(伊川峴)을 넘으면 기장읍성에 도달할 수 있었다.

4) 경상좌수영성지의 평면 형태와 규모

(1) 평면 형태

경상좌수영성의 평면 형태는 지형에 맞추어 쌓은 타원형의 석성으로, 동서축이 길고 남북축이 짧다. 동(東)쪽 성벽은 직선을 이루고 있고, 남측 성벽은 남으로 돌출되어 전체적인 양상은 물고기 모양이다. 즉 서측 성벽이 물고기의 머리 부분에, 북 성벽 물고기의 등 부분에 해당된다. 동측 성벽은 물고기의 꼬리에, 남측 성벽은 물고기의 배 부분에 해당한다. 이 같은 평면 형태는 전체적으로 동서로 긴 침식성 독립 저 구릉에 성벽을 축성한 것과 관련이 있다.

남측 성벽이 북측 성벽처럼 직선형을 이루지 않고 남으로 돌출된 비대칭 형태를 하고 있다. 지형적으로도 북쪽이 나란하여 이렇게 돌출되게 쌓지 않을 이유가 없었으며, 남측 성벽은 성벽 중에서 상대 고도가 제일 낮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 이처럼 남측 성벽이 돌출한 이유는 성내 가용 면적을 넓게 하려는 의도와 남측 성벽 가까이 선소(船所)를 두려는 축성 의도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상좌수영 초장기에는 중천들을 따라 남문 부근까지 선박이 운항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정밀토양도」에서 수문(水門)까지 하해(河海) 혼성 층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이 주장은 충분한 근거가 있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 수영강 바닥에 토사가 퇴적되어 하상(河床)이 높아지면서 인해 전선(戰船)의 운항이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2) 성벽의 규모와 용척(用尺)

경상좌수영성의 전체 규모는 지적도에서 성벽의 중앙부를 평면으로 계측했을 때 1,347m 이고, 면적은 108,125㎡(32,765평)이다. 성의 규모는 조선시대 중규모 지방 읍성(성벽 길이 1,000~1,500m)과 비슷하다. 체포진성(둘레 약 1,146m)과 개운포진성(둘레 약 1,265m)도 중규모 읍성에 해당하며, 경상좌수영성은 이보다 조금 큰 규모이다. 하지만 통제영성은 둘레 약 2,850m로 경상좌수영성의 약 2배이다. 경상좌수영성보다 다소 큰 성으로 전라도 좌수영성과 우수영성이 있다. 전라좌수영성지는 둘레가 약 1,600m이고, 전라우수영성지는 둘레가 약 1,872m이다. 전라좌수영성지와 전라우수영성지 모두 대규모 읍성에 해당하나 경상좌수영성은 둘레가 1,347m로 전라도 좌우(左右) 수영(水營)보다 규모가 작다.

표8. 경상좌수영성의 용척(用尺) 비교

척도명 (cm)		척도	9,198척(尺)	7,158척(尺)	비고
황종척 (黃鐘尺)		34.72	3,194	2,485	
		34.48	3,171	2,468	
주척 (周尺)		20.81	1,914	1,490	지적도의 성터 규모와 유사
		20.62	1,896	1,476	
영조척 (營造尺)		31.24	2,873	2,236	
		30.80	2,833	2,205	
조례기척 (造禮器尺, 禮器尺)		28.64	2,634	2,050	
		28.63	2,633	2,049	
횡척(橫尺)		26.40	2,428	1,890	
포백척 (布帛尺)	오례(五禮)	44.75	4,116	3,203	
	준수(遵守)	46.73	4,298	3,345	
	경국대전 (經國大典)	46.80	4,305	3,350	
		46.66	4,292	3,340	
	동사각주 (銅四角周)	49.24	4,529	3,525	
	호조(戶曹)	48.91	4,499	3,501	
1등 양전척(量田尺)		99.36	9,099	7,112	
황종율관(黃鐘律管)		31.25	2,874	2,237	

※ 범례 : 바탕 - 백색 : 신영훈 안,⁴²⁾ 회색 -이종봉 안⁴³⁾(단위: m)

문헌에 보이는 좌수영성의 둘레는 『동래부지(東萊府誌)』 · 『고사신서(攷事新書)』 · 『만기요람』 · 『증보문헌비고』 등에 9,198척으로 되어 있고,⁴⁴⁾ 『여지도서』에는 9,190척(1,531보)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들 문헌에 보이는 성벽 길이의 차이는 8척이다.⁴⁵⁾ 반면 『내영지』 · 『영남영지』에 보이는 경상좌수영성의 둘레는 공히 7,158척(1,193보)이며,⁴⁶⁾ 이는 『동래부지』 등에 기록된 9,198척에 비해 338보(2,032척) 더 짧은 것이다.

표8.은 『동래부지』에 보이는 경상좌수영성의 둘레 9,198척을 기준으로 용척(用尺)을 살펴본바 주척(周尺)을 사용하여 측정한 것으로 보인다. 성의 둘레 9,198척을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1,896m가 된다. 현 지적도에 표기된 성터의 중앙을 따라 측정한 길이인 1,347m와 비교해도 약 549m 더 길다. 『동래부지』에 기록인 성의 둘레 9,198척은 지형 지세 및 옹성과 치성의 외곽 둘레까지 모두 포함한 길이로 추정된다.⁴⁷⁾

42) 신영훈, 1975, 『韓國古建築 斷章/上』, p.83.

43)李宗峯, 2001, 『韓國中世度量衡制研究』, p.110.

44) 城郭條 城周九千一百九十八尺 高十六尺,(『東萊府誌』, 朴師昌, 1740년)

45) 慶尙道 水軍節度營 城池條 周以丈計之則 九百十九丈 以尺計之則 九千一百九十尺 以步計之則 一千五百三十一步 高一丈三尺 步二步一尺,(『輿地圖書』, 1757~1765년)

46) 城池條 周回一千一百九十三步 高十三尺,(『萊營誌』, 1850년)

47) 『경상좌수영성지 종합정비계획』에서도 용척을 주척과 지척으로 추정하였다.

5) 성벽 잔존 현황 및 축조 방법

(1) 선행 학술조사

① 『경상좌수영성지 학술조사보고서』(1990년, 부산대 한국문화연구소)

경상좌수영성지 학술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경상좌수영성은 동서(東西) 방향 장축이 긴 장타원형에 가까운 부정형을 이루고 있다. 서쪽은 해발 27.4m의 독립된 낮은 구릉이고, 그 외 3면은 구릉의 저지대인 평지로 보이나 완전한 평지는 아니었고 나지막한 구릉이라 이에 따라 성의 서쪽과 남쪽 성벽은 구릉의 사면에 성벽을 축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 성의 시설물로는 남문의 웅성 지와 치성 지 2개소를 확인했고, 성벽 상부는 대부분 파괴되어 잔존 유구로 높이 60~260cm, 확인되는 성벽의 총길이는 약 620m 정도라 했다. 그리고 남은 성벽들도 주로 도로와 밭의 축대로 이용하거나 민가의 담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돌과 시멘트로 성벽을 덮어씌운 것을 확인했다.
- 성 내부에 있었던 관아와 여러 부속시설의 흔적이나 위치는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남문의 홍예석과 역대 수사들의 선정비는 확인하고 언급했다.

② 『경상좌수영성지 발굴조사보고서』(2001년, 부산광역시 시립박물관)

2001년에 수행한 경상좌수영성지 고고학적 발굴 성과는 다음과 같음.

- 수영사적공원 내 구릉에 잔존하고 있는 추정 서문지의 남쪽으로 약 200m의 성벽을 대상으로 시굴 갯을 넣어 성벽 축조수법을 조사한바 시굴 갯을 통한 발굴조사 시 지표 아래 20~50cm에서 다갈색 마사토 층 아래에서 생토 층이 드러났음. 5m 간격으로 3개의 시굴 갯을 넣어 조사하여 회백색 복토 층과 두께 50cm 내외의 교란층 아래에 50~70cm 두께의 적갈색 마사점토층이 단단히 다져있고, 성벽 기반석으로 보이는 석재 일부와 바닥에 기와편이 깔린 것을 확인.
- 잔존 성벽을 조사한 결과 횡평적(橫平積) 된 석재 위로 20cm씩 뒤로 물리면서 종평적(縱平積) 석축이 발견되어 지대석 위에 기반석이 놓였고 다시 그 위에 성벽석을 올린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기반석과 인접 기반석 사이에는 잔돌을 깨워져 넣기도 하였고 잔돌을 끼우기도 하여 상면(床面)을 고르게 한 것이 발견되었다.
- 초기 성축에서 성벽석 내부에는 잡석 채움이 행해진 것으로 보이나 다른 잔존 성벽에서 뒷채움석으로 잡석 이외에 와편(瓦片)도 조사되었다. 그리고 적갈색 마사점토로 복토한 점이 발견되어서 초기 성벽이 유실된 어느 시점에 증축의 과정을 거치면서 잡석을 채우지 못하고 흙으로 대신 채운 흔적을 조사했다.
- 조사 결과 성벽의 축조 수법은 외벽은 석축으로 하고 내부는 흙으로 채우는 내탁식(內托式)으로 산성에서 축조되는 수법을 취하였다. 상부 석축의 잔존 높이는 대략 150cm 내외이며 보통 장대석을 횡 평적하거나 활석의 넓은 면을 밖으로 입추적(立垂積)한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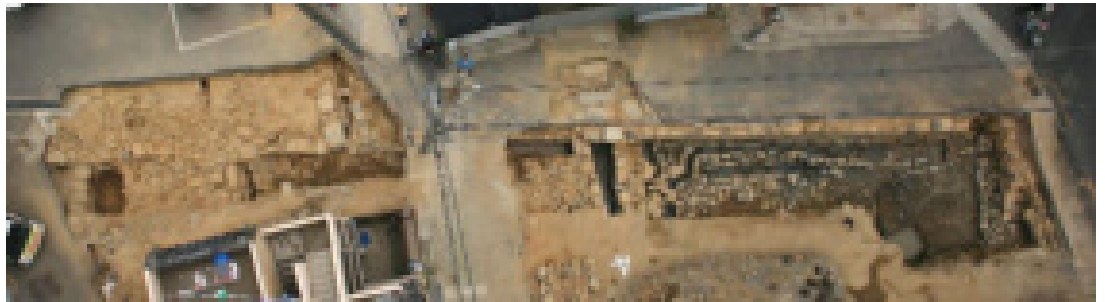
법도 조사되었다.

- 성벽의 단면조사에서 내탁부는 두께 10~20cm의 갈색계 마사 점토로 다졌으며 내탁부의 성폭은 7~8m로 조사되었다. 지역에 따라서 성 외벽에서 내벽 쪽으로 약 7m 지점에서 구(溝)가 조사되었는데 2차례의 굴착 흔적이 발견되었다. 내탁부의 다짐토는 중간지점에서 상하로 다짐토 층이 분리되었는데 상층은 하층인 갈색 점토질 층을 파내고 갈색 마사토계 다짐 층으로 내탁이 이루어졌고, 한편으로는 외벽 안쪽에서 상층의 갈색 마사토계 다짐층을 파고 들어와 상부 석축을 축조한 흔적이 있어 부분적으로 2차례 이상 개축한 흔적이 조사되었다.
- 일부 성벽에서 기단석 설치 유무의 구분에 따라 축조시기를 나눌 수 있는데 생토면 위에 기단석을 놓은 다음 기단석 끝에서 15~20cm 정도 뒤로 물려 상단의 성돌을 쌓은 형태와 생토면을 정리하여 성벽석을 두고 사이에 잔돌을 끼워 틈새를 없애면서 옆줄을 맞추어 수직으로 쌓는 형태로 구분된다. 이 경우 10cm 내외의 잡석이 섞여 있는 지반 위에서 성벽이 시작되는 경우도 보인다. 기단석이 있는 하부 석축은 초축시 것으로 보이며 그 위에 축조된 성벽과 기단석이 없는 석축은 후대 개축한 것으로 보인다.
- 조사된 치성의 규모는 6m×6m이며 잔존 높이는 1m였다. 치의 성벽과 연결된 좌우 성벽은 잡석다짐층 상부에 판석 상의 돌을 깔아 지대석으로 삼고 지대석 끝에서 약 15cm 정도 안으로 지단석을 놓고 다시 20cm 안으로 들어와 수직의 성벽을 축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치성의 내부는 대형석을 엇갈리게 배치하고 그사이에 잡석과 마사토와 점토로 다짐하며 성벽석 안쪽으로 50cm 정도 두께로 잡석을 채우고 그 위에 뒷채움석을 중평으로 쌓아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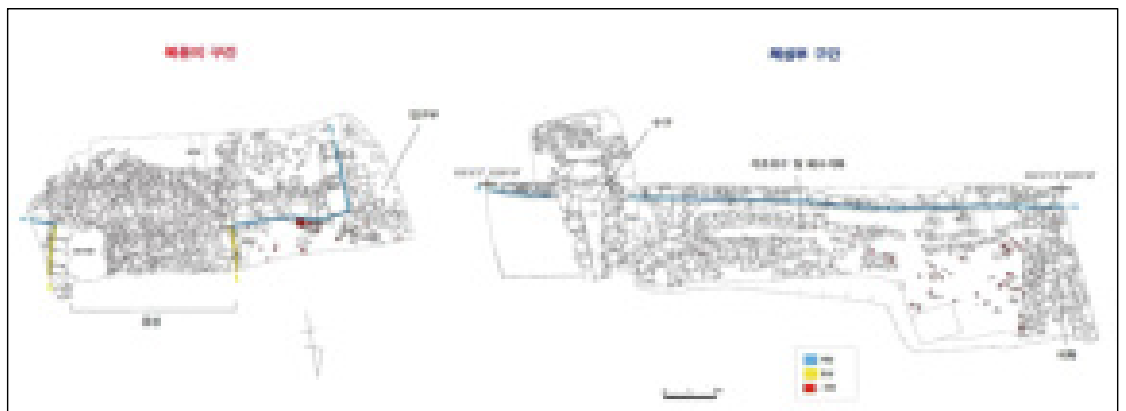
③ 북문지 일원(수영동 416-2번지) 조사(2014년 4월, 부산박물관,)

- 발굴 조사에서 북문지 일부와 북문지를 둘러싼 웅성 일부 그리고 북동성벽 성벽 일부가 확인되었다⁴⁸⁾. 잔존 성벽은 2m 정도로, 비교적 잘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벽의 조성 방법은 생토 층을 정리하여 잡석으로 지정하지 않고 지대석을 놓았다. 지대석은 두 단으로 조성하였는데, 장방형으로 크기는 길이 50cm, 두께 15cm이다. 지대석은 평적하여 쌓았는데, 하단 상단 지대석은 하단 지대석 외단에서 내부로 약 20cm 들여쌓았다. 면석 최하단 석은 상단의 지대석 외단에서 내부로 약 15cm로 들여놓았다. 최하단석 위에도 1단의 면석이 잔존해 있어 전체적인 높이는 약 1.18m이다. 면석 사이의 틈새는 고임돌로 채워 넣어 기울기와 빈틈을 채워 넣었다, 그리고 면석 뒤쪽의 채움석은 할석으로 채워 넣은 형태로 내탁부로 향하면서 크기는 작아지는 형태이다.

48) 부산박물관 · 부산광역시 수영구, 2016, 『정상좌수영성지』



2014년, 북문지 일원 조사 모습(출처: 「慶尙左水營城址」, 부산박물관)



2014년, 북문지 일원 조사시 유구 평면도 (출처: 「慶尙左水營城址」, 부산박물관)

- 북문지 동편에서 면석이 확인되었지만 서편의 면석은 조사 경계가 협소하여 확인되지 않아 문지의 폭은 확인할 수 없었다. 문지의 바닥에는 박석이 부설되어 있었다. 웅성은 북문지의 동편에서 면석과 연결되어 조성되어있다. 성벽을 조성한 다음 웅성을 후에 조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웅성과 성벽이 연결되는 부분에 성벽의 면석이 매우 작았으나 조성 시기의 차이가 아니라 공법의 차이로 확인되었다.
- 웅성의 폭은 7.4m이고, 웅성의 서쪽 끝단은 북문지의 서쪽 면석에서 동쪽으로 약 4.5m 이격되어 있었다. 웅성은 평면 형태는 서쪽에 개구부가 있는 편문식이었다.

④ 『경상좌수영성지』 (2019년, 부산박물관)

- 북문지 동편 일원을 시 발굴했다. 트렌치 조사 결과 체성의 경우 외벽에 석축을 쌓고

내부는 흩다짐하는 내탁식 성벽임을 확인했다. 외벽에서부터 돌로만 뒷채움한 부분의 폭은 2~3m 정도, 외벽에서 내탁부까지의 폭은 8~9m 정도, 채성을 제외한 특별한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다.

(2) 금회 성벽 유구 조사시 구간 구분

보고서 서술을 위해 성벽을 방위를 기준으로 동 성벽·남 성벽·서 성벽·북 성벽의 네 구간으로 구분했다. 성벽의 구간은 문지(門址)와 치(雉) 그리고 지형 여건 등을 기준으로 세분했다. 동성벽은 동북쪽 모서리에서 동남쪽 모서리 사이의 성벽으로 중앙에 위치한 동문이 동 성벽을 이등분하고 있다. 그래서 이를 기준으로 동문의 북쪽을 동북 성벽으로, 동문의 남쪽을 동남 성벽으로 세분했다.



경상좌수영성지의 성벽 구분(구간별 명칭)

남 성벽은 경상좌수영성지의 동남쪽 모서리에서 시문(屍門)까지의 구간이다. 이 구간의 중앙부에 수문(水門)과 남문이 있어 남 성벽을 삼등분하고 있다. 그래서 동남쪽 모서리에서 수문까지의 구간을 남동 성벽, 수문에서 남문까지의 구간을 남중 성벽으로 구분했다. 그리고 남문에서 시문 사이의 성벽을 남서 성벽이라 했다.

서 성벽은 시문에서 서문(西門)까지의 구간으로, 가운데 <치 6>이 성벽을 이등분하고 있다. 그래서 <치 6>을 기준으로 남쪽 성벽을 서남 성벽으로, 북쪽 성벽을 서북 성벽으로 구분했다. 북 성벽은 서문에서 동북쪽 모서리 사이의 구간으로, 중앙에 있는 북문이 성벽을 둘로 나누고 있다. 그래서 북문의 서쪽 성벽을 북서 성벽, 북문의 동쪽 성벽을 북동 성벽으로 구분했다.

(3) 동(東) 성벽

① 동북(東北) 성벽

동북 성벽은 지상 유구가 멸실되어 육안으로 성벽을 확인할 수 없으며, 성벽 추정 위치에는 지형적인 높이 차이로 인해 콘크리트 옹벽이 설치되어 있다. 추정 성벽의 외부(테라스부분)에는 1~2층 규모의 건물이 건립되어 있어 성벽을 가리고 있다.

② 동남(東南) 성벽

동남 성벽 구간에는 잔존 성벽이 비교적 잘 남아있다. 특히 동문지에 접한 남쪽 즉 수영동 100-1번지의 동편에는 1~2단 정도의 성벽이 남아있다. 그리고 수영동 1-3번지 동쪽에는 대력급에서 거력급의 자연석을 사용하여 사(斜) 방향으로 높이 약 2m 정도의 석축이 있는데, 이는 기존 면석에 붙여 근현대에 쌓은 석축이다. 석축 안쪽에 옛 성벽의 면석이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수영동 1-4번지는 도로와 <수호경로당>으로 인해 성벽 일부가 삭평(削平) 및 매몰된 상태이다. 현 <무민사> 뒤 큰 압반에 붙어 성벽이 남아있다.

(4) 남(南) 성벽

① 남동(南東) 성벽

남동 성벽 구간에는 비교적 성벽이 잘 남아있으나 성벽과 이격시켜 절토(切土)하고 건물을 짓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잡목과 잡풀이 무성하다. 수영동 1-4번지 <치 2>가 있는 부분에는 성벽이 노출되어 있으나 현대에 새로 쌓은 것처럼 보인다. 현재 <치 2>는 서남 측 모서리 부분 서쪽 465cm, 남쪽 약 800cm 정도만 남아있다. <치 2>의 면석 동편에는 현대에 와서 유사 석재를 이용하여 옹벽을 치와 연결하여 치(雉)가 명확하게 노출되어 있지 않다. <치 2>의 남쪽 면석은 3~4단 정도 남아있고, 높이는 약 163cm이다. 사용한 석재 크기는 가로 150cm · 높이 53cm · 폭 60cm, 가로 70cm · 세로 33cm · 46cm, 가로 245cm · 높이 47cm · 폭 90cm, 가로 55cm · 높이 41cm · 폭 60cm, 가로 120cm · 높이 70cm이다. 성돌을 허튼충쌓기법으로 축조했으며, 성돌 사이에 고임돌을 사용하여 수평을 맞추었다. 면석에서 약 30~50cm 정도 이격시키고 콘크리트 블록조 옹벽을 시공하여 하단의 면석과 지대석은 확인할 수 없다. <치 2>와 <치 3> 사이에는 높이 2~3단 또는 4~5단 정도의 성벽이 남아 있다. 성벽 위에 좁은 포장도로가 나 있으며, 면석 사이에 대나무와 잡초가 자라고 있다. 면석 외부에는 폭

2~3m를 남겨두고 절토되어 원지반의 훼손이 심한 상태이다. 절토(切土)하고 남은 부분에 잡초 및 유실수를 심어 육안으로 잔존 성벽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수영동 5-2번지>에 가장 양호한 성벽이 남아있는데, 잔존 단수는 4~5단이다. 하지만 면석이 단층 주택에 의해 차폐되어 있으며, 내탁부는 주차장으로 이용되면서 거의 삭평된 상태이다.



경상좌수영성지의 배수구(추정 수문)

<치 3>과 수문(水門) 사이의 성벽은 상가(商家) 건립으로 원형과 위치를 알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상태이다. 일제강점기 촬영한 배수구 사진이 있으나 남 성벽의 배수구인지는 정확하지 않다. 수문은 도로 건설로 훼손되어 원형을 알기 어렵다.

② 남중(南中) 성벽

남중 성벽 구간 중에 수문에서 남문지 사이에 성벽이 남아있으며, 자세한 위치는 현 수영교회와 남문지 사이이다. 수영교회 앞에 지대석과 성벽 최하단 면석(1단)이 남아있고, 남문 근처에도 2단 정도의 성벽이 남아있다. 지대석 면석에서 현대 건물을 짓기 위해 절토하여 원형이 많이 훼손된 상태이며, 성벽 상부에는 왕복 2차로가 구성되어 있다. 지대석의 크기는 세로 34cm · 41cm · 54cm · 55cm이며, 최하단은 지대석 끝단에서 약 23cm 들여쌓았다. 최하단석은 주로 세워 쌓았으며, 성돌의 크기는 가로 130cm · 세로 83cm · 폭 40cm, 가로 70cm · 세로 60cm · 폭 40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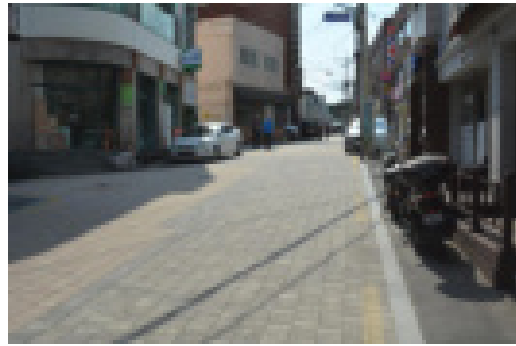
③ 남서(南西) 성벽

남서 성벽에는 남문~시구문 사이에 성벽이 남아 있으며, 타 구간에 비해 성벽의 보존 상태가 양호하다. 잔존 성벽 앞쪽에 지은 건물이 면석을 가려 외부에서는 성벽이 남아 있는지를 알기 어렵다. 현재 남문지 주변 건물을 매입하고 철거 정비한 곳에는 잔존 성벽이 드러나 있다. 수영동 청년회 자율방범초소 옆에도 야외 주차장이 구성되어 있어 성벽이 잘 드러나 있다.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이 구간의 잔존 성벽 위에 시멘트 몰탈을 사용하여 유사 성벽을 조성해 놓았다. 성벽은 2~5단 남아 있으며, 높이는 약 180cm 정도이다. 면석의 크기는 가로 170cm · 세로 80cm, 가로 60cm · 세로 42cm, 가로 40cm · 세로 25cm, 가로 73cm · 세로 72cm, 가로 70cm · 세로 55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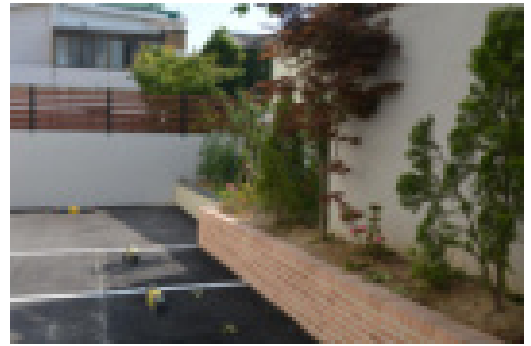
(5) 서(西)성벽

① 서남(西南) 성벽

서남 성벽의 경우 도로가 개설된 구간(수영동 331-2)을 제외하고는 2~3단 정도의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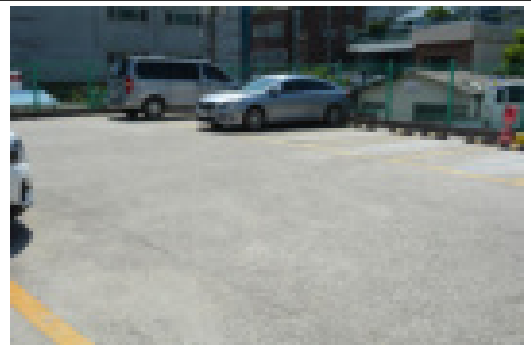
동문지(동에서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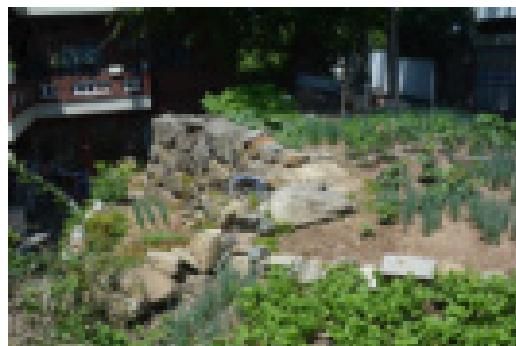
동북 성벽 (북에서 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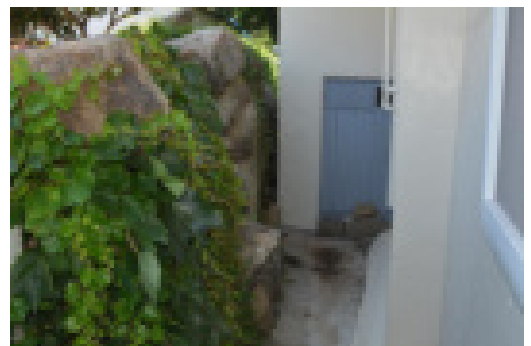
동남 성벽(남에서 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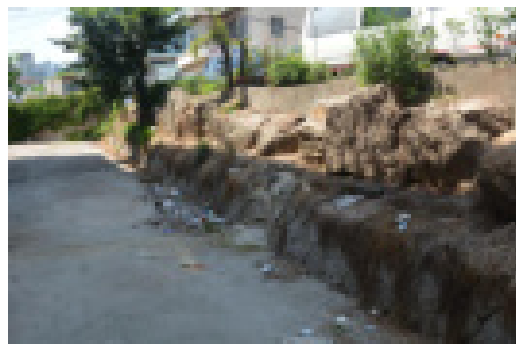
남문지(서에서 동)



남동 성벽(치2)



남동 성벽(수영동 5번지, 서에서 동)



남중 성벽(수영동 313번지, 동에서 서)



남서 성벽(수영동 316-1번지, 동에서 서)

	
남서 성벽(수영동 316-1번지, 동에서 서)	남서 성벽(수영동 316-1번지, 동에서 서)
	
서문지(서에서 동)	서남 성벽(수영동 229-1번지, 북에서 남)
	
서북 성벽(수영동 339-1번지, 북에서 남)	서북 성벽 앞 추정 해자(수영동 339-2번지)
	
북문지(서에서 동)	북서 성벽(수영동 376-4번지, 서에서 동)

경상좌수영성지 잔존 성벽 모습(2)

벽이 잔존하고 있다. 성벽은 침식성 독립 저 구릉의 경사면에 위치하며, 성벽은 경사면과 나란하게 사(斜) 방향으로 축조했다. 경사면을 계단상으로 정지하지 않고 경사면과 나란하게 정지하고 지대석과 면석을 사(斜) 방향으로 쌓았다. 면석(面石)의 크기는 가로 62cm·세로 26cm, 가로 115cm·세로 51cm, 가로 49cm·세로 60cm, 가로 8cm·세로 44cm이다. 성돌을 높히거나 세워 성벽을 쌓아 올렸지만 성돌의 크기가 작은 것으로 보아 후대 수축한 것으로 보인다.

② 서북(西北) 성벽

서북 성벽 구간에도 성벽이 비교적 잘 남아 있다. 대개 높이 3~5단 정도의 잔존 성벽 유구가 길게 남아 있다. 이곳은 1998년도 부산박물관에 의해 시굴 조사가 이루어진 구간이다. 시굴 조사 후 성벽을 노출시켜 놓았으나 성벽을 따라 잡목이 자라고 있고, 성벽과 견호(외황) 사이에 대나무, 뽕나무 등의 조경수를 심어 놓아 성벽을 제대로 살펴볼 수 없다. 이 구간의 잔존 성벽 상부에 수영민속예술관 및 전수관이 자리 잡고 있다. 시굴 조사 정도에서 조사가 마무리된 것이 아쉬우며, 더 훼손되기 전에 추가적인 학술조사가 필요하다.

(6) 북(北)성벽

① 북서(北西) 성벽

북서 성벽은 훼손이 심해 성벽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 다만 수영동 376-4번지 근처에만 성벽이 잔존해 있다. 면석(面石) 하나가 길가에 드러나 있으나 일반인들은 이 돌이 성돌인지 모른다. 수영동 376-4번지에 위치한 대지 안쪽으로 들어가면 주택 뒤에 있는 잔존 성벽을 볼 수 있다. 지대석은 보이지 않고 면석 3~4단 정도만 남아있다. 면석 사이에는 시멘트 모르타르를 덧발라 놓았다.

② 북동(北東) 성벽

북동 성벽의 경우 지상부가 멸실되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다. 북문지 근처에 대해 부산박물관에서 2014년과 2016년 두 차례 시 발굴조사를 하여 북문의 웅성지와 성지를 확인했다. 그리고 수영동 157번지(현 야외 주차장)를 시굴 조사하여 잔존 성벽을 찾아냈다. 북동 성벽의 동쪽에는 단독주택이 건립되어 성벽의 흔적을 확인할 수 없다.

④ 성문

(1) 동문(東門)

동문은 수군(水軍)의 상징인 선소(船所)로 통하는 성문이었다. 경상좌수영성에서 상징적이고, 건축적 위계도 가장 높은 성문이었다. 동문은 육축부에 석홍예를 가진 중층 문루 형태 건물로, 하층의 성문은 영일문(迎日門), 상층의 문루는 관해루(關海樓)였다. 동문의 문루

(門樓)는 6칸 규모로, 평면은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추정된다. 좌수사 양우급(梁禹及: 1674~1675)이 동문을 수축한 바 있고⁴⁹⁾, 좌수사 류효원(柳孝源)도 1785년 4월에 시작하여 5월 10일에 공사를 마친 바 있다.⁵⁰⁾ 조선 말기인 1845년에는 수사 이원하가 동문을 중수했으며⁵¹⁾, 조선 말기인 1873년에 동문의 문루 하부에 석홍예를 시설했다.⁵²⁾

지금 동문은 멸실되어 지상에서 흔적을 찾을 수 없지만, 지적원도 등을 통해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동문지는 현 수영동 100-1번지와 수영동 114-3번지 사이에 있다. 지금은 동문지에 경상좌수영성 탐방로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지적원도를 살펴볼 때 동문의 웅성은 동 성벽에서 동쪽으로 돌출된 형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여지도서』와 『경상좌수영영지도형, 1872년』에서도 확인되며, 고지도 등에서 웅성의 개구부는 북쪽으로 나 있었다.

(2) 남문(南門)

남문은 금련산 북동 사면(斜面) 말단부와 이어져 있어 날씨와 관계없이 늘 통행이 가능했다. 남문은 감포진·축산포진·칠포진·포이진을 비롯한 부산진 등과 통하는 문으로, 경상좌수영성에서 인근 관방(關防) 시설로 통하는 중요한 성문이었다. 현존하는 남문의 유일한 유구인 석홍예는 현 수영사적공원 입구에 보존되어 있다. 동문과 북문처럼 성문을 수리한 기록이 없어 남문은 처음부터 하부에 석홍예가 있는 성문 형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남문은 중층 문루 형태로, 문루의 명칭은 주작루(朱雀樓)였다. 문루의 전체 규모는 6칸으로, 동문(東門)의 관해루와 같이 평면은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추정된다. 수사 양우급(梁禹及: 1674~1675)이 동문을 비롯 북문을 수축할 때 개축했다.⁵³⁾ 현재 문지(門址)가 멸실되어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발굴과 지적원도를 통해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남문은 현 수영동 295-1번지와 수영동 297번지 사이에 있었으며, 이곳에는 현재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다. 그 주변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적원도의 수영동 295-1번지에서 남 성벽의 남쪽에 걸쳐 ‘L자형’ 웅성이 축조되어 있었으며, 웅성의 개구부는 서쪽에 있었으며, 이는 『여지도서』, 『내영지』의 「내영지도」, 『경상좌수영영지도형, 1872년』에 보이는 웅성과 같은 형태이다.

(3) 서문(西門)

서문은 침식성 독립 저구릉 정상부 근처에 위치했다. 서문의 인근에는 공해(公廨)와 집터

49) 先生案 梁禹及(1674~1675 到任) 東南北 三門樓造成...(『萊營誌』, 1850년)

50) 記文條 關海樓記(『萊營誌』, 1850년)

51) 樓亭條 關海樓 東門 憲宗己巳 節度使 李元夏 重建(『萊營誌』, 1850년)

52) 城池條 東北兩門癸酉 亦 築虹霓...(『嶺南營誌』, 1894년)

53) 先生案條 梁禹及(1674~1675 到任) 東南北 三門樓造成 ... (『萊營誌』, 1850년)



경상좌수영 영지도형(營址圖形, 1872년)에 보이는 성문과 웅성

등이 분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서문은 주로 유사시 수군들이 사용하던 위계가 낮은 성문이었다. 따라서 웅성을 갖추지 않은 형태로 추정된다. 서문(西門)의 문루 명칭은 호소루(虎嘯樓)였으며, 내용이 소략하여 성문의 규모, 구조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 수 없다. 『경상좌수영영지도형. 1872년』에는 중층 문루로 묘사되어 있으나 이는 사실과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웅성과 구조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웅성이 없는 간략한 성문으로 추정된다. 지적원도 등에 나타난 서문의 위치는 현 수영동 231-1번지와 수영동 220-3번지 사이이며, 현재 공원이 되어 나무가 자라고 있다. 『여지도서』와 『동래영지』의 「내

영지도(萊營地圖)」 및 『경상좌수영영지도형, 1872년』에는 서문에 웅성이 있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다. 성문과 웅성의 개구부의 방향은 모두 서쪽이다.

(4) 북문(北門)

북문은 침식성 독립 저구릉의 서 측 사면부(斜面部)에 위치한 성문으로, 주로 토현을 거쳐 동래부와 서울로 가는 사람들이 이용했다. 현재 북문 터에는 아스팔트 포장 도로가 건설되어 있다. 북문의 구조는 석홍예를 가진 중층(重層) 문루로, 현액은 공신루(拱辰樓)였다. 이 문루의 규모는 정면 3칸 측면 1칸으로 추정된다. 수사 양우급(梁禹及:1674~1675)이 동문과 남문을 수축할 때 북문도 수축했다고 한다.⁵⁴⁾ 그 후 수사 이규철(李圭徹)이 1842년에 중건했으며⁵⁵⁾, 고종 대인 1873년에 문루 하부에 석홍예를 설치했다.⁵⁶⁾

현재 도로가 조성되어 있어 현지에서 북문의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추정 북문지 근처에는 <수영성마을박물관>이 자리 잡고 있다. 일제 초기에 측량한 지적원도를 통해 북문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위치는 현 수영동 163-2번지와 수영동 416-5번지 사이이다. 지적원도를 통해 웅성의 유무(有無)를 확인할 수 없으나 18세기 말에 편찬된 『좌수영지』 「성지조」에는 “임신개축시(壬申改築時) 동북 웅성 2개소(東北甕城二庫)” 이라 하여 1692년(숙종 18)에 성을 개축할 때 동문과 북문 두 곳에 웅성을 설치했음을 밝히고 있어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

7) 성벽 부속시설

(1) 치(雉)

경상좌수영성에는 모두 7기의 치(雉)가 있었다.⁵⁷⁾ 1872년에 간행된 그림지도인 『경상좌수영영지도형』에는 동문과 남문 사이에 3기, 남문과 서문 사이에 2기 등 모두 5기의 치가 묘사되어 있다. 이는 『여지도서』 등의 문헌에 보이는 7기의 치에 비해 2기가 부족한 것이다. 『경상도좌수영관아배설조사도』에도 동측 성벽과 남측 성벽 사이 모서리에 1기(치 2), 남동 성벽에서 수문 사이에 1기(치 3), 수문(水門) 주위에 1기(치 4), 서문(屍門, 치 5) 및 서문과 서문(西門) 사이에 2기(치 6, 7) 등 총 5기의 치가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경상좌수영영지도형, 1872년』에 보이는 치의 총수(5기)와 같은 것이다.

20세기 초에 만든 지적원도에서도 『경상좌수영 영지도형, 1872년』, 『경상도좌수영관아

54) 先生案條 梁禹及(1674~1675 到任) 東南北 三門樓造成, (『萊營誌』, 1850년)

55) 樓亭條 望美樓 北門 憲宗壬寅李圭徹 重建(『萊營誌』, 1850년)

56) 城池條 東北兩門癸酉 亦 築虹霓. (『嶺南營誌』, 1894년)

57) 城池條 雉城七庫(『輿地圖書』, 1757~65)

표9. 경상좌수영성지의 성문과 성벽 부속시설

구분 \ 읍지	여지도서 (1757~65)	내영지 (1850)	영남영지 (1894)	경상도좌수영관아 배설조사도 (1912년 이후)
동문	동성 문루 2층 (東城門樓二層)	동문루(東門樓二層, 關海樓 憲宗 己巳 節度使 李元夏 重建)	동문루(6칸)	영일문(迎日門)
남문	남성 문루 2층 (南城門樓二層)	남문루(南門樓二層, 朱雀樓)	남문루(홍예 6칸)	주작루(朱雀樓)
북문	북성 문루 2층 (北城門樓二層)	북문루(北門樓二層, 望美樓 憲宗 壬寅 李圭徹 重建)	북문루(3칸)	공진문(拱辰門)
서문	-	호소루(虎嘯樓)	-	호소루(虎嘯樓)
여장(垛)	375타(堞)	384(垛)	275타(垛)	
옹성(甕城)	3개소(三庫)	3개소(三庫)	3개소(三庫)	
치성(雉城)	7개소(七庫)	7개소(七庫)	7개소(七庫)	
포루(鋪樓)	-	3개소(三庫並垂瓦) 先生案 梁禹及(1674~1675) 東南北 三門樓造成	3개소(三庫) 東北兩門癸酉亦築 虹霓	

배설조사도』와 같은 수의 치가 확인된다. 이밖에 금번에 북서 성벽과 북문 및 북문에서 북동 성벽 사이에도 각 1기의 치(치 8, 9)가 더 조사되어 이를 합하면 치의 총수는 7기가 된다. 이는 『여지도서』 「성지조」에 보이는 치(7기)의 수와 같다.

이밖에도 북 성벽과 동 성벽 사이 모퉁이에 보이는 돌출된 시설물도 치(치 1)로 추정되며, 이는 북으로 향해 열린 동문의 옹성을 보호하기 위해 쌓은 것으로 보인다. 치 7도 서문을 보호하여 성의 전체 방어력을 높이기 위해 만든 것으로, 암문(暗門) 주위에 치(치 4, 5)를 축조한 사례를 보아 위계가 높은 서문 주위에 치 7을 축조하여 방어력을 강화했을 것으로 보인다. 북서 성벽의 치 8은 북문의 옹성 개구부를 방어하기 위해 쌓은 것으로 추정된다. 경상좌수영성에 있었던 치의 총수는 9기로 추정되며, 이는 문헌에 보이는 7기보다도 2기가 더 많은 것으로 후대 관리 소홀로 2기의 치가 멸실(滅失)되어 조선 말기 문헌에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는 <치 2>, <치 6>의 잔존 유구만 확인할 수 있다.

(2) 해자(壕子)

경상좌수영성지 선행조사에서 해자에 대해 언급한 것은 보이지 않으며, 선행연구에서도 해자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西) 성벽에서 서(西)로 10m 떨어진 곳에 단애면(斷崖面)이 있고, 성벽과 떨어진 거리도 일정하여 해자로 추정된다. 위치는 현 지적도상의 수영동 339-2번지이다. 추정되는 해자와 성벽 사이의 이격 거리는 조선시대 영읍진보성(營

邑鎭堡城)에서 볼 수 있는 성벽과 해자 사이의 이격 거리와 유사하다. 조선시대 타 영읍진 보성에서 해자와 마른 해자(건호)가 발견된 사례가 있어 전술한 단애면은 건호(乾壕, 즉 외항)로 추정되며, 이것이 건호라면 경상좌수영성에도 해자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⁵⁸⁾

지적원도에도 북서 성벽에서 약 16m 떨어진 곳에 소로가 있는 것이 보이는데, 이는 성벽과 소로 사이에 해자가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서(西) 성벽, 남서 성벽, 남중 성벽에도 북 성벽처럼 성벽과 약 18m 정도 떨어진 곳에 해자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동 성벽의 경우 앞에 선소(船所)가 있어 해자가 조성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좌수영성의 경우 침식성 저구릉 정상부와 사면부 즉 서(西)성벽과 북서(北西) 성벽에는 건호(乾壕)를 파고, 침식성 저 구릉의 북측 사면 말단부와 남사면 말단부에는 해자를 두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장차 시 발굴조사를 통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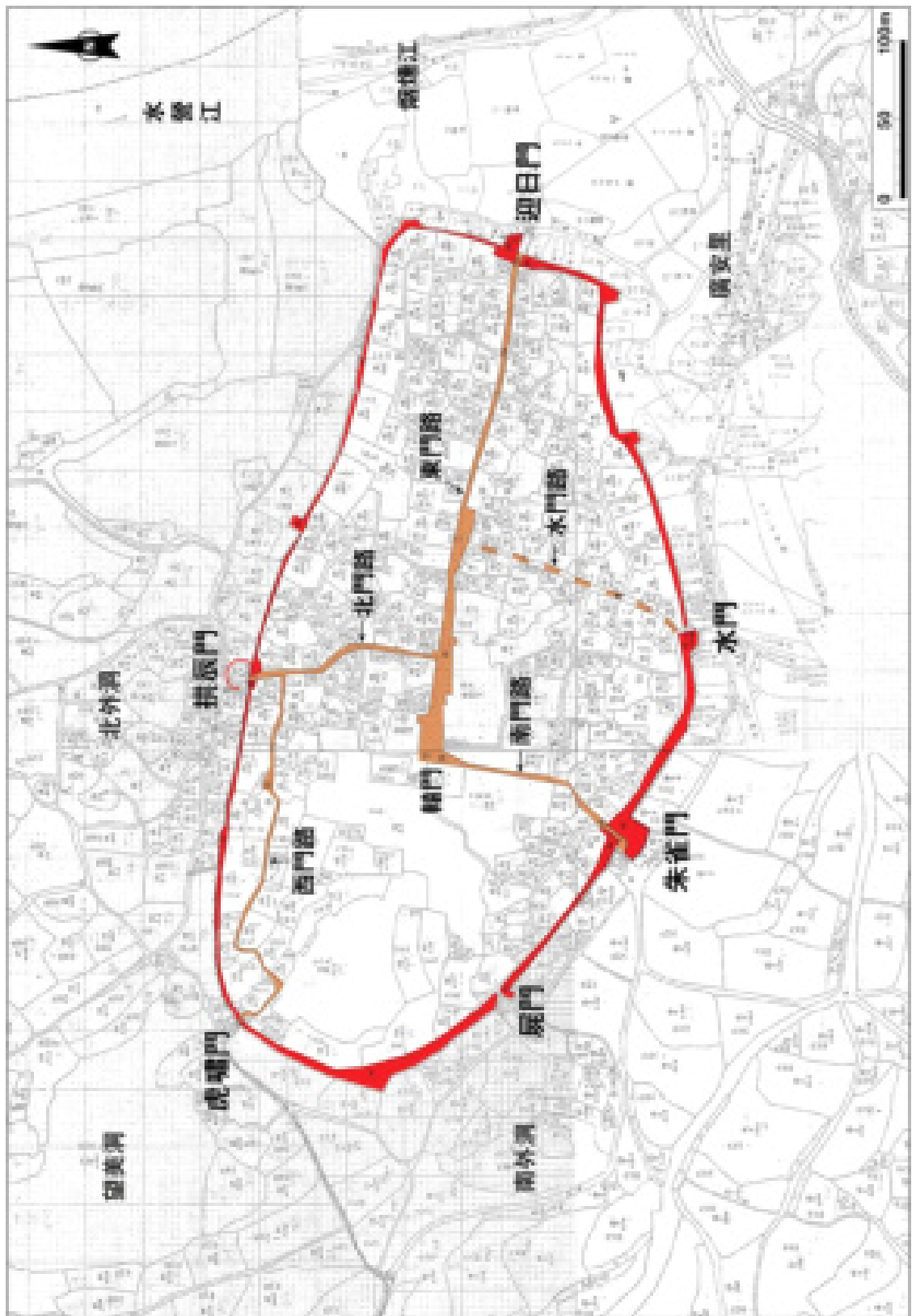
8) 내부 공간

(1) 간선로 계획

경상좌수영성에서 간선로는 중요 공해인 객사, 아사(衙舍)와 성문을 연결하는 큰길을 말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성내 간선로를 다음과 같이 구분했다. 동문에서 객사로 연결되는 큰 길(간선로)은 동문로, 남문로에서 객사에 이르는 길은 남문로라 했다. 서문에서 객사로 연결되는 길은 서문 간선로, 북문에서 객사로 진입하는 길은 북문로라 했다. 경상좌수영성의 간선로는 다음과 같이 연결되어 있다. 동문로의 끝단 남쪽에 남문 간선로가 연결되고, 북문로는 이 교차점에서 동(東)으로 약 60m 떨어진 지점에서 북문 간선로와 만났다. 서문로는 동문로와 바로 만나지 않고 북문로와 연결되어 있다.

전체 간선로는 ‘어긋T자형’으로 전형적인 조선 시기 간선로 계획을 따랐다. 하지만 지방 읍성의 경우 남향한 객사와 상징적인 남문을 잇는 남문로가 중심 간선로이나 경상좌수영성의 경우 남문 간선로 외에 선소와 이어진 동문 간선로를 두고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동문 간선로는 객사(客舍)와 아사(衙舍)의 정면에 있는 간선로로, 간선로 중 가장 길고 넓었다. 동문 간선로는 지금의 <경상좌수영성로>의 능선을 따라 조성되어 있으며 중앙 부분은 조금 낮으나 비교적 평탄하고 직선에 가까운 길이었다. 동문 간선로는 노단경(路端景)은 원문(轅門)이며, 지적원도에서 원문(轅門)과 수문로가 연결된 사이(현 수영성 아카이드가 있는 부분)는 도로 폭이 넓어서 군사 의례(儀禮)를 했던 광장으로 추정된다.

58) 나동욱은 평지인 성의 동쪽 구간에서 해자가 확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나동욱, 「경상좌수영 수군진성 연구」, 문화재청·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8, 『조선시대 수군진조사 IV 경상좌수영편』, p.301) 실제 발굴조사를 통해 경상도 지역의 수군 진성인 개운포진성, 다대진성, 지세포진성, 구조라성, 가덕진성, 천성진성 등에서 해자가 확인되었다.



지적원도에 보이는 경상좌수영성의 간선로(S=1/3,500)

또한 수문(水門)으로 통하는 수문로 외에 여러 작은 도로가 동문 간선로에 이어진 것으로 보아 동문(東門) 간선로가 가장 위계가 높은 길이었음을 알 수 있다. 동문로는 동문(東門)을 거쳐 선소(船所)로 연결되는 목적이 분명한 간선로이자 기능상 중요한 길이었다. 즉 수군(水軍)이 선소로 출입할 때 시용했던 군사적 목적의 중요한 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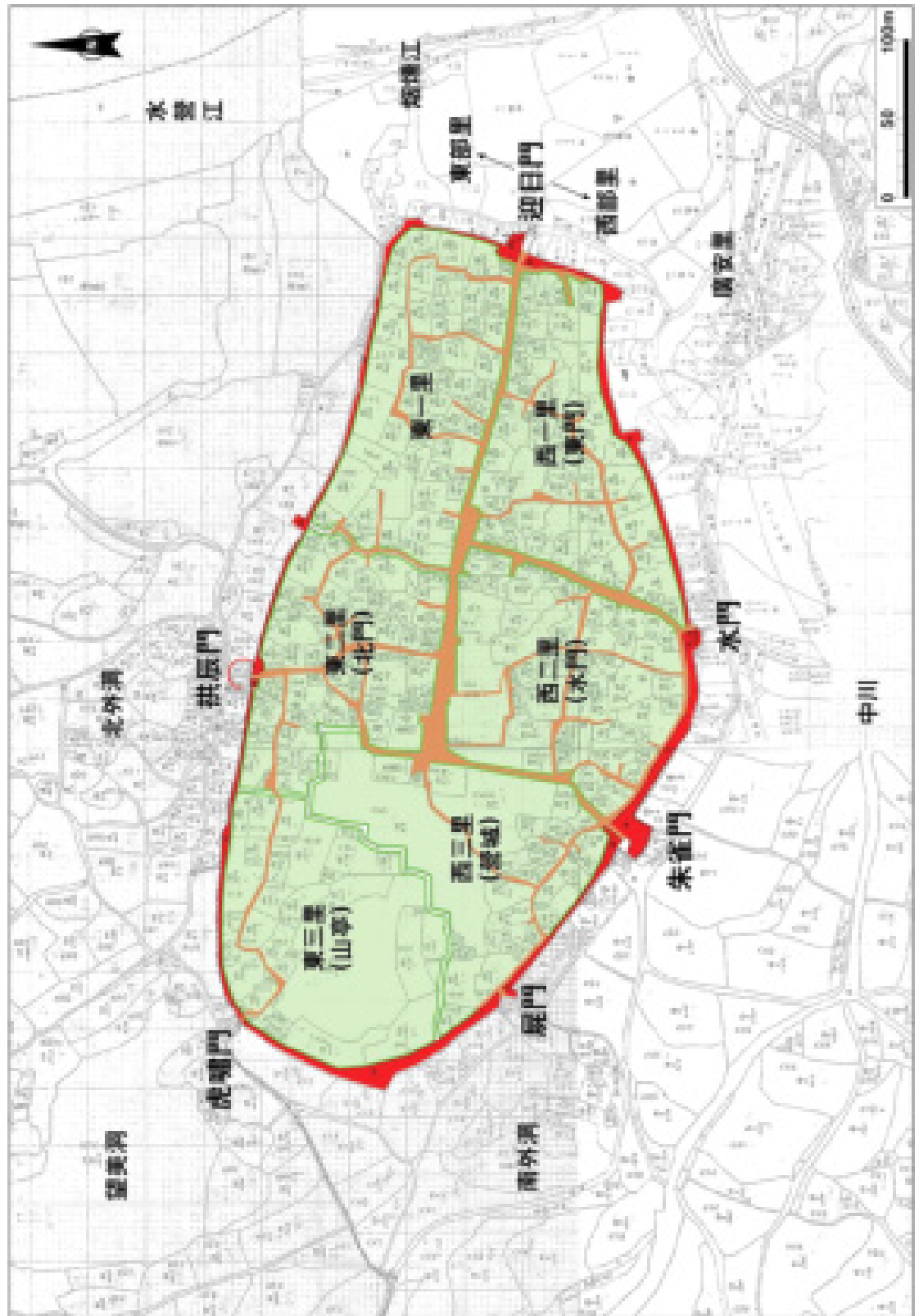
남문 간선로는 객사 또는 아사(衙舍)와 남문을 연결하는 길이며, 지금의 <연수로 415번길>과 유사하다. 능선과 남사면 말단부 사이에 위치했다. 남문 간선로는 경사가 있고, 변곡점이 있는 길로 직선적인 도로는 아니었다. 원문(轅門)의 남 측면은 남문 간선로의 노단경(路端景)이었다. 남문로에서 원문을 통과하지 않고 객사와 아사로 진입할 때는 서(西)로 90도 꺾어야 했다. 남문 간선로는 동문 간선로에 비해 짧고 좁은 것이 특징이었다. 남문 간선로에서 객사와 아사로 출입할 때는 반드시 방향을 틀어야 했다. 경상좌수영성에서 남문 간선로는 동문 간선로보다 위계가 낮은 길이었으며, 남문로는 주로 동래와 부산포 등으로 나갈 때 많이 이용했다.

북문 간선로는 객사와 아사(衙舍)의 정문과 성의 북문(北門)을 연결하는 길로, Y자처럼 두 길로 분기된 것이 특징이었다. 북문 간선로는 지금의 <수영성로32번길>과 <수미로 50번길>과 비슷했으며, 능선과 북쪽 사면(斜面) 말단부 사이에서 능선과 직각을 이루도록 만든 길이었다. 완만한 경사를 보이는 Y자형의 북문 간선로는 서쪽 간선로(현 <수미로 50번길>)와 만나 <정 T자형>을, 동쪽 간선로(현 수영성로32번길)와 만나 <어긋 T자형>을 형성했다. 북문 간선로 역시 변곡점이 있었으며, 길이와 폭은 남문 간선로와 비슷했다.

서문 간선로는 서문과 북문 간선로를 연결하는 길이었다. 우후영(虞候營) 때문에 객사, 아사와 직접 연결되지 않았고, 서문이 성의 북쪽에 치우쳐 있어 자연 북문로와 연결되었다. 서문 간선로는 침식성 독립 저 구릉의 북쪽 사면부에서 등고선과 직각을 이루며 만든 길이었다. 서문이 있는 곳은 침식성 독립 저 구릉의 정상부로 지형에 경사가 있었으나 북문 인근은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 서문과 북문의 간선로는 서로 떨어져 있고, 길고 변곡점이 많은 것이 특징이었다.

(2) 방리(坊里) 제도

경상좌수영성과 주변 지역의 방리에 대해서는 『호구총수(戶口總數)』에 동부리(東部里)와 서부리(西部里)라는 방리 명이 있어 짐작할 수 있다. 『동래부읍지』에 보이는 방리 명도 『호구총수』와 같으며, 경상좌수영성은 ‘북문외리(北門外里)’와 ‘남문외리(南門外里)’에 걸쳐 있었다. 『경상도읍지』에도 동 1패(東一牌), 동 2패, 동 3패라는 명칭이 보이고, ‘북문 외리’와 ‘남문 외리’는 좌수영성에 포함된 영역이었다. 『영남읍지부사례』에도 동 1리, 동 2리, 동 3리, 서 1리, 서 2리, 서 3리라는 방리 명칭이 보인다. 『내영지』도 ‘서 3리에 영기(營基)가 있고, 서 2리에 수문(水門), 서 1리에 동문이 있다고 적고 있다.



경상좌수영성의 방리(坊里) 추정도(지적원도, S=1/3,500)

동 3리에 산정(山亭)이, 동 2리에 북문이 있다’는 기록이 보인다. 반면 동 1리에 대해서는 별다른 내용이 없다. 따라서 경상좌수영성의 성안에는 먼저 동리(東里)와 서리(西里)의 두 리(里)를 두고, 이를 다시 6개 방(坊)으로 세분하여 다스린 것으로 보인다. 즉 서리(西里)를 서 1리(西一里), 서 2리, 서 3리로, 동리(東里)를 동 1리(東一里), 동 2리, 동 3리로 구분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경상좌수영성의 경우 성내를 동리(東里)와 서리(西里)로 나눈 후 이를 다시 6개의 방으로 세분했음을 알 수 있다.

일제 초기에 만든 지적원도에도 방리 명칭이 보인다. 경상좌수영성 성내(城內)에 동1동(東一洞)·동2동·동3동·서1동(西一洞)·서2동·서3동의 6개 방(坊)이 있었다. 즉 동문 간선로를 기준으로 북쪽에 동부리(동 1동·동 2동·동 3동), 남쪽에 서부리(서1동·서2동·서 3동)가 각각 위치했다. 동 1동은 경상좌수영성 북동쪽 모서리, 동 2동은 북문 안에 있었다. 동3동은 <치 8>이 있는 성내 즉 우후영 북쪽에 있던 마을(坊)이었다. 서1동은 경상좌수영성의 남동쪽 모서리에 있던 마을로, 거기에는 별포청이 있었다. 서 2동은 <치 4>가 있는 성내(城內) 마을로, 통인청이 자리 잡고 있었다. 서 3동은 성의 남문(南門) 안쪽에 있었는데, 서 2동의 서편이다.

경상좌수영성과 관련 있었던 방리를 지적원도에서 간선로와 맞추어 위치를 비정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서 1동의 경우 동쪽은 동남 성벽, 남쪽은 남동 성벽, 서쪽은 수문로, 북쪽은 동문 간선로에 둘러싸여 있었다. 서 2동에 대해 살펴보면 동쪽은 수문로, 남쪽은 남중 성벽, 서쪽은 남문 간선로, 북쪽은 동문 간선로에 둘러싸인 마을이었다. 서 3동의 범위는 다음과 같았다. 동쪽은 남문 간선로와 남북 간선로로 둘러싸여 있었고 남쪽은 남서 성벽, 서쪽은 시구문에서 아사(衙舍)와 객사가 있는 대지의 서쪽 경계선까지였다. 서 3동의 북단은 우후영이 있는 북쪽 대지의 경계까지였다.

동 1동의 경우 동쪽은 동북 성벽, 남쪽은 동문 간선로, 서쪽은 동문 간선로와 수문 간선로가 접하는 부분에서 북동 성벽을 잇는 대지 경계선까지였다. 그리고 마을의 북쪽은 북동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동 2동의 경우 동쪽은 동 1동, 남쪽은 동문 간선로·서쪽은 북문 간선로·북쪽은 북동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동 3동의 마을 경계는 동쪽은 북문 간선로, 남쪽은 시구문에서 아사와 객사가 있는 대지의 서쪽 경계, 서쪽은 서성벽·북쪽은 북서 성벽까지 이르렀다. 이를 지적원도에서 표현한 것이 위 <경상좌수영성 방리(坊里) 추정도>이다.

서(西) 3동에는 객사·아사, 우후영·영선·군뢰방·비장청·영리·군기고·중영 길청 등 위계가 높은 공해가 자리 잡고 있었다. 서 2동에는 군관청·장관청·무사청·포수청·수성청·길청·통인방 등이 위치했다. 그리고 서 1동에는 별포청과 진창이 있었다. 동 2동에는 중영 집사청·교방·사령청·교사청·공이방 등이 각각 위치했다. 동 1동에는 화약고, 동 3동에는 독당(蠹堂)과 이락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24 경상좌수영의 공예

1) 조선 후기 경상도좌수영의 관아 조성

경상좌수영성에 있었던 관아의 건축 및 수리 연혁은 『내영지(萊營誌, 1850년)』의 「누정조」 및 「기문조」의 「선생안(先生案)」의 기록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문헌에는 1652년에 좌수사 정부현(鄭傳賢)이 감만리포에서 이곳 남촌 구기(舊基, 현 경상좌수영성지)로 옮겨 온 후 1873년에 좌수사 유기대가 성첩(城堞) 및 객사, 동헌, 원문, 성문, 누정을 대대적으로 개보수할 당시의 기록이 남아있다. 즉 객사를 비롯 동헌, 결승당, 내아와 낭무(廊廡) 등의 부속 건물, 원문루(轅門樓), 동문과 관해루(觀海樓) 및 선창 주변의 척분정, 비우당(備虞堂)의 건축 및 수리 기록이 있다.

이들 건축 기록을 살펴보면 관아를 증건할 때마다 수사(水使)에 의해 건물의 액호(額號)가 자주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건물의 액호(額號, 扁額)를 살펴보면 객사는 영파당(寧波堂), 동헌은 힐융당(詰戎堂), 주헌(籌軒), 운주헌(運籌軒), 제승당(制勝堂), 관운당(管雲堂)이라 했다. 그 뒤편의 대청(大廳)은 결승당(決勝堂)이라 했으며, 이밖에 산정(山亭), 결승정(決勝亭), 이락당(二樂亭) 등으로도 불렸다. 또한 원문루(轅門樓)는 제풍루(霽風樓), 수향루(受降樓), 조양루(朝陽樓), 조양정(朝陽亭)이라 했고, 남루(南樓)는 대유루(大有樓), 운함헌(雲涵軒), 명후당(明侯堂) 등으로 불렸다. 성문 상부에 지은 문루의 편액을 살펴보면 동문루(東門樓)는 한동루(閑東樓)와 관해루(觀海樓), 남문(南門)은 주작루(朱雀樓), 북문은 망미루(望美樓)라 했고, 장대의 액호는 선위정(宣威亭)이었다. 이 밖에 동문 밖에 있던 어구정(禦寇亭), 비우당(備虞堂), 척분정(滌氛亭), 수직사(守直舍), 연무정(鍊武亭), 천척루(千尺樓), 객사 동쪽 누각, 호소루(虎嘯樓) 등의 액호도 보인다.

경상좌수영에 속한 관아의 규모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내영지, 1850년』의 「기문조」에 동헌 일곽과 삼문(三門), 고사(庫舍) 등을 합쳐 32칸, 내아와 그 낭무(廊廡)를 합쳐 25칸이라는 기록이 있다. 이 밖에 수직사 8칸, 결승당(산정, 이락정) 3칸 등의 기록도 보인다. 『영남영지, 1894년』에는 남문 누각 6칸, 동문 누각과 북문 누각이 각각 3칸이라는 기록이 있어 문루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이는 통영에 있던 통제영성의 동헌 일곽이 48칸, 내아 일곽이 43칸인 것에 비해 작은 규모이다. 이는 관아의 위계를 고려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기록되지 않은 건물을 감안하면 전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이다.

한편 『내영지』의 「기문조」에는 류효원(柳孝源)이 쓴 <관해루기>가 남아 있다. 그는 ‘수영성 동문은 누선(樓船)이 떠 있는 바다를 진압하며 수영의 장군이 거쳐하는 곳이다. 일반 관청 건물보다 크게 여기는데도 건물을 지탱하는 도리가 곧장 무너져 내릴 것 같으니 지금 고쳐 중수하지 않으면 나의 죄가 된다’고 적고 있다. 이는 18세기 말에 좌수사를 지낸 류효원(柳孝源)이 관해루(동문 문루)를 수리하면서 동문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 내용으로, 이를 통해 경상좌수영에서 선소(船所)로 통하는 동문(東門)을 매우 중시했음을 알 수 있다.

『내영지』의 「기문조」의 내용 중 객사, 동헌, 원문, 결승당에 관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동문 밖에 있던 척분정, 관해루, 한동루, 비우당 등에 대한 기록들이다. 이는 특히 동문과 선소(船所)가 매우 중시되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조선시대 지방 읍성에서는 남문을 중시하여 웅성을 설치하고, 홍예문 위에 문루를 세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경상좌수영성도 동문(東門) 다음으로 남문을 중시했으며, 이는 남문(南門)의 문루가 올라가는 육축부(陸築部)에 석 홍예를 가장 먼저 시설한 것에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경상좌수영성은 남북 방향이 동서 방향에 비해 더 길다. 다른 성곽과 달리 동서 길이가 534m, 남북 길이가 280m로, 동서 방향의 길이가 남북 방향에 비해 두배 가량 더 길다. 또한 「경상도좌수영관아배설조사도(부산박물관 소장)」을 보면 동문에서 서쪽 구릉지(현 수영사적공원) 쪽으로 곧게 뻗은 길이 성의 주 축선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쪽 수영강 변에서 선창(船所) → 동문 → 원문(轅門) → 외삼문 → 내삼문 → 동헌·객사 → 산정(山亭)의 순으로 관아 및 주요 건물이 차례로 배치되어 있었다. 이같이 주 축선이 형성되니 관아들도 남향하지 않고 동향(東向)하게 자리 잡았다. 동문이 경상좌수영성의 주문(主門) 역할을 했으며, 왜적(倭敵)의 침입 경로가 바다를 거쳐 대천(大川), 즉 수영강을 거쳐 선창(산소)를 지나게 되어 있어 이에 대비해야 했기 때문이다. 향후 복원계획 수립 때 반드시 참고해야 할 부분이다.

경상좌수영 내 관아지에 대해서는 아직 발굴 조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지적원도』와 『수영유사』, 『경상도좌수영관아배설조사도』 등의 각종 문헌에 보이는 기록을 종합해 보면 위치를 어느 정도 비정할 수 있다. 특히 『경상도좌수영관아배설조사도』는 지적원도 위에 좌수영 내 관아들의 위치를 표기한 간략한 관아 배치도로, 도면의 조성시기는 자세히 않으나 좌수영성의 성곽 형태가 『지적원도』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보아 지적원도를 작성할 무렵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즉 지적원도가 작성된 1912년 이후 일제 초기에 관아의 위치 등을 파악할 목적으로 만든 것으로 보인다. 경상좌수영에서 본영(本營) 혹은 상영(上營)은 영진(營鎭)의 최고사령관인 수군절도사(정3품)가 관할했고, 중영(中營)은 수군절도사의 막료이자 부장(部將)인 우후(虞候, 정4품)가 관할했다. 성내(城內) 부속 관아는 수사영인 상영(上營)에 절도사가 공무를 보던 동헌, 비장청, 장관청, 군관청 등을, 그리고 우후영인 중영(中營)에 그가 공무를 보던 세검헌 등을 비롯한 여러 관아와 창고가 있었다.

2) 성 내외 시설

(1) 상영의 공해시설

경상좌수영성의 공해시설에 대해서는 그 위치에 따라 성내·성외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성내(城內)의 공해는 좌수사가 관할하는 상영(上營)에 속한 관아 및 우후(虞候)가 관할한 중영에 속한 관아 그리고 영저(營底)를 관리하는 면소(面所)로 크게 구분된다.

표10. 경상도 남부지역 내지(內地) 읍성의 공해(임란 이후)

읍지 공해명	여지도서 (輿地圖書,1757-65)	내영지 (萊營誌,1850)	영남영지 (嶺南營誌,1894)	경상도좌수영관아배설조사도 (1912년 이후)		비고
공해 명	결승당, 관운당, 영파당(객사), 세일현(중군거처), 어구(武士試才所), 영리청, 진무청, 대변청, 기고청, 사부청, 교사청, 포수청, 연무정(將臺), 척분정(舟師待變所)	객사(道光壬寅李圭澈重修), 관운당(卽籌軒), 백화당(裨將 啓請 5인, 화사 사자 각 1인), 벽유당(軍官?所居), 영태각(執事所居), 창화현(千摠所居), 진무청, 영리청(五人隨番), 세일현(虞侯處所), 우무현(射夫所居), 교사청, 통인방, 부용당(敎坊), 관노방, 사령방, 군뢰방, 포수청, 공인방		상영 (上營)	동헌, 내아, 비장청, 장관청, 수성청, 길청, 군관청, 영리청, 병교청, 별포청, 무사청, 포수청, 교사청, 하영방, 호방, 하번통방, 사령방, 군뢰방, 공인방	
				선소	비우당, 척분정	
				중영	우후영, 중영 집사, 영군관청, 중영 길청, 중영 관청	
				선소	중영 선소(船所)	
				면소		
				성내	독당	
				성외	빙고, 어구, 의용	
창고 명	군기(軍器汙物所藏之庫), 화약고, 공고(進上物件造成之庫), 영선(營中柴炭策應所), 관청(節度使支供所), 호방고(別餉米還分取耗年年會錄), 진휼창(米租牟還分取耗賑資添用之庫), 군창(屯稅租捧上戰船改造時雇價策應)	군기, 병고, 무고(在客舍庭畔), 화약고(在東門城畔), 선소(柳器, 木瓢, 竹, 葛漚, 乙亥年 各邑鎭捧), 호고, 진창, 군창, 영수고, 관청, 공고, 지창, 별조, 지방고.	병고, 관청, 영선, 중영, 영수고, 선소, 호고, 진창, 군창, 지방고, 군기	진창		



경상좌수영성의 공해시설 위치(S=1/10,000)

성내 공해로는 객사, 아사(衙舍)를 중심으로 비장청(裨將廳)·장관청(將官廳)·수성청(守成廳)·작청(吉廳)·군관청(軍官廳)·영리청(營吏廳)·병교청(兵校廳)·별포청(別砲廳)·무사청(武士廳)·포수청(砲手廳)·교사청(教師廳)·하영방(下營房)·호방(戶房)·하번통방(下番通房)·군뢰방(軍牢房)·사령방(使令房)·공인방(工人房)이 있었다.

① 객사(客舍)

경상좌수영에 있던 객사의 액호는 영파당(寧波堂)이었으며,⁵⁹⁾ 동쪽에 돌출된 중층 누각의 편액은 천척루(千尺樓)였다.⁶⁰⁾ 객사는 1750년에 중수(重修)한 바 있고⁶¹⁾, 1842년에도 수사이규철(李圭徹)이 빈관(賓館)의 도리가 찢고 서까래가 부서지며 단청이 흐려지고 기와가 흩어진 것을 보고 중수했다.⁶²⁾ 『경상도좌수영관아배설조사도』에 표기된 객사의 평면 형태는 동쪽 익사가 돌출된 ‘ㄱ자형’이다.

일제강점기에 촬영된 사진 중에 동쪽이 돌출된 ㄱ자형의 와가(瓦家)가 있는데, 앞쪽에, ‘망일관(望日館)’이라는 편액이 걸려 있는 것으로 보아 객사로 추정된다. 건축 양식은 창방과 장여 사이에 공간이 많은 것을 보면 이익공식으로 추정되며, 지붕 처마에는 암수막새

59) 公廨條 寧波堂即客舍, (『輿地圖書』, 1757~65년)

60) 樓亭條 千尺樓 客舍東樓, (『萊營誌』, 1850년)

61) 記文條 轅門樓上樑文, (『萊營誌』, 1850년)

62) 客舍重修記 李圭徹記由辛丑仲春...翌年壬寅年春...(『萊營誌』, 1850년)



경상도좌수영관아배설조사도(慶尙道左水營官衙配設調查圖, 일제강점기)



지적원도에 표기한 경상좌수영성의 지할(地割)과 공해(CAD, S=1/10,000)

기와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왕을 상징하는 전패(殿牌)를 봉안했던 객사(客舍)는 지적원도(1913)의 남수리 251번지[전]에 위치했으며, 이는 현 지적도의 수영동 251-17번지, 251-7번지로 추정된다. 현재 객사 터에는 2층 콘크리트 건물이 들어서 있다. 객사의 정문은 아사(衙舍)와 같은 외삼문 형태였으며, 객사에 이르기 위해서는 외삼문을 지나서 동쪽에 있는 내삼문을 거쳐 출입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아사(衙舍)

아사는 처음에 힐용당(詰戎堂)이라 했다가 1754년에 부임한 수사 이윤성(李潤成)이 수리하고 액호를 관운당(管雲堂)으로 바꾸었다.⁶³⁾ 아사인 관운당은 운주헌(運籌軒)⁶⁴⁾, 제승당(制勝堂)이라고도 했다.⁶⁵⁾ 1754년에 새로 지은 것은 동헌과 삼문, 고사 등을 합해 모두 32칸이었고, 내아와 낭무의 칸수는 25칸이었다.⁶⁶⁾ 「경상도좌수영관아배설조사도」에 보이는 아사의 평면 형태는 ‘一자형’이다, 정청의 정면 즉 동쪽에 내삼문을 두고, 그 동쪽에 외삼문을 배치한 형태이다. 그리고 내아(內衙)는 동헌 정청의 남쪽에서 직각으로 틀어 배치했다. 일제강점기에 촬영된 외삼문 사진에 ‘내해절도영문(萊海節度營門)’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외삼문은 객사와 아사에서 함께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

객사와 아사가 외삼문을 함께 사용하는 사례는 지방 읍성에서 보기 드문 것으로 병영성과 같은 좌수영에서 볼 수 있는 특별한 배치 형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외삼문을 통과한 다음 각각 별도의 내삼문을 거쳐 객사와 아사로 출입한 것으로 보인다. 외삼문은 솟을삼문 형식으로 맞배지붕에 기와를 덮은 형태였다. 어칸 지붕에는 암수 막새기와를 사용한 반면 좌우 퇴칸의 지붕에는 암수 막새기와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는 신문(神門)에 해당하는 어칸에만 높은 건축적 위계를 표현하기 위해 막새기와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에 찍은 사진에서 아사의 대청 앞에 ‘운주헌(運籌軒)’이라는 편액이 걸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지적원도를 토대로 아사의 위치를 비정하면 남수리 251번지[전,田]로 추정되며, 정청의 위치는 현 지적도의 수영동 251-2, 251-22번지이다. 그리고 내삼문은 지적원도 상의 남수리 251번지[전,田]이고, 현 지적도의 수영동 251-21번지이다. 외삼문의 위치는 지적원도의 남수리 251번지[전,田]이고, 이는 현 지적도의 수영동 253-1번지이다.

③ 내아(內衙)

내아는 좌수사 가족이 거쳐하던 건물로 「경상도좌수영관아배설조사도」에는 아사 남쪽

63) 記文條 管雲堂記, (『萊營誌』, 1850년)

64) 宮室條 管雲堂 卽(運)籌軒, (『萊營誌』, 1850년)

65) 東軒(管雲堂)(制勝堂)(運籌軒) 節度使所居處, (『慶尙道左水營官衙配設調査圖』)

66) 記文條 管雲堂記, (『萊營誌』, 1850년)



경상좌수영성의 객사 망일관(望日館) 근경 (출처: Bibliotheque du Musée d'Arts Décoratifs)



경상좌수영성의 정청 운주헌(運籌軒) (출처: Bibliotheque du Musée d'Arts Décoratifs)

에 직각으로 틀어 배치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내아(內衙)는 지적원도의 남수리 251번지[전]에 있었으며, 이는 현 지적도의 수영동 50-4 번지이다.

④ 이락정(二樂亭)

이락정은 객사와 아사에 부속된 정자로, 처음에는 편액을 결승당(決勝堂)이라 했다가 1833년에 부임한 수사 심한영(沈漢永)이 건물을 증건하고 액호를 이락정으로 바꿨다.⁶⁷⁾ 초기의 결승당은 1693년에 수사 이만하(李萬夏)가 처음 지은 후 태풍으로 무너져 빈터로 남아있었다. 그 후 부임한 수사 신만이 증건했다. 1757년에 동래부사로 도임한 홍중효(洪重孝)에게 증건기를 부탁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18세기 중엽에 증건한 것으로 보인다.⁶⁸⁾ 그 후 또다시 결승당(決勝堂)이 무너져 1833년에 그 터에 이락정을 증건했다. 이락정의 위치는 「경상도좌수영관아배설조사도」에 표기되어 있다. 객사의 서편에 위치했으며, 지적원도의 남수리 233번지이다. 현 지적도상으로는 수영동 233번지[공(公)]이며, 이는 수영사적공원 안쪽에 해당된다.

⑤ 비장청(裨將廳)

비장청은 백화당(百和堂)이라고도 하며, 군사 행정 업무를 담당했던 공해시설로 추정된다. 비장청에는 병(兵)·형(刑)·예(禮)·공(工)·호(戶)·군(軍)·진창(賑倉)·회계(會計) 등 9인 의 비장(裨將) 및 화사(畫師), 사자(寫子) 각 1인이 근무했다.⁶⁹⁾ 「경상도좌수영관아배설조사도」에는 비장청이 남문 가까이 위치한 것으로 되어 있다. 비장청은 지적원도의 남수리 255번지[전]이며, 현 지적도의 수영동 50-3번지이다.

⑥ 장관청(將官廳)

장관청은 집사청(執事廳)·교련당(敎鍊堂)·영태각(詠泰閣)이라 했다. 집사들과 기패관 등이 업무를 보던 청사로, 업무는 집사가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집사는 지구관(知穀官)이라 했는데, 이는 1전선(戰船), 수사의 기함(旗艦)에만 승선하는 무관이었다. 그래서 장관청은 수사의 기함에 승선하는 무관의 업무 처로 보인다. 장관청에는 수집사(首執事) 1인, 집사(知穀官) 5인, 초관(哨官, 旗鼓官) 6인, 전령기패관(傳令旗牌官) 6인, 병사(兵師) 2정(正)이 근무했다.⁷⁰⁾ 「경상도좌수영관아배설조사도」에서 장관청은 동문로 남측 즉 원문(轅門) 동쪽에 자리 잡고 있다. 장관청은 지적원도의 남수리 58번지[대, 학]이며, 현 지적도의 수영동 50-47, 50-48, 56번지로 추정된다.

67) 記文條 二樂亭記, (『萊營誌』, 1850년)

68) 記文條 決勝堂記, (『萊營誌』, 1850년)

69) 裨將廳(百和堂) 兵,刑,禮,工,戶,軍,賑倉,會計 等 九裨將 畫師, 寫子(「慶尙道左水營官衙配設調查圖」)

70) 將官廳(執事廳)(敎鍊堂)(永泰閣) 首執事一人 執事(知穀官)五人 哨官(旗鼓官, 旗牌官)六人 傳令旗牌官 六人 兵師二正, (「慶尙道左水營官衙配設調查圖」)

⑦ 수성청(守成廳)

수성청은 창화헌(暢和軒)이라고도 했으며, 경상좌수영성을 지키던 무관(武官)들이 업무를 보던 관청이었다. 이곳에는 천총(千摠) 1인, 파총(把摠) 2인, 초관(哨官, 百摠) 4인이 근무했다. 「경상도좌수영관아배설조사도」에서 수성청은 남문 가까이 자리 잡고 있다. 수성청은 장관청의 동남쪽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지적원도에서는 남수리 61번지[대]로 추정된다. 현재 지적도의 수영동 61-1번지, 50-46번지이다. 장관청은 지적원도의 남수리 61번지[대]에 있었고, 이는 현재 지적도의 수영동 50-47, 48, 56번지이다.

⑧ 작청(作廳·吉廳)

작청은 이두로 길청이라 했으며, 또는 아전청(衙前廳), 봉영연방(蓬營椽房)이라 하기도 했다. 행정을 담당하던 아전들의 관청으로 군현에서는 행정 실무의 최상위 기관이었다. 이방(吏房) 1인, 부이방(副吏房) 1인, 삼번이방(三番吏房) 1인, 병(兵)·허(戶)·공(工)·둔창(屯倉)·병선(兵船)·진창(賑倉)·회계(會計)·영수(領收)·지방(支放)·영선(營繕)·군기(軍器) 등 11색리(色吏), 승발(承發) 2인이 근무했다.⁷¹⁾ 「경상도좌수영관아배설조사도」에서 작청은 남문과 가까운 장관청 동남쪽에 있었다. 작청은 지적원도의 남수리 61번지[대]로 추정되며, 현재 지적도의 61-1번지와 50-46번지이다.

⑨ 군관청(軍官廳)

군관청은 벽유당(碧油堂) 또는 양무당(養武堂)이라 했다. 감관(監官)과 전선장(戰船將) 등이 일을 봤으며, 장관청보다 높은 군사 업무를 관장했던 관청이었다. 수교(首校) 1인, 좌병교(左兵校) 1인, 우병교(右兵校) 1인, 군창(軍倉)·군기(軍器)·병선(兵船)·진창(賑倉) 등 4인, 감관(監官)·전선장(戰船將) 4인 무사(武士)·별포(別砲)·원포(元砲, 砲手) 등 3인, 별장(別將), 군사(軍師) 1인이 근무했다.⁷²⁾

「경상도좌수영관아배설조사도」에서 군관청은 동문 간선로의 남쪽과 원문(轅門)의 동남쪽 가까운 곳에 있다. 군관청 남쪽에 병교청(兵校廳)이 있어 군관청 영역이 넓었을 것으로 보인다. 군관청의 위치는 지적원도의 남수리 58번지[학]이고, 현재 지적도의 수영동 58-47, 58-48번지이다.

⑩ 영리청(營吏廳)

영리청은 앞선 비장청과 같이 백화당(百和堂)이라 했다. 비장청과 마찬가지로 행정 업무

71) 吉廳(衙前廳)(蓬營椽房) 吏房一人, 副吏房一人, 三番吏房 一人, 兵·戶·工·屯倉·兵船·賑倉·會計·領收·支放·營繕·軍器 等 十一色吏, 承發二人, (「慶尙道左水營官衙配設調查圖」)

72) 軍官廳(碧油堂)(養武堂) 首校一人, 左兵校 一人, 右兵校 一人, 軍倉·軍器·兵船·賑倉 等 四人, 監官·戰船將 四人, 武士·別砲·元砲(砲手) 等 三人, 別將, 軍師 一人, (「慶尙道左水營官衙配設調查圖」)

를 담당하는 공해시설로 보인다. 비장청과 다른 점은 구성원의 수가 적고, 이방이 배치된 점이며, 이곳에서는 순수 행정 업무를 주를 처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영리청에는 병(兵)·리(吏)·형(刑)·예(禮)·계서(契書) 5인과 영리(營吏)와 사자(寫子) 1인이 일을 봤다.⁷³⁾ 「경상도좌수영관아배설조사도」에서 영리청은 남문 가까이 있고, 이는 비장청 남쪽이다. 영리청의 위치는 지적원도에서 남수리 255번지[전]이고, 현 지적도의 수영동 50-72번지이다.

⑪ 병교청(兵校廳)

병교청은 별청(別廳)이라고도 했다. 좌우병교(左右兵校)가 종사한 것을 보아 군관청에서 수병교와 사회적 거리를 두기 위해 별도의 관청을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 병교청에는 좌병교와 우병교 각각 1인이 근무했다.⁷⁴⁾ 「경상도좌수영관아배설조사도」에서 병교청은 군관청의 남쪽에서 직각으로 틀어 자리 잡고 있다. 병교청은 지적원도의 남수리 58번지[대, 학]이고, 현 지적도의 <수영동 50-6번지>이다.

⑫ 별포청(別砲廳)

별포청은 별포를 제작 관리하던 공해였다.⁷⁵⁾ 별포는 판옥선에 장치하지 않는 무기로 경상좌수영성을 방위할 때 사용하기 위한 화기로 추정된다. 별포청에는 별포별장(別砲別將) 1인, 별포 200명이 근무했다.⁷⁶⁾ 「경상도좌수영관아배설조사도」에서 별포청은 동문 간선로의 중앙 남쪽에 있다. 별포청의 위치는 지적원도의 남수리 86번지[대]이고, 현 지적도의 수영동 86-1번지이다.

⑬ 무사청(武士廳)

무사청은 별무사(別武士)는 기병(騎兵)이지만, 일반 군졸인 ‘마병(馬兵)’과는 달리 장교로서 대우받는 직임의 한 종류였다.⁷⁷⁾ 무사청에는 무사별장(武士別將) 1인, 무사(武士) 21명이 근무했다.⁷⁸⁾ 「경상도좌수영관아배설조사도」에 ‘무사(武士)’로 기록되어 있고, 위치는 동문 간선로의 중앙 남쪽에 있다. 무사청은 장관청의 동쪽에 있었고, 평면 형태는 ‘ㄱ자형’이었다. 무사청의 위치는 지적원도의 남수리 59번지[전]로 추정되며, 현 지적도의 수영동 59-3번지이다.

73) 營吏廳(百和堂) 兵,吏,刑,禮,契書 等 五 營吏, 寫子 一人,(「慶尙道左水營官衙配設調査圖」)

74) 兵校廳(別廳) 左右兵校各一人,(「慶尙道左水營官衙配設調査圖」)

75) 김병호, 전라좌수영지, 디지털여수문화대전(<http://yeosu.grandculture.net>)

76) 別砲廳 別砲別將一人 別砲二百名,(「慶尙道左水營官衙配設調査圖」)

77) 김준형, 2015, 「조선후기 경상도 별무사의 운영과 경제적 지위」, 부산경남사학회, 『역사와 경제』 97권, p.99.

78) 武士廳 武士別將一人 武士二十一名,(「慶尙道左水營官衙配設調査圖」)

⑭ 포수청(砲手廳)

포수청은 포수와 사수가 근무한 공간으로, 포수는 대형 화기는 물론 소형 화기인 조총(鳥銃)도 다루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포수청은 원거리 및 근거리 사격을 하는 병사들이 근무한 공해였다. 이곳에서 원포별장(元砲別將) 1인, 포수(砲手) 70명, 사부(射夫) 18명이 일했다.⁷⁹⁾ 「경상도좌수영관아배설조사도」에서 포수청은 동문 간선로의 중앙 남쪽에 있으며, 이는 무사청의 동쪽에 해당된다. 포수청의 위치는 지적원도의 남수리 71번지[垵]이고, 현 지적도의 수영동 71-2번지이다.

⑮ 교사청(教師廳)

교사청은 교사들이 근무한 공해시설로, 교사는 포수들의 상위 직급으로 초급 지휘관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수군이였다.⁸⁰⁾ 「경상도좌수영관아배설조사도」에서 교사청은 동문 간선로의 중앙 남쪽에 있으며, 이는 무사청의 동쪽에 해당한다. 교사청의 위치는 지적원도의 남수리 71번지[대]이고, 현 지적도의 수영동 71-2번지이다.

⑯ 하영방(下營房)

하영방은 영리청에서 분리된 공해시설이었다.⁸¹⁾ 「경상도좌수영관아배설조사도」에서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없다.

⑰ 호방(戶房)

호방은 좌수영의 별향미(別餉米)를 환곡으로 나누어 주고 이자를 받는 공해로, 호방고라고도 했다.⁸²⁾ 호적을 관리하는 호방과 달리 군영의 호방은 군포(軍布)에 관한 업무를 보았다. 그래서 별도의 공해시설을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 호방에 근무한 인원은 색리(色吏) 1인, 고자(庫子) 1명이였다.⁸³⁾ 「경상도좌수영관아배설조사도」에서 호방은 남문 가까이 있으며, 이는 영리청의 남쪽이다. 호방은 지적원도의 남수리 258번지[대]에 있었고, 현 지적도의 수영동 258-2번지이다.

⑱ 하번통방(下番通房)

하번통방은 통인들이 근무하는 집무처로 하번통방이 있는 것으로 보아 별도의 통인청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통인은 지인(知人)이라고도 하며 수령(守令)의 심부름, 행차 수행, 명령 전달을 하던 하급 아전이었다. 하번통방에 근무한 인원은 통인 30인이였다.⁸⁴⁾ 「경상

79) 砲手廳 元砲別將一人 砲手七十一名, 射夫十八名, (「慶尙道左水營官衙配設調查圖」)

80) 김병륜, 2013, 「관옥선의 승조원 편성에 대한 연구」,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이순신연구논총』 제20호, p.199.

81) 下營房 營吏廳附原旨也, (「慶尙道左水營官衙配設調查圖」)

82) 倉庫條 戶房庫別餉米還分取耗年年會錄, (『輿地圖書』, 1757-65년)

83) 戶房 色吏一人 庫子一名, (「慶尙道左水營官衙配設調查圖」)

도좌수영관아배설조사도」와 지적원도에서 통인청 위치는 남수리 43번지[대]로 추정된다. 「경상도좌수영관아배설조사도」에서 하변통방은 남문 간선로와 동문 간선로의 교차점에 있으며, 이는 비장청의 북쪽이다. 하변통방은 지적원도의 남수리 254번지[대]이고, 현 지적도에서는 수영동 50-3번지이다.

①⑨ 군뢰방(軍牢房)

군뢰방은 군뢰가 근무하는 건물로, 그는 죄인을 다스리는 일을 맡은 군졸이다. 군뢰방에는 방장(房長) 1인과 도군뢰(都軍牢) 40명이 근무했다.⁸⁵⁾ 「경상도좌수영관아배설조사도」에서 군뢰방은 남문 간선로의 서쪽, 비장청의 동쪽에 있다. 지적원도 상에서 군뢰방은 남수리 191번지[대, 공]에 있고, 현 지적도의 수영동 191-2번지이다.

②⑩ 사령방(使令房)

사령방은 사령들이 근무하는 집무 처로, 사령은 지방 관청에서 심부름 등을 하는 천한 일을 담당했다. 군관(軍官)·포교(捕校) 밑에 있으면서 죄인에게 곤장을 치는 일을 했다.⁸⁶⁾ 사령방에는 방장(房長) 1인과 도사령(都使令) 40명이 근무했다.⁸⁷⁾ 「경상도좌수영관아배설조사도」에서 사령방은 동문 간선로의 중앙 북쪽 즉 장관청 북측에 있다. 사령방은 지적원도의 남수리 188번지[대]이고, 현 지적도의 수영동 188-1, 2번지에 해당한다.

②⑪ 관뢰방(官牢房)

관뢰방은 관뢰와 흡창들의 근무처로, 관뢰는 군뢰와 달리 민간인의 죄를 다루었다.⁸⁸⁾ 흡창은 수사의 말을 크게 전달하는 사람들이다. 관뢰방에는 수뢰(首牢) 1인과 흡창(吸唱) 2명이 근무했다.⁸⁹⁾ 「경상도좌수영관아배설조사도」에서 관뢰방은 남문 간선로 중앙부 서편에 있으며, 이는 비장청 서쪽이다. 지적원도에서 관뢰방의 위치는 남수리 180번지[전]이고, 이는 현 지적도의 수영동 50-3번지, 50-8번지이다.

②⑫ 공인방(工人房)

공인방은 공인들이 일을 보던 공해로, 공인들은 물건을 만드는 장인과 음악을 다루는 아전들이었다. 공인방에는 공인장무(工人掌務) 1명과 공인 6명 그리고 음악 3명이 일했다.⁹⁰⁾ 「경상도좌수영관아배설조사도」에서 공인방은 동문 간선로의 중앙 북쪽에 있으며, 이는

84) 下番通房 通引三十人, (「慶尙道左水營官衙配設調査圖」)

85) 軍牢房 房長一人 都軍牢 四十名, (「慶尙道左水營官衙配設調査圖」)

86) 두산백과사전.

87) 使令房 房長一人 都使令 四十名, (「慶尙道左水營官衙配設調査圖」)

88)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원·부산대건축역사문화연구원, 2011, 『경상좌수영성지 종합정비계획』, p.50.

89) 使令房 房長一人 都使令 四十名, (「慶尙道左水營官衙配設調査圖」)

90) 工人房 工人掌務 一名 工人六名, 音樂三名, (「慶尙道左水營官衙配設調査圖」)

장관청의 북쪽이다. 공인방은 지적원도의 남수리 181번지[대, 국]이고, 현 지적도에서 수영동 180번지이다.

(2) 중영(中營)의 공해시설

중영에 속한 관청으로는 우후영(虞候營)과 내아, 중영 집사청, 중영 군관청 등이 있다.

① 우후영(虞候營)과 내아

우후영은 우후(虞候)의 집무처로, 액호는 세인현(洗銀軒)이다.⁹¹⁾ 우후영에는 우후 가족의 처소인 내아(內衙)가 있었다. 「경상도좌수영관아배설조사도」에서 우후영은 서쪽의 북문 간선로 중앙부의 서쪽에 있고, 이는 객사 북측이다. 우후영의 위치는 지적원도에서 남수리 251번지(전)로, 현 지적도의 수영동 251-15번지이다. 내아(內衙)는 우후영의 북쪽에 있었는데, 내아의 평면은 ‘ㄴ자형’이었다. 우후의 내아는 현 지적도의 수영동 251-17번지에 있었다. 「경상도좌수영관아배설조사도」의 우후영 앞에 ‘외삼(外三)’이라는 표기한 건물이 보이는데, 이것이 외삼문이다. 우후영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삼문을 거쳐야 했다. 객사를 가운데 두고 수사의 공간인 상영(上營)과 우후의 공간인 중영(中營)이 영역상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어 주목된다. 우후영을 객사 앞쪽에 배치한 것은 좌수사보다 낮은 관계(官階)를 고려한 결과이다.

② 중영 집사청(執事廳)

중영 집사청은 연무당(鍊武堂)이었다. 집사청은 우후의 전선(戰船)에 승선하는 집사들이 쓰던 공해시설이었다. 『여지도서(輿地圖書)』에서 우후의 전선(戰船)에 대해 기록하면서 집사와 지구관(知穀官)에 관해 서술하지 않았지만 『영남영지(嶺南營誌)』에는 집사에 관한 기록이 있어 이후에 우후의 전선에도 집사가 승선했던 것으로 보인다. 집사청에는 수집사(首執事) 1인과 집사 2인 그리고 초관(哨官) 2인이 함께 일을 보았다.⁹²⁾ 「경상도좌수영관아배설조사도」에서 중앙집사청은 ‘중집(中執)’으로 표기되어 있고, 서쪽에 위치하는 북문 간선로의 중앙부 동편에 있다. 중앙 집사청의 위치는 지적원도의 남수리 192번지[전]이고, 이는 현 지적도의 수영동 192-2번지이다.

③ 중영 군관청(軍官廳)

중영 군관청은 상영의 군관청과 같은 기능을 한 공해였다. 수교(首校) 1인, 감관(監官) 2인, 군관 2인, 병선장 1인, 무사 2인, 교사(教師) 2인이 일을 보았다.⁹³⁾ 상영의 군관청과 마

91) 虞候營(虞候處所) 內衙, (「慶尙道左水營官衙配設調查圖」)

92) 中營首執事(鍊武堂) 首執事 一人, 執事二人, 哨官二人, (「慶尙道左水營官衙配設調查圖」)

93) 中營軍官廳 首校 一人, 監官二人, 軍官二人, 兵船將 一人, 武士 二人, 教師 二人, (「慶尙道左水營官衙配設調查圖」)

찬가지로 우후가 관리하는 공해 중에서 가장 위계가 높았다. 「경상도좌수영관아배설조사도」에 ‘중군(中軍)’이라 표기된 건물이다. 중영 군관청은 서쪽에 있는 북문 간선로 중앙부 서편에 자리 잡고 있었다. 중영 군관청은 우후영 외삼문의 북동쪽 가까이 있었다. 평면은 ‘ㄱ자형’이며, 지적원도의 남수리 251번지[전]이다. 이는 현 지적도의 수영동 202-3번지이다.

④ 중영 작청(作廳·吉廳)

중영의 작청은 중영의 일반 행정 업무를 보던 공해였다. 중영 작청에는 이방 1인과 색리 3인이 근무했다.⁹⁴⁾ 「경상도좌수영관아배설조사도」에서 ‘중고(中吉)’로 표기된 건물이 중영 작청이다. 좌수영의 서쪽에 있던 북문 간선로의 북쪽 서편에 위치하며, 이는 군관청의 동쪽이다. 중영 작청은 지적원도의 남수리 202번지[대]에 있었고, 이는 현 지적도의 수영동 202-3번지이다.

⑤ 중영 관청(官廳)

중영 관청은 중영의 식사와 빈객(賓客)을 접대하던 공해로, 색리 1인이 근무했다.⁹⁵⁾ 「경상도좌수영관아배설조사도」에는 ‘중관(中官)’으로 표기되어 있고, 우후영과 중영 군관청 사이에 있다. 중영 관청은 지적원도의 남수리 248번지[대]이고, 현 지적도의 수영동 250-7번지, 250-8번지에 해당한다.

(3) 면소(面所)와 그 외 공해시설

기타 관청으로 면소(面所), 원문(轅門), 수군 장대 등이 있었다.

① 면소(面所)

면소는 마을을 통치하기 위한 공해시설로 영저(營底)에 위치했던 것으로 보인다. 면소(面所)에는 면수(面首)와 공사(公事) 1인, 유사(有司) 1인이 일을 보았다.⁹⁶⁾ 「경상도좌수영관아배설조사도」에서 면소의 위치는 확인되지 않으며, 또 기록이 없어 위치를 알기 어렵다.

② 원문(轅門)

원문은 군영(軍營)·진영(陣營) 앞에 있던 문을 말한다. 옛날 중국에서 전렵(田獵)할 때나 전쟁할 때 진을 칠 때 수레로써 우리처럼 만들고, 그 드나드는 곳에 수레를 뒤집어놓아 수레의 끝채가 서로 향하게 만든 것에서 유래했다.⁹⁷⁾ 일반적으로 원문은 성에서 떨어진 외성

94) 中營吉廳 吏房一人 色吏三人, (「慶尙道左水營官衙配設調査圖」)

95) 中營官廳 色吏 一人, (「慶尙道左水營官衙配設調査圖」)

96) 面所 面首 公事一員 有司員一人, (「慶尙道左水營官衙配設調査圖」)

97) 한국고전용어사전, 2001. 3. 30.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지만, 울산 병영성처럼 내부에 원문을 설치한 사례로 있다. 경상좌수영성은 동문을 들어와 원문을 거쳐 객사와 아사로 출입하던 공간 구조로 지방 읍성의 관아와는 출입 방식이 달랐다.

경상좌수영의 원문은 수영이 현재 자리로 옮겨온 후 곧바로 건립되지 않고, 1703년에 수사 이기태(李基泰)가 처음 원문을 짓고 액호를 제풍루(霽風樓)라 했다. 1718년에는 수사 민원중(閔遠重)이 이를 중수하고 액호를 척수루(滌愁樓)로 고쳤으며, 1730년에는 수사 최명주(崔命柱)가 다시 원문을 수리하고 액호를 수향루(受降樓)라 변경했다. 1748년에 수사 이만유(李萬維)가 원문을 중수하고 기문을 남겼으며, 1848년에는 수사 이현직(李顯稷)이 원문을 중수하고 기문을 남겼다.⁹⁸⁾ 원문은 중층 문루 형태로 추정된다. 「경상도좌수영관아배설조사도」에는 동문 간선로 끝부분에 있다. 그 위치는 현 수영·망미 2파출소와 진선미사진관 사이로 추정된다.

③ 수군 장대(將臺)

경상좌수영의 장대(將臺)는 성 내외 두 곳에 건립되어 있었다. 이중 성내(城內)의 장대는 수성(守城) 장대로 액호를 선위정(宣威亭)이라 했다. 1780년에 수사 신응주(申應周)가 성벽을 수리하면서 장대(將臺)를 짓고 자신이 기문을 지었다.⁹⁹⁾ 「경상도좌수영관아배설조사도」에서 수군 장대는 아사의 외삼문 및 시문(屍門) 사이에 있다. 성내 수군 장대는 지선로의 중앙 부에서 서편에 치우쳐 있었다. 지적원도의 남수리 251번지[전]로, 현 지적도의 수영동 50-4번지에 해당한다.

④ 명후당(明候堂)

명후당은 사대(射臺)에 속한 정자로, 성내 서남쪽에 있었다. 1829년에 수사 안광찬(安光贊)의 명후당을 중수했으며, 규모는 정면 4칸이었다. 서쪽 1칸은 고직사이고, 동쪽의 3칸은 사례의 음풍(吟諷)하는 곳으로 삼았다. 남쪽에 중층 누각이 있어 이를 대유루(大有樓)라 했으며, 동쪽은 해운대와 통하므로 운함헌(雲涵軒)이라 했다.¹⁰⁰⁾ 영선방 남쪽에 위치했던 것으로 보아 남문과 영선방 사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교방(敎坊)

교방은 부용당(芙蓉堂)이라 했으며, 관기(官妓)가 사용하는 공해였다. 「경상도좌수영관아배설조사도」에서 교방은 동문 간선로 서쪽 끝부분의 북쪽 즉 원문의 북동쪽에 있다. 교방은 지적원도의 남수리 195번지[대,국]이고, 이는 현 지적도의 수영동 50-4번지이다.

98) 記文條 轅門樓上梁文・重修文, (『萊營誌』, 1850년)

99) 記文條 宣威亭記, (『萊營誌』, 1850년)

100) 記文條 明候堂記, 1850, 『萊營誌』.樓亭條 營繕南樓 翼宗己丑 水使 安光贊 新建, (『萊營誌』, 1850년)

⑥ 영선방(營繕房)

영선방은 좌수영에서 사용하는 땔감을 보관 공급하는 공해였다.¹⁰¹⁾ 「경상도좌수영관아배설조사도」에서 영선방은 장대(將臺)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영선방은 지적원도의 남수리 251번지[전]이고, 이는 현 지적도의 수영동 231번지(공)에 해당된다.

⑦ 마방(馬房)

마방은 군마(軍馬)의 마굿간으로 보인다. 「경상도좌수영관아배설조사도」에서 마방은 공인방 북쪽에 위치하며, 지적원도의 남수리 182번지[대]이다. 이는 현 지적도의 수영동 182번지로 추정된다.

(4) 창고

군기고(軍器庫)는 군기와 변물을 보관하는 창고로,¹⁰²⁾ 「경상도좌수영관아배설조사도」에서 창고는 아사의 외삼문 동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창고는 지적원도의 남수리 252번지[대, 국]에 있었고, 현재 지적도의 수영동 251-2번지이다. 「경상도좌수영관아배설조사도」에서 화약고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내영지』에 동문 주변에 있다는 기록이 보인다. 적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고, 화약을 많이 사용하는 선소(船所)와 가까운 곳에 위치했다. 그 위치는 지적원도 상의 수영동 111번지[대]로 추정된다. 이밖에 진상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인 공고(工庫)¹⁰³⁾에 대한 기록은 보이지 않으며, 「경상도좌수영관아배설조사도」에도 위치가 표기되어 있지 않다. 이밖에 호방고(戶房庫)의 기능은 앞에서 설명한 바 있으며, 관점에 따라 이를 창고로 보기도 하고 공해시설로 구분하기도 한다.

진휼창(賑恤倉)은 토반당(兎班堂)이라고 한다. 흉년 때 백성에게 곡식을 빌려주고 그 이자를 보태어 받은 곡식을 보관하는 창고였다,¹⁰⁴⁾ 군창(軍倉)은 둔전 세곡을 봉상(捧上)하거나 전선 개조할 때 드는 품삯을 대는 창고였다.¹⁰⁵⁾ 그 외 병고(兵庫)로 영수고(營需庫)·지창(紙倉)·별조(別造)·지대고(支待放庫) 등이 있었다. 이중 영수고의 위치는 영선방으로 추정된다.

(5) 성외(城外) 공해시설

경상좌수영성 밖에 있던 관청으로 수군장대, 어구정(禦寇亭), 빙고(氷庫) 등이 있었다.

① 수군 장대(將臺)

101) 倉庫條 營繕營中柴炭策應所, (『輿地圖書』, 1757~65년)

102) 倉庫條 軍器庫 軍器 汴物所藏之庫, (『輿地圖書』, 1757~65년)

103) 倉庫條 工庫 進上物件造成之庫, (『輿地圖書』, 1757~65년)

104) 倉庫條 賑倉 米租牟還分取耗賑資添用之庫, (『輿地圖書』, 1757~65년)

105) 倉庫條 軍倉(屯稅租 捧上 戰船改造時 雇價策應), (『輿地圖書』, 1757~65년)

성내에 있던 선위정(宣威亭)외에 성 밖에도 주사(舟師, 水軍) 장대인 연무정(鍊武亭)이 있었다. 이 장대는 수조(水操)의 관찰 및 사대(射臺)로 쓰였다. 『여지도서』를 보면 경상좌수영성의 남쪽에 있는 백산과 황령산 사이에 수군 장대가 위치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이 장대는 동향(東向)했다. 사방에 나무로 울타리를 친 다음 동쪽 정문에 과녁을 설치했다. 「경상도좌수영관아배설조사도」에 제대로 표기되어 있지 않고, 지적원도에서도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장대골이라는 지명이 남아 있어 지명으로 장대의 위치를 추정할 수 있다. 이것으로 보아 장대는 대략 수영중학교(광안동 732번지)와 동아중학교(광안동 1222-23)의 터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¹⁰⁶⁾

② 어구정(禦寇亭)

어구정은 성내의 사대(射臺)를 밖으로 이진(移建)하면서 지은 정자이다. 1757년에 부임한 수사 구간(具侃)가 새터에 사대로 어구정을 건립했다.¹⁰⁷⁾ 어구정은 사대로도 사용했지만, 무사들의 시재소(試才所)로 사용되었다. 『여지도서』에는 ‘어구정(禦寇亭)’을 그려놓고, 중천의 남쪽 즉 황령산 동측 사면 말단부에 과녁을 만들어 놓았다. 「경상도좌수영관아배설조사도」에는 어구정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다. 이는 지적원도의 광안리 844번지[대]이며, 현 지적도의 수영동 452-17, 18번지로 추정된다.

③ 빙고(氷庫)

빙고는 겨울에 결빙(結氷)된 얼음을 여름까지 보관하기 위한 창고로 좌수영에서도 운영했다. 빙고는 「경상도좌수영관아배설조사도」에도 묘사되어 있다. 지적원도 상의 광안리 843번지[대]이고, 이는 현 지적도의 452-17, 20번지이다.

(6) 단묘(壇廟) 시설

단묘 시설로는 독당(蠶堂), 성황사(城隍祠), 산정신사(山亭神祠), 25의용단 등이 있었다.

① 독당(蠶堂)

독(蠶)은 옛날 중국 전설상의 군왕인 황제(黃帝)가 치우(蚩尤)와의 탁록 대전에서 승리한 이후 그 머리로 만들었다고 한다. 치우는 중국 고대인들에게 엄청난 괴력을 소유한 전쟁의 신으로 받아들여졌다. 특히 장기간에 걸쳐 전란이 계속되었던 춘추전국시대에 이러한 치우의 이미지가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도 광범위하게 수용되었다. 그리하여 치우는 황제에 반하는 악의 화신으로서의 성격과 동시에,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로 숭배되었다.

독(蠶)은 이러한 이미지를 차용(借用)하여 만든 군의 의장물이었다. 그 모양은 창에 꿰어

106) 선석열, 「장대골 마을」, 『부산역사문화대전』 (<http://busan.grandculture.net>)

107) 記文條 御寇亭記, (『萊營誌』, 1850년)

진 치우의 머리를 표현하고 있었다. 중국 고대 문헌에 따르면 아주 이른 시기부터 독은 군 지휘자의 군권을 상징하는 의장물로 채택되어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도 고려 충렬왕 대 기록에 이미 독의 존재가 보이고, 조선 건국 직후 강무당(講武堂)에 독기를 설치했던 기록이 보인다.

조선시대에는 정기적으로 독에 제사를 지냈는데, 이를 독제(독제)라고 했다. 독제에는 2기의 큰 독기와 2기의 작은 독기가 사용되었다. 한편으로 독은 왕의 행차 시 노부(鹵簿) 행렬 맨 앞에 늘 고정적으로 배치되기도 했다. 한편으로 독은 실제 군사행동 직전에 제사를 지내는 대상이기도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여러 차례의 여진(女眞) 정벌과 대마도 정벌 등 실제 군사 작전이 몇 차례 있었다. 이때 출병 전 한성에서 독제를 지내거나, 혹은 군사 작전 지역으로 이동하여 전투 전에 독제를 지냈던 기록이 남아 있다. 이로 보아 여타의 의장물들이 왕의 권위를 상징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실질적인 기능은 없었던 반면에, 독은 실질적 기능과 의장으로서의 기능을 동시에 겸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¹⁰⁸⁾

경상좌수영의 독당은 산정방(山亭坊)에 있었으며¹⁰⁹⁾, 봄철에는 경칩(驚蟄), 가을에는 상강(霜降)에 독제를 지냈다.¹¹⁰⁾ 「경상도좌수영관아배설조사도」에 독당이 표시되어 있다. 이는 지적원도의 남수리 299번지[임]이며, 이는 현 지적도의 수영동 229-1번지이다.

② 성황사(城隍祠)

성황사는 동문 밖에 있었는데¹¹¹⁾, 「경상도좌수영관아배설조사도」에는 표기되어 있지 않다. 현존하는 무신사 자리가 옛 성황사 터로 추정된다.

③ 산정신사(山亭神祠)

산정신사는¹¹²⁾ 경상좌수영성 내 산정방에 있던 신사로 추정된다. 산정신사는 지목이 ‘사(社)’인 곳에 있었으며, 위치는 지적원도의 남수리 271번지로 추정된다. 「경상도좌수영관아배설조사도」에 산정신사의 위치가 표기되어 있지 않다. 이 밖에도 지적원도 상의 망미동 325번지[사]와 민락동 470번지도 지목이 ‘사(社)’인 것으로 보아 이곳에도 사당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④ 의용단(義勇壇)

의용단은 25의용단(부산시 기념물)을 말한다. 임진왜란 때 경상좌수사 박홍이 경상좌수영성을 버리고 도망가자 수영성의 주민들이 모여 7년 동안 왜군에 맞서 싸웠다. 1863년에 수

108) 독(蠶), 위키 실록 사전, (sillokwiki(dh.aks.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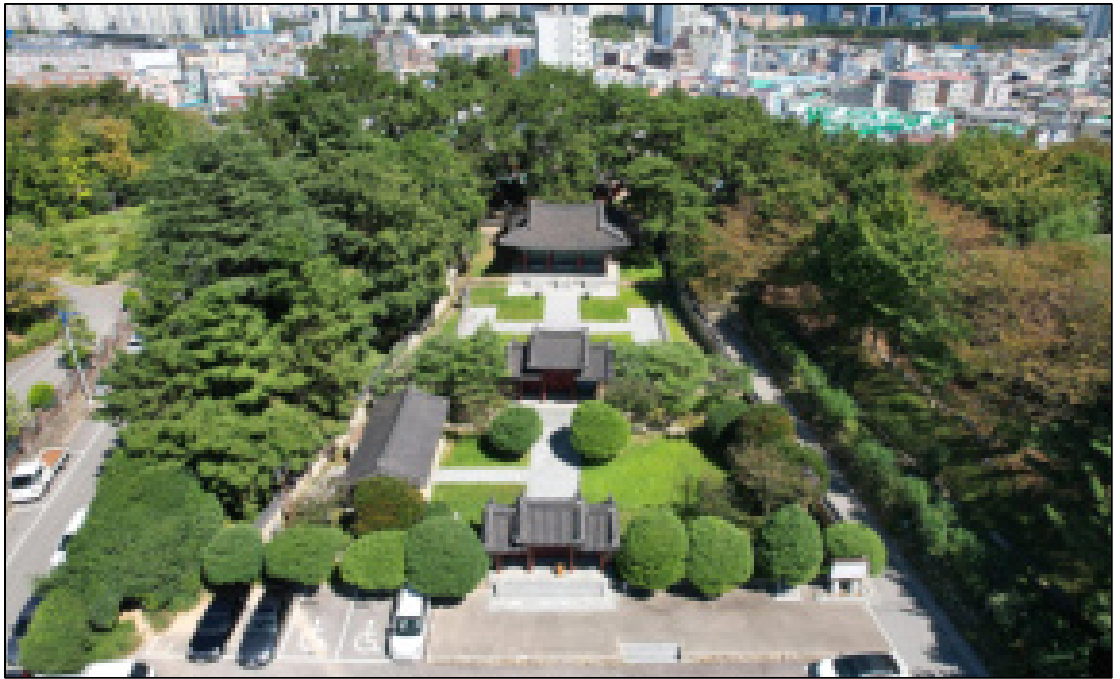
109) 壇廟條 在山亭, (『萊營誌』, 1850년)

110) 祀典條 春驚蟄秋霜降設行, (『萊營誌』, 1850년)

111) 壇廟條 城隍祠 在東門外, (『萊營誌』, 1850년)

112) 壇廟條 山亭神祠, (『萊營誌』, 1850년)

사(水使) 장인식(張寅植)이 이를 기리고자 25개의 비석을 세우고 의용단이라 붙였다. 매년 음력 9월말 정일(丁日)에 추모 제향을 지내고 있다. 「경상도좌수영관아배설조사도」에 ‘의용(義勇)’이라고 표기한 것이 보이며, 의용단은 좌수영성 서북쪽 지금의 25의용단 앞쪽에 있었다. 위치는 지적원도의 망미동 353번지[사, 국]이고, 현 지적도로는 수영동 372번지이다.



25의용단 전경(경상좌수영성지 내)

㉓ 선소(船所)

선소는 군선과 전선 그리고 정탐선 등의 선박의 접안과 수리를 하는 수상부와 수군들의 군례(軍禮)를 행하던 공해시설 그리고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로 이루어진 육상부로 구성되어 있었다. 『여지도서』에는 선소(船所)로 보이는 표식이 있다. 즉 척분정 동쪽에 사각형의 표식이 있는데, 이것은 상영(上營) 선소를 폐쇄했을 때의 굴강(掘江) 모습을 그린 것으로 보인다. 척분정의 북동쪽에 있는 ‘凹’ 자형 선소는 우후의 굴강으로 추정된다.

1872년에 편찬한 『조선후기 지방도』의 「경상좌수영지형도」에는 선소(船所)를 선창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선소는 동문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선창은 동쪽으로 긴 장방형의 마당을 중심으로 동쪽으로 수영강 우안(右岸)에 접한 부분에 석축을 하고, 동쪽은 건물로 에워싸 위요(圍繞)된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선창의 남에는 정문으로 보이는 솟을대문이 있었다. 이 선창을 중심으로 남쪽에 연훈강(煙燠江)이 있고, 북쪽에 우후의 선창이 있는 것으로 묘사했다. 굴강(掘江)에 호안 석축을 한 것처럼 묘사했으며, 우후의 선창의 서쪽에도 건물을 배치하여 굴강과 외부 영역이 명확히 구분되도록 했다.

선소(船所)의 수상부는 조선 후기 고지도에서도 일부만 확인되며, 「경상도좌수영관아배설 조사도」에도 선소의 육상부 공해만 표기해 놓았다. 선소 주변을 측량한 여러 장의 지적원도 중 광안리 1·2호가 결실(缺失)되어 선소의 원형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지적원도가 결실된 구역에 대해서는 후대에 만든 지적도로 확인했으며, 이로 인해 지목은 현재의 지목밖에 알 수 없다. 선소의 구체적인 규모와 건물의 배치를 알기 위해서는 시발굴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1950년도에 경상좌수영성지를 촬영한 항공사진을 통해 선소에 대한 좀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선소는 좌수사 관할의 상영(上營) 선소와 우후가 사용하는 중영(中營) 선소로 구분된다. 두 선소는 모두 수영강(구 대천)의 우안에 있는 자연 제방을 굴착하여 조성한 굴입형(堀入形)이었으며,¹¹³⁾ 선소에 대해 기록과 항공사진 등을 종합하여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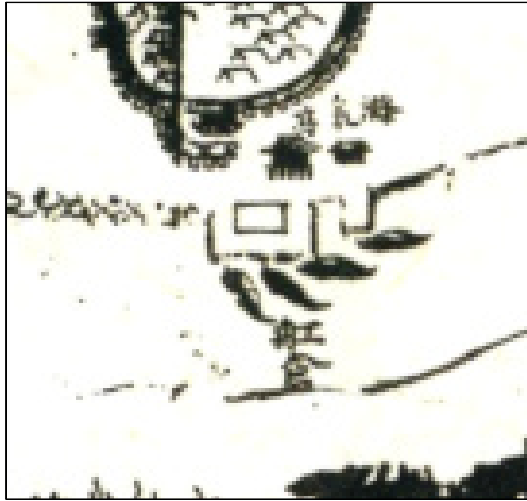
① 상영(上營) 선소

1950년에 선소지(船所址)를 촬영한 흑백 항공사진이 있어 선소의 원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 사진에는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뚜렷이 구분되는데, 밝은 부분은 지대가 낮은 곳으로 지형이 주변보다 높은 곳이다. 항공사진의 북동쪽 모서리에서 동쪽으로 길게 돌출된 부분이 어두운 것으로 보아 그 부분이 다른 데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대가 높은 곳의 전체 형태는 동쪽 끝단이 남으로 뺀 ‘ㄱ자형’으로, 조선 후기 그림지도와 맞추어 볼 때 이곳은 상영 선소의 육상부터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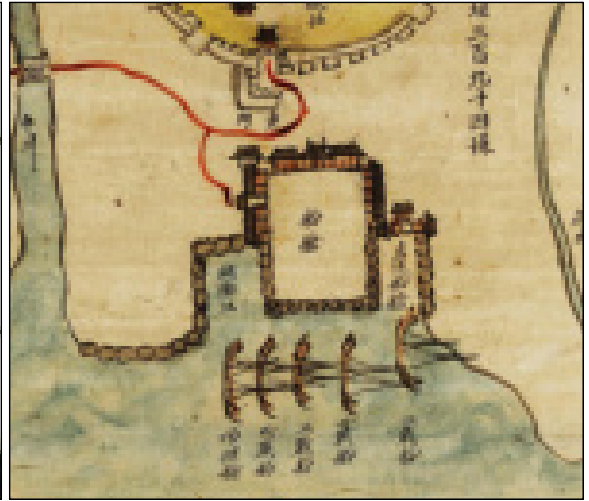
그리고 항공사진의 ‘ㄱ자형’ 상영 선소지의 남쪽은 검게 보인다. 이는 지대가 낮은 곳으로 상영 선소의 수상부로 추정된다. 이곳은 정박중인 전선(戰船)을 연훈하던 연훈강(煙燠江)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연훈은 매달 그음과 보름에 선박에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하던 작업을 말한다. 연훈강의 위치는 지적원도 상의 광안리 2~7번지(전), 8~15번지(전)이다. 지적원도에서 광안리 20번지의 경우 지목이 ‘전(전)’이나 이는 후대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었는지 처음부터 지대가 낮은 전이었는지는 알기 어렵다. 위 항공사진만 두고 볼 때 인위적으로 굴착한 것으로 보이며, 이곳은 전선의 접안 장소로도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곳은 썰물 때도 배를 운항해야 하므로 남쪽과 서쪽에 제방을 쌓아 일정한 수심을 유지했다.

후대 연훈강에 토사가 퇴적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전선을 수영강에 정박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진에는 지적원도의 광안리 21번지(잡), 22번지(잡), 31번지(잡), 32번지(잡) 외곽에 석축한 것이 보이며, 이는 『조선후기지방도』 중 「경상좌수영지형도」에서도 확인된다. 1950년 항공사진에서 지적원도의 광안리 7번지(잡)가 주위보다 어두운 것으로 보아 지형이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연훈 및 배를 건조할 때 지대가 높은 북쪽은 그대로 사용하고

113) 권순강·이호열, 2019, 「경상도 남부지역 연해 군현과 수군영진의 선소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제28권 통권 123호, p.14.



선소(船所, 조선 후기, 輿地圖書)



선소(船所: 1872년 지방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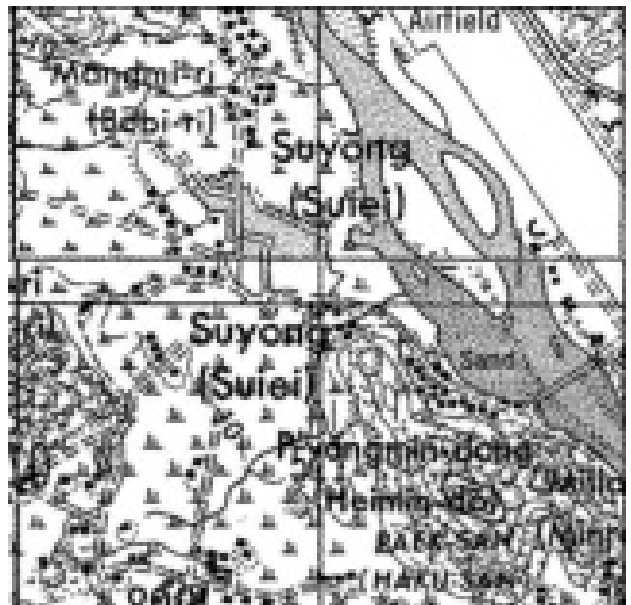
1950년, 항공사진에 보이는 선소(船所, 국토지리정보원 제공)

하고 광안리 7번지 남쪽은 썰물 때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임시로 막았던 것으로 보인다. 광안리 21번지(잡), 22번지(잡), 31번지(잡), 32번지(잡)도 항공사진에서 어둡게 보이는 것으로 봐서 인위적으로 굴착하여 군선의 접안 장소로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곳은 물이

빠지는 썰물 시에도 전선을 운항할 수 있게 늘 일정한 수심을 늘 유지해야 했다. 이를 위해 남쪽, 서쪽에 제방을 축조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선 말기에 이르러 여기에도 퇴적물이 쌓이자 부득이 전선(戰船)을 수영강 변에 정박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② 척분정(滌氛亭)

척분정은 한동루(閑東樓) 또는 척분정이라 했으며, 동문 밖 대변소(待變所)에 있었다.¹¹⁴⁾ 이 대변소는 주사(舟師)의 대변소로서 선소로 가는 주 출입문으로서 중층 문루 형식으로, 출정시에는 군례(軍禮)를 행하는 장소였다. 척분정에 대한 기록은 수사 이언섭(李彦燮, 재임 1747~1749년)이 쓴 중수기에 보이며, 누각에는 단청을 칠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수사 박재하(朴載河, 재임 1760~1762년)가 쓴 기문에는 흉년으로 선창(산소) 수리 공사가 한때 중지되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¹¹⁵⁾



1946년도 지형도에 보이는 선소(船所)

『조선후기지방도(1872년)』의 「경상좌수영지형도」에는 동문과 선창(船艙)을 연결하는 길이 적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척분정을 솟을삼문이 있는 건물로 묘사했다. 「경상도좌수영관아배설조사도」에서 척분정은 ‘척분(滌氛)’이란 약어로 표기되어 있다. 척분정의 위치는 지적원도의 광안리 8번지(전)이고, 현 지적도의 수영동 500-8번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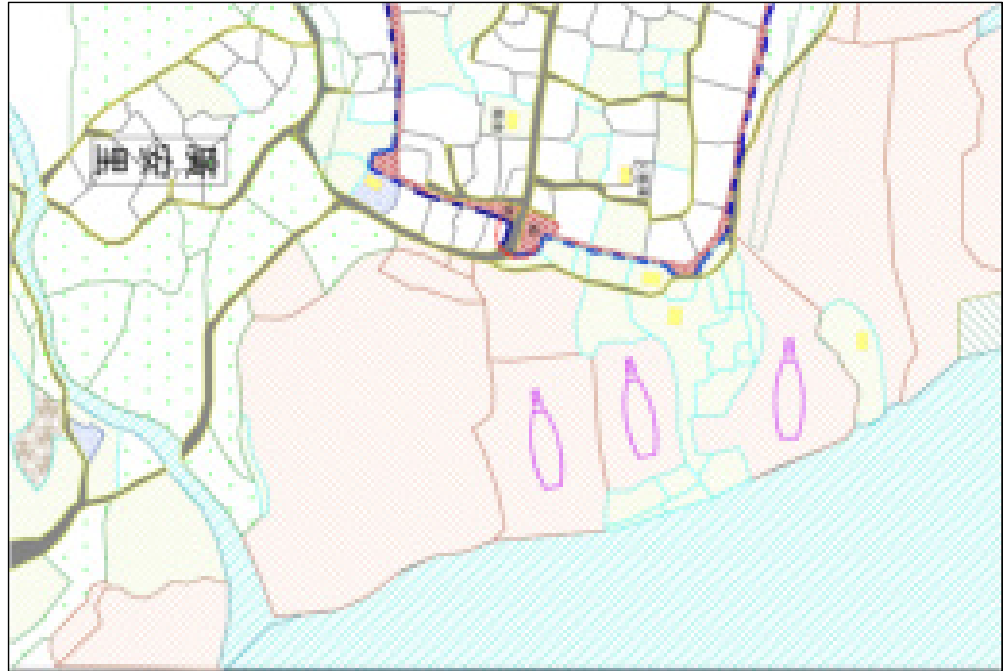
③ 비우당(備虞堂)

비우당은 척분정의 오른쪽에 있었으며, 수군 감관이 근무하던 공해였다.¹¹⁶⁾ 수군의 감관은 수사의 기함인 일전선(一戰船)에 승선하여 수사를 대신하여 진두지휘하는 선장이었다. 「경상도좌수영관아배설조사도」에 ‘비우(備虞)’로 표기했으며, 경상좌수영성지의 동북 성벽에 인접 배치되어 있다. 비우당은 선창의 주요 영역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다른 공해와 달리 경상좌수영성 내부에도 입지하지 않은 특징을 보인다. 이는 선박을 관리하던 감관의 업무 특성을 잘 보여준다. 비우당의 위치는 지적원도의 광안리 18번지(전)이고, 현 지적도의 수영동 500-8번지이다.

114) 樓亭條 在東門外 舟師待變所, (『萊營誌』, 1850년)

115) 記文條 閑東樓 滌氛亭 重修記 · 滌氛亭記, (『萊營誌』, 1850년)

116) 樓亭條 在滌氛亭右 舟師監官任所, (『萊營誌』, 1850년)



경상좌수영의 선소(船所) 위치(지적원도, CAD 도면)

④ 중영(中營) 선소

1950년도에 촬영한 항공사진을 판독하면 상영 선소의 육상부 북쪽에 낮은 구역(굴착부)이 있고, 그 북쪽은 굴착부에 비해 고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북쪽 낮은 곳(굴착부)은 중영 선소의 수상부(즉 掘江部)이고, 그 북쪽 높은 곳(사진의 밝은 부분)은 중영 선소의 육상부로 추정된다. 중영 선소의 육상부는 지적원도의 망미동 249번지(전)이고, 수상부는 광안리 1번지(잡)이다. 중영 선소에도 대변정과 같은 누정(樓亭)과 창고 등의 공해가 배치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기록이 없어 자세하게 확인할 수 없다.

(8) 염전(鹽田)

염전은 바닷물을 농축시켜 소금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자연 증발지로, 일정한 면적의 토지를 구획하여 조성한다. 조선시대 제염(製鹽) 방식은 자염(煮鹽)으로 바닷물을 졸여서 소금을 만들었다. 1912에 측량해서 만든 『지적원도』를 보면 경상좌수영성 동문 밖 수영강 연안에 지목이 ‘염(鹽)’인 토지들이 넓게 분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경상좌수영 주도로 이 염전에서 소금을 생산하여 군비로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소금의 생산은 궁가(宮家)에 허락된 특권 중 하나였다. 즉 국왕의 자녀들인 고위 왕족들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필요한 경제력을 넉넉히 확보할 수 있도록 재산 분급 형식으로 염전을 하사했다. 그러나 경상좌수영과 같은 영진(營鎭)에서 소금을 생산하도록 허락한 것은 1750년(영조 26)에 군역법을 시행하면서 부터이다. 군역법의 목적은 양인들의 군역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있었다. 2필의 군포가 1필로 감해지자 자연히 감포(減布)로 인한



경상좌수영 관하(管下)의 선창 및 염전, 노전의 위치

군비의 부족 재원을 보충해야 하는 대책으로 군역청을 설치하여 과거 소수 왕족들에게만 특권으로 부여했던 염전을 바닷가에 인접한 경상좌수영(水營)에도 군비 보충을 위해 설치하도록 허락했다. 소금에 대한 세금인 염세(鹽稅)를 비롯 물고기를 잡는 장치인 어살에 대한 세금인 어전세(漁箭稅), 배에 대한 세금인 선세(船稅) 등은 군역청의 재원으로 분류되었고, 이로부터 수세(收稅)한 자금을 각 군영에 지급하여 부족한 군비에 보태도록 했다.

1850년 편찬된 『내영지』에서는 소금(鹽)을 좌수영의 토산품 중 하나로 소개하고 있다. 또한 1894년 펴낸 『영남영지』에도 좌수영 인근 염전에서 생산된 소금의 양은 연간 24석(石)이고, 매년 정월에 납입되어 군비로 지출되었으며, 군관(軍官)과 감관(監官)들 그리고 아전청(衙前廳)과 영리청(營吏廳)에 배분되었다는 내용이 보인다. 당시 염전의 위치는 지금의 수영동 484, 487, 488, 490, 512, 517번지 및 망미동 209번지 일대로 추정된다.

(9) 노전(蘆田)

노전은 직역한다면 습지성 식물인 갈대의 발을 의미하며, 하천의 퇴적작용으로 강 하류에 형성된 자연 습지에 형성된 갈대밭이었다. 갈대는 그 용도가 다양하고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상품경제가 발달하기 시작한 조선 후기에는 상품으로서 각광을 받았다. 특히 바닷가와 강가의 자연 퇴적된 곳이나 방조제를 통해 획득되는 해택가경전(海澤加耕田)은 갈대의 이용과 함께 개간하면 바로 경지로 전환할 수 있어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갈대가 많이 나는 들판은 소금을 생산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갈대는 취사에서의 땀감, 자리와 방석 및 발(簾)이나 삿갓, 지붕 재료, 농우(農牛)의 사료로도 이용할 수 있어 경제성이 좋은 토지였다. 그래서 염전과는 달리 갈대밭은 양안(量案)에 田畚·저전(楮田)·죽전(竹田)·송전(松田)·저전(苧田)·과전(果田)·채전(菜田)과 함께 국가의 재원확보에 중요지목으로 등재되었다.

1912년에 만든 지적원도를 통해 좌수영성 인근에 수영강의 퇴적으로 인해 강가에 많은 노전이 분포하는 것과 그 인근에 염전이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좌수영 부근 강변에서 바닷물의 입강(入江)과 퇴적이 동시에 심하여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좌수영 인근의 노전은 지금의 수영동 488, 489 492, 493, 494, 528번지 및 망미동 205, 207번지 일대에 분포했던 것으로 보인다.

25 경상좌수영의 전선과 병기

조선 후기 경상좌수영 관할 하의 군선은 전선(戰船) 15척, 병선(兵船) 15척, 사후선(伺候船) 30여 척, 탐선(探船) 1척이 대체적인 군선 정액이었다. 전선의 경우 판옥선(板屋船)이 주력 전투함이었고 귀선(龜船)은 전선의 개조 형태의 하나로 보이며 병선은 소형 경쾌선(輕快船)이고 사후선은 각종 무장 선박의 시중과 정찰 그리고 연락 등을 행하는 무장하지 않은 소형선박을 말한다. 1897년 좌수영이 폐지되기 직전 좌수영성 동문 밖 선창에 매여진 전함 수는 1851년의 『영남읍지』와 1895년의 『내영지』에 기록된 수가 조금 차이가 나지만 대체로 16~17척에 이르렀다. 군선별 숫자와 수군 구성을 보면 표11. 표12.와 같다.

표11. 경상좌수영의 군선(軍船) 정액

연도	출전	전선	병선	사후선	경탐선	합계	기타
1809	만기요람(萬機要覽)	3	5	11	1	20	1809년의 『만기요람』에는 거북선(龜船) 1척이 기록되어 있음
1851	영남읍지(嶺南邑誌)	3	4	9	1	17	
1895	동래영지(東萊營誌)	4	4	8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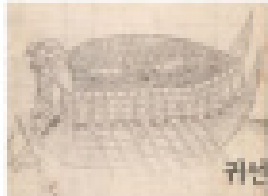
표12. 경상좌수영 전선(戰船) 당 수군(水軍) 『여지도서(1757~65)』

구분	1전선	3전선	4전선	2전선(우후선)
감관(監官)	1			
선장(船將)		1	1	1
지고관(知鼓官)	6			
기패관(旗牌官)	5	5	5	5
도훈도(都訓導)	2	1	1	1
군기감관(軍器監官)	1			
사부(射夫)	18	18	18	18
교사(教師)	5	5	5	5
포수(砲手)	24	24	24	20
타공(舵工)	2	2	2	2
요수(繚手)	2	2	2	2
정수(碇手)	2	2	2	2
노군(櫓軍)	105	114	114	114
합계	173	174	174	170

주력군선



전선(戰船, 板屋船)



귀선(鬼船, 거북선)



방선(防船, 防浪선)

보조군선



병선(兵船, 帆檣船)



사후선(司候船, 척후선)



경상좌수영의 군선(軍船)

『만기요람(萬機要覽)』에 의하면 좌수영에 배치된 선박은 전선 4척, 병선 5척, 사후선 11척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사의 기함[上船]인 일전선(一戰船)에는 병선 2척, 사후선 5척, 다른 전선에 배치되지 않는 정탐선이 1척 배치되었다. 삼전선(三戰船)과 사전선(四戰船), 그리고 우후가 운영하는 전선인 이전선(二戰船)에는 각각 병선 1척, 사후선 2척이 배치되었다.

전선 승조원을 보면 상선에는 감관(監官) 1인이, 지구관(知穀官) 6인, 기패관(旗牌官) 5인, 도훈도(都訓導) 2인, 군기감관(軍器監官) 1인, 사부(射夫) 18명, 교사(教師) 5명, 포수(砲手) 24명, 타공(舵工) 2명, 요수(繚手) 2명, 정수(艇手) 2명, 노군(櫓軍) 105명으로 모두 173명이 승선했다. 이전선과 삼전선에는 지구관, 군기감관이 승선하지 않았지만, 노군이 9명이 더 탑승하여 모두 174명이다. 이전선은 삼전선과 4전과 같지만, 포수가 4명이 적은 20명으로 구성되어 전체 승선인원은 170명이다.

병선에는 선장 1인, 사부 10명, 포수 10명, 타공 1명, 노군 14명으로 구성되어 모두 36명이 승선했다. 사후선에는 타공 1명, 노군 4명이 구성되어 모두 5명이 승선했다. 일전선에 소속된 승조원 수는 모두 270명이고, 삼전선과 사전선에는 각각 220명이다. 이전선에는 승조원이 216명으로 경상좌수영에 배치된 승조원의 수는 926명이다. 이와 같은 경상좌수영의 군선별 승조원의 직책과 인원을 『여지도서』의 기록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 표13.과 같다.

표13. 경상좌수영 운영 군선의 승조원 직책과 인원 (『여지도서』 내용 요약)

전선명	1 전선(戰船 - 上船)		3 전선		4 전선		2 전선(우후)		합계
	직책	인원	직책	인원	직책	인원	직책	인원	
전선 (戰船)	수사(水使)	1원(員)	-	-	-	-	우후	1원(員)	4척
	감관(監官)	1인	선장(船將)	1인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지구관	6인	-		-		-		
	기패관 (旗牌官)	5인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좌와 같음		
	도훈도	2인	도훈도(都訓導)	1인	좌와 같음		좌와 같음		
	군기감관	1인	-		-		-		
	사부(射夫)	18명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좌와 같음		
	교사(敎師)	5명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좌와 같음		
	포수(砲手)	24명	좌와 같음		좌와 같음		포수	20명	
	타공(舵工)	2명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요수(繚手)	2명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정수(艇手)	2명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좌와 같음		
	노군(櫓軍)	105명	노군	114명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소계	-	174	-	174	174		171		
정탐선 (偵探船)	정탐선	1척	-		-		-		1척
병선 (兵船)	병선	2척	병선	1척	좌와 같음		좌와 같음		5척
	선장	각 1인	선장	1인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사부	각 10명	사부	10명	좌와 같음		좌와 같음		
	포수	각 10명	포수	10명	좌와 같음		좌와 같음		
	타공	각 1명	타공	1명	좌와 같음		좌와 같음		
	노군	각 14명	노군	14명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소계	-	72	-	36	-	36	-	36	
사후선 (伺候船)	사후선	5척	사후선	2척	좌와 같음		좌와 같음		11척
	타공(舵工)	각 1명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좌와 같음		
	노군(櫓軍)	각 4명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소계	-	25	-	10		10	-	10	
합계	-	271	-	220	-	220	-	217	

26 경상좌수영의 수조

수조(水操)는 수군의 전투력 향상과 유사시의 대비를 위해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조련으로서 1660년대 후반에 춘·추 수조(水操)로 제도화되었다. 2월의 춘조(春操)는 통제사 주관 하에 삼도 수군 이상이 연합 선단을 구성하는 합조(合操)를, 8월의 추조(秋操)는 각 도(道)의 수사가 주관하는 도수조(道水操, 營操)를 하는 것으로 관례화되었고 이외에 진(鎭) 단위에서 주관하는 진조(鎭操)도 있었다. 이중 추조(秋操)는 충실하게 실시된 반면 합조는 숙종 20년(1694)부터 잠정적으로 폐지되어 18세기 후반까지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즉 조선 후기의 수조 시행 실태를 보면 영(營) 아래의 읍선(邑鎭) 군선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추조는 비교적 충실히 실시된 반면, 대규모 선단과 다수의 군병이 동원된 합조는 수시로 정지된 경우가 많았다. 이는 유행병, 가뭄과 농형사정, 해상의 일기불순 외에도 군역 부담의 과다와 재정 악화 등이 주요인으로 해당 도의 관찰사 건의에 따르거나 조정에서 관여한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사실은 『통제영계록』, 『비변사등록』 등에서 자주 확인된다. 삼남 합조의 규모를 밝혀주는 『수조홀기』와 『삼도주사도분군도』에 의하면 군선이 각기 195척, 192척 그리고 해상전투원과 대기원, 가왜군, 산성군, 친군을 포함한 동원 군액이 6,627명 내지 6,399명에 달하는 대규모로서 당시 삼도 각 영의 군선 보유 수와 비교하면 80% 내외가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수조와 관련된 제 법규는 엄격해서 관하 수사 이하 제 진장, 수령의 수조 임무는 엄격히 통제되었다.



수군(水軍) 조련도에 나타난 춘조(春操)시 경상좌도 수군의 선단 구성

수조(水操)는 통영의 전령(傳令)을 받아 거행하게 되는데 영장(營將)이 된 수사를 필두로 하여 관하의 진장(鎭將)과 속읍의 수령이 파총(把總) 혹은 초관(哨官)이 되어 조련에 참여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그런데 경상좌수영의 속읍으로서 수군의 초관이 된 울산부사와 기장현감은 각각 경상좌병영과 동래 독진의 육조(陸操)에도 참여해야 함으로써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하곤 했다. 때문에 수조(水操)와 육조(陸操)는 본래 경중이 없어 군사의 기율이 모두 엄하므로 양자가 상치하게 되면 수군은 초관(哨官)이 된 수령이, 육군은 좌수(座首)가 거느리고 가도록 조치하였다.

27 경상좌수영의 봉수 통신

봉수는 변경의 정세를 살펴 중앙에 급히 전달하는 군사용 통신수단으로서 조선후기 경상좌수영의 봉수망에는 동래부 관내의 황령산봉수, 계명산봉수, 응봉봉수, 간비오봉수, 구봉봉수를 비롯하여 기장, 울산, 경주, 장기, 영일, 흥해, 청하, 영덕, 영해 등 경상좌도 연해읍에 분포해있는 연변봉수들까지 총 27곳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중에서도 경상좌수영은 좌표(左標)에 있어서는 간비오봉수의 봉군(烽軍)이 최초 관측을 보고하도록 하고 우표(右標)로는 구봉봉수의 봉군이 최초 관측하여 보고하도록 하였다. 한편 동래부 관내의 5개 봉수대는 각각 관장하는 기관이 달랐는데 황령산과 계명산봉수는 동래부에서, 응봉봉수는 다대진, 구봉봉수는 부산진, 간비오봉수는 경상좌수영에서 각각 맡아서 관리하고 있었다.

매일 관측된 해상의 상황을 경상좌수영으로 전달했던 간비오봉수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산148-76번지 일원의 해발 147.9m인 야산 정상에 위치하고 있다. 산정에서는 남서쪽으로 수영만이 잘 조망되나 서쪽은 황령산, 북쪽은 장산에 막혀 시야가 제한적이다.

간비오봉수는 조선 전기 『경상도지리지』(1425)부터 최종 『증보문헌비고』(1908)까지 조선 전 시기 발간의 지지에 기록이 있다. 봉수노선과 성격은 제2로 직봉에 딸린 간봉(1)의 초기(初起) 연변봉수로서 대응봉수는 동쪽으로 기장 남산봉수에 응하였다.

현재 간비오봉수는 부산시에서 1976년 개항 100주년을 기념하여 사실과 다르게 복원된 상태이다. 백색화강암 석재를 사용하여 6각형의 연대 형태로 복원하였는데, 동쪽에 1개소의 계단형 출입시설을 마련하였다. 연대 상부에는 단지 상징적인 의미로 8각형의 연소시설 1개소가 마련되어 있다. 복원된 연대 아래 경사지에는 원래의 방호벽으로 보이는 석축과 출입시설이 남아있으며, 건물지로 추정되는 유구도 확인된다. 또한 주변에서 와편이나 자기편 등의 유물도 쉽게 눈에 띈다.

대응 봉수인 기장 남산봉수와는 북쪽으로 약 10.61km 떨어져 있다.



간비오봉수대와 경성좌수영(1872년 지방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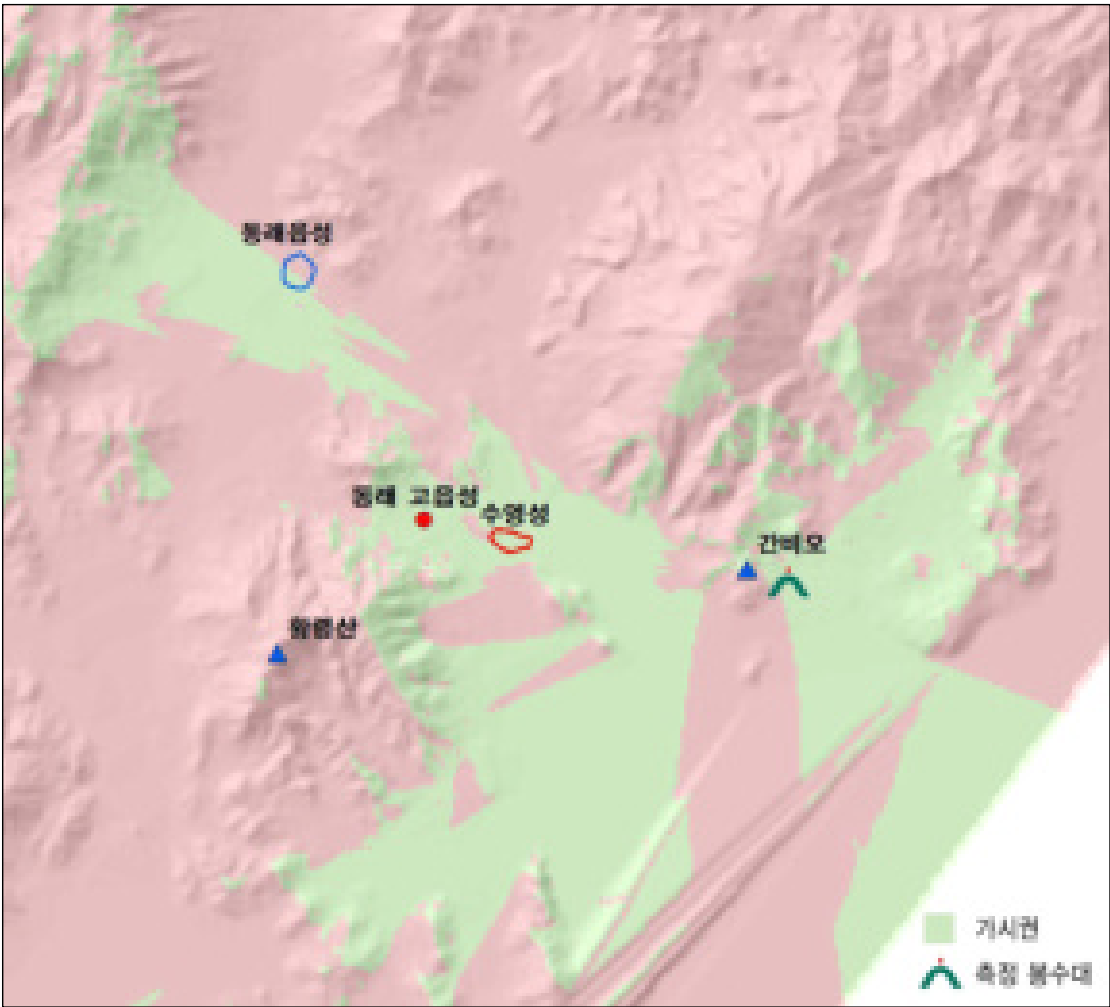


간비오봉수대에서 본 경상좌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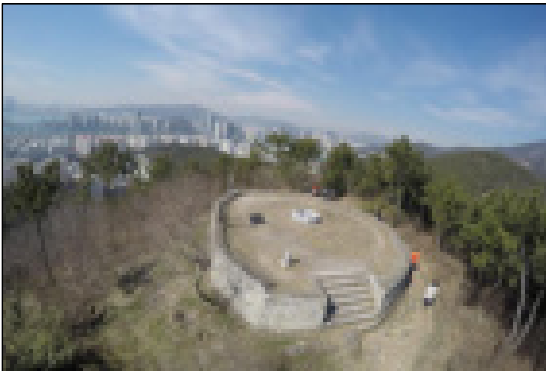


경상좌수영 중심 공해(公廨)에서 본 간비오봉수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경상좌수영성을 포함한 주변지역에 대한 간비오봉수대에서의 가시권을 분석한 결과 경상좌수영성은 물론 수영만을 비롯한 먼바다, 동래읍성까지도 조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선 후기 경상좌수영성에서는 간비오봉수대를 수군의 조망처로 삼는다는 문헌 기록이 사실이었음을 알 수 있다.



간비오봉수대의 가시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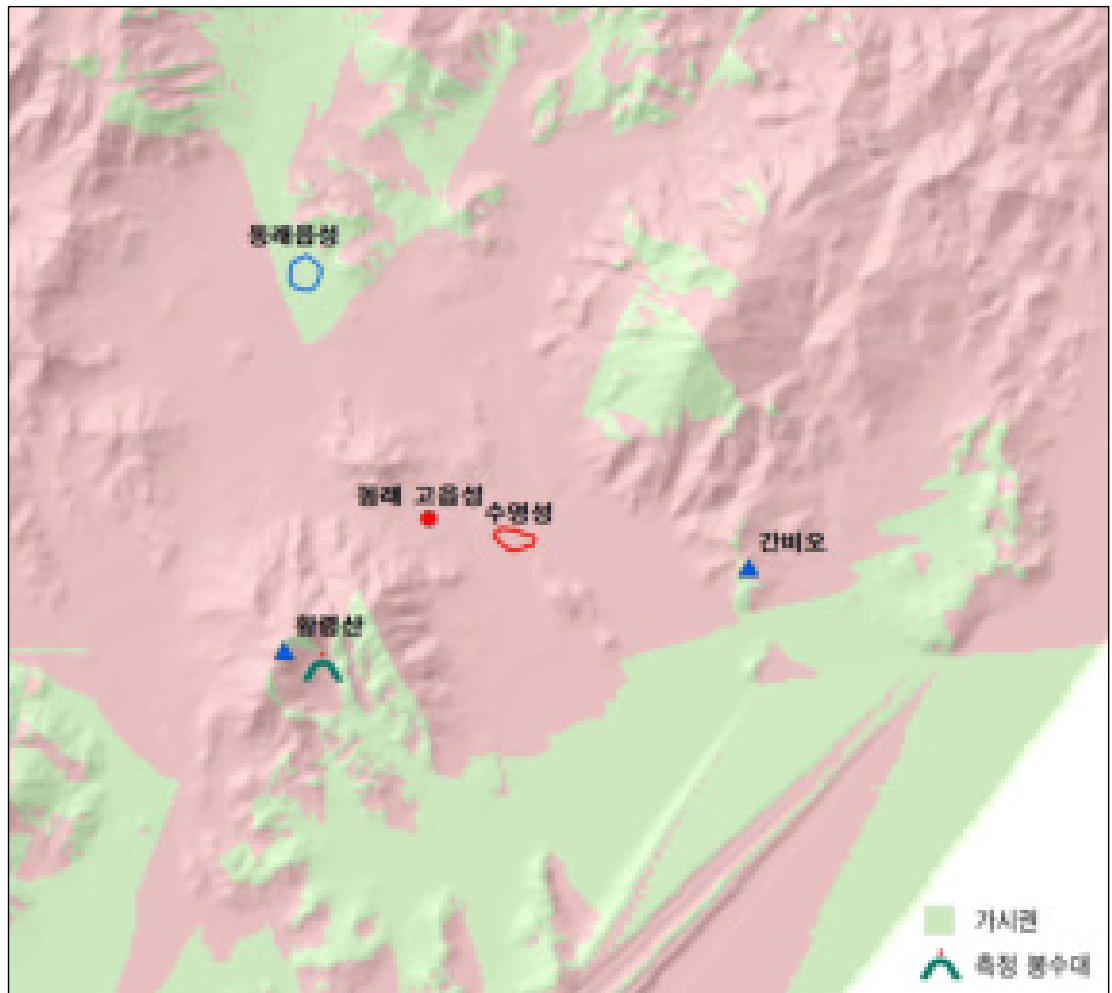


복원된 간비오봉수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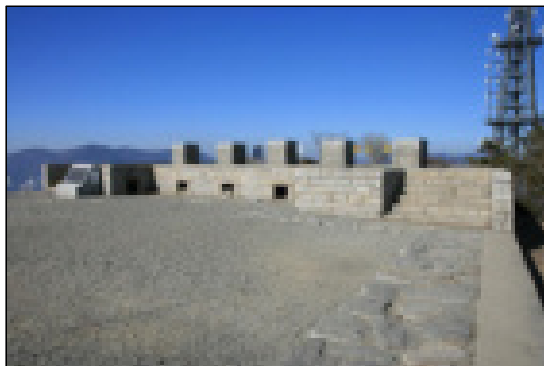


간비오봉수대의 잔존 방호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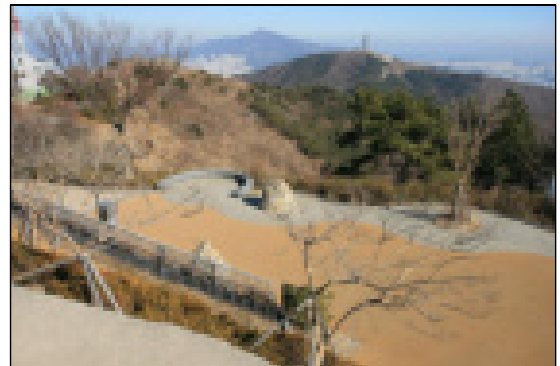
한편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경상좌수영성을 포함한 주변 지역에 대한 황령산봉수대에서
 에서의 가시권 분석을 실시한 결과 경상좌수영성은 금련산 정상(413.6m)에 가려 조망이 불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동래읍성은 조망이 가능해 구봉봉수에서 신호를 받아 동래
 부 및 계명산봉수로 전달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봉수이었음을 알 수 있다.



황령산봉수대의 가시권 분석



복원된 황령산봉수대



황령산봉수대에서 본 금련산 정상

28 경상좌수영의 민속과 민속

1) 경상좌수영 민속 현황

경상좌수영 지역의 민속 분야 특징은 변화한 대도시에 있음에도 주민에 의해 당산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의 농어촌과 오지인 산간 지역에서도 마을 주민들이 주도하는 당산제 혹은 동제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도시에서 당산제를 체계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드문 일이다. 특히 최근의 급격한 도시화 현상은 그 이전에 경험했던 도시화 과정보다 마을 제사 등의 단절에 심각한 요인(이기태 2007: 447)이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마을 주민의 감소와 제의 경비를 마련하고 주재해야 할 사람들이 고령화되면서 제의 주체인 마을 조직이 약화되면서 동제가 쇠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 동제를 유지하고 있는 곳도 마을에서 인근 절이나 보살, 무당에게 제를 맡기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런 가운데 경상좌수영 지역의 당산제는 매우 독특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물론 경상좌수영 지역도 식민지와 산업화, 미신 타파와 같은 시대적 분위기 속에 당산제가 단절되거나 약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런데도 당산제는 수영기로회와 수영고적민속보존예술협회, 현 수영향우회의 전신인 청년회 등 마을 조직을 중심으로 그 맥을 이어 왔다. 2002년 이후에는 수영향우회가 당산제에 대한 보존과 체계적인 계승의 필요성을 느껴 1969년 문화재관리국(현 문화재청)에서 조사한 민속자료보고서 제39호인 부락 제당에 서술된 수영의 당산제 내용을 바탕으로 제를 올리고 있다.

도시화로 인해 제의 주체가 불교 혹은 무속 집단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상좌수영 지역의 동제는 일반적인 제의 변화 유형에서 벗어난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특별하다. 더불어 동제의 보존에서 수영구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는데, 지방자치라는 맥락에서 관의 적극적인 지원은 지역 문화를 보존·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동제의 보존과 유지를 위한 이 같은 민관협력 사례는 ‘전통 만들기’라는 맥락에서 눈 여겨 볼 사례라 판단된다.

현재 동제는 독신묘와 수영산신당을 대상으로 수영향우회가 제의 주체로서 제를 올리고 있다. 여기서 특이점은 당산제에서 독신묘를 모시고 있다는 점이다. 독신묘는 독당과 독묘로도 불리는데, 수군의 의례와 관련이 있으며 독제라 불렸다. 독제는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관에서 주도하던 의례가 마을의 당산제와 결합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집에 독당을 모시는 공간과 독기가 오래전부터 따로 보관되어 있었던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를 전후하여 마을에서는 당산제를 지낼 때 지신밟기와 수영야류도 함께 연행되었다. 그야말로 경상좌수영의 당산제는 ‘축제의 장’이었던 것이다.

본 보고서는 경상좌수영의 대표적인 민속 관련 문화유산인 수영야류, 독제와 관련 있는 당산제의 변화과정을 통해 보존과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민속 분야는 3개의

방향으로 서술하였다. 첫 번째는 경상좌수영 지역의 개관이다. 개관에는 경상좌수영의 지명유래, 성씨 집단 및 자연마을, 생업과 살림살이에 대해서 다루었다. 두 번째는 경상좌수영의 제의에 대해 서술하였다. 경상좌수영 내외에 산재해 있던 제의들이 당산제로 수렴되는 과정을 공간 및 주재 집단의 변화과정을 통해 언급하였다. 특히 독제가 당산제로 통합되는 과정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세 번째는 경상좌수영의 유무형 민속 유산의 보존과 활용 방안에 대해 제안하였다. 특히 수영야류와 독제의 활용 방안을 중심으로 언급하였다.

2 조사내용 및 방법

경상좌수영 지역은 국가 및 부산시 지정 무형문화재¹¹⁷⁾가 풍부하여 민속과 관련된 보존과 활용이 연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연희가 일제강점기와 산업화를 거치면서 지역 사회와의 메카니즘이 약화되면서 놀이 과정 자체의 복원과 계승에 집중된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민속 연희는 지역의 사회조직과 경제, 의례를 반영하는 것으로 마을 주민들의 조직과 삶과 함께 해석될 때 그 의미를 제대로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경상좌수영의 지역 문화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생업부터 의례까지 다양한 맥락에서 민속 문화를 살펴보았다.

조사내용은 시기적으로 근현대를 중심으로 주민들의 생활상과 더불어 이 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는 제의, 특히 당산제에 집중하였다. 주민들의 생활상은 지명유래와 성씨 집단, 생업에 대해서 다루었으며, 그중에서 생업은 시기적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제의 부분은 이곳에서 전승되고 있는 독신묘와 수영 산신제, 무민사 관련 제의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이 제의에 주목한 것은 국가 및 지방문화재인 지신밟기 및 수영야류와 관계, 그리고 전국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독당과 관련된 의례가 민간에서 전승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사 지역은 과거 군영과 관계된 주민들의 생활권역을 포괄하고자 하였다. 지금의 행정구역으로는 경상좌수영성에 해당하는 수영동과 그 인근 지역인 망미동과 민락동, 광안리, 남천동까지 포함하였다. 공간적으로 지명유래와 근현대 생업과 관련된 내용은 수영구 전체를 포괄하고 있지만, 제의 부분은 제당이 밀집해 있는 수영동을 중심으로 접근하였다.

조사 방법으로는 문헌 및 구술 자료를 분석하였다. 경상좌수영은 유무형의 문화재가 많은 만큼 지역 민속에 관한 문헌들이 풍부하였다. 특히 문화재청과 부산시를 비롯하여 수영고적민속예술보존협회 등의 지역 단체,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출판물(서적, 유인물)을 조사에 참고하였다. 구술자료는 주요정보제공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통해 수집하였다.¹¹⁸⁾ 인터뷰

117) 경상좌수영 지역에는 수영야류(국가무형문화재 제43호)와 좌수영어방놀이(국가무형문화재 제62호), 수영농청놀이(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2호)와 수영지신밟기(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22호)가 있다.

118) 한국구술사학회 구술채록 매뉴얼에서는 인터뷰 대상자들에게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 동의서〉, 〈구술자료 공개 및 이용 동의서〉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본 보고서에서는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인터뷰 대상자들에게 상기 동의서를 요구하지 않았다. 이에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인터뷰 대상자들을 실명으로 처리하지 않았음을 밝혀둔다.

류는 주로 수영고적민속예술보존협회와 수영향우회,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기본적으로는 생애사 수집 방법으로 인터뷰를 하였고, 이 자료들을 분석한 후 해당 주제에 대한 심층 면접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특히 이번 민속 조사에서는 건축, 역사 분야와의 학제적 연구를 통해서 제당 공간의 변화 등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사를 통해 민속 부분은 크게 두 개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첫 번째는 자연마을과 지명 유래, 성씨집단, 생업을 통해 마을 문화에 남아 있는 수군의 유산과 그 변화상을 서술하였다. 두 번째는 시대적 상황에 따른 제의 공간과 주재 집단의 모습을 통해 관에서 민으로 제의 주체가 변화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하였다.

3) 경상좌수영 지역의 개관

(1) 자연마을과 지명 유래

경상좌수영 지역은 지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조선시대 군영이 있던 곳을 중심으로 수군과 주민들이 살았던 지역으로 볼 수 있다. 경상좌수영의 명맥은 수영구와 수영동 등 현 행정구역명에도 그대로 남아 있다. 지금의 행정구역으로 비춰보면, 경상좌수영의 생활공간은 군영과 성곽이 위치했던 수영동을 중심으로 망미동, 민락동, 광안동, 남천동 일대를 포함한다. 지금의 해운대구에 해당하는 우동과 재송동도 경상좌수영의 영향권에 있었지만, 이 지역은 주로 전선을 만드는 목재를 벌목하고 운반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여기서는 경상좌수영의 세시풍속 및 의례, 생업과 관련이 깊은 수영구의 동들을 중심으로 자연마을과 지명 유래를 살펴보았다.

먼저 군영이 위치했던 수영동의 자연마을은 남수마을이 있었다. 남수(南壽)는 좌수영성 남쪽에 있는 숲이 많은 마을이라는 뜻에서 유래한 것이다¹¹⁹⁾. 1913년에 제작된 지적원부에는 남수리(南壽里)로 표기되어 있다. 당시 지도에서 봤을 때 남수마을은 현재 수영민속예술관이 자리하고 있는 산정 부근에 위치했으며, 경상좌수영성이 축조되기 전부터 자리 잡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남수마을은 성내에서 가장은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독당과 산정신사, 수영고당 터, 곰솔과 푸조나무 등 제의와 관련된 유산들이 모여있다.

망미동은 성의 북쪽에 위치하며, 자연마을로는 북문외리와 옥성골 마을, 조치막 마을, 구락리 마을, 새앙골 마을, 무억마을이 있었다. 북문외리는 좌수영성 북문에 위치한다고 붙은 이름이며, 1922년에 건립된 조씨할배당이 있다. 옥성골은 옥사(獄舍)가 있었던 것에서 유래한 것이다. 조치막은 조선 수군이 군사 훈련시 조리하던 장소라는 뜻에서 기원한 것이다. 구락리는 수영강에 모래가 많아 갈매기들이 많이 날아와 즐겁게 노닌 것에서 유래한 것이다. 새앙골은 사당골에서 나온 말이며, ‘무억’은 옛 무덤이 많았던 무덤동에서 비롯된 것

119) [네이버 지식백과] 남수마을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이다. 민락동은 성의 동남쪽에 자리 잡고 있다. 민락동은 수영강 변과 접하고 있고 진조말 산과 백산이 위치하고 있다. 민락동의 자연마을은 백산 마을과 널구지 마을, 본동 마을, 보리진 마을이 있었다. 백산 마을은 백산자락에 있다고 명명된 이름이다. 널구지 마을은 판 곳에서 유래했으며, 보리진 마을은 포이진에서 나온 것이다. 본동 마을은 민락의 중심이라는 뜻에서 붙인 이름이다.



경상좌수영성지 주변의 자연마을 분포도¹²⁰⁾

광안동은 성의 남쪽에 위치하며 바다를 접하고 있다. 광안동에 위치한 자연마을은 장대곶 마을과 호암마을, 아랫각단 마을, 윗각단 마을, 광기전 마을이 있었다. 장대곶은 어구정과 장대가 있었던 것에서 유래하였고, 호암은 범의 형상과 유사한 큰 바위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아랫각단과 윗각단은 집이 드문드문 모여있다고 뜸동으로 불린 것에서 유래하였다. 광기전은 그릇 파는 가게가 있던 곳이라는 뜻으로 그 위치는 성의 남문 쪽 시장에 부근으로 광안동과 민락동 경계에 자리 잡고 있었다. 광기전 마을은 남문외리쪽에 위치한 마을이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없어 위 지도에 표기하지 못하였다. 남천동은 성에서 가

120) 자연마을 분포도는 구글(google) 지도를 바탕으로 신석열, 2011, 「수영구」, 『부산의 자연마을 제6권: 동래구, 금정구, 연제구, 수영구』, 부산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pp.373~459.의 내용을 참조하여 표기한 것이다.

장 먼 곳에 있는 마을로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광안리와 마찬가지로 바다를 끼고 있으며, 자연마을로는 남천 마을과 대리 마을이 있었다. 남천은 남천 부근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며, 대리는 큰 마을이라는 뜻이다.

자연마을 이외에도 경상좌수영 지역은 옛 지명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마을 주민인 도○○씨¹²¹⁾는 경상좌수영 지역의 옛 지명과 그 유래, 현 위치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다. 군영이 있던 곳답게 이 지역은 수군과 관련된 지명이 많다. 먼저 조치막은 지금의 연산동 금련산 자락의 수군의 음식물을 조리하던 장소로써 조리골이라고 불렸다고 한다. 옥성골은 구 국군통합병원의 북쪽에 옥사(獄舍)가 있었다하여 붙은 이름으로 옥중골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현 수영중학교 부근의 산에 수사가 중죄를 다스린 사형장이 있었으며, 그 장소는 무과시험장으로 군사훈련 및 승마훈련을 겸했다고 하여 장대골이라 불렸다. 그리고 장대골 가까이에는 수군의 활쏘기 훈련장인 어구정이 있었다.

그중에서도 민락동은 경상좌수영의 예하 진영과 관련된 지명 유래가 많이 남아있다. 도상도는 민락동의 주요 자연마을인 보리전과 널구지의 지명 유래에 대해 경상좌수영과 관련하여 언급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민락 지명과 관련된 이야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민락(民樂)’이라는 지명에 대해서는 세 가지 이야기가 전해진다. 먼저, ‘여민동락(與民同樂)·여민해락(與民偕樂)’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그것이다. 이 말은 ‘임금이 백성과 함께 즐기다’는 뜻으로, 이 동리의 경치가 무척 아름다워 임금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이라는 뜻이다. 또 다른 유래는 조선 시대 수군과 관련이 있다. 당시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 조선 시대에, 각 도의 수군을 통솔하는 일을 맡아보던 정삼품 외직 무관)가 군사들을 호령할 때 진산(鎭山)에서 군악을 연주했다고 한다. 이 군악이 연주된 곳이 지금의 민락동이라는 데서 붙여졌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세 번째는 지방제도 개편에 따라 이름을 붙였다는 설이 그것이다. 민락동에는 보리전과 널구지라는 자연마을이 두 개가 있다. 보리전은 백산 북쪽에 있는 마을로 다른 말로 덕민동(德民洞)이라고 불렸으며 널구지는 백산 남쪽에 위치한 마을로 평민동(平民洞)이라고 불렸다. 1914년 지방제도 개편에 따라 평민동과 덕민동을 합쳤는데, 이 때 두 마을의 백성이 함께 즐거이 사는 동네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민락동’이라고 이름 붙였다고 한다. 한편 민락동의 자연마을인 널구지와 보리전의 지명에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한다. ‘널구지’는 ‘늘구지’ 또는 ‘너구지’ 등으로도 불렸는데, 이는 평평하고 넓다는 말인 ‘판곳(板串)’을 뜻한다. 이 근방의 지형이 산자락 아래에서 바닷가 또는 수영강 쪽으로 넓은 들이 펼쳐져 있는 까닭에 그로부터 유래했다고 이해할 수 있다. ‘보리전’이라는 지명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이야기가 전한다. 하나는 조선시대 경상좌수영 아래에 있던 포이진(包伊鎭)이라는 이름에

121) 여기서부터 서술한 내용은 도○○씨의 인터뷰 내용을 주로 참고하였다. 또한 배도식, 2005 「동의 민속과 문화」, 『수영구의 민속과 문화』, 수영고적민속보존예술협회, pp.87~205의 내용도 참고하였다.

서 비롯했다는 견해이다. ‘포이진’이라는 지명이 구전되는 과정에서 보리전으로 음이 바뀌었다고 보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매를 대신해서 맞던 당시의 풍습과 관련 있다. 수영구에는 “보리 양식을 지고 매 맞으러 간다.”는 매품팔이 관련 속담이 전한다. 조선 시대 좌수영이 있던 당시, 마을 사람들이 법을 어겨 곤장을 맞아야 한다면 좌수영 관아로 가야했다. 관아 근처에는 늘 매품을 파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가진 것 없는 살림에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하다 보니 죄인을 대신해서 매를 맞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업이 생긴 것이다. 매품을 파는 사람들은 대개 열흘이나 보름치의 보리를 싸들고 와서 수영교 아래에서 매 맞을 차례를 기다렸다고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열흘을 꼭 채워 기다려야만 매를 맞을 수 있기도 했지만, 운이 좋다면 여러 날 기다리지 않고 바로 매를 맞을 수 있었다. 그렇게 되면 먹으려고 싸들고 온 보리가 남았을 것이니, 매품 파는 이들이 남은 보리를 인근 사람들에게 팔고 가기 위해 보리전을 벌였다. 이와 같은 연유로 이 동리를 ‘보리전(또는 보리진)’이라고 불렀다고 한다.¹²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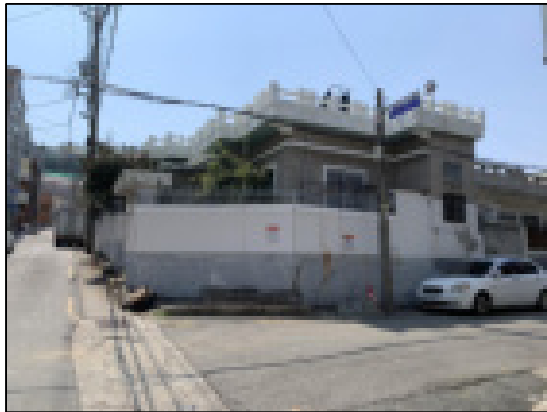
또한 민락동의 수영강 끝자락에 있는 진조말산에는 의자처럼 생긴 자연석 바위인 진조암이 있는데, 여기에서 수사가 그 해의 첫 어로 작업이 시작되던 날 이곳에 와서 어로 작업을 하던 수군들을 격려했다고 한다. 그리고 첫 수확물은 수사(水使)에게 바쳤다고 한다.



경상좌수영성지 주변의 지명 유래와 위치¹²³⁾

122) (지역N문화), 부산 지역의 지명유래: 매품 팔러 온 사람들이 보리를 팔았던 부산 보리전

경상좌수영 지역은 수군과 관련된 지명 유래뿐 아니라 수영성내와 그 주변에 살던 주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지명들도 남아 있다. 수영성 서문밖의 개울가에는 빨래하기에 좋은 바위가 있어 서답바위 혹은 서답바라고 불렸으며, 수영성에 있던 문밖을 각각 동밖(동문 밖), 남밖(남문 밖), 북밖(북문 밖)이라 불렀다. 그리고 수영성 안팎 사람들의 유일한 식수원인 먼물샘이 있었다. 먼물샘은 성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불린 이름이다.



먼물샘의 현재 모습, 전경



먼물샘의 근경

먼물샘은 성 내외부 주민들의 유일한 수원지인 만큼 매우 중요한 곳이었다. 그래서 정월 보름에 수영야류를 할 때 제를 올렸다. 요즘은 수영야류를 할 때 성내의 공연장에서 높은 곳에서 먼물샘 쪽을 향하여 절하는 것으로 대신한다고 한다. 이 먼물샘은 현재 도시가 개발되면서 그 위치만 알아볼 수 있게 남아 있으며, 개인 소유 토지에 콘크리트로 샘을 막아 놓고 그 유래에 대한 설명도 없이 방치되어 있다.

경상좌수영 지역에서는 자연환경과 관련된 지명유래도 풍부하게 남아 있다. 산과 강, 바다와 관련된 지명들이 많다. 먼저 산과 관련된 지명을 보면 다음과 같다. 수영교와 민락교 사이에 있는 백산(白山)은 부래산(浮來山)이라고 불렸다. 이 이름은 수영강 마지막 자락에 있어 이어진 산줄기가 없이 강줄기를 따라 떠내려 온 산이라 하여 붙은 것이다. 백산이라 불린 것은 크게 세 가지 설이 있다. 첫 번째는 이 산 아래 옛날 갈대가 우거져 백학이 찾아들어 백학산이라고 한 것이 백산이 되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바다와 갯가의 운무가 이 산 주위에 깔릴 때면 산 전체가 하얗게 보여 백산이라고 불렀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이 산의 옛 이름이 향산(向山)이었는데 향산의 한자 오기로 인해 백산이 되었다는 설이다. 특히 백산 위에 호(虎)굴이 있는데, 이는 수영야류 탈놀음가운데 사자무과장에서 사자가 범을 잡아먹는 과장의 연희가 호굴의 범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한다. 이 호굴은 백산의 형세가 마치 바다로 달아나려는 사자의 형세와 비슷하여 범을 제물로 바쳐 멈추게

123) 본 지도 및 관련 지명 내용은 구글(google) 지도를 바탕으로 도OO씨의 인터뷰 및 그가 서술한 수영초등학교 충동창회보에 기고한 글을 참고하여 만든 것이다.

한 것이라고 한다.

강과 관련된 지명은 다음과 같다. 망미동(望美洞)은 고려시대에 정과정곡(鄭瓜亭曲)을 지은 정서(鄭絃)가 유배와서 오이밭을 일구며 임금을 그리워해서 망미동으로 되었다는 설이 있다¹²⁴). 그리고 정서는 살던 곳에서 수영강변의 모래톱에 있는 오이밭까지 가기 위해 강을 건너야 했는데, 그때 강을 건너 준 노인이 오씨여서 그 나루터가 있던 자리를 오옹건니 혹은 오옹건내라고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바다와 관련된 지명은 다음과 같다. 광안동은 넓은광 언덕안으로 광안이었으나 언덕 안을 편안할 안으로 고쳐 현 광안동이 되었다. 이 광안동을 한편으로 장대골 서남쪽 수녀원자리에 범처럼 생긴 바위가 있어 범바위(범바우)라고도하여 호암이라 했으니 옛날 지명으로 호암리, 호곡이라고도 한 적이 있다. 옛 사람들이 남칭이라 부르는 남천동은 남쪽으로 천이 흘렀다하여 부른 이름이고 다른 말로 흙대거렁이라 불렀는데 이는 골짜기에서 맑은 시냇물이 흙을 타고 흘러내리듯 빠르게 흐른다하여 붙인 이름이다. 지금의 삼익아파트 자리에 야산이 있었는데 산이 낮고 그 생김새가 위낙 맥이 없어 죽은 용의 형상 같아서 “죽은 골산” 혹은 “중골산”이라 불렀다. 또한 현 센텀시티와 요트경기장 부근은 옛 수영해수욕장으로 동래 온천장에서 생긴 온천수가 용출된 증기로 운무가 생겨 해운포라 하였다고 한다.

(2) 경상좌수영의 자연마을과 성계 집단

경상좌수영 지역의 자연마을에 언제부터 사람들이 거주했는가에 대한 명확한 기록은 없다. 다만, 임진왜란 때 25의용(義勇)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입향조에 관한 얘기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추측할 수 있다. 25의용은 임진왜란 때 경상좌수영성을 지키기 위해 25인이 죽음을 각오하고 왜군과 7년간 유격전을 펼치다 순국한 분들을 말한다. 이들에 대한 역사는 광해군 때인 1609년 동래부사 이안눌(李安訥)이 지역주민들의 청원에 따라 25인에 대한 역사를 기록한 정방록(旌傍錄)을 편찬하였고, 그 집의 문에 <의용(義勇)>이라 써 붙인 데서 의용이라는 명칭이 생겨났다. 또한 경상좌수사가 <의용제인비>와 <25의용단>을 만들어 그들을 기리는 제를 지냈는데 지금까지도 그 향사가 이어져오고 있다. 최근에는 25의용의 역사를 추적하고 있는 지역주민 김종수씨에 의해 <25의용>의 후손이 부산에 살고 있음이 밝혀졌다¹²⁵). 이러한 역사를 봤을 때 경상좌수영 지역에는 임진왜란 전부터 주민들이 세거했음을 알 수 있다.

124) 이외에도 망미동과 관련된 또 다른 유래들도 있다. 그중에 하나는 망미동을 망산(望山)과 배미산(盃美山)의 ‘망’과 ‘미’의 합성어로 보는 것이다. 망산은 수영동과 망미동 사이에 있다. 배미산은 척산(尺山) 혹은 배산(盃山)이라고 하는데, 지역 주민들은 배미산(盃美山) 혹은 잘미산이라고도 부른다. 망미동은 망산의 ‘망’과 배미산의 ‘미’자를 합성하여, 또 다른 설로는 수사가 초하루와 보름마다 궁을 향하여 절을 올린다하여 임금을 사모한다는 의미의 망미인(望美人)에서 유래되었다고도 한다.([네이버 지식백과], 망미동 (두산백과))

125) 김종수 2021, 『수영 25의용: 정방록을 찾아』, 부산: 비온후.

경상좌수영에는 임란 이전부터 19세기까지 여러 성씨들이 입향했음을 알 수 있는데, 아래의 구술은 이 지역에 5개의 성씨가 오래전부터 거주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최한복 선생님이라고 수영에서 참 오래 서울 보성고보를 나오시가지고 동네 유지분인 신데 어릴 때 저보고 그랬어요 00야 저 김00입니다. 나는 이 동네 생길 때 다섯 성씨가 들어 생겼다. 그때(그중 하나가) 너의 집안이다. 그게 23대라 그러네요. 나도 그분들에게 들은거지만 증거는 없지만 증거라고는 임란 때 순직하신 11대 그 조부님이 그 증거가 남아있습니다. 총렬사에 송상현 부사 직속 그거를 거 송상현 부사 그 뭘니까 총렬사가보면 집이 따로 있는데 그 머라하고 사당 큰 사진 걸려 있는 옆에 서 있는 장군이 그 조부 할아버지 11대 할아버지인데 묘가 선산이 어딴냐하면 해운대에 있습니다.(김00)

구술제보자인 김00은 수영야류 전수자이다. 김00씨에게 집안 내력에 대해 설명해 준 분은 최한복으로 수영 유사를 집필한 분이다. 이러한 구술을 토대로 경상좌수영 지역에 입향한 주요 성씨와 거주 지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금의 수영동에 해당하는 남수마을에는 청주 태씨, 밀양 박씨, 달성 서씨가 주로 세거하였다.

먼저 청주 태씨는 1700년경 수영에 이주하여 지금까지 7대째 거주하고 있다. 청주 태씨 집안은 수영야류를 보존하고 전승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는데, 태덕수 집안은 그의 할아버지 태두문이 장구를 잘 쳐서 논에서 일하다가 수사가 부르면 하던 일도 멈추고 수병이 손발을 씻겨 연회복을 입혀 태워 가는 장구의 명인이었다고 전한다. 아버지 태명준은 수영야류의 수양반 예능 보유자였고, 태명준의 큰 형인 태성준은 수영야류의 악사로 꿩파리 명인이었다.¹²⁶⁾ 태명준의 작은 형인 태말준은 좌수영 어방놀이의 후리질 소리 명창이었다. 태덕수는 아버지로부터 사사 받아 수영야류 수양반 예능 보유자로 수영야류보존회 회장 및 수영고적민속예술보존협회 이사장을 역임했으며 2014년에 별세하였다. 지금은 그의 큰아들 태한영이 수영야류 전수 교육 조교로 꿩파리를 맡고 있으며, 손녀인 태현지는 좌수영어방의 상쇠를 맡고 있다. 태덕수 집안은 5대째 수영의 민속놀이를 이어오고 있다.

밀양 박씨는 밀직부원군과 박중미의 후손인 박견춘이 1800년경 경상남도 양산에서 수영동으로 입향을 시작으로 이 지역에 세거하였다. 그중에서 박등무 집안은 좌수영 어방놀이로 유명하다. 박등무는 예능보유자로 좌수영어방놀이보존회 회장을 역임했다. 그의 아버지인 박남수는 좌수영 어방놀이 노동 현장을 재현하는 1인자로 알려져 있다.¹²⁷⁾ 박남수는 제 1, 2대 좌수영어방놀이 회장을 역임하였다. 달성 서씨는 임진왜란 이후 16세손인 서상태가 경상북도 포항에서 수영동으로 이주하여 학유공파 수영 문중의 입향조가 되었다. 이 문중은 수영 뿐 아니라 사상구 모라동과 부산진구 당감동으로 세거지를 확장하였다.

126) [네이버 지식백과] 수영동 남수 마을 청주 태씨 세거지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127) [네이버 지식백과] 수영동 밀양 박씨 세거지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현 망미동에 속하는 북문외리에는 김해 김씨와 함안 조씨가 주로 세거하였고, 구락리에는 김해 김씨가 터를 잡았다. 김해 김씨는 김목경의 아들 김일수가 14세기 중반 충주에서 동래 장지 마을로 입향했다고 전한다. 그 이후 11세손인 김희수의 손자 김서웅이 아들 셋을 두어 분가하였다. 김희수는 임진왜란 당시 군자감 판관으로 동래성 전투에서 전사하였는데 증조부 묘를 중심으로 이 셋은 김추여는 수영파조, 김덕여는 해운대파조, 김충여는 오륜대파조로 분파하였다. 수영파조인 김추여는 1600년대 중반에 수영동에 입향하였다.¹²⁸⁾ 수영 문중의 김OO은 수영야류 예능 보유자이며 수영야류보존회장을 역임하였다.

함안 조씨는 수군만호를 지낸 동은공과 후손 조익삼이 부산의 사상 지역에서 1750년경 수영으로 입향하였고 동지공과 조일룡이 1800년경 경상남도 함안에서 수영으로 이거하였다. 이 후손들이 북문외리에 살면서 다수의 수영야류 예능 보유자를 배출하였다. 수영야류 연회자는 말뚝이 역의 조두영과 조재준, 가면을 제작한 조덕주, 장구 악사인 조복준, 영감 역의 조홍복이 있다.¹²⁹⁾



경상좌수영성 내외 자연마을과 입지(지적원도 표기)

위의 지도에서 보듯이 경상좌수영 지역의 주요 5개 성씨는 남수마을과 북문외리 마을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 성씨들의 후손들이 수영야류와 좌수영어방놀이 등의 민속 예술을 보

128) [네이버 지식백과] 수영동 김해 김씨 세거지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129) [네이버 지식백과] 수영동 함안 조씨 세거지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존하고 전승하고 있다. 조홍복씨의 구술에 의하면, 20세기 초중반 무렵 성내외의 마을인 남수마을과 북문외리의 가구 수와 성씨 구성에 대해 알 수 있다.

우리집 앞 빼고 저쪽으로 전부 다 논밭이었지. 수영성안에는 한 240~250호가 살았을 거예요. 200호는 확실히 넘었고요. 우리 조씨네들이 많이 살았고, 최씨네들도 많이 살았지요. 여기 북외부락에는 조씨가 한여남은 가구 되었고, 김씨네나 한씨네도 있었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들 두 형제간 살거나, 그런 각성바지였죠. 성안사람들은 아구심이 좀있었지. 수영사람이라하면 좀갑갑하게 여겼어요. 거머쥐고, 안놓칠라하는게 많았어. 함안 조씨, 우리 조상이 여기 온 지는 한 2백년 됩니다¹³⁰⁾



1952년, 경상좌수영성지 모습(출처: 부산근현대사료연구소)

성내에 해당하는 남수마을은 250가구 전후이며, 북문외리 마을은 남수마을에 비해 규모가 작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상기 지적원도의 주거지 구획 범위와 1952년의 사진만 보더라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남수마을에는 태씨, 박씨, 서씨이외도 조씨와 최씨도 많이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요 5개 성씨 이외에도 최씨와 한씨, 기타 성씨가 함께 거주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상좌수영 지역 주민들의 정체성이 강하다는 것도 마을 사람들의 구술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이는 일제강점기때 일본인들이 수영동에 거의 정착하지 못한 요인 중의 하나이기도 한데, 김태룡씨의 구술에서도 그러한 사실이 잘 드러난다.

수영에는 일본사람이 안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수영사람들이 워낙 단결이 강하고 그래서로 일본사람이 수영 내로 들어와 가지고 사는 거는 절대 거부했어요. 처음에 수영성 안에 일본사람이 두 집인가 들어와 가지고 살라고 터를 잡았다가 도무지 상대를 안 하고 얘기를 안 해 주니까 못 살고 저 변두리로 나가 살았지요. 마을하고 좀 많이

130) 이은정, 2017,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구술자 서전[016] [제43호 수영야류] 조홍복[趙弘福,1933~] 니강 내강 함 취 보자』, 국립무형유산원, p.38.

떨어지게요. 일본사람들 수영에는 범접을 못 했어요. 아무래도 여기에는 오래 전부터 마을이 형성되어 가지고 있고, 또 인자 우리 수영에는 의용사가 있거든요. 임진왜란 때 일본놈하고 같이 싸우다가 전사한 분을 모셔 놓은 덴데 의용사가 영향도 좀 안 받았겠나 싶고 그래요. 임진왜란 7년 동안 여기서 전쟁이 있었답니다. 왜놈들에게 마이 당하고 그랬는데 지금 25의용단에 모시져가 있는 분들은 군인이 아니고 이 지방에 살던 민간인이예요. 목숨을 걸고 싸우다가 전사를 한 분들을 모셔 놓은 데거든요. 옛날에는 집이 없었고 그냥 양쪽으로 비석만 세워 가지고 성역화해 놓은 그런 데었는데 지금은 사당을 새로 지어놓고 모셔 놓고 있죠. 일제시대 때는 밤에 불도 못 켜고 몰래 숨어 제를 지냈죠. 지금은 향사를 전부 낮으로 안 지냅니까? 그런데 그 때는 왜놈들 눈을 피해서 밤에 지내고 그래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는 인자 ‘수영기로회’라고 지금 같은 먼 경로당 아입니까. 기로회에서로 지냈죠. 그 기로회가 수영에서는 좀 배우고, 재력도 있고 하는 그런 유식층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쪽 안 빠뜨리고 지내고, 지금은 거창하게 지내고 있지요.¹³¹⁾

경상좌수영 지역은 이미 한국인들이 오래전부터 터전을 잡고 있어서 일본인들이 정착하기 쉽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식민시기에 일본인들은 기존의 한국인 주거지에 정착하기보다 새로 건설한 역 주변이나 상업지대에 그들의 터전을 마련하였다. 이는 다른 도시에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특히 부산에서는 조선 후기부터 초량왜관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중심으로 거주하였다. 구술자가 얘기한 바대로 경상좌수영 일대는 군영이었고 25의용단 등 항일 관련 의례를 지낸 곳이기에 일본인에 대한 인식이 다른 부산지역에 비해 좋지 않았던 것도 일본인이 수영에 주로 거주하지 않은 이유로 보인다. 어떤 이유에서건 경상좌수영 일대에서는 적산가옥 등 일제강점기 당시의 유산을 찾기가 쉽지 않다.

4) 경상좌수영 사람들의 삶집살이

경상좌수영 지역의 생업과 경제는 세 개의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시기는 임진왜란을 전후하여 수군 기지로 좌수영이 형성된 조선 시대부터 일제강점기 이전까지이다. 이 시기는 주로 농업과 어업이 주된 생업이었는데, 이는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수영농청놀이와 좌수영어방놀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두 번째 시기는 좌수영의 성곽과 수군 문화가 사라지기 시작한 일제강점기부터 산업화 이전까지이다. 이 당시에 주된 생업은 농업과 어업이었으며, 특히 사향은 일본인들의 관리에 의해 양계가 도입되었다. 세 번째 시기는 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이다. 이 시기는 산업화로 인해 수영이 가장 크게 변화된 시기라 볼 수 있는데, 특히 1960년 중반부터 시작된 수영구 일대의 도시개발계획이 그 기점이 되었다.

131) 이은정, 2018,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구술 자서전 [032] [제62호 좌수영어방놀이] 김태룡[金泰瓏, 1933~] 한바탕 놀면 속이 후련해요』, 국립무형유산원. pp.48~49.

(1)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 이전까지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 경상좌수영 지역은 전형적인 반농반어지역으로 볼 수 있다¹³²⁾. 지금의 민락동과 망미동, 광안동 일대는 농지가 넓게 펼쳐져 있고 소천(小川)과 중천(中川)이 대천(大川)인 수영강으로 흐르고 있어 농업용수도 풍부하였다.¹³³⁾ 그리고 광안동과 남천동 해안가는 어업이 성행하였다. 들놀이이라고 불리는 수영야류와 수영농청놀이는 농업이 활발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좌수영어방놀이는 농업과 함께 어업도 주요 생업이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이 당시의 생업에 관한 내용은 연세가 많은 제보자의 구술을 토대로 조선 시대와 가장 가까운 시기의 기억을 통해 간접적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대대로 오랫동안 수영동에 살았으며 수영야류 예능보유자인 김OO씨의 구술에 따르면, 19세기와 20세기 초까지 농사와 어업을 중심으로 했음을 알 수 있다.

대(전부) 농사지었지요. 그 때 여기 전부 논밭이었고 어업은 민락동 광안동은 어업했고 수영동 사람은 농업을 대부분 농업을 했지요 (농업이라면) 논이고 밭농사고 (밭농사는) 잡곡이지요. 잡곡 특이한 생산은 없었으며. 좌수영은 어방이니까 고기잡으로 가고 여기는 농업을. 왜냐하면 평야면 몰라도. 특이한게 없는 여기는 조그만 조그만 하니까.(김OO)



1952년, 경상좌수영성지 주변의 농지 모습 (출처: 부산근현대사료연구소)

위의 사진을 보면, 산업화 이전까지 경상좌수영 주변에 농지가 그대로 있는 것을 보아 조선시대에도 이와 유사한 경관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김OO씨에 의하면, 부모와 조부모가 살던 시절에는 수영동 일대가 논과 밭으로 펼쳐져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바닷가에서는 어업을 주로 했다고 한다. 농작물은 경상좌수영 지역만의 특산품이 있다기보다는 일반적인

132) 최해군, 2005, 「수영구의 역사」, 『수영구의 민속과 문화』, 수영고적민속예술보존협회, pp.77.

133) 태덕수, 2005, 「수영구민의 삶」, 『수영구의 민속과 문화』, 수영고적민속예술보존협회, pp.236.

벼농사와 밭농사를 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은 성의 북쪽에 위치한 망미동의 구락마을에서도 비슷했다. 좌수영 어방놀이 예능 보유자인 김태룡씨에 의하면, 구락마을은 일부 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소농으로서 자급자족에 가까운 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 살던 사람들은 전부가 농사지었지요. 우리 애릴 때만 해도 완전히 촌이었습니다. 행정구역은 부산시로 속해 가지고 있어도 전부가 농사만 지었어요. 다른 것 아무것도 안 지었어요. 여기는 특별히 이래 농토를 많이 가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농사 지아가 지고 자급자족할 정도로만 가지고 농사를 짓고 이랬었거든요. 쌀 같은 거 내는(파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자기네들이 먹는 정도로만 다 농사를 짓고, 먹고 남는 거는 인자 내는 정도였고. 우리 집도 인자 벼농사하고, 밭농사도 많이 했습니다. 도회지하고 가까이 있으니까 채소 농사 같은 것도 많이 지었지요. 논에는 벼 심고, 밭에는 겨울이면 보리, 또 인자 마늘, 파 같은 거, 시금치 같은 거, 또 인자 양배추 같은 거. 우리 애릴(어릴) 때부터 여기(망미동) 양배추를 재배 했었습니다. 우리 집은 마을치고는 농토가 많은 편이었어요. 마지기 로 치면 논이 한 20여 마지기 되고.¹³⁴⁾

김태룡씨와 김OO씨의 구술은 일제강점기에 근접한 시기의 내용이지만, 이 당시도 조선 시대의 생업과 크게 다를 바 없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경제생활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경상좌수영 지역의 주변 자연마을에는 수군과 그들의 가족들이 주로 거주하였고 소농 중심의 자급자족 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중에서 관리나 위세가 있는 문중들은 일정 정도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였다. 특히 구락리의 김해 김씨 집안은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한다.

경상좌수영 지역에는 농업조직인 농청과 함께 어방도 존재했었다. 지리적으로 이 지역에서 수영강과 바다가 접한 마을에서는 어업이 활발했다. 경상좌수영이 형성된 후, 군인들의 부식 조달을 위해 어민과 수군이 함께 어로 작업을 한 것이 좌수영어방놀이의 기원이다.¹³⁵⁾ 어방은 농청처럼 협업으로 어업을 하는 조직기구였다. 당시에 멸치 때가 많아 어방은 멸치를 잡는 방식 후리질¹³⁶⁾로 어업을 했다. 이 같은 어방은 일제강점기 이후 일본인들이 어장을 관리하면서 그 조직이 약화되었다. 또한 어업의 방식도 후리질 같이 협업하기보다는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면서 점차 개인적인 조업 형태로 변화하였다.

134) 이은정, 2018,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구술 자서전 [032] [제62호 좌수영어방놀이] 김태룡[金泰瓏, 1933~] 한바탕 놀면 속이 후련해요』, 국립무형유산원. pp.38.

135) 태덕수, 2005, 「수영구민의 삶」, 『수영구의 민속과 문화』, 수영고적민속예술보존협회, pp.230.

136) 후리질은 그물의 한쪽 끝줄을 육지에 둔 채 긴 그물을 배에 싣고 바다로 나가서 멸치가 많이 모여 있는 곳을 중심으로 둘러치고 나서 나머지 끝줄을 다시 육지로 가지고 나오면 해안가에 있던 사람들이 힘을 합쳐 양쪽에서 그물 줄을 끌어당기는 어업 방식을 말한다(이은정 2018: 130).

(2) 일제강점기부터 산업화 이전까지

경상좌수영 지역은 일제강점기까지 조선시대와 유사한 생업 환경으로 바닷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논농사와 밭농사 중심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어업의 형태는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치면서 변화가 일어난다. 김태룡씨의 구술에 의하면, 이 두 시기를 지나면서 어장인 후리막이 사라졌다고 한다. 일제강점기 때는 수영해수욕장에 수영비행장이 들어서면서 어장이 점차 사라졌고, 6.25 전쟁 때 피난민이 대거 내려오면서 후리막을 더 이상할 여건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일제의 영향으로 경상좌수영 지역에는 양계라는 새로운 생업 활동이 도입되었다. 아래의 구술은 김태룡씨 집안에서 양계업을 했던 내용이다.

일제 시대에는 농사도 지었지만 할아버지 계실 때부터 양계를 했었습니다. 양계장이 집하고는 좀 떨어졌죠. 한 100m 떨어진 데 넓은 밭에다가 지었지요. 지금 망미2동 동사무소 자리가 옛날에 양계장 자리입니다.(중략) 양계장을 하면 아무렴 잘 사는 편이었죠. 불편한 거 없이 자랐습니다. 양계를 상당히 크게 지어 가지고 많이 먹일 때는 한 천 마리 정도. 옛날에 천 마리 정도하면 굉장히 크게 하는 거였거든요. 우리 마을에는 양계장 한 사람이 서너 집 되예. 다른 데는 크게 양계 하는 데 는 없는데, 우리 마을에는 양계 하는 사람이 몇 집이나 됐는데 가족들끼리 합니다. 가족이 없는 사람들은 인자 일하는 사람들 대 가지고 하고, 가족이 많은 사람들은 가족끼리 하거든. 그런데 일제 때 양계장을 하면 달걀을 일반인에게는 마음대로 못 팝니다. 그라고 가족들이(달걀) 먹는 것도 눈치 봐서 먹을 정도로. 물론 가족들이야 먹지만은 그것도 마음대로 먹는 게 아니고, 알 놓는 닭이 몇 마리면 알이 하루 얼마쯤 나온다카는 계산이 서는 기라예. 그 다음에 그 알은 갖다 줘예. 돈은 뭐 정당하게 다 쳐 주고 하지만은 이 마을사람이나 다른 한국 사람들은 달걀 못 먹었어요. 키우는 닭 몇 마리에서 알 빼 가지고 먹고 이랬지. 그 닭알은 시장에 나 이런데 절대 내나 팔 수가 없고. 그때는 사람보다 닭이 더 잘 먹었어요. 계란 그거를 갖다 주는 시내 조합이 있어요. 인자 전부 모아가지고 조합에다가 갖다 주고. 달걀은 리어카에다 싣고 자전거를 타고 갑니다. 옛날에는 자전거 꿈무늬에다 리어카를 달아가지고 배달을 다녔지요. (배달은) 셋째 형님이 주로 담당했어요. 닭 사료는 인자 그 조합에서로 추력(트럭)으로 실어다가 대주고 그렸습니다. 그 달걀은 그때만 해도 일본 고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전부 다 간다 그라고.¹³⁷⁾

당시 계란은 귀한 단백질원이었기 때문에 사료부터 판매까지 일본인들이 관리하였다. 김OO씨에 의하면, 당시에 계란을 수매하는 조합을 ‘계란꼬방’ 이라고 불렀다고 하며 지금의 수영로타리 근처에 있었다고 한다. 그 ‘계란꼬방’ 이 수영지역에 몇 안 되는 적산가옥 중

137) 이은정, 2018,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구술 자서전 [032] [제62호 좌수영어방놀이] 김태룡[金泰瓏, 1933~] 한바탕 놀면 속이 후련해요, 국립무형유산원, pp.38~43.

하나였다고 한다. 김태룡씨 집은 해방 이후 양계업을 그만뒀는데 그 이유가 식민시기에 양계장을 하기가 수월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해방 이후에는 사료도 부족하고 판로도 문제가 되었다. 또한 닭이 병들어 더 이상 양계를 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이렇게 김태룡씨처럼 일제강점기 때부터 수천 마리의 닭을 키운 집도 있지만, 해방 이후 일본에서 기술을 배워 양계업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아래의 구술은 김OO 씨의 친구가 그 가정에서 양계했던 내용으로 이 시기에는 마을 거주지 내에서 소규모로 양계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6.25지나서 제가 중학교때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그 사이에 여기에 또 양계업을 하는 사람이 친척이 일본에 있었는데 옛날에는 그 저 뭐 병아리를 키울려면 불을 놓고 키울려고 하든 돈도 많이 드는데 일본에서 어떤 기술을 배워왔냐면 거름 식으로 해서 병아리를 그 안에 실내에다가 높으게 해가지고 밑에 거름을 놓고 거름 옆에 병아리가 크게끔 그런 방식으로 키웠어예. 그래가지고 내 친구 집에서 그리 하는걸 같이 보고.(김OO)

6.25 전쟁이 끝난 후 수영지역에서 양계장을 대규모 한 곳이 3-4세대 정도 됐으며, 나머지는 소규모로 양계를 했다고 한다. 양계업은 닭이 병이 들어 죽으면서 이 지역에서 양계업이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고 한다. 양계장은 6.25 이후에 군수관련 산업과 기타 공장들이 들어오면서 집으로 변화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양계업을 그만두고 슬레이트로 지은 양계장을 집으로 개조하여 세를 놓기 시작했다고 한다.

왜 스투프(슬레이트)집을 많이 지었냐면 지금도 방하나 부엌하나가 아직도 많아요. 그 집들이 뭔가 하면 농사를 짓다가 터도 너르고 하니까 차츰차츰 사람들이 하면서 뭘 양계를 했습니다 양계업을 했습니다. 좀 더 많고 한사람들은 양계업을 많이 했어요 양계업을 하다 보니까 슬레이트집을 길게 이 정사각형 보통 안나오고 직 사각형으로 한다 아입니까 직사각형으로 하다보니까 그걸 양계업을 끝나고 나니까 그대로 칸을 찢러가지고 부엌하나 방하나 여가지고 한칸씩 한칸씩 인자 한기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김OO)

닭이 병으로 폐사하여 양계장이 무용지물이 됐을 무렵, 수영지역에는 6.25전쟁 이후 피복창과 군수창고, 그리고 1960년대 이후 고려제강과 삼도물산, 태창목재 등의 큰 회사가 자리 잡으면서 노동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특히 젊은 여공들이 섬유 공장에서 일하면서 값싼 주거지가 필요했다고 한다. 이러한 집들은 성의 북문 밖에 많았다고 한다. 지금도 하루가 다르게 개발로 사라지고 있지만, 아직도 그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집들이 몇 채 남아있다. 사진에서 보듯이 양계장이 직사각형

으로 길게 되어있었기 때문에 방 한 칸과 부엌 한 칸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분하여 주거지로 개조하였다.



경상좌수영성지 북문 밖 슬레이트집들의 모습

내부는 부엌을 통해 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형태라고 한다. 한 건물당 세 개 정도의 개별 공간을 만들어서 세를 놓았다고 한다. 이처럼 주민들은 산업화 무렵에 골치 아픈 양계업을 접고 그 공간을 거주지로 개조하여 노동자들에게 세를 놓기도 했다.

(3) 산업화 시기부터 현재까지

주민들의 구술에 의하면, 본격적인 생업 환경의 변화는 산업화의 시작인 1960년대부터라고 볼 수 있다. 농업과 어업, 양계 등에 의존하던 경제 행위는 6.25 전쟁 이후 공장들이 들어서면 점차 변화하게 된다. 당시 후방의 주요 거점지였던 부산에는 군수 관련 공장들이 생겨난다. 수영동에서는 대표적인 군수 공장으로 피복창과 인쇄창이 건설되었다.

그리고 1960년대는 정부 차원에서 수출주도형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 개발을 진행하면서 고려제강과 삼도물산, 태창목재 등의 대규모 공장들이 수영구에 들어오게 된다. 이때부터 기존의 논, 밭이나 어장들이 점차 사라지게 되었고 공장과 새로운 주거 시설 및 상업 시설 등이 생겨나게 되었다.

특히 1965년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의해 부산의 수영구 일대를 개발하는 신부산도시계획이 발표되면서 수영은 지금의 모습과 같은 도시 구조를 갖추게 되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수영을 중공업지대로”라는 제목의 부산일보 기사¹³⁸⁾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 계획은 수영 지역일대 100만평의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현재 센텀시티 자리에 있던 수영공항을 김해공항으로 이전하는 계획까지 포함하고 있었다.

그 발표 후 이듬해인 1966년 3월 25일에 건설부는 부산진구 대연동과 남천동, 그리고 동래구의 광안동, 민락동, 망미동을 제1신부산지구로 묶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하도록

138) 수영성박물관, 부산일보 1965년 3월 27일자 기사

명했으며, 시행 면적은 약1,530,000평이었다.¹³⁹⁾



신부산도시계획 언론 보도와 개발 후의 수영구 모습 (출처: 수영성박물관)

이 과정에서 수영지역에는 부산의 구도심 판자촌이 개발되면서 이주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이에 관한 내용은 이 지역의 주민인 최OO씨의 구술에서도 알 수 있다.

6.25때 망미동에 군수 보급하는 육군 관련 공장인 피복창, 인쇄창으로 사람들이 모여 들었고 영주동과 수정동 산복도로 판자촌에 있는 사람들 5층짜리 수정아파트가 생기면서 이주민이 민락동 쪽으로 오면서 인구가 늘고 그 사람들이 태창목재와 삼도물산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삼도물산은 지금 동일아파트 자리에 있었지요. 나도 어릴 때 시내에 살았고 74년도에 구획 정리되고 집을 막 짓기 시작할 때 민락동 쪽으로 이사 왔어요.(최OO)

산업화 과정에서 수영지역은 정부의 계획에 따라 도시계획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과거 농업과 어업 기반의 마을 경관은 사라지고 지금과 같은 모습의 도시 구조로 변모하였다. 부산 구도심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로 인해 새로운 주거지와 상업 시설이 생겨나면서 인구가 급증하였다. 이처럼 수영지역의 도시 경관의 변화는 신부산도시계획 전과 후로 나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도시 구조의 변화 가운데서 마을에서 농사 및 어업에 종사하던 사람들도 직업에 변화가 생겼다. 어느 정도 농토가 있던 가구들은 수영강변의 모래를 이용하여 벽돌 공장¹⁴⁰⁾, 일명 브록 공장¹⁴⁰⁾으로 업종을 변경하였다.

이 브록 공장은 1960년대 전후로 망미동부터 수영강변에 브록 공장이 꼭 있었고 지금의 현대아파트 자리의 반은 브록 공장이었다고 한다. 아래의 사례는 김태룡씨가 브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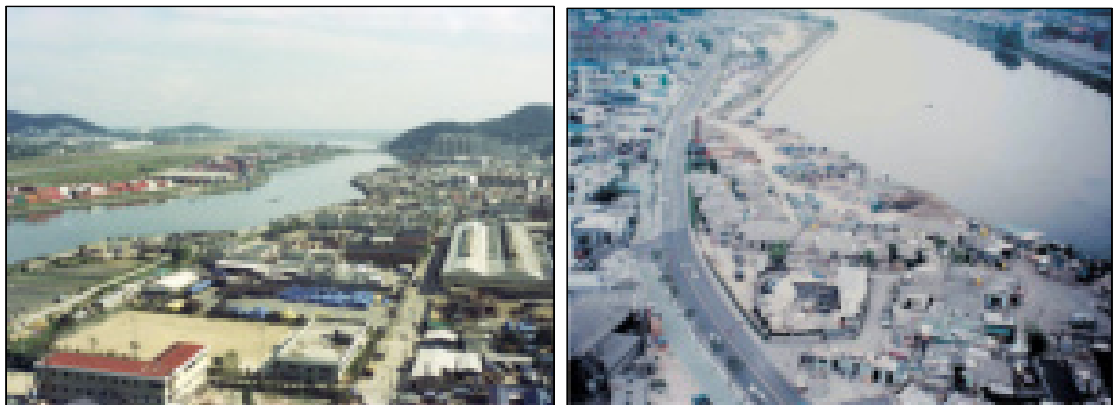
139) 이은정, 2017,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구술 자서전[016] [제43호 수영야류] 조홍복[趙弘福,1933~] 니강 내강 함 취 보자』, 국립무형유산원, pp.46.

140) 이 지역의 주민들은 벽돌 공장보다 브록 공장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보고서에서는 브록 공장을 그대로 사용할 것이다. 브록은 블록에서 나온 말로서 구멍이 크게 세 개 있는 벽돌 종류를 말한다. 주로 창고나 공장을 지을 때 많이 사용하나 집을 지을 때도 사용하였다.

크 공장을 했던 이야기이다.

옛날에는 수영강에 모래가 굉장히 많았어요. 사장이 너무 좋고. 수영강변에 브로크장이 억수로 마이 생겼습니다. 강변이 전부 브로크장이었어요. 부산 시내에 한창 건축 붐이 일고 5·16 혁명 이후에 집 많이 짓고 도시가 팽창하고 이럴 때니까. 그래 인자 아버지가 다른 사람들도 넘으(남의) 땅도 빌리 가지고 다 브로크장 하는데 우리도 해 보자 해 가지고 아버지하고 둘이 서로 브로크장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세멘(시멘트)가 지고 전부 집을 짓지만 옛날에는 보르크를 쌓아 올리가 집을 짓거든요. 그거 인자 짝아 만들어 가지고 팔고 이래 그거 하고. (공장명을) ‘현대보르크’ 라고 했어요.(중략...) 여기 사람들 전부 큰 규모로 한 사람은 없고 주로 500평, 좀 크게 하는 사람은 한 1,000평 부지에 하고. 그때는 없어서 몬팔고 그랬습니다.(중략...) 브로크장 할 직에는 인력 관리하고 판매도 하고, 장사는 잘 났습니다. 제법 오래했어요. 늦게까지 했는 사람들은 아마 15년 했을 낀데 우리는 한 10년쯤 했을 께니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까지 했는데 모래가 없어졌어요.¹⁴¹⁾

브로크 공장 1960년대 이후 도시 인구증가로 인해 건축 재료가 필요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일어난 현상이다. 부산에도 수영구 개발과 함께 부산 곳곳에 아파트와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면 건축자재 수요가 늘어났다. 그 수요로 인해 수영강변에 브로크 공장이 생기기 시작했다. 특히 부산에서도 수영강변은 백사장에 모래가 많았기 때문에 브로크 공장을 하는데 최적지였다.



수영강 정비 전의 강변 모습 (출처: 부산근현대사료연구소)

위 사진에서 보듯이 하천 정비 전에는 강변을 따라 브로크 공장과 폐자재 창고들이 줄지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1980~90년대 하천 정비가 이뤄지면서 브로크 공장도 쇠퇴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141) 이은정 2018,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구술 자서전 [032] [제62호 좌수영어방놀이] 김태룡[金泰瓏, 1933~] 한바탕 놀면 속이 후련해요』, 국립무형유산원, pp.82~85.

브로크 공장은 여기에 강변에 모래를 바로 퍼가지고 처음에 시작했는데 모래가 없고
이라니까 바다에 들어가 브로크 하다가 완전히 이기 상업적으로 없어서 빼고 모래가
인자 못구하고 이 그 도시계획이 들어가니까 땅 값이 비싸니까 보로크장 공장보다도
집을 짓고 하다보니까 없어진가지.(김00)

하천 주변을 정비하고 개발하면서 모래가 사라졌고, 브로크 공장도 자연스레 사라지게
되었다. 그리고 개발로 인해 토지가격이 상승하면서 브로크 공장과 창고 자리에는 상가나
아파트들이 그 자리를 메꿨다. 도시 개발로 인해 수영구에 인구가 늘어나면서 시장도 생기
고 확대되었다. 옛 성내에 해당하는 지금의 수영동 190번지에 수영팔도시장이 활성화되었
다. 수영팔도시장이 언제부터 형성되었는지 정확한 연도를 기억하는 분은 없지만, 대략 신
부산도시계획 완료 이후인 19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쯤 수영팔도시장이 활성화된 것으로
보인다. 수영팔도시장의 유래는 다음과 같다.

내가 볼 땐 그때 당시에 수영인구가 왜 늘어났냐고 하면 여기에 전부 논밭이었는데
신부산(신부산도시계획) 그 저 뭐라합니까 지금 말하면 도시개발이 들어서면서 논밭
에 그러면서 사는 인구가 늘어나냈고 망미동에서 인구가 늘어났고 그러면서 공장이
생기고 그러면서 갑작스리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수영시장이 생기뿐기라 그러면서
광안시장도 커지고 그런데 광안시장은 어느 정도 크다가 이사가뿌는 바람에 사람이
줄어드는 바람에 그것도 지금 있는 광안시장이 장소도 좁고 그러니까 활성화가 안되
고 수영시장은 자꾸 늘어나는게 또 팔도시장은 아실라는게 모를라나 왜 팔도냐고 하
면서 어떤 사람은 팔도시장하니까 전국 팔도라고 생각하는데 원 지금 수영시장이 있
었는데 그 옆에 슈퍼마켓 되어있는 그 건물을 제일교포가 개인 땅으로 사고 오면서
그 건물 지으면서 시장을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김팔도야 그 사람이 그래서 자기 이
름으로 시장을 한게 팔도 시장인가. 또 어느 사람은 이야기 하는게 전국적으로 모
여서 팔도시장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실지 그 사람 이름이 김팔도가 되가지
고 팔도시장이라고 하는기라.(김00)

도00씨에 따르면, 수영팔도시장은 지금처럼 상설시장이 아니라 새벽부터 오전까지 잠깐
여는 새벽시장의 형태를 띠었다고 한다. 새벽시장은 경상좌수영성지 동문 근처의 공터에
위치하였다. 주요 거래 물품은 인근 마을의 바닷가에서 잡아온 고기들과 채소류들이 많았
다고 한다. 지금의 수영팔도시장의 위치와 일치하지만 규모는 작았다. 이는 다른 구술과도
일치하는데, 당시 시장에서는 수영 근처에서 생산되는 물건들로 찬거리 정도 살 수 있었다
고 한다. 제사 준비나 다른 공산품을 사기 위해서는 동래시장에 가야했다고 한다.

도시화에 따른 인구 증가는 수영팔도시장이 비상설적인 시장 공간에서 상설시장의 형태
로 바뀐 계기가 되었다. 이 같은 국가 정책에서 의한 도시 구조의 변화는 사회조직과 제의

주재의 변화도 수반하였다.

5) 경상좌수영 지역의 제의와 의례 변화

경상좌수영 지역의 제의와 의례의 변화 중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국가 제사인 독제가 민간 중심의 제의와 의례로 변화했다는 것이다. 식민지 기간 동안 전국에 산재해 있던 독제가 사라졌지만, 경상좌수영 지역에서는 국내에서 드물게 독당과 독기가 남아 있다. 물론 독당과 독기가 변형되고 바뀌었지만, 독제가 당산제의 형태로 변화하여 지역 주민들에 의해 전승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에 대해서 이창언도 “독제가 중앙과 지방의 군사적 요충지에서 행했던 군사적 의례로서 조선 초기부터 국가 제사로 규정되어 대한제국 말기까지 지속된 국가적으로 중요한 의례였다고 말하면서 일제강점기 이후 구식 군제가 폐지된 19세기 말엽부터 국가 제사로서의 전승 기반이 붕괴되면서 그 전승 여부가 불확실한 채 현재는 마을공동체 신앙의 성격을 지니면서 지속되고 있다¹⁴²⁾고 밝히고 있다.

경상좌수영 지역에는 독신묘와 수영산신당제, 무민사(성황사)의 최영장군 제사, 25의용단 향사 등이 지역 주민에 의해 이어져 오고 있다. 일제강점기와 산업화를 거친 대도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독제를 비롯한 여러 제의와 의례, 연회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경상좌수영 지역의 특징이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지역에서 제의와 의례가 전승되고 있는지를 제의 공간과 제의 주체의 변화를 통해 살피고자 한다. 아래의 표는 제의와 제의 주체의 변화 양상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표14. 경상좌수영 지역의 제당과 제의 주체의 변화

구분			조선시대	일제 강점기	광복 이후 ~ 2000년	2001년 이후
25의용단			수사(官)	남촌면장→기로회	기로회→수영고적민속예술보존협회→수용의용총훈증모회→수영고적민속예술보존협회	수영고적민속예술보존협회
독당	수영고당	독신묘	수사(官)	성내 주민	수영기로회 회원 (조복준, 김기배)	수영향우회 (2002년)
산정신사		수영산신당	수사(官)			
할배당		주민(民)	북문외리 주민 (김씨 문중)			
성황사 (무민사)			수사(官)		주민(태덕수)-무당	수영향우회 (2006년)

142) 이창언, 2013, 「경상좌수영성 의례의 지속과 변화 : 독제(蠶祭)를 중심으로」, 『실천민속학연구』, 제23호, pp.251.

경상좌수영과 관련된 제의는 5개 정도라 할 수 있다. 조씨 할매당(이하 할매당)을 제외한 4개의 제의인 25의용단, 독당과 산정신사, 성황사는 모두 조선시대에는 관에서 수사가 주재하였다. 일제 강점기에 접어들면서 제의 주체가 관에서 지역 주민들로 바뀌었다. 그러한 가운데 독당과 산정신사, 성황사 등 관주도의 읍치제 성격을 지닌 제당들이 사라지거나 통합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독당과 산정신사는 1936년에 하나로 합쳐져 수영고당(산정머리 할매당, 송씨할매당)으로 불렸다. 수영고당은 다시 문화재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할매당과 통합되어 독신묘와 수영산신당으로 그 명칭이 바뀌었다. 성황사는 그 역사가 묘연한데, 현재는 성황사 터로 추정되는 곳에 최영 장군을 신격화한 무민사가 건립되어 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 각 제당의 공간적인 변화와 함께 제의 주체도 관에서 주민 중심으로 옮겨왔다. 주요 제의 주체들은 수영기회회와 수영고적민속보존예술협회, 수영향우회, 일반 마을 주민 등이 있다. 최근에는 수영향우회가 25인의용단 향사를 제외하고 경상좌수영 지역의 제의를 모두 관장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현재 수영향우회에서 관장하고 있는 독신묘와 수영산신당을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1) 조선시대

조선시대 경상좌수영의 제의 공간은 내영지(萊營誌)의 단묘조(檀廟條)를 참고하면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하다. 단묘조를 보면, 당시에 독당(蠲堂)과 성황사(城隍祠), 용두신사(龍頭神祠), 산정신사(山亭神祠), 절영도신사(絶影島神祠), 충렬사(忠烈祠)에 대한 기록이 있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경상좌수영 지역에서 명맥이 유지되고 있는 신당은 독당과 성황사, 산정신사이다. 독당은 산정에 위치했다고 전하고 있으며, 성황사는 성의 동문 밖에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정신사의 경우 위치에 대한 내용은 없으나 산정 근처에 위치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 시기의 이 세 개의 제당 위치는 아래 지도(지적원도, 1912년)와 같다.

이 지도¹⁴³⁾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 의해 제작된 지적원도이다. 이 지적원도에는 당시의 행정구역과 제당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다. 경상좌수영성 내부에 남수마음이 보이며, 근처에 독당(현 수영동 229-1번지)과 산정신사(현 271번지)가 위치하고 있다. 독당은 성내(城內)에 가장 높은 곳인 산정(山亭)에 위치했으며, 산정신사는 산정에서 남쪽에 위치하고 있었다. 독당과 산정신사의 원래 위치에 대한 해석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서치상 교수는 독당이 산정신사 자리에 있었다고 추정한 바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당시 사당 정비사업 자문단으로 참여한 부산대 서치상 교수는 “1913년 수영구 지리원도(동래영지)를 보면 독신당을 나타내는 곳에 사(社)-271번지라는 표기가 있는데 그 표기가 공원 내 민족예술관 인근에서 발견됐으며 “이에 따르면 독신당은 현 위치에서 50m 아래쪽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¹⁴⁴⁾

143) 이 지도는 1913년에 측량된 지적원도(출처: 국가기록원)를 기본으로 하여 조선시기 경상좌수영 배치도를 덧씌워서 재구성한 것이다.

144) 국제신문(2016년 10월 18일자) “수영사적공원 '독신당' 이전 추진”



조선시대 경상좌수영의 제당(祭堂) 위치

서치상 교수가 산정신사가 위치한 곳을 독당의 자리로 추정한 이유는 1913년 지적원도에 사(社)로 표기된 주소인 수영동 271번지가 산정 근처에 있어 독당의 위치로 본 것 같다. 그러나 위의 지도에서 보듯이 국가기록원에서 제공한 1913년 지적원도를 바탕으로 조선 시기 경상좌수영성의 관아 배치도를 겹쳐 보면, 독당의 원래 위치는 현재 야외놀이마당 관람석 뒤편의 라이온스 클럽 시계탑 주변일 가능성이 크다. 조선 시기 경상좌수영은 군영이지만, 긴 시간 동안 세거한 군인과 군속, 가족들로 구성된 특성을 고려할 때 군영뿐 아니라 생활 공간으로서 일반 읍치의 사회 문화적 특징을 공유한 것으로 여겨진다¹⁴⁵⁾. 특히 경상좌수영 지역에서 현재까지 전승되는 주요 민속 연희를 보면, 경상좌수영이 현대적 개념의 군사 지역이라기 보다 마을 혹은 읍치로서의 성격이 혼합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인 경상좌수영의 좌수영어방놀이와 수영야류 그리고 부산시 지정 무형문화재인 좌수영 농청놀이 등의 민속놀이와 주로 향리층에서 주도한 읍치제의적 성격을 지니는 의례의 존재는 많은 부분에서 읍치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어방놀이와 농청놀이는 수군 영진의 군졸과 관속 및 가족에 의한 경제생활의 단면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수영야류는 읍치 제의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연희적 성격이 두드러진다.¹⁴⁶⁾

145) 이창언, 2013, 「경상좌수영성 의례의 지속과 변화 : 독제(肅祭)를 중심으로」, 『실천민속학연구』, 제23호, pp.266.

146) 이창언, 2013, 「경상좌수영성 의례의 지속과 변화 : 독제(肅祭)를 중심으로」, 『실천민속학연구』, 제23호, pp.255.

경상좌수영에서는 수군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공식적인 제의 후에 축하연으로 수영야류 등의 연회를 즐겼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수영야류가 좌수영 수사가 초계 밤마리에서 대광대패를 불러서 군졸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연회를 베푼 것에 기원했다는 설과도 일맥상통한다(이창언 2013: 267). 그렇다고 해서 독제를 지낸 후에 수영야류와 같은 연회를 했다고 단정 짓긴 힘들다. 하지만 경상좌수영이 읍치적인 성격을 가졌다고 본다면, 초계 밤마리 기원설¹⁴⁷⁾은 국가 제사 후 민중들의 연회 과정이 없었다고 확인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더불어 조선시대 수사가 산신제를 지내왔다는 설¹⁴⁸⁾이 있는데, 이 산신제는 일제시기 수영고당으로 통합된 산정신사의 제의를 뜻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초계 밤마리 기원설과 부락제당의 조사내용은 이 당시는 조선 왕실이 위세가 약해지는 시기로 경상좌수영에서도 독제와 산정신사, 성황사의 제의를 관에서 주관했지만 점차 민간으로 이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바로 일제강점기 때 독제와 산정신사, 성황사를 통합한 수영고당의 건립일 것이다.

(2) 일제강점기 이전

조선 후기로 갈수록 관 주도 제의 주재는 점차 약화되었다. 결정적으로는 일제강점기에 접어들면서 조선 군대가 철폐되고 경상좌수영성이 사라지면서 관에서 주재하던 독당과 산정신사, 성황사 등의 제의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과정에서 독당과 산정신사가 민간에서 주재하는 수영고당이라는 당제 형태로 통합된 것으로 보인다.¹⁴⁹⁾

여기에 덧붙여 관에서 民으로 祭義 주재 집단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수영고당이 성황사의 읍치제 기능을 흡수했을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가 있다¹⁵⁰⁾. 독제, 산정신사, 성황사의 제의가 비슷한 시기인 일제강점기에 철폐되었음으로 이 세 개의 제의 기능이 당산제로 통합되었을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본다. 특히 수영고당이 서낭당으로도 불렸다는 것¹⁵¹⁾도 하나의 증거라 할 수 있다. 물론 수영고당이 성황사의 제의까지 수렴한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향후 면밀한 조사를 요한다.

147) 이와 관련된 주장은 송석하, 1960, 『한국민속고』, 일신사.의 내용 참조.

148) 이두현·장주근·현용준·최길성, 1969, 「부락제당」, 『민속자료보고서 제 39호』, 문화재관리국.

149) 이와 관련한 주장은 강승찬, 1993 「고적과 민속」, 『수영전통예능』, 수영고적민속보존예술협회, pp.328의 내용 참조.

150) 이와 관련한 주장은 이창언, 2013, 「경상좌수영성 의례의 지속과 변화 : 독제(蠶祭)를 중심으로」, 『실천민속학연구』, 제23호, pp.267의 내용 참조.

151) 이와 관련한 내용은 배도식 2005, 「유형문화재 천연기념물」, 『수영구의 민속과 문화』, 수영고적민속보존예술협회, pp.258.의 보고서 참조.



일제강점기 이래 경상좌수영성지의 제당 위치

위의 지도는 독당과 산정신사가 수영고당으로 통합된 시기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수영고당은 산정머리할배당, 송씨할배당, 수영성내수호신당, 성주신당, 서낭당으로도 불린다. 여러 이름을 통해 수영고당의 특징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산정머리할배당은 산정신사에서 그 이름이 기원한 것으로 보이며, 서낭당은 성황사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수영고당은 상량문의 기록에 1936년 음력 11월 초 3일에 중건되었다고 한다. 중건은 다시 보수하여 고쳐지었다는 의미이며, 그렇다면 수영고당의 자리에 당집이 존재했었다는 것인데 1913년 지적원부에는 나타나 있지 않다. 수영고당은 관(官)에서 하는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적원부에 없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와 관련하여 의문스러운 것은 지도에서 보듯이 성 밖 북문의 할배당의 경우에 그 위치가 표기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조씨할배당은 당산목¹⁵²⁾과 함께 조선시기부터 제당이 존재한 것으로 보이고, 수영고당이 있던 자리에는 원래 제당이 없이 당산목인 푸조나무가 지신이자 할배(할머니)의 역할을 한 것을 보인다.¹⁵³⁾

이와 관련하여 조심스럽긴 하지만, 경상도에서 당산제 혹은 동제를 당집에서 지내는 경우도 있지만, 나무 및 자연물을 신격화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수영고당 근처에 있는 지신목인 당산나무가 그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이는 1969년 부락제당

152) 주민들에 의하면, 할배당의 당산목은 20세기 후반 즈음에 고사했다고 한다.

153) 마을에서는 이 두 나무를 노부부목으로 부른다.

이라는 책에서 당시 현지 조사시 수영고당의 위패에 토신주위(土神主位)라고 쓰인 것을 보더라도 개연성이 있다. 즉 당목인 푸조와 곰솔나무 인근에 수영고당을 건립하여 독당과 산정신사, 성황사의 위패를 합쳐서 당산제를 모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독당은 산정신사와 성황사와 그 성격이 다르기에 공간을 분리하여 위패를 따로 모셨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일제가 철폐하고자 했던 경상좌수영 내의 제의를 보존하기 위한 주민들의 전략이기도 한 것이다. 특히 마을 사람들이 수영고당을 일본군과 용감하게 싸운 송씨 할매 전설을 통해 그녀를 신격화하여 수영고당을 송씨할매당으로 불렀던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이 같은 전설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광복 이후에 본격적으로 송씨 할매가 신격화된 것으로 보인다. 수영고당이 일본풍 외형으로 중건된 점과 수영야류의 연행 금지가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것을 보면, 일제 강점기때 송씨 할매를 모시 것은 어려웠을 것이다.



1977년, 수영야류 길놀이 당시 수영고당 모습¹⁵⁴⁾

한편 1936년 중건 때 수영고당의 모습이 일본풍이었다는 마을 주민들의 증언 및 사진을 봤을 때, 이 당시에 경상좌수영 지역의 제의 변화가 일제의 민족 문화 말살 정책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특히 이 시기 즈음에 일제의 집회 금지로 수영야류를 1935년에 마지막으로 공연했다고 전한다.¹⁵⁵⁾ 이 당시부터 정월보름에 당산제와 함께 연행했던 수영야류가 제의와 분리된 것으로 보이며 이것이 지금까지도 당산제에서 수영야류를 놀지 않는 이유인 듯하다.¹⁵⁶⁾

154) 이 사진은 1981년에 수영고당을 재건립한 김기배씨의 아들인 김종수씨가 제공하였다.

155) 정상박, 2009, 「수영야류의 길놀이와 놀이판」, 『수영민속총집』, 수영고적민속보존예술협회, pp.29.

156) 조흥복씨에 따르면, 기로회와 상포계가 주동이 되어 해방이후 한번 수영야류를 해방 축제처럼 정월 보름에 한번 놀았으며 6.25 이후 59년에도 했다고 한다. 그리고 지신밟기와 야류를 60년대 말까지 정월보름에 연행했다고 한다(이은정 2017: 103~107). 이 구술에 의하면 해방 이후 4.19와 6.25 등 역사적 사건에 의해 수영야류가 간헐적으로 연행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수영 유사를 집필한 최한복씨가 수영야류를 복원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다가 기로회와 상포계 조직이 약해지면서 수영야류도 쇠퇴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에 정부의 지원으로 1970년대 수영고적민속보존회가 출범하면서 예술적 연회로서 수영야류와 다른 놀이들이 명맥을 유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일제강점기 이후 수영고당의 제의는 김승찬의 조사를 통해 신격과 그 순서 등의 변화상을 엿 볼 수 있다. 그중에서 가장 큰 변화는 1981년에 기존의 일본식 건물을 허물고 수영고당을 다시 지은 것이다.

고당 안의 위패에 기록된 신격의 변천을 보면, 1969년에는 ‘토신주위(土神主位)’ ‘독신주위(蠶神主位)’였던 것이 1972년에는 ‘독신주위(蠶神主位)’는 없어지고 ‘토신주위(土神主位)’만이 ‘주신지위(主神之位)’로 바뀌었고, 1981년에는 성주신당(城主神堂)에 독신기(蠶神旗)가 세워져 있고 독신묘(蠶神廟)에는 아무것도 없다가 2004년 현지 조사 때는 ‘수영성내수호신지신위(水營城內守護神之神位)’ ‘독신지신위(蠶神之神位)’의 지방으로 바뀌었으며, 독신기(蠶神旗)도 제자리에 세워졌다. 제의절차를 보면, 1969년 이전에는 ‘산신제→독신제→먼물샘제→거릿대제’로 베풀다가, 1969년에는 ‘산신제→독신제→당산나무제’로, 1972년에는 ‘송씨할매제→산신제→거릿대제’로, 1981년 이후에는 ‘송씨할매제(성주신제)→독신제→목신제’로 베풀어졌다. 먼물샘[遠水井]은 광안3동 1040-9번지 하몽룽씨 주택 모퉁이 옆에 위치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수영성 사람들의 식수로 이용하였고, 1967년도 구획정리사업으로 샘이 봉해져 현재는 샘 자리만 남아 있다.¹⁵⁷⁾

현재 수영산신당제(舊수영고당)를 지내고 있는 도OO씨의 의하면, 애항가인 김기배씨가 낡은 수영고당을 1981년에 5월 11일에 개축하였다고 한다. 김기배씨의 아들인 김OO씨도 이와 관련하여 언급하였는데, 부친이 사비를 들여 수영고당을 다시 지었다고 한다. 그 이전의 수영고당은 낡기도 했지만, 수영고당이 일본풍이었기 때문에 새로 지은 이유도 있다고 한다. 개축 전까지는 수영기로회 및 수영야류의 회원인 조복준씨가 수영고당의 당제를 도맡아서 진행했다고 한다. 개축 후에는 마을 자체에서 진행하던 정기적인 당제는 사라지고 김기배씨가 주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약식으로 제를 올렸다고 한다. 그러다가 2002년부터 지금까지 수영향우회를 중심으로 수영고당에서 당산제를 도맡아 지내게 된다.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독당과 산정신사, 성황사는 사라지거나 수영고당으로 수렴되어 당산제의 형태로 전승된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당산제의 경비 마련에 중요한 야류계가 해체되면서 지신밟기와 수영야류의 연행도 단절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수영고당이 중건된 1936년 이후의 당산제는 제의만 남게 되었고 약 80년간 여러 변화를 겪으면서 현재의 수영산신당제 형태로 그 맥이 이어지게 된다.

㉓ 최근 : ‘전통 만들기’

앞서 언급했듯이 수영고당의 당산제는 일제시기 수영야류를 금하면서 제의의 형태만 남게 되었다. 정월보름에 당제를 지내기 위해서는 야류계가 주동하여 지신밟기를 통해 재원

157) 부산광역시시사편찬위원회 2005, 『부산의 당제』, pp.434~435.

을 확보해야 하나 그 조직이 사라지면서 당제를 유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이는 마을 주민들의 구술에서도 드러난다. 1936년 이후에 중건된 수영고당의 당제 주재 집단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었다.

다만, 수영고당의 당산제는 야류계가 사라지면서 수영기로회 회원 몇몇 분들의 의지로 그 맥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그 대표적인 회원이 앞서 말한 조복준씨 이다. 그리고 1981년에 수영고당을 재건립하면서 김기배씨를 중심으로 개별적인 약식 제의를 지냈다고 한다. 이와 별개로 수영야류 전승자들이 수영고당 근처에 장승과 솟대를 세우기도 했다고 한다. 수영야류를 놀 때 지금은 장승이 쓰러져 있는 상태이며, 솟대는 없다.

수영고당의 당제가 본격적으로 정례화된 것은 수영초등학교 출신들의 모임인 수영향우회가 주축이 되면서부터였다. 수영향우회의 도OO씨에 의하면, 2001년 수영구에 당제를 지내기 위한 제비 지원 요청을 했다고 한다. 수영구에서는 제비 지원하고 집행하기 위해서 구체적 자료가 필요하다고 요구하였고, 이에 본인이 1969년 문화재관리국에서 발행 부락제당(민속자료조사보고서 제39호)에 기록된 수영고당의 당제에 대한 기록에 관한 내용을 정리했다고 한다. 그리고 수영향우회는 당제를 모두 준비하며, 2002년부터는 수영구로부터 제비를 지원받고 있다. 제를 지내기 위한 경비는 약 80만원 가량이라고 한다.

당제의 형태는 조복준씨가 수영고당에서 지냈던 방식을 기준으로 하며 초헌과 아헌, 종헌 등의 격식을 갖추지 않고 제관과 집사가 간소하게 지내고 있다.¹⁵⁸⁾ 집사는 수영향우회 회원 중에서 선택한다. 제관도 마을에서 명망 있고 깨끗한 사람으로 수영향우회에서 선정하지만, 마을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수영향우회는 당제를 지내기 위한 마을의 계 등의 조직이 사라진 상태에서 독신묘와 수영산신당을 비롯하여 무민사의 제까지 도맡고 있다. 수영향우회는 2018년부터 수영고당과 북문 밖 할배당을 합쳐 수영산신당제를 지내고 있다고 한다. 할배당은 주산할배당 혹은 당산 할배당으로도 불리며, 한때 조씨들이 당제를 맡았다고 하여 조씨할배당이라고도 불린다. 2018년 2월 수영산신당으로 수영고당과 할배당이 합치기 전에는 할배당이 지금의 수영산신당 자리에 위치하였다. 할배당은 철거되기 전 건물에 기록된 자료를 보면 1922년에 건립되었다. 그러나 1913년 지적원부에 당집이 있다고 표기된 것으로 보아 이미 그 이전 시기부터 제당이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 할배당에는 수영고당과 달리 산신도가 있다.

수영향우회에서는 성황사에 옛터에 자리잡은 무민사에 대한 제도 지내고 있다. 무민사는 최영 장군을 모신 사당으로 원래 강신 무녀가 최영 장군 영정을 모시고 살던 오두막집이었는데 그 무녀가 죽은 뒤 마을에 우환이 생겨 주민들이 오두막을 철거하고 사당을 세웠다. 그 때가 1963년이었으며, 10년 뒤에 1973년에 개축하였다. 그러나 건물이 노후되어 2005년에 재건립하였다. 원래 정월 보름에 마을 주민들이 제를 올렸으나, 2006년 수영향우회가

158) 구체적 제의 절차는 국립민속박물관 2020, 『부산의 마을신앙 4: 금정구·동래구·수영구·연제구·해운대구』, 서울: 민속원, pp.184-190.의 내용 참조.

말고 부터는 음력 3월 3일에 지내고 있다.

2018년에는 독당이 있던 수영고당이 큰 변화를 겪는데, 문화재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수영고당을 조씨 할배당과 합치게 된다. 이전 장소는 할배당이 있는 수영동 363번지이다.



2018년 이후 경상좌수영성지의 제당(祭堂)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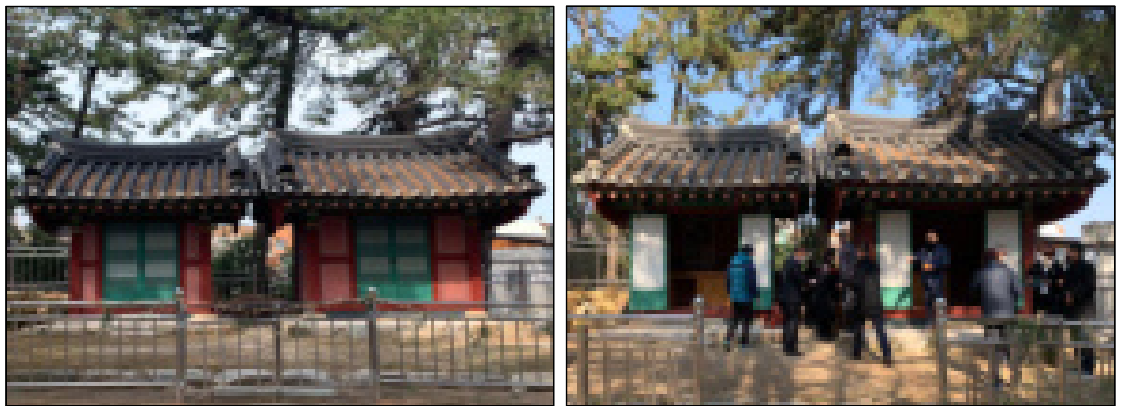
위의 지도에서 보듯이 400년 이상 어떤 형태로든 성내를 지켰던 제당이 모두 성 밖으로 나가게 된다. 수영고당과 할배당을 같은 공간으로 합친 배경을 적은 독신묘와 수영산신당 옆 현판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이곳은 1922년 3월에 건립된 ‘조씨할배당’ 이라는 산신당이 있던 부지였다. 그런데 “조씨할배당이 수영동 233번지에 있던 송씨할배당이라는 산신당과 성격이 흡사하여 같은 신당에 산신을 모심이 적합하고, 종래 독신묘(경상좌수영이라는 병영의 군기(軍旗)를 모시는 신당)는 독립하여 또 다른 신당에 모심이 적합하다.” 라는 문화재전문위원의 의견에 따라 독립된 두 개의 사당 신축을 2017년 9월에 착공하여 2018년 2월에 준공하였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의견에 따라 두 개의 건축물을 각각 ‘독신묘와 수영산신당’이라 정하였다.

2018년에 수영고당과 할배당을 통합한 것은 여러모로 아쉬운 점이 많이 남는다. 먼저 수

영고당은 관에서 주재하던 독당과 산정신사가 민간 제의로 변화된 사례로서 할배당과 성격이 다르다. 또한 제의 주체도 할배당의 경우는 성 밖의 자연마을인 북문 외리에서 제의(祭儀)를 주재하였고, 수영고당은 성내 사람들이 맡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두 개의 제당을 하나로 합친 것은 이해하기가 힘들다. 두 제당이 별개인 것은 2009년에 한 수영야류 길놀이 재현 사업에서도 알 수 있다. 이 사업은 당시 7명의 마을 원로들의 고증을 바탕으로 재현했는데 첫째 마당인 당산제에 송씨할배당(수영 고당)과 최영장군 사당(무민사), 먼 물샘에서는 제를 올렸지만 할배당에는 제(祭)를 지내지 않았다.¹⁵⁹⁾

여기에 덧붙여 독당이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마을 제당과 합한 사례는 거의 유일하므로 그러한 맥락을 살펴볼 수 있는 수영고당의 철거는 문화재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할배당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1922년부터 이어온 제당이라 것을 감안한다면, 그 역사를 살필 수 있는 대상이 사라진 것이다. 만약 부득이하게 철거하고 합해야 했다면, 두 제당에 대한 기록을 남길 정밀 학술조사가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본다.



2018년 새로 건립한 독신묘(독당, 우측)와 수영산신당(좌측)

그렇다고 하여 독신묘와 수영산신당의 본래 위치를 찾자는 말은 아니다. 이러한 과정도 긴 역사의 흐름에서 본다면 당시 시대상과 문화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문화적 배경을 잘 기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산업화 이후 제의를 집행할 조직이 사라지고 있는 도시에서 수영향우회를 비롯한 주민조직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제의 전통을 보존하고 계승하는 일은 인류·민속적인 측면에서 흥미로운 현상이다. 향후에도 이러한 활동들을 학술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통을 보존하기 위한 주민 자치 조직들과 수영구의 노력도 주목해야 하는데, 장기적으로는 지역의 민속과 전통문화를 전승할 수 있는 민관협력 모델로서 지속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159) 배도식, 2009, 「수영야류 길놀이와 놀이판」, 『수영민속총집』, 수영예술민속보존협회, pp.28~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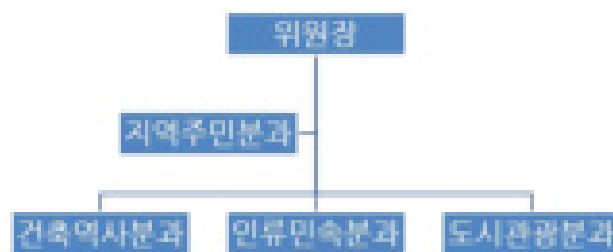
⑥ 경상좌수영의 민속 문화 보존과 활용 방안

경상좌수영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총체적으로 조율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경상좌수영은 유무형 문화유산이 광범위하게 혼재되어 있으며, 이를 관리하고 보존하는 주체들도 다양하다. 이에 경상좌수영 지역의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 시스템은 바로 시 혹은 구청 산하에 ‘경상좌수영 보존·활용 위원회(가칭)’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 위원회는 경상좌수영의 유무형 문화유산을 관리·보존, 연구,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의제를 논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실행 주체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기능을 한다. 위원회 구성은 지역의 역사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중심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유무형의 문화유산 관리와 보존 기능이다. 경상좌수영 지역에는 먼물샘, 무민사의 선서바위 등 유서 깊은 문화재들이 방치되고 있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할 계획이 필요하다. 더불어 수영야류 등의 놀이와 독신묘와 수영산신당, 무민사 제의 등의 무형 문화유산도 중앙정부 및 지자체, 주민단체의 노력으로 근근이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전승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 및 지원이 절실한 상태이다.

두 번째는 경상좌수영 지역의 유무형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과 활용의 밑바탕이 되는 연구 프로젝트의 계획과 실행이다. 문화유산의 관리와 보존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연구 작업을 필요로 한다. 또한 문화유산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콘텐츠화가 중요한데, 이는 심층적 학술 연구를 통해 이뤄낼 수 있으며, 이 자료는 교육 및 관광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다.

경상좌수영의 문화유산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통합적으로 보존·활용하기 위해서 건축·역사, 인류·민속, 도시·관광 등 전문가들의 협업이 요구되며, 이 결과들을 지역 주민과 의논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컨트롤 타워로서 경상좌수영 보존·활용 위원회 조직도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한다.



경상좌수영(성) 보존·활용 위원회 조직도

‘경상좌수영 보존·활용 위원회(가칭)’는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가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존과 활용 방안에 대한 일관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부산광역시 혹은 수영구 등의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위원회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1) 관리 및 보존 방안: '경상좌수영 라키비움(Larchiveum)' 건립

경상좌수영 지역의 역사와 민속 문화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그와 관련된 유산을 시민들과 공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경상좌수영 지역은 마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기록한 자료들이 풍부하게 있어 이를 보존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 종류는 지역 주민의 이야기부터 사진, 일기, 팸플릿, 근현대 관련 물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에 이 지역의 민속과 문화, 역사를 보존하고 알리기 위해 아카이브를 축적할 공간인 전시관(가칭 경상좌수영 라키비움)의 건립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전시관의 형태는 도서관(library)과 기록관(archives), 박물관(museum)의 역할을 합한 복합문화공간인 라키비움(larchiveum)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 된다. 라키비움 건립은 기존의 수영사적원 전시공간을 리모델링 하거나 경상좌수영성내의 객사 복원으로 가능하다.¹⁶⁰⁾

라키비움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박물관과 아카이브를 통합하여 지역의 역사 및 문화유산 자료의 수집 및 전시, 기록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개인의 구술 자료와 사진, 일기뿐 아니라 수영기록화와 승모회, 상포계, 향우회, 동창회, 수영고적민속예술보존협회, 각종 도시 재생 사업 관련 주민 조직(수영성 박물관, 도도수영 등)의 회보와 팸플릿, 사진 등 자료에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이 지역에는 유구한 역사에 걸맞게 주민들이 수집 보관하고 있거나 개인이 수집하고 연구한 자료들이 다수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내영지와 수영유사, 남촌면 관련 고문서 등이 있다. 이에 경상좌수영 지역에 전해 내려오는 문헌자료의 해석 및 연구, 출판을 포함한다. 두 번째는 온오프라인 형태로 경상좌수영 관련 기록물을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과 공유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VR체험 및 4D영상 등을 통해 교육 및 오락의 기능까지 포함하는 복합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표15. 경상좌수영성지의 라키비움 건립 방안

비고	추진 사업	사업 내용	장단점
1안	경상좌수영 라키비움 건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영사적공원 전시공간 리모델링 아카이브 수집 및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비 절감 공간 협소
2안	경상좌수영 라키비움 건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객사 복원을 통한 신규 건물 건립 아카이브 수집 및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기 사업 경상좌수영의 랜드마크

(2) 복원 및 활용 방안

① 수영야류의 브랜드화: '수영야류의 길' 조성 및 수영야류 '축제'

수영야류는 제의와 길놀이, 탈놀이 등을 함께하는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공연장에서 탈놀이 중심의 연희 형태로 전승되고 있다. 하지만 지역 주민의 참여가 저조하며 관광객들의

160) 동 보고서 객사 복원 계획 참조

흥미를 유발하는 데도 한계가 있어 보인다. 주지하다시피 수영야류는 정월 초사흘 혹은 나흘 무렵부터 지신밧기를 시작으로 정월보름에 그 놀음이 완결된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제한된 시공간에서 공연하다 보니 그 역사와 문화적 의미를 알리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수영야류가 정례적 혹은 정기적인 패턴으로 연행되지 못하여 브랜드화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수영야류의 본래의 속성인 축제로 활성화하여 지역민과 관광객에게 흥미를 유도하고 역사 문화에 대한 교육적인 측면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수영야류 ‘축제’의 브랜드화를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수영야류를 길놀이와 연계하여 매년 새해(정월보름)에 경상좌수영 혹은 수영강 일대에서 정기적으로 연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길놀이의 다양한 등 행렬을 통해 야간 놀음을 콘텐츠화한다면 부산의 대표적인 겨울밤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부산 대표 축제로 브랜드화하기 위해 수영야류와 관련된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수영야류의 연행과 관련 있는 각 문화유산을 연결하는 ‘수영야류의 길’ 조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수영야류의 길’은 2009년에 재현된 수영야류 길놀이의 대본¹⁶¹⁾에서 착안한 것이다. 길놀이는 마을에 있는 세 개의 당산인 제를 지낸 후 놀이패가 저녁에 먼물샘부터 구경꾼과 함께 수영야류 본 공연 장소까지 오는 일종의 퍼레이드라 할 수 있다. 2009년에 재현된 수영야류 길놀이 조사 및 복원 내용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영야류의 길’을 시각화하였다.



‘수영야류의 길’ 동선도

‘수영야류의 길’은 길놀이 고증에 따라 먼물샘에서 시작하여 수영산신당과 푸조와공술, 무민사를 지나 시장 공터(현 수영팔도시장)으로 이어지는 루트이다. 이 길의 조성 목적

161) 이와 관련된 내용은 배도식, 2009, 「수영야류 길놀이와 놀이판」, 『수영민속총집』, 수영예술민속보존협회. pp.27~49의 내용 참조.

은 경상좌수영의 대표적 문화유산인 수영야류 길놀이를 축제화하는 것으로 길놀이 행렬이 지나는 곳에 있는 당산과 문화유산들을 정비하기 위함이다. 수영야류 길놀이는 야간등 행렬이 장관을 이루기 때문에 부산의 대표적인 겨울 야간 축제로 관광 자원화하기에 적합하다. ‘수영야류의 길’ 관련 정비나 수영야류 ‘축제’ 관련 사업 내용 및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

표16. ‘수영야류의 길’ 조성 방안

비고	추진 사업	사업 내용	장단점
1안	‘수영야류의 길’ 조성	• 풋말 및 설명 판, 둘레길 조성	• 경비 절감 • 정체성 부각 미비
2안	‘수영야류의 길’ 조성	• 풋말 및 설명판, 둘레길 조성 • 먼물샘 복구 및 정비 • 선서바위, 무민사 주변 정비 및 활용 • 구(舊) 수영산신당 공간 정비	• 경상좌수영 역사문화 정체성 강화 • 관광 자원화 용이
	수영야류 길놀이 축제	• 길놀이 관광 자원화 방안 마련 • 야간등 행렬 중심의 콘텐츠 사업 • 수영강과 주변 공간 활용 방안	• 야간축제로 관광 자원화 가능 • 부산을 대표하는 겨울 축제로 브랜드화 용이

② 독제 복원 및 제현

수영성에는 군신을 모시는 제당과 깃발이 있는데, 이를 각각 독당과 독기라 부르며 매년 두 차례 독제를 지내왔다. 즉 독제는 병영성의 정체성을 가장 잘 함축하고 있는 의례라 할 수 있다. 전국의 독제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사라졌다. 다만, 경상좌수영에는 독특하게도 독당과 독기가 남아 있으며 당산제의 형태로 전승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수영산신당과 함께 있는 독당(독신묘)의 위치는 원래 자리가 아니며, 독기도 변형된 것이다. 이에 독당의 원래 자리를 찾고 독기의 복원이 필요해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독신묘를 다시 이전하자는 것은 아니다. 현재의 독신묘와 독기는 지난 100여년 간 마을 지키는 신으로서 민간 신앙의 형태로 존속했기 때문에 그 의미 또한 중요하다. 그래서 독신묘와 독기(독기)는 수영산신당과 함께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다만 역사적 맥락에서 병영성으로서 경상좌수영의 정체성을 고려한다면, 독당의 원위치를 표시하거나 그 자리에 새로이 독당을 건립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 하다. 또한 독당 내에 모실 독기도 고증을 바탕으로 복원해야 할 것이다. 독당은 아래의 사진처럼 영해의 독당을 참고하여 건립할 수 있다.



경북 영해의 독당 모습

독제는 제의 절차를 기록한 홀기를 바탕으로 한 고증이 필요하다. 경남 통영과 전남 여수에서는 이미 역사적 고증을 통해 독제를 지낸 경험¹⁶²⁾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벤치마킹이 가능하다. 또한 경북 영해에는 독제에 관한 홀기(笏記)가 보존되어 있으므로 그 홀기를 바탕으로 독제를 복원할 수 있다. 특히 경북 영해의 홀기는 경상좌수영에서 포함된 수군 진영으로서 독제를 복원하는데 적절한 사례를 제공해 줄 수 있다.

표17. 독당 및 독제 복원 방안

비고	추진 사업	사업 내용	장단점
1안	독당 표시	• 독당 원위치 표시 및 설명	• 역사 교육자료로서의 가치 미흡
2안	독제 재현	• 독당 및 독기, 독제 복원 연구 • 독제 준비 위원회 구성(독제 실시)	• 역사교육 및 관광 콘텐츠로 활용 가능

(3) 문화유산 자원 수집 및 콘텐츠화

도시화와 고령화로 인해 경상좌수영 지역의 문화가 하루가 다르게 사라지고 있다. 이는 경상좌수영 지역의 콘텐츠 원천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문헌에 없는 어르신들의 추억과 이야기, 그들이 소장하고 있는 일기와 팜플렛, 사진 등은 풍부한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다. 특히 장소와 공간에 담긴 기억과 이야기의 발굴은 구술조사 뿐 아니라 공간과 환경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에 콘텐츠 발굴을 위해서는 도시와 건축 및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협업이 중요하다.

콘텐츠 발굴을 위한 학제 간 조사는 다음과 같이 활용될 수 있다. 경상좌수영의 공간은 일제강점기와 산업화를 거치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의 공간 구

162) 김일룡 2019, 승리와 평화의 기원 통제영 독제, 통영문화원.

조 변화에 관한 연구를 통해 장소와 관련된 스토리 발굴이 가능하다. 해당 장소와 공간의 스토리는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서로 호흡할 수 있는 경상좌수영만의 브랜드를 만드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콘텐츠를 경상좌수영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류·민속뿐만 아니라 건축 및 도시, 환경 등의 전문가와 협업이 필수적이며, 이를 지속적으로 발굴·수집하여 자원화할 수 있는 연구 프로젝트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표18. 문화유산 활용 방안

비고	추진 사업	사업 내용	장단점
1안	지역 문화 및 민속 관련 자료수집	• 자료수집, 연구 및 아카이브화	• 라비키움 전시 및 교육자료로 활용
2안	지역 문화 및 민속 관련 자료수집 및 활용 방안 마련	• 자료수집, 연구 및 아카이브화 • 관광자원 콘텐츠 발굴	• 라비키움 전시, 교육 자료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 가능



제Ⅲ장

일반현황

- 1 수영구 일반현황
- 2 경상좌수영성지 주변현황
- 3 관련 계획 및 법규
- 4 국내외 사례 검토
- 5 종합분석

3. 일반현황

3.1 수영구 일반현황

1) 개관

- 수영구는 부산광역시의 동남부에 있다. 동쪽으로 수영강(水營江)을 사이에 두고 해운대구와 서쪽은 연제구·남구와 북쪽은 연제구와 각각 접해 있다. 수영구의 남쪽에는 수영만(水營灣)이 있다. 수영구의 지명은 조선시대 이곳에 있었던 경상좌도 수군절도사영에서 비롯되었으며, 조선시대에는 남면(남촌면·남하면·남상면)의 일부였다. 남면 중에서 축산동(丑山洞, 좌수영성 동쪽)·서부리(西部里, 좌수영성 서쪽)·북문외리(北門外里, 좌수영성 북쪽)·남문외리(南門外里, 좌수영성 남쪽) 등을 포함하고 있다.
- 수영구는 1914년 동래군 남면에 소속되었다가 1936년에 남면 일부가 부산부에 편입되면서 신설된 부산진출장소(대연동·용호동·우암동·감만동) 소속으로 바뀌었다. 일제강점기 말기인 1942년에 동래군의 수영과 해운대 일부가 부산부에 편입되면서, 수영출장소(수영동·광안동·민락동)가 설치되었다. 1953년에 수영구는 대연출장소와 해운대출장소에 속했으며, 1957년에 구제(區制)를 시행할 때 부산진구 대연출장소와 동래구 수영출장소에 속했다.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해안에 입지한 남천동, 광안동을 중심으로 주택 지구가 형성되었고, 인구도 전보다 크게 늘어났으며, 남천동에는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조성되었다. 그 후 계속 인구가 증가하면서 1975년에 대연출장소가 수영출장소를 편입하여 남구(南區)가 되었다가 1995년에 남천동·수영동·망미동·광안동·민락동 등 5개 동이 남구에서 분리되어 지금의 수영구가 되었다. 수영구의 행정구역으로는 5개 법정동(남천동·망미동·민락동·수영동)이 있고, 10개 행정동에는 남천(南川) 1~2동·광안(廣安) 1~4동, 망미(望美) 1~2동·수영(水營)·민락동(民樂洞)이 있다.
- 1970년대 말 이후 매립지에 대형아파트를 건립하면서 수영구 남천동의 해안지역 일대에는 대단위 고급 아파트단지가 조성되어 부산의 대표적인 아파트촌을 형성했다. 수영교차로를 중심으로 수영로 일대에는 해운대 및 광안리해수욕장의 입구로 각종 위락시설과 상업 기능이 집중되어 있다.

2) 자연환경

(1) 지형·지세

- 수영구는 지리적으로는 동경 129° 05'~129° 08', 북위 35° 07'~35° 11'에 자리 잡고 있다. 구(區)의 서북부 지역은 금련산과 배산 등 구룡성 산지로 둘러싸여 있고, 곳곳에 계곡이 발달해 있다. 동쪽에는 수영강이 북에서 남으로 흐르며 해운대구와 경계를 이루며 수영

만으로 흘러간다. 수영구의 남동부 해안에는 사빈(沙濱)해안으로 형성된 광안리해수욕장이 위치하고 있다. 광안동에 있는 금련산(金蓮山, 415m)은 황령산과 이어져 있으며 북으로는 배산(盃山)과 대(對)하고 있다. 남으로는 남구, 북으로는 연제구와 경계를 이룬다. 부산의 세 갈래 산맥 중 하나를 이루는 금련 산맥의 중심이 되는 산으로 수영강으로 단층곡이 크게 나 있으나 장산과 이어지는 산줄기이다. 배산이란 지명은 산이 연꽃 모양을 해서 유래했다는 설과 부처님 앞에 공양을 올릴 때 사용하는 황금색 금련화(金蓮花)에서 기원했다는 주장이 있다.

- 망미동에 소재한 배산(盃山, 254m)은 금련산에서 북쪽으로 약 1.5km에 위치한다. 일명 잘매산 또는 잘미산이라고도 불리는 독립 구릉성 산지로 그 형태는 종순형이다. 구성 암석이나 지형적인 특징으로 보아 본래 금련산맥에 이어지는 산지였으나 오랜 지질시대의 삭박 작용에 의해 해체되면서 지금은 독립된 산지로 남아 있다. 배산은 안산암질 암석으로 구성되어 산지의 고도와 규모에 비해 산정 부근의 경사가 급한 것이 특징이다. 산정과 산의 능선에는 규모는 작으나 성곽 모양의 토르가 형성되어 있고 여기에서 떨어져 나온 애추가 부분적으로 생성되어 있다.
- 수영구 북쪽의 산록은 수영강으로 향함에 따라 완만해지며 작은 선상지(扇狀地)로 이어진다. 배산의 정상부에는 배산성지(城址)가 있고, 망미동 쪽 산기슭에는 조선시대 동래성 이전에 쌓은 고읍성(古邑城)이 위치하고 있다. 배산은 풍수 형국으로 동래부의 진산인 윤산(輪山, 현 구월산)의 안산(案山)에 해당된다. 민락동에 있는 백산(白山, 129.5m)은 화산암으로 구성된 노년기 종순형 산지이다. 또한 백산은 현 수영교 부근이 갈대밭이었을 때 이곳에 날아든 학들이 먹이를 찾고 놀다가 이 산에 등지를 튼 데서 백학산(白鶴山)이라고도 했다.
- 남천동에는 중골산이 있었다. 중골산은 지금의 삼익아파트 단지에 있었던 낮은 구릉성 산지로, 황령산에서 남쪽으로 남천만에 뺨어 내린 산등성이 끝부분이 민둥한데다 기운이 없어 죽은 용의 형상과 같다고 하여 죽은 골산 또는 중골산으로 부르면서 유래했다고 한다. 민락동에는 진조말산(74.1m)이 있다. 전형적인 독립 구릉으로 산 전체가 종순형을 나타내며, 남동쪽 끝에 진조말이 있는데, 현재 이 산의 전체가 민락공원이 되었다.
- 이들 산지 사이로 고개와 계곡들이 형성되어 있는데, 망미동에는 조선시대 교통로로 이용되던 툇고개가 있다. 배산 동쪽에 있던 고개로 지금의 망미동 주공아파트 앞길이 여기에 해당된다. 토현(土峴) 또는 ‘툇고개’ 라고도 했는데, 이 툇고개는 조선시대 때 행정 중심지인 동래부와 경상좌도수군절도사영(좌수영)을 연결하는 고개로 매우 중시되었으며, 또한 민간인들이 오가는 유일한 통로이기도 했다.
- 수영구의 동쪽에는 낙동강에 이어 부산에서 두 번째로 긴 수영강이 있으며, 강물은 수영만으로 유입된다. 울산 단층에 지배된 단층 곡선곡의 하천으로 양산군의 원효산에서 발원하여 남서쪽으로 흐르다 해운대구 재송동에서 금정산에서 발원하는 온천천과 만나 수

영만으로 유입된다. 수영강의 상류에는 부산 시민의 식수를 공급하는 회동수원지가 있고, 하류에는 수영만에 자리 잡은 요트경기장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종합하수처리장이 설치되어 있다.

- 비교적 넓은 충적평야를 가진 수영강은 조선 중기 이후 하구(河口) 부근에 경상좌도 수군절도사영이 설치되면서 수영천 또는 수영강으로 불렸다. 그 이전에는 사천(絲川)이라 했으나 지금은 수영강의 상류를 일컬을 때만 사천이라 한다. 수영강은 유로(流路)가 길고 폭도 넓어 하류에 넓은 유역 평지가 있었으며, 하류에는 작은 삼각주도 형성되었다. 조선시대 사천의 홍수로 이곳이 매몰되어 좌수영의 본영을 한때 감만포로 옮기기도 했다. 수영구 남천동에는 남천이 흐르고 있다. 남천은 황령산 남쪽 산록에서 발원하여 남으로 황령산 터널 아래를 지나 남천만으로 흐르는 작은 하천으로, 과거에는 생천 또는 남내천(南乃川), 흙대거렁이라고 했다.
- 수영구의 해안에 발달한 광안리해수욕장은 폭이 약 200m에 이르며, 해운대 해수욕장과 함께 부산에서 이름난 해안 관광지이다. 수영강의 하구(河口)에도 예전에 사빈(沙濱) 해안이 발달했으나 오늘날은 매립되어 요트경기장·주택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민락동에는 수영만으로 뾰족한 진조말산의 기반암 곳인 진조말이 있었으며 첨이대라고도 했다. 조선시대에 첫 어로작업이 시작되던 날 경상좌수사가 의자처럼 생긴 진조암 바위에 앉아 어로작업을 하는 어부(漁夫)와 수군(水軍)들을 격려했으며, 어부들은 어로작업에서 거둔 첫 수확물을 좌수사(左水使)에게 바쳤다고 전해온다. 이곳은 수영강과 바닷물이 만나는 곳이어서 고기가 많이 잡히는 것으로 유명하고, 좌수영어방놀이의 연회 장소이기도 했다. 광안동에 있던 칠산포는 현 광안리해수욕장 일대의 포구로서 임진왜란 직후 중 4품의 만호가 지휘하는 수군이 주둔했던 칠산포영이 이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2) 기후

- 부산시 수영구는 온대 해양성기후에 속하며, 특히 바다의 영향으로 겨울과 여름의 기온차가 적다. 풍속은 계절풍의 영향으로 다른 지방에 비해 강하며, 태풍의 경로상에 위치하여 풍수해를 입기도 한다. 연중 평균기온은 15.7℃로 1월이 가장 낮고 8월은 고온다습하다. 난류(暖流)의 영향으로 겨울철 기온이 비교적 높아 연교차는 적은 편이다. 연평균 습도는 약 63%이며, 겨울에는 매우 습도가 낮은 특징을 보인다.

(3) 수영구의 토지

- 수영구의 면적은 10.21km²이고, 인구는 17만 4천694명(2022년 10월)이다. 인구는 2015년에 비해 6,703명이 감소했다.

3) 인문환경

(1) 수영구의 인구와 세대 수

- 수영구의 인구 및 세대 수 추이를 살펴보면 인구는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줄고 있으며, 2015년에 비해 2022년에는 총인구(내국인) 6,700여 명이 감소했다. 외국인의 수는 1,600여 명에서 1,700여 명으로 8년 사이에 100여 명이 증가했다. 세대당 인구는 2015년의 2.4명에서 2021년에는 2.04명으로 세대 당 0.36명이 감소하여, 세대당 인구가 겨우 2명을 유지하고 있으며, 수년 안에 세대 당 인구가 2.0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표19. 수영구의 세대 수 및 인구 추이

연도	세대 수	인구(명)				인구밀도 (명/㎡)	세대 당 인구
		총수(내국인)	남	여	외국인		
2015	76,325	181,397	86,798	94,559	1,602	17,627	2.4명
2016	77,733	181,016	86,332	94,684	1,692	17,729	2.3명
2017	79,788	181,725	86,570	95,155	1,729	17,799	2.3명
2018	79,842	176,028	84,683	93,345	1,782	17,437	2.2명
2019	81,452	177,897	84,349	93,548	1,749	17,424	2.2명
2020	84,311	176,804	83,573	93,321	1,695	17,492	2.1명
2021	86,896	175,095	82,609	92,486	1,717	17,304	2.04명
2022.10	87,311	174,694	82,180	92,514	-	-	-

(2) 산업 · 교통

- 조선시대에 경상좌수영이 자리 잡고 있던 수영구는 원래 농어촌지역으로, 수영강과 광안만을 중심으로 어업이 활발했으며, 특히 좌수영 북측 강변 지역은 소금 생산지로 유명했다. 지금은 거의 사라졌지만 1970년대 전까지만 해도 연안 어족이 풍부하여 소형 어선을 이용한 고기잡이가 성했다. 해상에 광안대교가 건설된 2003년 이후부터 어장의 기능은 급격히 사라지고 있다.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농어업은 급격히 쇠퇴했으나 활어를 판매하는 유통 기능은 민락항을 중심으로 활발하며,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명소로 널리 알려져 있다.
- 수영구 내 관광산업의 중심지인 민락동(民樂洞)의 민락은 즉 임금은 즐거움을 홀로 차지하지 않고 백성과 함께 즐긴다는 의미이다. 혹자는 좌수영에 근거를 둔 수사(水使)가 군사들을 호령할 때 진산(鎭山)에서 군악을 연주했는데, 이 군악이 연주된 곳이라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한다. 민락동을 중심으로 광안어패류종합시장·민락어패류시장·동

방시장·민락시장은 물론 남천동에도 해변시장 주변에 횃집이 밀집해 있다.

- 수영구의 산업은 보건업·사회복지 서비스업과 부동산업, 도소매업을 비롯한 서비스업의 비중이 크고, 제조업은 미약한 특징을 보인다. 도시화와 산업화 전에는 수영강과 바다에 면해 어업이 활발했으나 도시화로 급격히 쇠퇴했다. 수영구 내 총생산(GRDP)은 2018년에 (최근 통계 미발표) 2조 5,754억원으로 부산시 전체 총생산의 2.9%에 그쳐 16개 구·군 중 비중이 가장 낮다. 경제활동별 부가가치의 비중은 보건업·사회복지 서비스업(3533억원)이 14.7%로 가장 크고, 이밖에 부동산업(14.6%), 도소매업(12.7%), 건설업(8.4%), 숙박·음식점업(6.8%), 교육서비스업(6.8%) 등의 순이다. 가장 비중이 큰 보건업·사회복지 서비스업의 부가가치는 부산시 총부가가치의 5.4%로, 16개 구·군 가운데 9번째이다.
- 도시고속도로가 지나는 망미2동을 중심으로 수영동·광안동 등에 섬유·화학·기계 등의 중소규모 업체들이 자리 잡고 있으나, 그 비중이 빈약할 뿐만 아니라 점차 감소 추세에 있다. 상업 활동은 주로 수영교차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조선시대부터 있던 경상좌수영과 수영강을 낀 편리한 교통은 시장이 발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예전의 좌수영장은 수영팔도시장, 수영건설시장 등으로 그 맥을 이어오고 있다.
- 수영구의 교통은 남북 방향으로 관통하는 수영로가 남구 교통의 요충지인 수영교차로를 중심으로 연산로·과정로와 연결되어 있고, 광안로·호안도로 등도 타지역 도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편리한 교통망을 구성하고 있다. 또한 수영강에 건설한 수영교·민락교와 수영2호교는 수영구와 해운대구를 긴밀하게 연결하고 있다.
- 광역 교통망으로 지하철 2, 3호선, 국내 최초의 도시고속도로인 변영로가 수영구를 통과하고 있다. 특히 수영 교차로를 중심으로 도심과 외곽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수단이 잘 발달해 있고, 수영만을 가로지른 광안대교로 인해 수영구의 교통은 매우 원활한 편이다.
- 광안대교(총 교량 연장 7,420m)는 부산시의 항로 및 산업 물동량의 원활한 우회 수송을 통해 수영로·중앙로 등 도심 간선도로의 교통난을 완화하고, 해상 관광 기능을 증진할 목적으로 건설되었다. 광안대교가 수영구 남천동과 해운대구 우동의 센텀시티를 연결하면서 이곳의 교통체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광안대교는 해운대구와 수영구 사이의 육상 교통이 원활하게 연결해줄 뿐만 아니라 해운대·광안리해수욕장과 민락수변공원·이기대공원 등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연계한 특징적인 해상 현수교로 부산의 새 명물이 되었다. 광안대교는 교통난을 완화하고 부산지역 해상 관광의 랜드마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3) 관광 및 축제

- 수영구는 수영강과 해안을 끼고 있어 관광자원이 풍부하다. 특히 광안리 해수욕장 주변에는 관광호텔·횃집·카페 등 각종 위락시설 및 유흥음식점이 밀집하여 관광레저 타운을 형성하고 있다. 이밖에 광안리 해수욕장 일대에 화랑·소극장·공연장 등이 들어서면서

문화의 거리로 조성되고 있다. 이곳에서 예술단체 또는 시민단체가 바다축제·바다미술제·바다음악제·바다무용제·모래조각전 등을 개최하고 있다. 한편 광안리해수욕장을 마주보면서 수영만을 가로지른 광안대교가 건설되어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 민락동은 광안리해수욕장을 끼고 횃집이 몰려 있어 부산의 회센터로 각광받고 있으며, 이곳의 활어시장과 회 센터는 부산의 대표적인 먹거리촌 중 하나이다. 광안리해수욕장 동쪽 민락동 바닷가가 1970년대에 매립된 후 노지에서 물고기와 패류를 파는 시장이 형성되었다가 이후 어패류 판매 상점이 집단화되면서 옥내 광안 어패류시장이 형성되었다. 이어서 이웃에 민락활어시장이 조성되었다. 1990년에 현대식 건물의 민락 회타운시장이 건립되어 활어 판매점과 횃집이 입주하게 되었다. 1998년에 씨렌드 회센터(3층)가 건립되어 하층에 어패류시장을 두고 2층 이상에 회요리 전문의 회 센터가 형성되면서 민락동 매립지는 활어와 회 요리로 명성을 가지게 되었다.
- 이밖에 남천동의 먹자골목에도 한식집, 해물요리점, 일식집, 육고기 전문점 등이 들어서 있다. 편안한 가정집 같은 분위기에서 정담을 나눌 수 있어 연회석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표 20. 수영구에서 개최되는 대표적인 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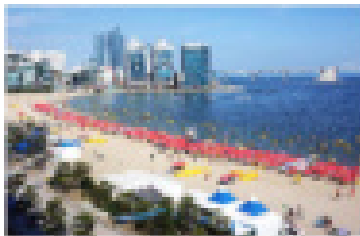
축제 명	개최	장소	내용	비고
광안리 M 드론라이프쇼	매주 토 20~22시 (3~9월)	광안리 해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절 및 주제에 맞는 500대 이상의 드론 군집 비행 공연 ■ 19시, 21시(동절기) 개최 	수영구 주관
광안리 어방축제	2022. 10.14~16. (3일)	광안리 해변 및 수영사적 공원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의 대표 봄 축제이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통 어촌의 민속을 소재로 한 축제. ■ 역사와 전통을 매개로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음. ■ 뮤지컬 “어방”, 경상좌수사 행렬 퍼레이드, 어방민속마을 등 6개 분야 34종목 	수영구 수영구축제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문화관광축제
경일 대보름 수영 전통 달집놀이	정월 대보름	광안리해수 욕장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아름다운 광안대교를 배경으로 수영 전통 달집놀이 개최 ■ 무형문화재 수영야류, 좌수영어방놀이 공연 	수영 민속보존협회 2019년 이후 미개최

- 광안리해수욕장은 남천동의 삼익비치맨션 동북쪽에서 민락동의 바다 매립지까지의 사장 일대를 말한다. 1970년대의 남천동 앞바다 매립과 1980년대 후반의 민락동 앞바다 매립 이전의 광안리해수욕장은 남천동 앞바다에서 민락동의 백산 서쪽 기슭까지였지만 지금은 양쪽 지역의 바다 매립으로 해수욕장의 면적이 감소했다. 금련산으로 부터 유입된 양질의 모래로 이루어진 사장(沙場)은 큰 자랑거리였다. 광안동 금련산에는 청소년수련원이 위치하며, 이 밖에 민락동에 조성된 수변 공원은 시민들의 산책, 휴식, 힐링하는 공간의 역할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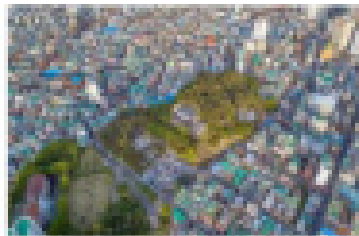
	
광안리 M 드론 라이트 쇼	광안리 어방축제
	
정월대보름 수영 전통 달집놀이	부산 불꽃축제
	
부산바다축제	해변 음악회

수영구의 축제(출처: 수영구청 홈페이지)

- 수영구에서 개최되는 대표적인 축제로는 부산 불꽃축제를 비롯 광안리 M 드론 라이트 쇼, 광안리 어방축제, 정월 대보름 수영 전통달집놀이, 부산바다축제, 광안리해변음악회를 들 수 있다. 해변음악회는 매년 7월 초에 해수욕장이 개장되면 금요일마다 열린다. 부산시립국악단, 시립교향악단, 시립무용단, 시립합창단은 물론 대학 및 전통민속예술단 또는 민간예술단 등을 초청하여 다채로운 음악 공연을 한다. 축제 기간에 해변문학강좌, 전통민속강좌 등이 개설되고 사생대회, 모래조각전 등도 열린다. 해마다 부산관광축제조직위원회가 주최하는 부산바다축제는 이곳 광안리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해운대·송정·일광·송도·다대포 해수욕장 등과 8월 초순에 9일 정도 열린다. 축제는 개막 행사, 국제 행사, 공연 행사, 체험 행사, 해양 스포츠 행사, 구·군 행사 등 약 40개의 특색 있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 수영구의 대표적인 예술전시관으로 수영사적공원 내에 위치하는 수영 민속예술전수관이 있다. 수영 민속예술전수관은 전통적인 민속놀이의 보호 및 향토 민속예술의 연구와 계승발전을 위해 수영야류, 좌수영어방놀이, 수영농청놀이의 보존 및 전승에 크게 이바지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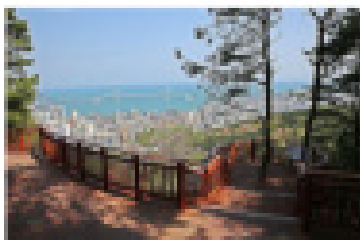
광안리 해수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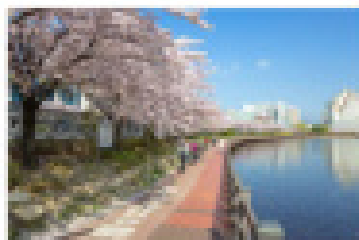
수영사적공원



광안대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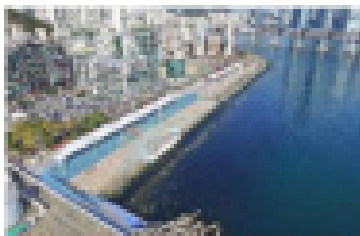
광현산



수영장과 산책로



남천동 행집거리(행천동)



문학수변공원



남천해변공원



F1963

수영구의 명소(출처: 수영구청 홈페이지)

3.2 경상좌수영성지 주변 현황

1) 자연환경

- 경상좌수영성지는 주변이 급격하게 개발되어 시가지화 함에 따라 현재 성곽 주위 대부분이 저층의 주택지와 근린생활시설로 형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1968년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수영사적공원[28,284㎡] 이외에는 별다른 녹지나 자연환경이 남아있지 않다.
- 다만 직선거리로 약 1.4km 떨어진 북서측에는 해발 256.3m의 배산(盃山)이 위치하고 있으며 남동쪽으로 약 540m 떨어진 곳에는 나지막한 백산(白山)과 민락공원[58,318㎡]이 자리잡고 있다. 좌수영성지의 동측으로는 직선거리로 약 270m 정도 거리에 수영구와 해운대구를 가르는 수영강(水營江)이 북에서 남으로 흘러 수영만으로 유입된다.



경상좌수영성지에 위치하는 수영사적공원 주변의 자연환경

- 전반적으로 양호한 임상을 지닌 수영사적공원의 자연환경은 주변의 도시화된 환경과는 차별화된 경관이며, 주민들의 휴식 및 여가선용 장소로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가치는 점점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좋은 녹지환경을 갖추고 있는 지근거리의 백산과 민락공원, 동측에 위치한 수영강과 민락수변공원은 시민들의 친수공간으로서 향후 수영사적공원과 연계한 자연생태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역사 문화환경

- 수영구의 문화재가 집중되어 있는 수영사적공원(水營史蹟公園)은 조선시대 경상좌도 수군절도사영이 좌수영성지 서쪽 구릉 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원 주위에는 경상좌수영성 관련 유적이 남아 있다. 1968년에 수영공원으로 개장한 것이 시초이며, 1995년부터 문화재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역사교육장과 시민 휴식처, 관광지로 개발하고 공원의 명칭을 수영사적공원으로 변경하였다. 공원은 수영구 수영성로 43(수영동 229-1)에 자리 잡고 있으며, 면적은 2만 7128㎡이다.
- 현재 수영사적공원 앞쪽에 배치되어 있던 수군절도사영의 관아들은 모두 철거되어 지금은 옛 모습을 확인할 수 없다. 공원의 남서쪽과 서북쪽에는 도시화 과정에서 훼손된 경상좌수영성지(부산시 기념물 제8호)가 남아 있고, 공원의 남동쪽 입구에는 옮겨 온 좌수영성 남문(부산시 유형문화재 제17호)의 석홍예가 위치하고 있다.
- 좌수영성 남문 주위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부산 좌수영성지 곰솔 및 부산 좌수영성지 푸조나무가 위치하고 있다. 서북쪽에는 수영민속예술관과 수영사적공원수영사적관 및 수영야류 등을 공연하는 야외놀이마당이 조성되어 있다. 수영민속예술관은 지역 민속 예술인이 무형문화재를 전수 및 공연할 수 있는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 좌수영성 남문의 서편에는 안용복 장군의 사당(수강사)과 충혼탑이 일곽을 이루며 자리 잡고 있다. 공원 북쪽에는 망미번영로70번길이 통과하고 있으며, 이 길과 주위 숲으로 인해 25의용단(부산시 기념물 제12호)과 앞쪽의 주차장은 공원의 중심부와 영역상 분리되어 있다. 안용복 장군의 사당의 동측에는 역대 수사들의 공덕을 기념하여 세운 30여기의 비석군이 자리 잡고 있으며, 공원의 북동쪽 구릉에는 2동의 한식 맞배집 형식의 송씨 할매당과 독당이 자리 잡고 있다. 2동 중 하나는 할매신을 모신 신당이고, 나머지 하나는 수군(水軍)들이 신앙하던 독신기를 모셨던 독당이다. 『내영지』 단묘(壇廟)조에 보이는 독당(蠶堂)과 산정신사(山亭神祠)에 관한 기록을 바탕으로 복원 정비가 가능하다.
- 이처럼 수영 사적 공원은 수영 사람들의 혼이 담겨 있는 역사와 교육의 장으로 부산의 해양 민속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 역사문화 공원이다. 공원은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며, 주변에는 망미동 문화재 상가 거리, APEC 나루 공원, 올림픽 공원, 벅스코(BEXCO) 등이 있다.

(1) 수영구의 지정 문화재

① 부산 좌수영성지 곰솔 : 천연기념물

- 곰솔은 소나무과로 잎이 소나무 잎보다 역세고, 소나무의 겨울눈은 붉은 색인데 반해 곰솔은 회백색인 것이 특징이다. 바닷가를 따라 자라기 때문에 해송으로도 부르며, 또 줄기 껍질의 색이 소나무보다 검다고 해서 흑송이라고도 한다. 바람과 염분에 강하여 바닷가의 바람을 막아주는 방풍림이나 방조림으로 많이 심는다.

- 부산 좌수영지의 곰솔은 나이가 400년 정도로 추정되며 높이 23.6m, 둘레 4.50m로 현재 수영공원 안에 있다. 땅에서부터 가지가 갈라지는 부분까지의 길이가 7.0m에 이르며 겹질은 거북의 등처럼 갈라져 있다.
- 전설에 의하면 조선시대에는 이곳에 좌수영(左水營)이 있었는데 그 당시 군사들은 이 나무를 군사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신성한 나무로 여겨 나무에게 자신이 무사하기를 기원했다고 한다. 옆에는 신을 모셔 놓은 당집과 장승이 서 있고, 앞쪽에는 곰솔 한 그루가 더 있다. 부산 좌수영지의 곰솔은 오랜 세월 동안 조상들의 관심과 보살핌 가운데 살아온 나무로 민속적·문화적 자료로서의 보존가치가 높아 천연기념물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② 부산 좌수영성지 푸조나무 : 천연기념물

- 푸조나무는 서해안을 따라 경기도에 걸쳐 따뜻한 지방에만 자란다. 곰솔, 팽나무와 함께 소금기가 섞인 바닷바람을 잘 견디기 때문에 해안에 심어 바닷바람을 막아 주는 방풍림에 적합하다. 팽나무와 비슷해서 곳에 따라서는 개팽나무 또는 검팽나무라 불리기도 한다.
- 수영공원 동쪽 비탈에서 자라고 있는 부산 좌수영성지 푸조나무는 나이가 500년 정도로 추정되며, 1.08m 높이에서 남,북으로 기운 가지는 6.30m, 위로 솟은 가지는 3.88m로 마치 2그루의 나무가 자라는 모습이다. 이 나무는 전체적으로 옆으로 기울어져 자라는데, 줄기에는 상처의 흔적이 있고 흑이 발달해 있다. 줄기의 끝은 죽어 있으나 전체적으로 위엄있는 모습이다. 이 나무의 유래는 알려져 있지 않고, 마을을 보호해 주는 신으로 여겨지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나무에 할머니의 넋이 깃들어 있어 나무에서 떨어져도 다치지 않는다고 믿고 있다.

③ 수영야류(水營野遊) : 국가무형문화재

- 야류(들놀이)는 경상남도 내륙지방에서 행해지던 오광대가 바닷길을 따라 수영·동래·부산진 등에 전래된 것으로, 야류란 이름은 넓은 들판같은 곳에서 놀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라고 한다. 오광대가 전문연예인에 의해 행해진 도시가면극이라면 야류는 비직업적인 연희자들, 즉 마을사람들에 의해 토착화된 놀이이다.
- 수영야류는 정월 대보름에 산신령과 샘물, 그리고 최영 장군 묘에 제사를 지낸 후 달이 뜨기를 기다려 행해진다. 약 200년전 좌수영 수사의 직책을 맡았던 관리가 초계 밤마리(현재 합천군 덕곡면 울지리)의 대광대패들을 불러다가 놀게 하였는데 부하들이 이를 보고 배운데서 시작된 것이라 전해진다. 놀이는 양반춤·영노춤·할미와 영감춤·사자춤의 4과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놀이에 앞서 가면과 의상을 갖추고 음악을 울리면서 공연장소까지 행렬하는 길놀이를 한다. 놀이가 끝나면 가면 한 곳에 모아 제사를 지내고 불

태우면서 행운을 빈다. 등장인물은 수양반·둘째양반·셋째양반·넷째양반·종가도령·말뚝이·영노·할미·제대각시·사자·호랑이의 11명으로 다른 지방에 비해 적다. 양반에 대한 풍자와 처·첩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민중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다른 야류하고는 달리 문둥이춤이 없는 대신 사자춤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 수영야류는 약 200년의 역사를 가진 탈놀음으로 제례의식적인 성격과 함께 사회성 및 예술성을 지니고 있는 전통적인 마당놀이이다.

④ 좌수영어방놀이(左水營漁坊놀이) : 국가무형문화재

- 좌수영어방놀이는 부산 수영 지역에 전승되는 놀이로, 어업의 작업과정과 노동요를 놀이화한 것이다. 새해를 맞이하여 바다에 나가기 전에 굿과 놀이를 하면서 많은 고기를 잡아 만선으로 돌아오기를 기원했다.
- 좌수영어방놀이는 어부들이 그물로 고기를 잡으며 여러 가지 노래를 부르는 내용이 중요부분을 이룬다. 즉 어로작업을 하면서 작업과정때 따른 앞소리, 뒷소리, 맞는소리를 맞추며 부르는 것을 말한다.
- 놀이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물로 고기를 잡기 위하여 줄틀로 줄을 꼬며 부르는 내왕소리, 친 그물을 끌어당길 때 부르는 사리소리, 고기를 많이 잡은 어부들이 풍어를 축하하며 부르는 칭칭소리 세 마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셋째마당의 칭칭소리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춤을 곁들인 풍어놀이로서 올해의 풍어에 감사하고 이듬해의 풍어를 기원하는 뜻이 담겨 있다. 노랫가락은 영남지방에서 흔히 불리는 채지나칭칭나네이며 가사의 일부가 바뀔 뿐이다. 어방놀이에는 좌수영어방기, 풍어기, 봉황기 등이 동원된다.
- 좌수영어방놀이는 어업에 따르는 노래와 풍어를 축하하는 어부들과 여인들의 집단놀이가 종합된 것으로 축제와 같은 성격이 강하다. 좌수영어방이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우리나라의 유일한 어업협동기구라는 점과 어방의 전통적인 놀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⑤ 경상좌수영성 남문(慶尙左水營城 南門) :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 조선시대 경상좌도 수군절도사영성(慶尙左道 水軍節道使營城)의 남문으로 아치형 석문(石門)이다. 경상좌도 수군절도사영에는 무관인 정3품의 경상좌도수군절도사(약칭 경상좌수사)가 주재하였으며, 낙동강의 동쪽에서 경주까지의 바다를 방어하는 총 책임을 맡고 있었다. 원래 수영성 남문 자리에 있었으나, 일제강점기 때 옛 수영초등학교(현 신익아파트 자리) 정문으로 사용하기 위해 옮겨 왔다. 1962년 6월 30일 수영초등학교가 이전한 후 방치되어 있다가 1960년대 말 미군의 도움을 받아 현재의 위치인 수영사적공원 입구로 옮겨져 보존되고 있다.
- 경상좌수영성 남문은 1692년(숙종 18) 경상좌수사 장우상(張宇相)이 경상좌수영성을 중수할 때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경상좌수영성에는 동문(영일문, 迎日門), 서문(호소문,

虎嘯門), 남문(주작문, 朱雀門), 북문(공진문, 拱辰門)의 사대문이 있었으며 사대문에는 각각 문루가 있었다. 성문은 일정한 시각에 폐문루(閉門樓)와 관해루(觀海樓)에 달아둔 북을 울리는 것을 신호로 열고 닫았다고 한다.

- 경상좌수영성 남문의 현재 상태는 앞뒤의 홍예(虹霓, 성문, 수문, 다리 등을 무지개 모양으로 쌓은 것)와 홍예기석(虹霓基石, 홍예석을 쌓기 위해 가장자리에 기둥처럼 놓은 돌)이 남아 있고, 홍예기석과 같은 높이의 성벽이 좌우 10m 정도 남아 있다. 전면 홍예기석 앞에는 같은 크기의 사각형 돌기둥 위에 박견(拍犬) 한 쌍이 양쪽에 나란히 서있다. 이러한 박견 형태의 석물이 성문 옆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다른 지역서는 볼 수 없는 것으로 독특하다. 전면 좌측에는 수령 이하의 모두 말에서 내려 걸어 들어가야 한다는 하마비(下馬碑)가 서 있다. 오랜 세월에 홍예석이 조금씩 침하되어 붕괴될 우려가 있어 1993년 8월 해체·보수하였다.

⑥ 경상좌수영성지(慶尙左水營城址) : 부산광역시 기념물

- 좌수영성은 경상좌도 수군의 총 지휘자가 머물던 진영(鎭營)으로, 원래는 부산포에 있었다가 세조때(1459) 울산 개운포(開雲浦)로 옮겼다가 다시 임진왜란 직전에 동래 남촌(수영동)으로 옮겼다고 하는데 그 연대는 확실하지 않다. 인조13년(1636) 사천(絲川, 수영천)의 홍수로 선창의 수로가 매몰되어 뱃길이 통하지 않아 다시 감만이포로 옮겼으나, 감만이포는 왜관과 가까워 군사기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다 하여 효종 3년(1652) 다시 부산포로 옮겨져, 고종 31년(1894) 군제개혁으로 수영이 폐지될 때까지 사용되었다.
- 성을 처음 쌓은 정확한 때는 알 수 없으나, 현재의 것은 숙종 18년(1692) 감만이포에서 남촌으로 다시 이진(移建)되면서 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좌수영성은 石城으로, 둘레는 약 2,785m, 높이는 4m이며, 우물 4개, 성문 4개, 수구 4개, 성의 방어력을 높이기 위해 성 바깥에 쌓는 옹성(3곳)과 치성(6~7곳)이 있었다.

⑦ 25의용단(25義勇壇) : 부산광역시 기념물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水營洞)에 있는 조선시대의 석단(石壇)으로, 부산광역시 기념물 제12호로 지정되어 있다. 수영25의용단은 임진왜란 때 수영 지역에서 7년간 유격전으로 왜군에 항전한 25인의 의병을 모신 제단으로, 지정면적은 7,518㎡이다.
- 임진왜란 때 동래성과 부산진성이 모두 함락되는 위기에 처하자, 경상좌수영성을 방어하던 경상좌수사 박홍(朴泓)이 성을 버리고 달아나자 경상좌수영성의 수군과 주민 25명이 성문 밖 선서바위에 모여 다음과 같이 맹서하고 왜군을 상대로 유격전을 전개하였다. “싸우면 이겨서 살 것이요, 싸우지 않으면 망하리로다. 나라의 존망이 경각에 있거늘 어찌 삶을 구하여 산야로 달아날 것인가. 단 한 번의 죽음으로 나라에 보답하리라.” 이들 25인의 의용(義勇)들이 펼친 호국 활동은 1609년(광해군 원년)에 지방민의 청원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동래부사 이안눌(李安訥)이 자료를 수집하여 정방록(旌傍錄)을 만들고, 25인의 집 문에 ‘의용(義勇)’이라는 두 글자를 써 붙이고 이들의 충의(忠義)를 선양했다. 순조 때 동래부사를 지낸 오한원(吳翰源)은 25인의 의용 후손들에게 역(役)을 면제하고 포상하였다.

- 1853년(철종 4)에 경상좌수사 장인식(張寅植)이 지금의 수영사적공원에 의용제인비(義勇諸人碑)를 건립했다. 비문은 경상좌수사 장인식(張寅植)이 짓고, 승지(承旨)를 지낸 이형하(李亨夏)가 글씨를 썼다. 제단을 의용단이라 하고, 재실(齋室)을 지어 ‘의용당(義勇堂)’이란 현판을 붙여 매년 음력 3월과 9월 정일(丁日) 두 차례에 걸쳐 제향을 봉행해 왔으며, 최근에는 수영기로회(水營耆老會)의 주관으로 제사를 지내고 있다.

(2) 수영구의 비지정 문화재

① 수강사(守疆祠)

- 수강사(守疆祠)란 ‘변방을 지킨 분을 모신 곳’이라는 뜻을 지닌 이름으로, 안용복(安龍福)의 위패를 봉안해 놓고 있다. 부산 동래에서 태어난 안용복은 좌수영(左水營)의 수군으로 전선(戰船)의 노를 젓는 병졸이었다. 숙종 19년(1693)과 숙종 22년(1696) 두 차례에 걸쳐 안용복은 울릉도로 고기잡이를 하러 나갔다가 일본 어민들과 충돌하여 울릉도의 조선 영유권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특히 숙종 22년(1696)에는 『조선팔도지도(朝鮮八道地圖)』를 일본으로 가져가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일본인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안용복장군기념사업회에서 안용복 장군의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1967년 10월 30일 수영사적 공원 내에 안용복 충혼탑을 건립하였다. 그러나 장군의 업적에 비하여 충혼탑이 왜소하다고 하여 수영구에서도 안용복이 수군 병졸로서 활동하였던 수영동에 사당을 지어 그 업적을 기리게 되었다. 2000년 수영 사적 공원 남단에 사당 1동[26.4㎡[8평]], 동상 1기, 기존 충혼탑 이전 등 총 경역 1,320㎡[400평] 규모로 수강사를 준공하였다. 매년 4월 18일 12시경 안용복장군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연례 제사를 지내고 있다.

② 무민사(武愍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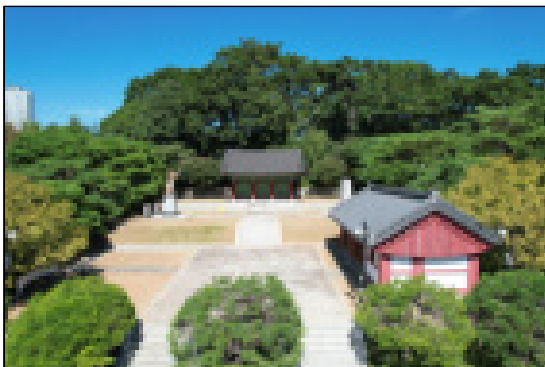
- 고려 후기의 무신인 최영[崔瑩, 1316~1388] 장군을 마을 수호신으로 모시고 수영동 당산제를 지내는 제당이 ‘무민사’이다. 수영동에서 무민사를 세워 제의를 베풀기 시작한 시기는 광복 이후로 그 연원이 깊지는 않다. 구술 자료에 따르면 광복 전에는 무민사가 건립되지 않았다. 현재 무민사가 세워진 자리는 마을에 거주하던 한 강신 무녀의 집이었다. 강신 무녀가 오두막을 짓고 거주하면서 집 뒤에 있는 큰 바위를 최영 장군이라 칭하고, 자신의 집에 최영 장군의 영정을 걸어 두고 무업을 해왔다 한다.
- 이후 강신 무녀가 죽고 난 뒤 마을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우환이 자주 생기는 기이한 현

229-1번지에 있는 제당에서 1년에 한 번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며 마을 공동으로 지내는 제사이다. 이를 ‘수영 고당’, ‘산정머리 할매당’ 등이라고도 한다. 특이한 점은 송씨 할매와 더불어 독신[蠶神]을 모시고 있다는 점이다. 마을 수호신으로 독신을 모신 경우는 여타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사례로 민속 문화적 가치가 크다 할 수 있다.

- 고당 안의 위패에 기록된 신격은 세월 따라 변모하였는데, 1969년에는 ‘토신주위(土神主位)’, ‘독신주위(蠶神主位)’였던 것이 1972년에는 ‘독신주위’는 없어지고 ‘토신주위’만이 ‘주신지위(主神之位)’로 바뀌었다. 1981년에는 성주신당(城主神堂)에 독신기(蠶神旗)가 세워져 있고 독신묘(蠶神廟)에는 아무 것도 없다가, 이후 ‘수영성내수호신지신위(水營城內守護神之神位)’, ‘독신지신위(蠶神之神位)’ 지방으로 바뀌었으며, 독신기도 제자리에 세워져 있다. 2018년에는 독신묘와 수영산신당을 서문지 부근으로 옮기고 두 개의 사당을 새롭게 건립하였다.

④ 선정비군(善政碑群)

- 안용복 장군의 사당의 동측에 위치한 33기의 비석은 조선시대 인조 17년(1639)부터 고종 27년(1890) 사이에 재임하였던 수군절도사와 부관인 우후(虞候)의 공덕을 칭송하는 선정비이다. 좌수영성지 정비·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수영성 남문 주변에 흩어져 있던 것을 이곳에 모아 재임연도순으로 새롭게 배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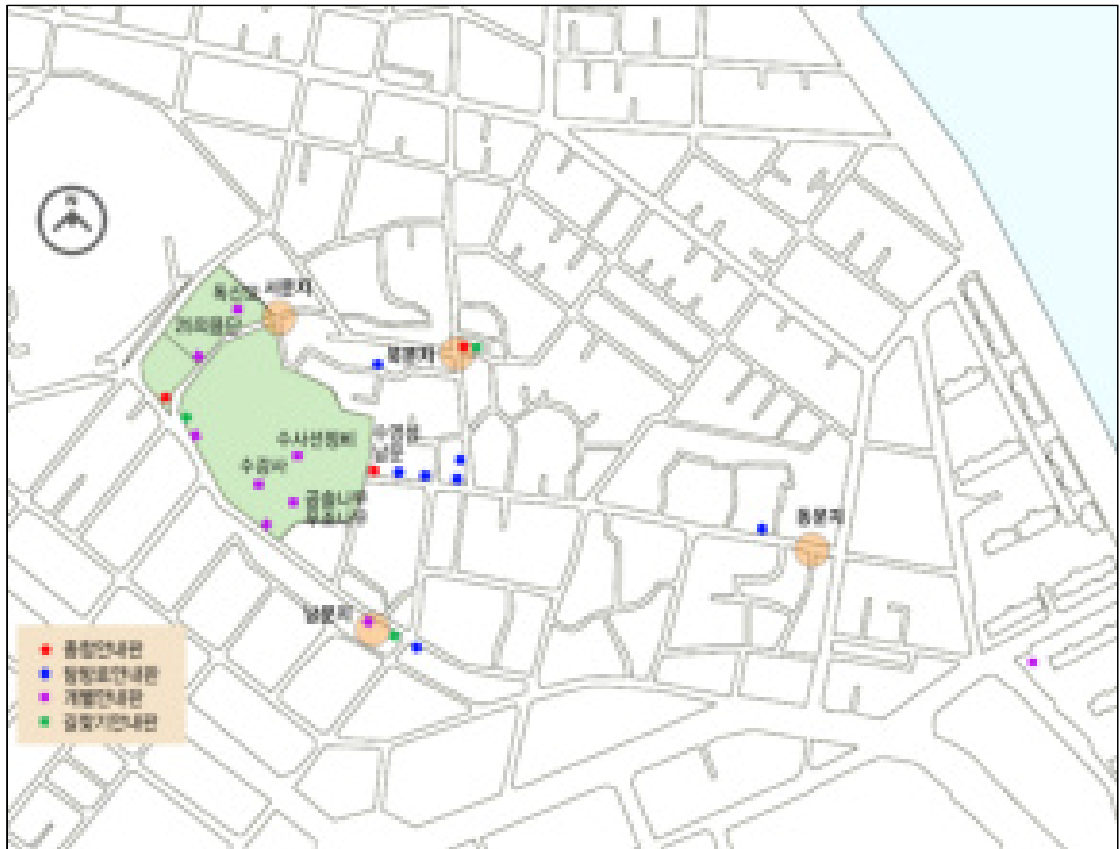
수강사 전경



선정비 군 모습

(3) 좌수영성지 내·외의 문화재 안내판

- 경상좌수영성지 내·외에 관련 문화유산을 알리기 위해 지금까지 기초자치단체에서 설치한 문화재 안내판은 좌수영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안내판과 탐방로안내판, 단위유적을 설명하는 개별 안내판, 이정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각종 안내판은 설치시기와 목적이 달라 디자인 면에서 통일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경상좌수영성지의 안내판 현황

표18. 경상좌수영성지의 안내판 형태

		
종합안내판	탐방로 안내판	개별 안내판
		
개별 안내판	개별 안내판	길찾기 안내판

3) 토지이용현황

- 경상좌수영성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북부에 위치하며 수영강을 바라보며 동서축을 장축으로 배치되어 있다. 현재 영성지의 토지이용은 크게 성내지역과 성외지역으로 구분되나 두 지역은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 성내 지역은 1968년 일부 면적[28,284㎡]이 공원으로 지정되어 수영공원으로 개장하였으며, 1972년에는 경상좌수영성의 체성부[8,351㎡]를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해 오고 있다. 성외 지역도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시지정문화재의 외곽 경계로부터 200m 이내의 지역은 건축행위시 사전 현상변경심의를 받아야 하는 곳이어서 주변 대부분이 저층의 주택지로 형성되어 있다. 과거 좌수영성의 중심 가로망을 형성하였던 중앙 길은 현재 시장[팔도시장]이 들어서 중심 상권을 형성하고 있다.
- 경상좌수영성지와 주변의 용도지역은 다음 그림과 같이 제1종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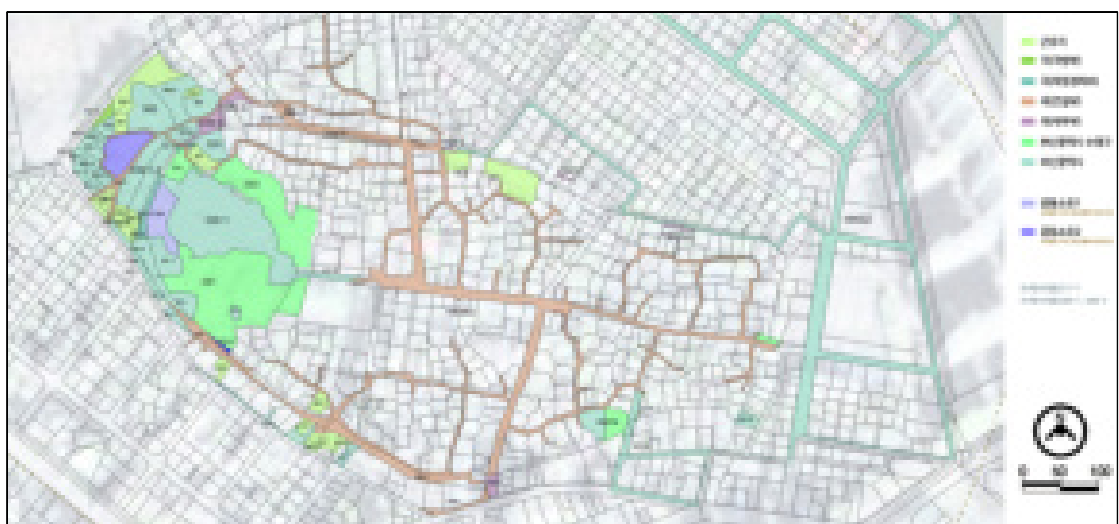
경상좌수영성지 주변의 용도지역 현황

- 경상좌수영성지와 주변에 위치한 건축물의 층수를 살펴보면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건축행위시 사전 현상변경심의를 받은 결과 3층 이하의 건물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최근 5층 이상의 주거용 건물도 건립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별 건축물의 노후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거주환경의 질도 떨어지고 있다.



경상좌수영성지 내외의 건축 현황

- 경상좌수영성지와 주변의 국공유지 현황을 소유 기관별로 구분하여 표시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경상좌수영성지 주변의 국공유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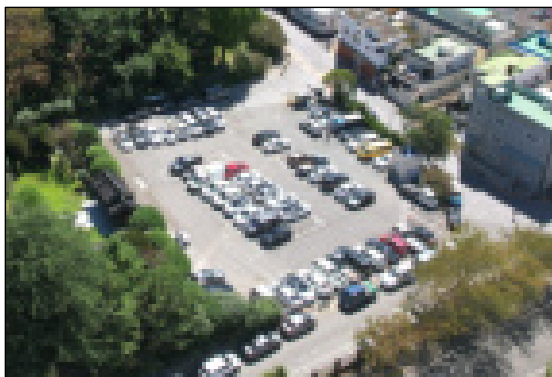
4) 교통체계 현황

(1) 접근체계

- 경상좌수영성지 주변의 교통 및 동선 체계는 대상지가 도심에 위치한 까닭에 동·서·남·북측의 4면에 간선도로들이 지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따라서 차량을 통한 진입이 편리하다. 수영강변에 면한 동측으로는 좌수영로가 지나며, 남측에는 수영로, 서측에는 연수로, 북측에는 번영로가 위치하고 있다. 또한 지하철 2호선과 3호선이 지나고 있는데 수영교차로에 위치한 수영역은 두 노선의 환승역으로 교통의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 간선도로에서 경상좌수영성지로의 접근은 소로 1류(10~12m 미만)와 소로 2류(8~10m 미만)에 의해 이루어진다. 좌수영성지의 주차시설로는 사적공원 주차장, 팔도시장 주차장, 마을박물관 부설주차장 등이 있다.



경상좌수영성지 및 주변의 교통체계



사적공원 주차장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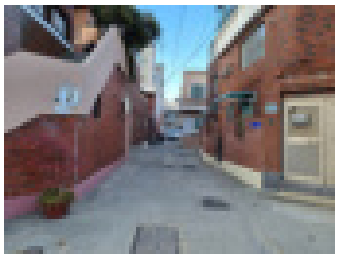


팔도시장 주차장 전경

(2) 골목길 현황

- 경상좌수영성지 내의 각 골목길은 조선시대 형태를 잘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도심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대부분 벽화그리기와 휴식공간 조성이 사업의 주를 이루고 있다.

표19. 경상좌수영성지 내부의 골목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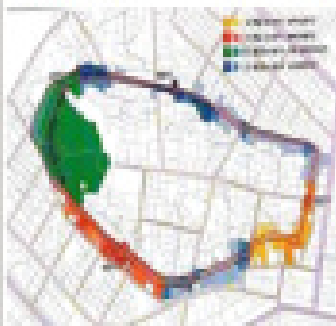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3.3 관련 계획 및 법규

D 관련 계획

- 경상좌수영성과 주변지역 지역은 급격하게 도시화되어 주거지화 함에 따라 현재 성지 주위 대부분이 근린생활시설, 시장, 도로 등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수영사적공원 이외에는 별다른 녹지나 자연환경이 남아있지 않다.
- 한편 경상좌수영성지와 고평 등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여러 문화재로 인해 건축물의 신축이나 개축이 제한됨으로써 부산시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후화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F1 경상좌수영성지 복원사업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위치 : 4급정원만 보유구역 • 사업규모 : L=1,480m, W=7m, 정장면적 15,848㎡ • 사업기간 : 2012년~ 계속 • 공사예산 : 5,216백만원 <table border="1"> <tr> <th rowspan="3">연도 (계정연)</th><th colspan="3">도시개발사업비</th><th rowspan="3">연계 연계</th><th rowspan="3">사업 비율</th><th colspan="3">기금</th></tr> <tr> <th rowspan="2">국비</th><th colspan="2">지방비</th><th rowspan="2">공기업비</th><th rowspan="2">민간비</th><th rowspan="2">기금</th></tr> <tr> <th>국비</th><th>지방비</th></tr> <tr> <td>5,216</td><td>-</td><td>-</td><td>-</td><td>-</td><td>5,216</td><td>-</td><td>-</td><td>-</td></tr> <tr> <td></td><td></td><td></td><td></td><td></td><td>국</td><td></td><td></td><td></td></tr> <tr> <td></td><td></td><td></td><td></td><td></td><td>시</td><td></td><td></td><td></td></tr> <tr> <td></td><td></td><td></td><td></td><td></td><td>구</td><td></td><td></td><td></td></tr> </table>	연도 (계정연)	도시개발사업비			연계 연계	사업 비율	기금			국비	지방비		공기업비	민간비	기금	국비	지방비	5,216	-	-	-	-	5,216	-	-	-						국									시									구			
연도 (계정연)	도시개발사업비			연계 연계	사업 비율			기금																																														
	국비		지방비					공기업비	민간비	기금																																												
		국비	지방비																																																			
5,216	-	-	-	-	5,216	-	-	-																																														
					국																																																	
					시																																																	
					구																																																	
발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수정원지 상하 일대에 방치된 차폐도로에 대한 개조 계획 • 사업기간 내 있는 용역이 백전으로 차폐도로 정비사업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지역의 도로와가 연결된 상하도로의 산책로 조성으로 진행 • 백전과 일출한 부지를 거동도로를 연결시키는 공간 확보 • 용역진행수익률, 용역사업 등 지역 공공화사업 연계하여 개발 추진 • 5년 후만 보유구역 조성 																																																					
사업시행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2012~2014년) : 남동 및 상하백전 일출부지 개발 • 2단계(2016~2021년) : 남동과 상하의 상하, 상하 백전 • 3단계(2021~) : 동쪽과 백전과 상하 보유구역 조성 검토 추진 <div>   </div>																																																					
사업추진 프로세스 및 진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 백전지 일출부지 발굴조사 • 2020 백전대상 부지 선정 및 연계개발 • 2021 백전대상 부지 선정 및 연계개발 																																																					
추진단계별 최대추진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년후에 : 4급구 정비사업 																																																					
사업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전, 차폐, 상하, 상하 일출부지 개조 계획에 따른 차폐도로 정비 • 백전과 부지를 3000백전으로 연결하는 도로 																																																					

2) 관련 법규

(1) 문화재보호법

구 분	내 용
제3조 문화재 보호의 기본 원칙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 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문화재나 문화재의 보호물·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민은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문화재 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문화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재 보존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이전의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한 분석 평가 3. 문화재 보수·정비 및 복원에 관한 사항 4.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5. 문화재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문화재 기록정보화에 관한 사항 7. 문화재 보존에 사용되는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7의2.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의3. 남북한 간 문화재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8.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②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시·도지사에게 알리고, 관보(官報)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도지사에게 관할구역의 문화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구 분	내 용
제7조 문화재 보존 시행계획 수립	①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과 그 시행 결과의 제출대상, 시기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공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문화재위원 회의 설치	①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문화재위원회를 둔다. 1.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3.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5. 3. 27.> 5.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에 관한 사항 6. 국가지정문화재의 국외 반출에 관한 사항 7.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8. 문화재의 등록 및 등록 말소에 관한 사항 9. 매장문화재 발굴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0.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1. 그 밖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문화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문화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인류학·사회학·건축·도시계획·관광·환경·법률·종교·언론 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③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문화재 종류별로 업무를 나누어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조사·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분과위원회와 함께 위원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열 수 있다. ⑤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관하여 조사·심의한 사항은 문화재위원회에서 조사·심의한 것으로 본다. ⑥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구 분	내 용
제8조 문화재위원회의 설치	<p>⑦ 제6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인의 재산상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⑧ 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의 조직, 분장사항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⑨ 문화재위원회에는 문화재청장이나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p> <p>⑩ 문화재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의 수와 임기, 전문위원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제12조 건설공사 시의 문화재 보호	<p>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재가 훼손, 멸실 또는 수몰(水沒)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청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p>
제13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p>①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와 무형문화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여야 한다.</p> <p>② 건설공사의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지정문화재의 외곽 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한다)의 외부 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로서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그 공사에 관한 인가·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행정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③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해당 지정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문적·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 밖에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으로 한다. 다만,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재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밖에서 건설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500미터를 초과하여 범위를 정할 수 있다.</p> <p>④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문화재를 지정하면 그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안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p> <p>⑤ 제4항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려는 경우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p> <p>⑥ 제4항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기준이 고시된 지역에서 그 행위기준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른 검토는 생략한다.</p> <p>⑦ 제5항에 따른 자료 또는 의견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p>

구 분	내 용
제14조 화재 등 방지 시책 수립과 교육훈련· 홍보 실시	① 문화재청장과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의 화재, 재난 및 도난(이하 "화재등"이라 한다)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 등을 대상으로 문화재 화재등에 대한 초기대응과 평상시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 화재등의 방지를 위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의2 화재 등 대응매뉴얼 마련 등	①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의 특성에 따른 화재 등 대응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그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매뉴얼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하는 문화재의 범위 및 매뉴얼의 정기적 점검·보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3 화재 등 방지 시설 설치 등	①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지정문화재의 화재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소방시설과 재난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문화재의 도난방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난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는 자는 해당 시설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재난방지 시설 또는 도난방지장치 2. 제14조의4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표지
제14조의4 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와 그 보호물·보호구역 및 보관시설(이하 이 조에서 "지정문화재등"이라 한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지정문화재등 해당 시설 또는 지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은 화재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정문화재등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의 설치 기준 및 방법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 또는 시·도조례로 정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 분	내 용
제15조 문화재보호 활동의 지원 등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의 보호·보존·보급 또는 선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단체를 지원·육성할 수 있다.
제21조 비상시의 문화재보호	<p>①문화재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 문화재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문화재와 국유 외의 지정문화재 및 제32조에 따른 가지정문화재를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매물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점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하여 그 문화재를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매물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p> <p>②문화재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39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외로 반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③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명령의 이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는 제46조를 준용한다. 다만, 전화(戰禍)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제27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p>①문화재청장은 제23조·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른 지정을 할 때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p> <p>②문화재청장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p> <p>③문화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할 때에는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할 시기에 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그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문화재의 보존가치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3.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 <p>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 조정 및 적정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제33조 소유자관리의 원칙	<p>①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당 문화재를 관리·보호하여야 한다.</p> <p>②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는 필요에 따라 그에 대리하여 그 문화재를 관리·보호할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p>

구 분	내 용
제35조 허가사항	<p>① 국가지정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에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 및 제41조제1항에 따라 수입·반입 신고된 것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3. 국가지정문화재를 탁본 또는 영인(影印)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 4. 명승이나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거나 가지정된 구역 또는 그 보호 구역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捕獲)·채취(採取)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p>②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중복되는 지역에서 제1항제2호에 따라 문화재청장이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74조제2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p> <p>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하여 허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④ 문화재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⑤ 문화재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p>
제36조 허가기준	<p>① 문화재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5조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2.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 3. 문화재기본계획과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들어맞을 것 <p>② 문화재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에게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p>

구 분	내 용
제40조 신고 사항	<p>①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고 그 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2.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3.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이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 4.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재지의 지명, 지번, 지목(地目), 면적 등이 변경된 경우 5.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6. 국가지정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7.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그 문화재의 현상변경을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 8. 제35조제1항제4호 또는 제39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문화재를 반출한 후 이를 다시 반입한 경우 9. 동식물의 종(種)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는 경우 그 지정일 이전에 표본이나 박제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9의2. 폐사한 천연기념물 동물을 부검하는 경우 9의3.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에 대하여 질병 등 기타 위험의 방지, 보존 및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한 경우 <p>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때에는 같은 항 제1호의 경우 소유자와 관리자가,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신·구 소유자가 각각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p> <p>③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해당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허가받은 사항을 착수 또는 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고 그 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제43조 기록의 작성·보존	<p>①문화재청장과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및 관리단체의 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변경 사항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p> <p>②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문화재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나 연구기관에 국가지정문화재의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p>

구 분	내 용
제51조 보조금	<p>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4조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가 그 문화재를 관리할 때 필요한 경비 2. 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경비 3.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외에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보호·수리·활용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p>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를 하는 경우 그 문화재의 수리나 그 밖의 공사를 감독할 수 있다.</p> <p>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비에 대한 보조금은 시·도지사를 통하여 교부하고, 그 지시에 따라 관리·사용하게 한다. 다만,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에게 직접 교부하고, 그 지시에 따라 관리·사용하게 할 수 있다.</p>
제52조 지방자치단체 의 경비 부담	<p>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재에 대한 관리·보호·수리 또는 활용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p>
제54조 등록문화재의 관리	<p>① 등록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등록문화재를 관리하는 자는 등록문화재의 원형 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문화재청장은 등록문화재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나 관리자가 등록문화재를 관리할 수 없으면 지방자치단체나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이나 단체 중에서 해당 등록문화재를 관리할 자를 지정하여 이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p> <p>③ 등록문화재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이하 "등록문화재관리단체"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등록문화재의 관리 및 수리와 관련된 기술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p>
제56조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p>①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변경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의 외관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해당 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행위 3.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를 수리하거나 보존처리하는 행위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57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관한 특례적용을 받은 등록문화재 2. 제5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1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등록문화재 3. 등록문화재의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등록문화재 <p>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사실을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④ 문화재청장은 등록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에 관하여 지도·조언 및 권고 등을 할 수 있다.</p>

(2) 문화재보호법시행령

구 분	내 용
제3조 문화재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 대상자	제3조(문화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 대상자)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및 관련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지정문화재나 등록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2. 지정문화재나 등록문화재의 관리단체 3. 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이하 "문화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4. 그 밖에 문화재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자로서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3조의2 공동연구의 대상 사업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의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다른 분야와의 상호 협력이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 2.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요청한 연구개발 사업으로서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 사업의 기초가 되는 사업 4.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문화재 보존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 2. 주요 사업별 추진방침 3. 주요 사업별 세부계획 4. 그 밖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문화재청 및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계획서 제출 등	① 법 제9조에 따른 한국문화재재단(이하 이 조에서 "재단"이라 한다)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 분	내 용
제6조 문화재 기초조사의 절차	<p>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려면 조사자, 조사대상, 조사 경위 등 조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서를 조사 착수 전까지 작성하여야 한다.</p> <p>② 중앙행정기관의 장(문화재청장은 제외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려면 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조사 착수 전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문화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가 끝난 후 60일 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간보고서를 조사가 시작된 후 1년이 되는 때마다 작성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사자, 조사경과, 조사방법 등 조사의 일반적인 사항 2. 조사한 문화재의 상세한 현재 상태 3. 조사한 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소재지 및 이력 등에 관한 사항 <p>④ 중앙행정기관의 장(문화재청장은 제외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가 끝난 후 60일 안에 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에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간보고서를 조사가 시작된 후 1년이 되는 때마다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p>
제8조 화재, 재난 및 도난 대응매뉴얼 마련 등	<p>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화재 및 재난 대응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하는 문화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정문화재 중 목조건축물류, 석조건축물류, 분묘(墳墓), 조적조(組積造) 및 콘크리트조 건축물류 2. 지정문화재 안에 있는 목조건축물과 보호구역 안에 있는 목조건축물. 다만, 화장실, 휴게시설 등 중요도가 낮은 건축물은 제외한다. 3.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세계유산 안에 있는 목조건축물. 다만, 화장실, 휴게시설 등 중요도가 낮은 건축물은 제외한다. 4. 등록문화재 중 건축물.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화재 및 재난에 대비한 매뉴얼 등을 마련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의2에 따른 화재 및 재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한 것으로 본다. <p>②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도난 대응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하는 문화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정문화재 중 동산에 해당하는 문화재 2. 등록문화재 중 동산에 해당하는 문화재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응매뉴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화재, 재난 및 도난(이하 "화재등"이라 한다) 예방 활동 2. 화재 등 발생 시 신고방법 3. 화재 및 재난 시 문화재의 이동·분산대피 등 대응방법 <p>④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응매뉴얼을 연 1회 이상 점검·보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보완한 대응 매뉴얼을 보완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구 분	내 용
제8조의2 문화재 방재 관련 정보의 구축 및 관리	<p>① 법 제14조의6제1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구축·관리하여야 하는 문화재 방재 관련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재 방재 시설의 종류 및 수량 2. 문화재 방재 시설의 사용 교육 및 훈련 현황 3. 문화재 안전관리 인력 현황 4. 그 밖에 화재등 문화재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정보 <p>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전자정보의 형태로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재 방재 관련 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한다.</p>
제20조 문화재별 종합정비계획 의 수립	<p>① 법 제34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를 관리하도록 지정된 관리단체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문화재별 종합정비계획(이하 이 조에서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정비계획은 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비계획의 목적과 범위에 관한 사항 2.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에 관한 사항 3. 문화재에 관한 고증 및 학술조사에 관한 사항 4. 문화재의 보수·복원 등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문화재의 관리·운영 인력 및 투자 자원(財源)의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재의 정비에 필요한 사항 <p>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절차, 방법 및 내용과 그 시행 등에 관하여 문화재의 종류별 또는 유형별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p>
제21조 허가절차	<p>① 법 제35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국가지정 문화재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수량 및 소재지 등을 적은 허가신청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허가신청 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p> <p>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 신청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문화재청장에게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 2. 국유인 문화재로서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로 한정한다)의 현상변경 행위 3. 문화재청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 안에서 이루어지는 현상변경 행위

구 분	내 용
제21조의2 국가지정 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 의 행위	<p>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수리, 정비, 복구, 보존처리 또는 철거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과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수입·반입 신고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포획(捕獲)·채취·사육·도살(屠殺)하는 행위 나. 인공으로 증식·복제하는 행위 다. 자연에 방사하는 행위(구조·치료 후 방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행위 마. 혈액, 장기 및 피부 등을 채취하는 행위(치료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한다) 바. 표본(標本)·박제(剝製)하는 행위 사. 매장·소각(燒却)하는 행위 3.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안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건축물 또는 도로·관로·전선·공작물·지하구조물 등 각종 시설물을 신축, 증축, 개축, 이축(移築) 또는 용도변경(지목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행위 나.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다. 토지 및 수면의 매립·간척·굴착·천공(穿孔), 절토, 성토(盛土)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라. 수로, 수질 및 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마.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바. 오수(汚水)·분뇨·폐수 등을 살포, 배출, 투기하는 행위 사. 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하는 등의 행위 아. 토석, 골재 및 광물과 그 부산물 또는 가공물을 채취, 반입, 반출, 제거하는 행위 자. 광고물 등을 설치, 부착하거나 각종 물건을 야적하는 행위 <p>②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행위 나.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다.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라.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행위 마.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구 분	내 용
제21조의2 국가지정 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 의 행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국가지정문화재가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과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하는 건설공사 등의 행위 3. 국가지정문화재와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4. 천연기념물이 서식·번식하는 지역에서 천연기념물의 등지나 알에 표시를 하거나, 그 등지나 알을 채취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5. 그 밖에 국가지정문화재 외곽 경계의 외부 지역에서 하는 행위로서 문화재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21조의3 특별자치시장 등의 허가 대상 행위	<p>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이 영 제21조의2제1항의 행위 중 문화재청장이 고시하는 천연기념물을 사육, 표본, 박제하거나, 죽은 것을 매장 또는 소각하는 등의 행위 2. 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이 영 제21조의2제1항의 행위 중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설치행위 3. 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이 영 제21조의2제1항의 행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다만, 해당 국가지정문화재를 대상으로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건조물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 나. 전통양식에 따라 축조된 담장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 다.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규모의 신축, 개축(改築) 또는 증축 행위 라.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마. 표석(標石),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바. 보호책(保護柵)을 설치하는 행위 사. 수목의 가지 고르기, 병충해 방제, 거름 주기 등 수목에 대한 일반적 보호·관리 아. 학술·연구 목적이나 보존을 위한 종자 및 삽수(挿穗: 꺾꽂이용 묘목이나 싹)를 채취하는 행위 4. 법 제35조제1항제2호 및 이 영 제21조의2제2항의 행위 중 문화재청장이 경미한 행위로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5. 법 제35조제1항제3호의 행위 중 국가지정문화재(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국가지정문화재는 제외한다)의 촬영행위 6. 법 제35조제1항제4호의 행위 중 문화재청장이 경미한 행위로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구 분	내 용
제2조의2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기준의 수립	<p>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5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별표 1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현황조사 결과 2. 제1호의 조사 결과를 반영한 행위기준안 및 이를 작성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 3. 제2호의 행위기준안에 대한 지역 주민 및 관리단체의 의견 4. 그 밖에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행위기준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자료 <p>②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의견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전문가에게 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이하 "문화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2. 법 제71조에 따른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문화재 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교원 4.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관, 학예연구사 또는 나군 이상의 전문경력관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건축, 토목, 환경, 도시계획, 소음, 진동, 대기오염,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에 관련된 분야의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교원 6. 제5호에 따른 분야의 학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7. 그 밖에 문화재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한 사람 <p>③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행위기준의 고시일부터 10년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지형의 변화 등 해당 지역의 여건을 조사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위기준을 변경하여 고시할 수 있다.</p> <p>④ 제3항에 따른 행위기준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p>
제3조 도난방지장치 설치기준	<p>법 제14조의3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난방지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지정문화재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지정문화재 경관과 조화되도록 할 것 2. 도난방지장치는 모니터링, 호환성 및 유지·관리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할 것 3. 도난방지장치의 설치 장소를 면밀히 분석하여 감시가 미치지 아니하는 곳이 없도록 설치할 것 4. 도난방지장치 관리자는 도난방지장치가 잘 작동되도록 관리할 것

(4)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구 분	내 용
제2조 정의	<p>이 법에서 "매장문화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토지 또는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 2. 건조물 등에 포장(包藏)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 3. 지표·지중·수중(바다·호수·하천을 포함한다) 등에 생성·퇴적되어 있는 천연동굴·화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질학적인 가치가 큰 것
제4조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p>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이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라 한다)은 원형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호되어야 하며, 누구든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조사·발굴하여서는 아니 된다.</p>
제5조 개발사업 계획·시행자 의 책무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개발사업을 계획·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매장문화재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개발사업 시행자는 공사 중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해당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6조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건설공사의 규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문화재가 매장·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지표조사의 실시시기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 지표조사 절차 등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표조사는 제6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요청하여 제2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이 수행한다. ②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지표조사를 마치면 그 결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지표조사 보고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표조사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규모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지표조사의 방법, 절차 및 지표조사 보고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구 분	내 용
제9조 문화재 보존 조치의 지시 등	<p>① 제7조제2항에 따라 지표조사 보고서를 받은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보존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기관의 장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기관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치의 내용과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제11조 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 등	<p>①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발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발굴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구 목적으로 발굴하는 경우 2. 유적(遺蹟)의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발굴하는 경우 3. 토목공사,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그 밖에 건설공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멸실·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유적을 긴급하게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p>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발굴허가를 하는 경우 그 허가의 내용을 정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으며, 허가를 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굴의 정지 또는 중지를 명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p> <p>③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발굴하는 경우 그 경비는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의 발굴을 허가받은 자가, 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로 인한 발굴에 사용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p> <p>④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제13조 국가에 의한 매장문화재 발굴	<p>① 문화재청장은 학술조사 또는 공공목적 등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발굴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도(古都)지역 2. 수중문화재 분포지역 3. 폐사지(廢寺址) 등 역사적 가치가 높은 지역 <p>② 제1항에 따라 발굴할 경우 문화재청장은 제2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으로 하여금 발굴하게 할 수 있다.</p> <p>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발굴할 경우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굴의 목적, 방법 및 착수 시기 등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하며, 발굴이 완료된 경우에는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출토유물 현황 등 발굴의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p>

구 분	내 용
제13조 국가에 의한 매장문화재 발굴	<p>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발굴을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⑤ 국가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발굴로 손실을 받은 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p> <p>⑥ 제5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문화재청장과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p> <p>⑦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제14조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p>① 문화재청장은 발굴된 매장문화재가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1조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보존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지보존: 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굴 전 상태로 복토(覆土)하여 보존하거나 외부에 노출시켜 보존하는 것 2. 이전보존: 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굴현장에서 개발사업 부지 내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거나 박물관, 전시관 등 개발사업 부지 밖의 장소로 이전하여 보존하는 것 3. 기록보존: 발굴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그 기록을 보존하는 것 4. 그 밖에 매장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p>② 제1항에 따른 보존조치를 지시받은 자 및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청장에게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 방법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보존조치를 지시받은 자는 그 조치를 한 후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그 보존조치의 결과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그 밖에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제15조 발굴조사 보고서	<p>① 제11조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허가를 받은 자와 발굴을 직접 행하는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발굴을 직접 행하는 기관을 말한다)는 발굴이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발굴결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발굴조사 보고서"라 한다)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문화재청장은 발굴된 유적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에 장기간 연구가 필요하거나 출토된 유물을 보존 처리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발굴조사 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p>
제16조 매장문화재 현상변경	이미 발굴된 매장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의 현상(現狀)을 변경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5)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구 분	내 용
제3조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범위 등	<p>① 법 제4조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이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한 문화유적분포지도에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표시된 지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제출되어 문화재청장이 적정하게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지표조사 보고서에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표시된 지역 3. 매장문화재에 대한 발굴 이후에 법 제14조에 따라 그 매장문화재가 보존조치된 지역 4. 법 제17조에 따른 발견신고 및 확인절차를 거쳐서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 지역 5.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도지정문화재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가지정문화재가 있는 지역 6.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보호구역에서 문화재청장이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 지역 7.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p>② 문화재청장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전자적인 방법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그 정보를 문화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p> <p>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적정성, 현재 지형 현황 등에 대한 의견을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p> <p>④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위치에 관한 정보의 구체적 표시방법 및 추가 정보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p>
제12조 국가에 의한 매장문화재 발굴 절차 등	<p>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발굴의 목적, 방법, 착수 시기 및 소요기간 등의 내용을 발굴 착수일 2주일 전까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그 발굴에 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p> <p>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제출받은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장문화재를 발굴할 때에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p> <p>④ 문화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발굴 현장에 발굴의 목적, 조사기관, 소요기간 등의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p>
제16조 매장문화재의 현상변경에 대한 허가방법 등	<p>법 제16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현상(現狀)변경에 대한 허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8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굴"은 "현상변경"으로, "발굴허가"는 "현상변경허가"로 본다.</p>

3.4 국내의 사대 검토

1) 국내 사대

(1) 발포만호진성

- 전남 고흥군 도화면 내발리 968번지에 위치한 발포만호성(鉢浦萬戶城)은 1977년 10월 전라남도 기념물 제27호로 지정되었다. 만호(萬戶)란 조선시대 때 각 도의 여러 진(鎭)에 파견된 중 4품의 무관직을 말한다. 발포만호성은 적의 침입을 막고자 해안선을 따라 성을 쌓았는데 그 모양이 사다리꼴을 이루고 있다.
- 『성종실록』의 기록에 의하면 발포만호는 조선 성종 21년(1490)에 쌓은 것으로, 둘레 1350척, 높이 13척이라 한다. 현재 성의 둘레는 560m, 높이는 4m이고, 서벽이 동벽보다 깊다. 동서남북 4벽이 거의 남아 있으나 동벽과 남벽은 민가의 담으로 이용되고 있다. 성 안에는 동헌과 객사 등의 관아 건물터가 남아있고, 배수로와 무기고의 터도 남아있다. 또 동문, 서문, 남문, 망루터도 확인된다.
- 발포만호는 조선 선조 13년(1580)에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만호(萬戶)로 부임하여 18개월간 재임하였던 곳으로, 여천선소 유적과 함께 임진왜란 때 좌수영 산하의 수군기지로 매우 중요한 역사적 배경을 안고 있다.
- 최근 유적 정비사업이 진행되어 성벽 일부구간이 복원되었으며, 발포역사전시체험관을 건립하여 전시 및 교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성곽 뒤편에는 충무공 이순신장군을 기리기 위한 사당인 충무사(忠武祠)가 있는데 1976~1980년 5년간에 걸쳐 건립된 것으로 이곳에서 매년 충무공 탄신일인 4월 28일 탄신제를 거행하고 있다.

		
복원 성곽	선소(船所) 유적	충무사
		
발포 역사전시체험관	발포 역사전시체험관 내부	야외 거북선 모형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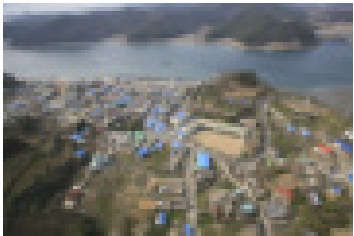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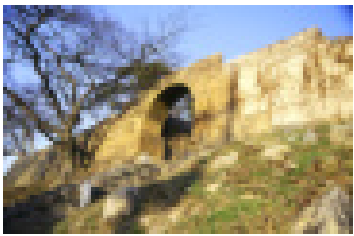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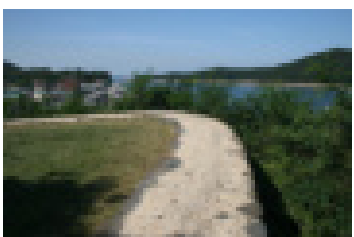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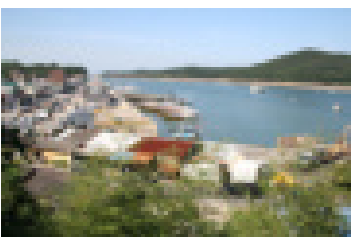
(2) 전라우수영성

- 고려 말기 우왕 3년(1377) 전라남도 무안 당곶포에 수군처치사영(水軍處置使營)이 설치된 뒤, 조선 세종 22년(1440)에 현 위치인 전라남도 해남군 문내면 황원곶으로 이를 옮겼다. 세조 11년(1465)에 수군절도사영(水軍節度使營)으로 승격되었고, 성종 10년(1479) 전라남도 순천 내례포에 전라좌도 수군절도사영이 설치된 후 이곳은 전라우도 수군절도사영이라 부르게 되었다. 처음의 영역은 남북 길이 10리, 동서 너비 5리의 크기이며, 석축의 둘레는 3,843척, 높이 11척, 연못 3개소가 있었다. 『전라우수영지』에 의하면 영내에는 민가 620호, 수군 병력 1,085명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한다. 임진왜란 때에는 전라우도 연해 지역 14관을 관할하였을 만큼 군사적인 규모와 역할이 매우 컸다. 수사 김억추는 선조 30년(1597)의 정유재란 때 통제사 이순신과 함께 명량대첩에서 승리한 인물이다.
- 해안선을 따라 가며 쌓은 전라우수영은 돌과 흙을 섞어 쌓은 혼합형으로, 사각형과 원형의 중간 형태를 띠고 있다. 성벽을 쌓은 아래쪽의 돌은 150cm 이상이 되는 큰 것들이나 올라가면서 30~50cm 정도로 작아진다. 금년 9월 30일 문화재청은 해남군 문내면 선두리 산 등 385필지 171,804㎡(문화재구역 59필지 17,740㎡, 보호구역 326필지 154,064㎡)에 대해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제535호)으로 지정했다.
- 우수영은 명량대첩을 기념하는 기념공원 조성과 함께 1986년 국민관광지로 지정된 가운데 해남군은 명량대첩비 원설립지 이전 등 전라우수영의 역사성을 복원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명량대첩 해전사 기념전시관 건립, 명량대첩 축제 개최 등 우수영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다. 해남 전라우수영이 국가사적으로 지정되면서 성곽을 복원하는 등 우수영성지 개발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아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잔존 성벽	우물 유적	복원된 망해정
		
명량대첩비	우수영 문화마을	유람선 운행

(3) 충청수영성

- 충남 보령시 오천면 소성리 931번지 일대에 위치한 충청수영성은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2009년 8월 지방문화재에서 국가사적으로 승격되었다. 충청수영성은 조선 초기에 설치되어 고종 33년(1896) 폐영(廢營)되었으며, 그 규모는 『세종실록지리지』 기록에 따르면 조선 초기 충청수영과 그 산하에 배속된 군선과 병력이 군선(軍船) 142척에 수군 수(水軍數)가 총 8,414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 충청도 서해안 지역에 위치하여 한양으로 가는 조운선을 보호하고 왜구침탈을 방지했고, 근대에는 이양선을 감시하는 등의 역할을 했다. 선조 29년(1596), 충청수사 최호가 충청수영의 본영과 속진의 수군을 이끌고 남해 한산도에 머물며 수군통제사 원균의 지휘를 받다가 이듬해인 선조 30년(1597) 7월 1일 일본군에 패하여 통제사 원균과 함께 전사했다. 또한, 충청수영성은 천수만 입구와 어우러지는 경관이 수려하여 조선시대 시인 묵객들의 발걸음이 잦았던 지역으로 성내의 영보정이 유명했고, 서문 밖 갈마진두(渴馬津頭)는 충청수영의 군을 집행터로 병인박해 때 천주교 신부 다섯 명이 순교한 곳이다.
- 근대에 들어 도로개설이나 호안매립 등으로 인하여 훼손된 일부 구간을 제외하면 충청수영성은 나머지 성지(城址) 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형이 거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군사목적에서 마련된 충청지역 수군 지휘부로서 충남의 수군편제와 조직, 예하 충청지역 해로(海路) 요해처(要害處)에 배치되었던 수군진과의 영속 관계 등을 보여주는 귀중한 유적으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다.
- 조선시대 충청수영성 안에는 많은 관아건물이 있었으나 현재는 장교청[將校廳,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411호]을 비롯해서 진휼청[賑恤廳,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412호]과 삼문만 남아 있다.

		
전경	성문	진휼청
		
장교청	성벽	추정 선소 [오천항]

2) 국외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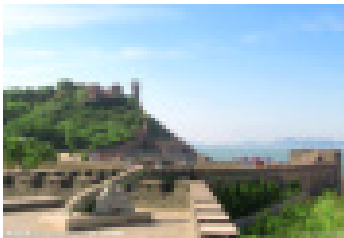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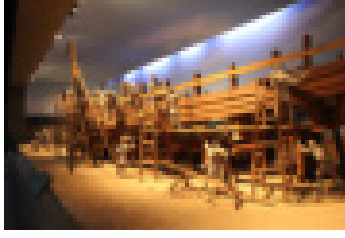



(1) 일본 무라카미수군성(村上水軍城)과 수군박물관

- 시고쿠(四國)의 에히메현(愛媛縣) 이마바리시(今治市) 미야쿠보초(宮窪町)에 위치한 무라카미수군박물관(村上水軍博物館)은 일본 유일의 수군박물관이다. 무라카미(村上)씨는 남북조시대(南北朝時代)부터 전국시대(戰國時代)까지 세토나이카이(瀬戸内海)에서 활약한 해적집단으로 속칭 미시마(三島) 무라카미씨라 부른다. 노시마(能島)·쿠로시마(來島)·인노시마(因島)의 3개 가문으로 나뉘지며 상호 강한 동족의식을 지녔다. 무라카미수군박물관은 상설전시실과 기획전시실, 옥외전시실, 전망대로 구성되어 있다. 상설전시실은 노시마의 바다(能島の海), 해적들의 활약, 발굴-해적들의 유적, 영상코너, 무라카미가문 기념전시코너 등의 콘텐츠로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외에 기획전시실은 특별전이나 기획전을 여는데 주민들의 갤러리로 활용하며 통상 지역의 민속·사진전시를 한다..
- 무라카미수군성(村上水軍城)은 히로시마현(廣島縣) 오노미치시(尾道市) 인노시마(因島)에 위치하고 있다. 해발 24m의 산정에 1983년 성곽의 건물을 본 딴 수군 자료전시관을 개장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인노시마(因島) 수군성 전경	인노시마(因島) 수군성 전시관	인노시마 수군성 전시관 내부
		
인노시마 수군성 전시관 내부	인노시마 수군성 축제	大島 무라카미(村上) 수군박물관
		
무라카미 수군박물관 배 모형	무라카미(村上) 수군박물관 내부	무라카미(村上) 수군박물관 내부

(2) 중국 수성(水城)

- 중국 산둥성(山東省) 평라이시(蓬萊市)에 위치한 수성(水城)은 명·청시대의 중요한 군사 요새이고 또 지금까지 비교적 온전한 모습으로 보존되고 있는 고대 수군기지 유적 중의 하나이다. 봉래각은 기원 1061년(송 가유6년)에 짓기 시작해서 기원 1819년(청 가경24년)에 증축하여 지금의 규모로 형성되었다. 봉래 수성은 단애산 산기슭에 위치하는데 봉래각과 일체로 이어져 있고 정교하고 색다른 고대 건축물이다. 수성은 동쪽에서 화하와 이어지고 서쪽에서 단애(斷崖)를 의지하며 산을 등지고 바다를 향하며 지세가 험하다.
- 수성(水城) 내에는 고선(古船)박물관을 비롯하여 수군들의 신앙과 민속을 볼 수 있는 다양한 종교 및 제사시설, 복원된 관아시설, 수군들의 훈련장 등이 잘 갖추어져 있다. 특히 다양한 관아시설을 복원하여 중국과 우리나라, 일본 수군들의 역사와 군사체제, 전선(戰船), 무기, 군복 등을 전시함으로써 교육공간화하고 동시에 공해(公廨)의 구조와 형태를 알 수 있게 한다. 또한 이곳 출신이면서 우리나라와도 관련성이 깊은 기효신서(紀效新書)의 저자 척계광(戚繼光)과 여러 장군들의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으로 만들어 관광객들에게 재미를 주고 있으며 중국의 대표적인 수군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수성(水城) 조감도	전경	전경
		
장수 척계광(戚繼光) 동상	고선(古船) 박물관	고선(古船) 박물관 내부
		
복원된 관아 시설	관아시설 내부의 전시실	

3.5 종합분석

1) SWOT 분석

- 계획의 배경 및 목적, 주변 현황, 성과 현상, 관련 계획의 검토, 국내외 유사정비사례 벤치마킹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SWOT 분석을 시행하였다.
-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계획과제를 도출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계획방향 설정, 정비계획의 수립을 도모한다.
- 정비사업을 통한 경상좌수영성의 경쟁력 확보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쟁 우위 요소 (Strengths)와 불리하게 작용하는 열위 요소 (Weakness), 외부 환경을 파악하여 긍정적 영향을 줄 기회 요소(Opportunities)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위협 요소 (Threats)로 나누어 분석한다.

Strengths (강점)	Weakness (약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상좌도 최고 수군성곽으로서의 역사성과 치명도 확보 • 주변에 연계가능 문화재 및 바다 등 자연 통부 • 수영강과 경안리 해변이 인근에 입지 • 국내외 대표적인 해양도시로서의 여머지 확고 • 고유의 전통문화와 다양한 축제[수영여항축제]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구역으로 인한 다양한 시설 유치의 제약 • 간존 성과 유구가 빈약 • 주변 개발 등으로 인한 외형적 조양 제약 • 수군성곽의 정체성을 느낄 수 있는 요소 미흡 • 거주지역으로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의 부족
Opportunities (기회)	Threats (위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유산에 대한 시민의 관심 증대 • 성곽을 도시 브랜드화하려는 활발한 움직임 • 발전 잠재력 및 관광 수요의 증대 • 인근의 해양자원과 역사문화자원의 연계 발전방안 대두 • 주변지역을 연결한 역사달방로 조성 가능성 충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군성곽에 대한 정체성 및 가치 미정립 • 주변 고층 주거단지 조성과 개발 압력 증중 • 성과 정비와 활용에 대한 세부 플랜의 부재 • 보존 및 활용에 대한 이원적 사고와 정비방식 고수 • 역사문화자산에 대한 관광자원화 방안 부족



제Ⅳ장

보존활용계획

- 1 기본방향
- 2 토지이용 및 동선계획
- 3 세부 사업계획
- 4 역사·문화환경 정비계획

4 보존활용계획

4.1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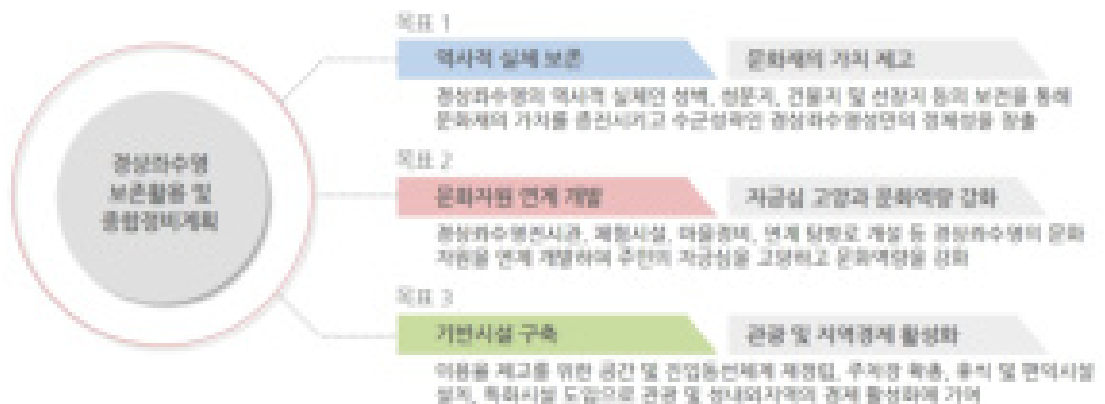
1) 정비 방향의 설정

- 지금까지 주로 도시 환경개선 측면에서 개발 사업을 진행해 온 경상좌수영성지 및 주변 지역 일원의 정비계획을 수립시 전술한 성곽 원형에 대한 고증자료 및 선진 정비사례를 검토하고 여기에 주변 현황 및 여건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정비 방향을 설정한다.
- 정비계획의 기본개념은 역사 문화유산으로서 경상좌수영성지가 지닌 여러 의미 중에서 조선 후기에 축성된 <경상좌도수군절도사영>이라는 장소적 가치에 주목하여 미래 지향적인 정비 방법을 채택하여 시행한다.
- 정비 목표는 첫째, 남아 있는 성벽이나 성문, 선소지 등의 역사적 실체를 보존·정비하여 문화재적 가치를 제고시키고 둘째, 도시개발에 의해 역사 경관이 훼손된 주변 지역을 연계 개발하여 재구조화를 꾀하며 셋째,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이나 동선 체계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관광 역량을 강화하는데 있다.

● 기본개념

"조선시대 수군문화의 요람 경상좌수영 만들기"

● 정비목표



2) 정비계획의 기본전제

㉠ 성곽 및 관련 시설의 보존 및 경관을 우선 고려

- 수군 성곽의 핵심 요소인 선소(船所)와 성벽 등을 우선적으로 정비하여 경상좌수영성의 특성이 지속·표출되도록 한다.
- 성벽 정비시 축성 당시 원형 복원에 목표를 두고 진행할 경우 새로운 성돌의 대거 유입, 축조기법의 차이 등으로 유적의 진정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바 광범위한 ‘수복(修復)’ 보다는 원본(Original)의 가치와 현상의 일상적 관리를 강조하는 ‘픽처레스크(Picturesque)’ 개념이나, 원재료의 원위치 회복과 그에 따른 부분적인 보강(Consolidation)을 의미하는 ‘아나스틸로시스(Anastylosis)’ 개념을 도입하여 정비한다. 즉 성벽은 가급적 현상을 유지하되 배부름이나 성돌 이탈 등으로 붕괴 위험이 있는 부분만 해체 후 재조립하고 필요한 곳에는 최소한의 보강을 한다.
- 고증된 성내·외 시설[성문, 선소지, 관아지, 골목길] 등에 대해서는 추후 발굴조사 및 여론 수렴 결과에 따라 정비 방향이나 범위, 방법 등을 결정한다.

㉡ 역사문화자산 가치 증진 및 화제성 창출

- 조선 후기 경상좌도수군절도사영성인 경상좌수영성에는 수군과 관련된 기록과 이야기가 스며있다.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하여 개별 장소에 이야기를 입힘으로써 유적이나 공간의 가치를 보다 증진시키고 화제성이 창출되도록 정비한다.

㉢ 주변 조망을 위한 가시성 확보

- 수영구는 선사시대 이래 부산역사의 발원지이자 문화 창달의 터전으로 자리매김해 왔기 때문에 성곽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재가 남아 있다. 경상좌수영성은 수영구에 산재한 유적과 자연환경, 산업 경관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주요 조망점에 위치하므로 이러한 입지적 강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가시성 확보뿐만 아니라 성내 경관에 대한 중요성을 고려하여 성내 역사경관 정비 및 유지 방안을 제시한다.

㉣ 배움과 재움을 통한 ‘생활의 장’ 조성

- 완만한 경사지와 다양한 수군 성곽 요소로 구성된 경상좌수영성의 공간 특성을 감안하여 먼저 비워야 할 곳과 복원·정비해야 할 곳을 구분한 후 적정기능을 부여한다.
- 즉 몇 개의 주거지와 성내 도로로 분절되어 가용공간이 부족한 성곽 구조를 고려하여 성내부에 유적과 성격이 다른 새로운(水城) 인공시설물의 설치는 가급적 지양(止揚)하고, 그동안 주거지역으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설치된 갖가지 시설물도 시각적으로

보완하거나 정비해 나간다. 다만 훼손된 성벽 유구의 보수나 유적지로서의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시행한다.

⑤ 공간 재생 및 활성화 방안 마련

- 경상좌수영성지 주변 지역은 지금까지 원형 보존적 문화재 관련 규제 및 현상 변경 억제 정책으로 탐방 환경이 낙후되어 이렇다 할 편의시설이 없고 볼거리가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문화재와 주변 지역을 통합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경상좌수영성이 더 이상 방치된 공간이 아니라 활력 거점 역할을 하도록 정비한다.

⑥ 특화된 기반 시설 확충

- 주민 및 국내외 방문객의 편의 증진과 이용률 제고를 위한 특화된 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수영구의 중요한 관광자원으로 기능하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한다.

⑦ 인근 문화 유적과 연결하는 보행 네트워크 구축

- 성곽 유적과 인접한 명소를 길[골목길]을 통해 연결함으로써 역사 문화자원의 보존 및 활용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고 보행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⑧ 실현 가능한 세부 추진 사업 도출과 단계별 사업 시행

- 수영구의 재정 여건이나 제반 환경을 고려하여 실현 가능한 세부 사업을 도출하고, 토지 매입 및 기존 건물의 철거 등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은 장기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필요한 시설에 대한 단계적 정비를 원칙으로 한다.

⑨ 추진 사업의 내용

- 앞서 설정한 3대 정비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향후 세부 추진 사업은 경상좌수영성지와 주변 지역의 현황과 제반 여건, 주민대표 및 관계자와의 여론 수렴 결과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 역사적 실체를 보존하기 위한 사업으로는 성벽 수리 및 정비, 건물지 발굴 조사, 선소(船所) 정비, 성문 및 공해(公廨) 복원, 정비 등이다.
- 문화자원 연계 개발 사업으로는 탐방로 정비, 전시관 및 체험 시설 개선, 수조(水操) 재현, 독제(蠟祭) 개최, 스토리텔링 개발, 성곽 C.I 개발 등이다. 또한 천연기념물과 민속자원도 함께 정비한다.
- 기반 시설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는 공간 및 진입 동선체계 재정립, 친환경 생태주차장 조성, 관광안내소 설치, 주변 환경개선, 휴식 및 편의시설 설치 등이다.

역사적 실제 보존

- 연차별 유적 추가 발굴조사계획
- 성벽 노출 및 정비
- 건물지 위치 표시
- 성문지 보존 및 안내판 설치
- 선창지의 가치 및 활용도 제고

문화자원 연계 개발

- 경상좌수영전시관 건립
- 유구별 디지털안내시설 도입
- 체험시설 조성
- 수영마을 만들기
- 수영성 C.I 개발
- 스토리텔링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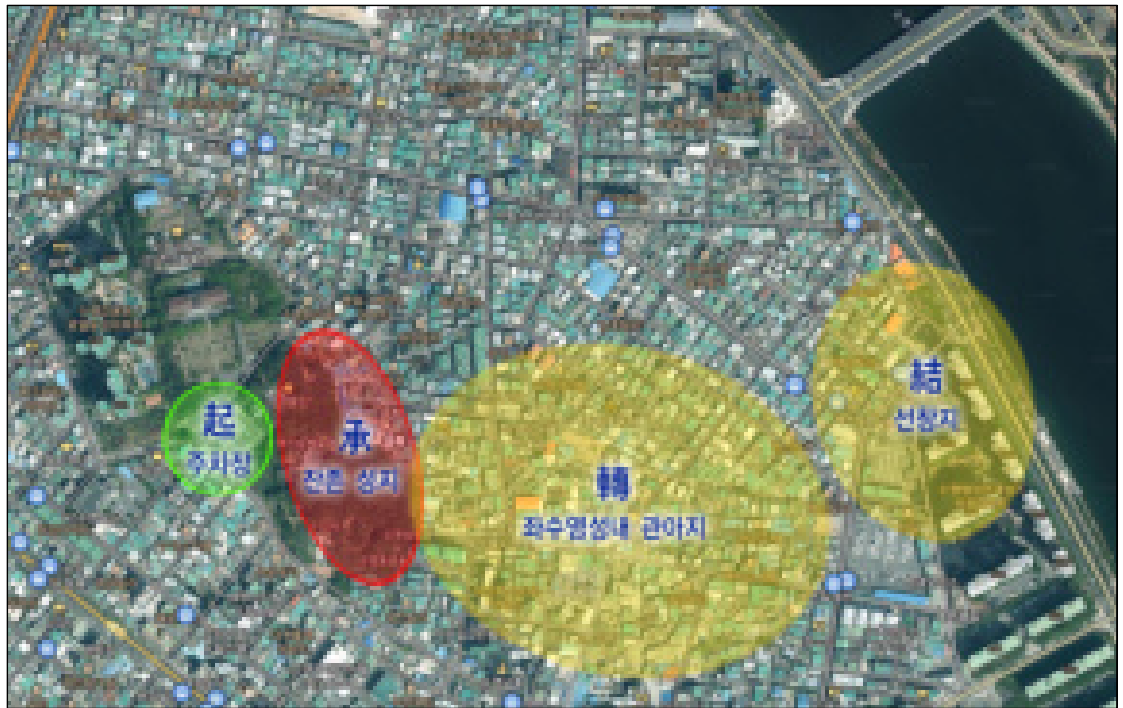
기반시설 구축

- 공간 및 진입동선체계 재정립
- 주차장 확충
- 관광안내소 설치
- 주변 연계 역사탐방로 개발
- 휴식 및 편의시설 설치

42 토지이용 및 통선계획

1) 토지 이용계획

- 경상좌수영성지와 주변 지역은 지금까지 전적으로 주민 생활공간이라는 관점에서 제반 사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문화재 보존이나 활용에 대한 투자나 사업은 미미한 수준이며, 탐방객들의 관람과 교육, 휴식 및 편의를 위한 시설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밀집된 근린생활시설로 인해 기존 성곽 라인을 이용한 견학을 어렵게 한다. 또한 성곽 내·외부와 주변에는 시기와 성격이 다른 많은 인공시설물이 건립되어 역사 경관 및 문화재로서의 정체성을 훼손시키고 있다.
- 또한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탐방객은 주로 성곽 서측의 좁은 수영사적공원 주차장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보행자와 차량 동선이 분명하게 분리되지 않아 방문객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다 쾌적한 역사 경관 및 편리한 탐방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체계적인 토지이용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 본 계획에서는 성내·외 공간을 4개 구역으로 나누고 공간별로 기능을 배분하고자 한다. 현재는 비록 도시화로 인해 조선후기 수영강에 입지했던 수군성의 공간적 특성과 연계성이 많이 퇴색되고 단절되었지만 성곽[관아]과 강[선소]이라는 지형 구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전통적 공간 구조를 복원하고 역사적 맥락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좌수영성지와 수영강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성내·외 공간은 주차장, 잔존 성지, 좌수영성 내 관아지, 선창지(선소지)로 구분하였다.



공간이용체계도

2 동선계획

- 탐방객의 경상좌수영성지와 주변 지역 진입시 안전하고 쾌적한 동선 확보를 위해 보행자와 차량 동선을 분리한다. 현재 주차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5개소의 중·소규모 주차장을 활용하여 차량이나 대중교통, 도보로 경상좌수영성지를 찾는 방문자의 편리한 출입 및 보행환경을 확보한다.
- 특히 차량을 이용하는 방문객을 위해서는 기조성된 서편의 사적공원 주차장을 비롯한 주차시설을 최대한 이용함으로써 효율성을 기하되, 장기적으로는 협소한 주차 면적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적정 규모의 신설주차장을 조성토록 한다.
- 경상좌수영성의 내부 탐방 동선은 기존 성곽 라인과 골목을 그대로 이용하되 성벽 유구의 보존과 전통적인 분위기 연출, 유지 관리의 편의성, 실용성 등을 고려하여 정비한다.
- 4개 성문지와 팔도시장은 기존의 골목길을 이용하여 보행자 동선을 연결하고 동쪽 수영강변길과 연결시킴으로써 성곽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순환 탐방로가 조성되도록 한다. 또한 향후 배를 이용하여 수영강을 한 바퀴 도는 뱃길 코스를 개발하여 문화 유적과 주변 해양 관광자원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게 한다.
- 경상좌수영성 내부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공사 등을 위해서는 필요시 관리용 차량이 성내로 진입하여야 한다. 경상좌수영성은 도심지여서 별도의 관리용 동선없이 직접 차량으로 진입하기가 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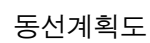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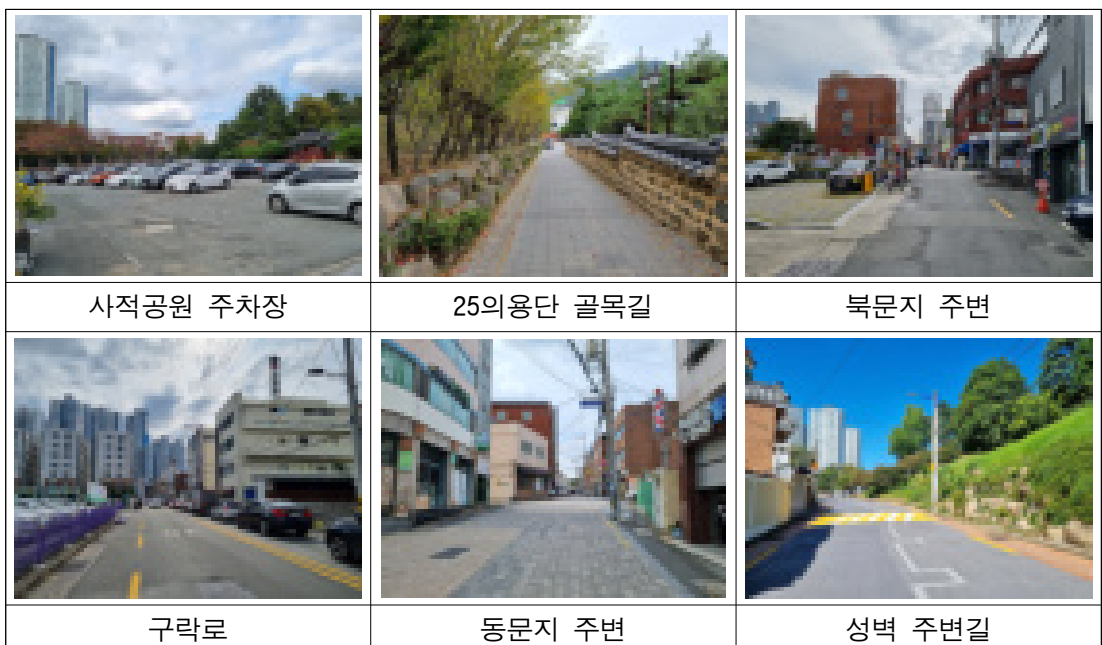


표21. 주요 주차장 및 탐방동선



4.3 세부 사업계획

1) 조사·연구계획

(1) 발굴조사계획

① 추진 배경 및 목표

- 경상좌수영성지에 대한 학술 및 발굴조사는 부산박물관 등에 의하여 1990년, 2001년, 2014년, 2019년 등 4차례 실시되었다. 순수 발굴 조사는 두 차례인데 1차 조사에서 서문지, 서쪽 성벽 등이 조사되었고 2차 조사에서 북문지 및 북문지 동쪽 지역을 조사했다.
- 지금까지 성내 유적에 대한 학술적인 발굴 조사는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문헌기록도 매우 단편적이어서 건물지와 관련된 사실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이를 밝혀낼 수 있는 실증적 자료는 발굴조사만이 가능하며, 추후 학술대회 및 세미나 등 경상좌수영성 성격 규명을 위한 연구의 근거 자료를 확보한다. 현재 경상좌수영성 내부에서 객사와 동헌 등 주요 관아건물지로 추정되는 곳은 서쪽 구릉부이다. 따라서 관아건물 추정지를 대상으로 유구의 범위와 규모 등 잔존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시·발굴조사가 필요하다.

② 사업내용

- 경상좌수영성의 체성에 대한 기 발굴조사는 서편과 북문지 주변의 일부 성벽만을 확인하는 것이었으며 이들 조사만으로는 축조기법과 시기 등을 규명하기에는 미흡하다. 현재 남동 구간에는 체성 유구가 잔존해 있으므로 이들 유구를 발굴조사하여 경상좌수영성의 축조기법과 시기를 규명한다.
- 도시화로 대부분 지상 구조물이 파괴된 경상좌수영성의 성문 추정지에 대한 정밀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확인되는 유구를 바탕으로 성문과 주변 성벽을 복원하여 경상좌수영성의 상징성을 회복한다.
- 지금까지 제대로 된 학술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성내부 건물지에 대한 시·발굴조사를 실시하여 경상좌수영성의 보다 정확한 유적 특성과 역사적 가치가 규명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자료전시관 건립시 유용한 전시자료가 확보되도록 한다.
- 또한 장기적인 측면에서 수군성의 가장 특징적인 시설인 선소지[船所址, 현 영남택시 및 미광운수 부지]에 대한 발굴 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위치와 규모, 구조를 밝힌다.

③ 단계별 조사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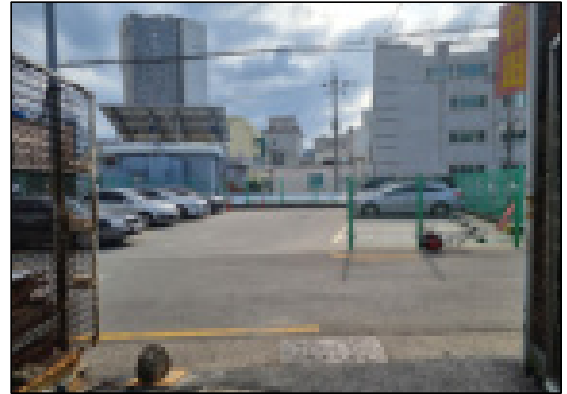
- 향후 경상좌수영성의 유구에 대한 발굴 조사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부지 매입과 예산확보 문제, 사업의 우선순위와 상징성, 유구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모두 3단계로 나누어 연차적으로 조사를 진행하도록 계획하였다.

- 1단계

- 남문지의 형태 및 위치 파악과 향후 경상좌수영의 상징성 복원을 위해 일부 부지 매입 후 가장 우선적으로 시·발굴 조사
- 면적 : 총 1,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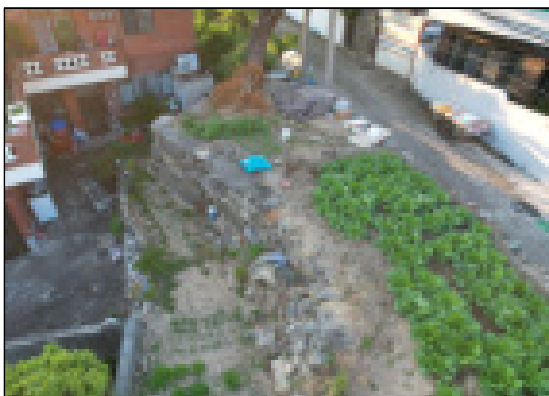
남문지 전경



남문지 근경

- 2단계

- 남동구간 성벽의 형태 및 축조방식 파악, 성곽 내부 객사 건물지 유구와 독당터 확인을 위한 학술조사
- 면적 : 총 1,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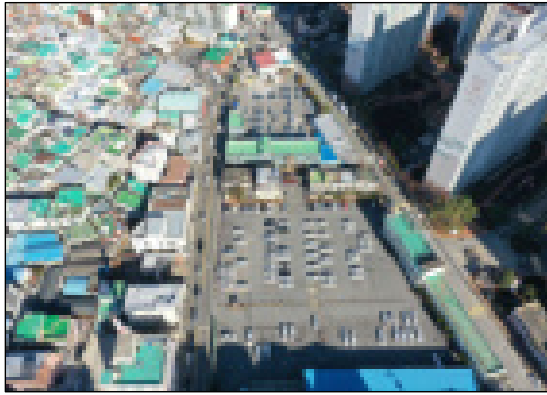
남동 구간 잔존 체성 전경



남동 구간 잔존 체성 근경

- 3단계

- 선소 및 연훈강(煙薰江) 터, 척분정 등 선소와 주변 건물지 확인을 위한 조사로 장기적 계획 필요
- 면적 : 총 1,500㎡



선소(船所) 및 주변 건물지 전경



선소(船所) 및 주변 건물지 근경

표22. 경상좌수영성 단계별 발굴조사계획

단계	대상지	규모 (㎡)	금액 (원)	해당 지번 (수영동)
1단계	남문지(南門址)	1,100	540,000,000	190, 295-1, 297, 286-1, 314-1 · 2, 315-1 · 2, 316-2
2단계	객사지(客舍址), 독당터	800	480,000,000	251-7 · 16 · 19 · 20
	남동구간 체성	600	680,000,000	1-4, 98-5, 4, 4-4, 5, 5-2, 6, 507-9 · 11 · 14 · 17 · 18
3단계	선소 및 주변 건물지	1,500	2,500,000,000	486, 498-4 · 5 · 7 · 8, 499-1 · 2 · 3 · 4 · 10 · 12
합 계			4,200,000,000	



단계별 발굴 조사 계획도

(2) 학술 연구계획

① 추진 배경 및 목표

- 경상좌수영의 역사와 문화를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고 이를 종합하여 하나의 ‘좌수영학(左水營學)’으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경상좌수영과 관련된 각종 문헌, 자료, 유물 등에 대한 총체적인 확보와 확보 이후 꾸준한 관리가 중요하다.
- 현재 수영성 마을과 주변 지역에는 경상좌수영 관련 유·무형 문화유산이 광범위하게 존재되어 있으며, 이를 관리하고 보존하는 주체들도 다양하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적자원과 기록물들은 점차 사라져 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② 사업 내용

- 경상좌수영의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여 ‘좌수영학(左水營學)’으로 정립하기 위해 2가지 측면에서 계획한다.
- 첫째, 경상좌수영 지역의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 시스템은 바로 부산광역시 혹은 수영구 산하에 ‘경상좌수영 보존·활용 위원회(가칭)’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 위원회는 경상좌수영의 유·무형 문화유산을 수집·관리·보존, 연구,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의제를 논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실행 주체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기능을 한다.
- 둘째, 경상좌수영 지역의 문화유산을 보존, 관리, 활용하는 제반활동을 상시적으로 지원하고 유지할 수 있는 물리적 시설물의 건립이 요구된다. 전시관의 형태는 재원 확보와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도서관(library)과 기록관(archives), 박물관(museum)의 역할을 통합한 복합문화공간인 라키비움(larchiveum)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키비움 건립은 경상좌수영성내의 객사 복원 후 이 건물을 활용하거나 별도의 부지를 마련해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복합문화공간인 라키비움(larchiveum) 건립 이전에 수집된 경상좌수영 관련 유·무형의 각종 문헌, 자료, 유물에 대한 관리와 보존 업무는 부산박물관, 수영구문화원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진행하고 시설 완공 후 이관하여 전시·활용·연구 활동을 지속한다.
- 연구 활동은 문헌사, 고고학, 민속학, 건축역사학, 향토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종합적인 학술연구를 실행함으로써 경상좌수영의 역사적 가치와 성격 등을 정립해 간다. 또한 정기적으로 학술대회 및 세미나 개최, 자료집 발간 등을 통해 시민과 관련 분야 연구자들의 관심을 증진시키고, 학술적 연구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를 통해 대외적으로 홍보 효과도 거둘 수 있는데 무엇보다 관련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추진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③ 단계별 사업계획

• 1단계

- 부산광역시 혹은 수영구 산하에 ‘경상좌수영 보존·활용 위원회(가칭)’를 구성
-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사업추진 근거 마련

• 2단계

- 경상좌수영과 관련된 각종 문헌, 자료, 유물 등에 대한 수집·관리·보존
- 제반 예산은 연차적으로 집행

표23. 아카이브 구축 계획

구분		내용	소유 및 확보방안	예산 (원) [구입, 사본]	비고
민속	구술생애사	• 주요 인물 면담 • 생애사 수집	인터뷰	100,000,000	연구용역 필요
	지역사회 발간물	• 단체 발간물	기증 및 구입	10,000,000	원본, 사본
	근현대 생활물품	• 의식주, 신앙 등	기증 및 구입	100,000,000	실물, 사진
역사	고문헌	• 경상좌수영 관련 고문헌 등	기증 및 구입	30,000,000	원본, 사본
	근현대문헌	• 경상좌수영 관련 근현대문헌	기증 및 구입	20,000,000	원본, 사본
시청각	사진	• 지역사 및 문화 관련 사진	기증 및 구입	30,000,000	원본, 사본
	영상	• 지역사 및 문화 관련 영상	기증 및 구입	30,000,000	원본, 사본
기타	관공서 소장자료	• 수영문화원 • 수영구청 • 부산박물관 • 부산시청	기증 및 협의	10,000,000	원본, 사본
합 계				330,000,000	

• 3단계

- 라키비움(larchiveum) 건립 : 예산은 정비계획 참고
- 정기적인 학술대회 및 세미나 개최, 자료집 발간 등
- 경상좌수영 콘텐츠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2) 정비계획

(1) 남문(南門) 이설 및 복원

① 추진 배경 및 목표

- 현재 경상좌수영성 내에는 성벽 일부가 잔존해 있을 뿐 조선시대 경상좌도 수군 영성(營城)으로서의 위상을 인지시켜 줄 유구나 문화재적 요소가 부족하다. 성곽의 핵심시설 중 하나인 성문(城門)의 경우 당시 경상좌수영성에는 4개소가 건립되었으나, 이미 3개소는 멸실되었고 남문만 홍예석(虹蜺石) 등 육축부가 남아있다. 그 외의 성문은 발굴조사를 통해 구조와 형태, 규모를 확인해야 한다.
- 남문 홍예석은 원래 수영성 남문 자리[수영동 286-1 일원]에 있었으나, 일제강점기 때 옛 수영초등학교(현 신익아파트 자리) 정문으로 사용하기 위해 옮겨 왔다. 1962년 6월 30일 수영초등학교가 이전한 후 방치되어 있다가 1960년대 말 미군의 도움을 받아 현재의 위치인 수영사적공원 입구로 옮겨져 보존되고 있다. 따라서 남문을 원래 제자리에 이설·복원함으로써 역사성을 회복하고 경상좌수영성의 상징성과 인지도를 높인다.



일제강점기 남문 홍예석 근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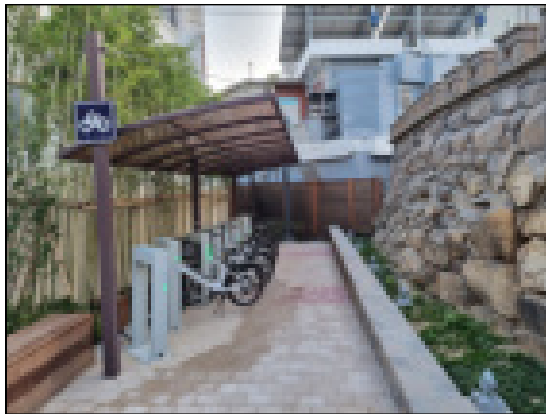
현재 남문 홍예석 근경

② 사업내용

- 기록과 현존 유구에 의하면 남문은 홍예석의 중층 문루였고 누각의 명칭은 주작루(朱雀樓)라 하였다고 전한다. 당시 누각의 규모는 6칸이었으므로 동문인 관해루(關海樓)와 마찬가지로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추정된다. 수사 양우급(梁禹及 : 1674~1675)이 동문을 비롯한 북문을 수축할 때 남문도 수축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 좌수영성의 남문 형태 및 복원 방향에 관한 연구는 지난 2011년 부산광역시 수영구청과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시행하였던 『경상좌수영성지 종합정비계획』에서 제시된 바 있다. 2011년의 복원도를 보면 홍예석 성문 위에 단층 문루를 올린 형태로 전면 웅성(甕城)은 일반적인 반원형이 아니라 사각형 웅성으로 계획했다. 또한 체성 라인이 망미번영

③ 단계별 사업계획

- 남문의 원 위치는 수영동 286-1번지 일원으로 해당 부지는 수영구에서 이미 일부 매입한 상태이며 현재는 공용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 도시재생사업 시행에 따라 남문 옹성 상부에 콘크리트조 채성과 여장이 설치되었고, 하부에는 에코쉼터가 조성되었다.
- 남문 정비의 방향은 현존 홍예석만 원래 장소(286-1번지 일원)로 이설하는 소극적인 방식과 홍예석 이설과 더불어 남문지 전반에 대한 발굴조사 후 문루 및 옹성, 일부구간 채성 복원까지 추진하는 적극적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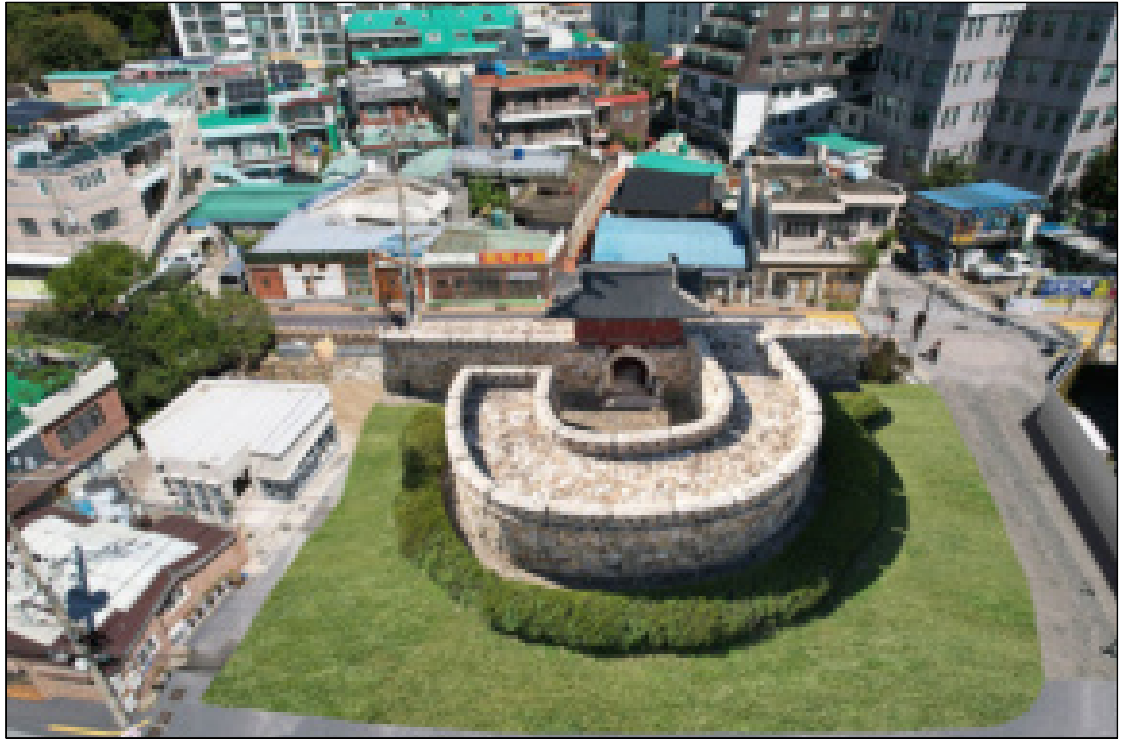
남문지 옹성과 에코쉼터



남문지 옹성 서측 골목길



남문 홍예석만 이설할 경우의 예시 이미지



남문 전체를 복원할 경우의 예시 이미지

- 본 계획에서는 홍예석 이설과 더불어 문루 및 옹성, 일부구간 체성 복원까지 진행하는 적극적 방식의 사업을 추진하되 사전에 발굴조사를 통해 남문 유구를 확인함으로써 복원의 진정성을 확보한다. 또한 사례가 비교적 많은 조선후기 성곽 건축물의 복원이라는 측면에서 건축의 세부형식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전 기 복원된 전국의 사례를 검토하고 충분한 전문가 고증과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 성문 복원에 따라 체성 라인인 망미변영로70번길의 일부구간이 단절됨으로 교통 흐름을 위해 지난 2011년의 『경상좌수영성지 종합정비계획』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284-1번지 등의 부지를 매입하여 우회도로를 조성한다. 전면 옹성의 구조와 형태는 발굴결과에 따르며, 옹성 외측에 여유 공지를 확보하여 주위 골목길에서 가시권이 확보되도록 한다.

표24. 남문지 이설 및 복원 계획

단계	대상지	규모 (㎡)	금액 (원)	비고
1단계	복원부지 추가 매입	181	1,200,000,000	성문 : 수영동 314-2, 315-1
		311	1,500,000,000	우회도로 : 수영동 284-3, 286
2단계	발굴조사	1,100	(540,000,000)	
3단계	성문 복원공사		4,000,000,000	
합 계			6,700,000,000	

(2) 성벽 수리 및 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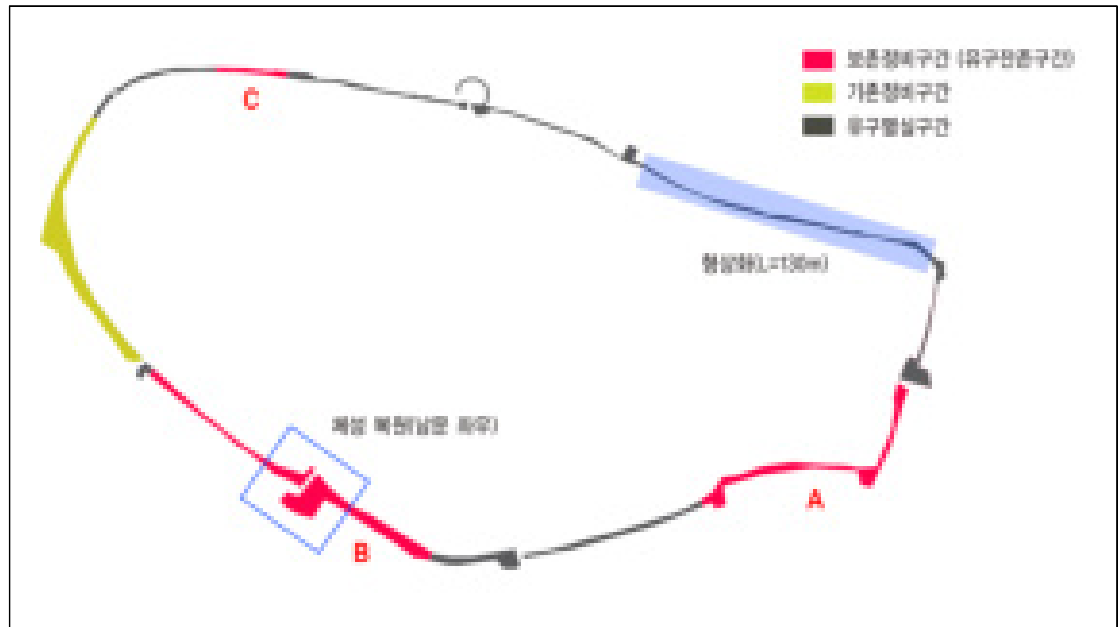
① 추진 배경 및 목표

- 성곽의 핵심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 성벽의 잔존상태는 경상좌수영성이 폐성(廢城)된 후 오랜 세월이 흘러 남동측 일부 구간을 제외하면 대부분 훼손되었다. 남문지~서문지 구간 중 남쪽 체성은 발굴조사 후 2001년부터 2차례에 걸쳐 성벽을 정비하였다. 정비공사는 축성 당시의 성벽 높이를 고증하여 복원 개념으로 시행한 것이 아니라 주변 보수 차원에서 남아있는 최고 성벽 높이(약 2m)에 맞추어 탈락된 주변 성돌을 주위 올리거나 신재(新材)를 일부 사용하여 틈을 메우고 높이를 맞추는 범위에서 진행하였다.
- 남동측과 동측 성벽에서도 간헐적으로 1~2단 정도의 성돌이 확인되며, 대부분 독의 형태로 남아 있다. 일부 성벽은 배부름이나 성돌 이탈 등으로 붕괴 위험이 높으며 잔존 성벽이 대부분 주택 내부에 위치해 있어 성돌 탈락시 거주자에게 위해(危害)를 가할 수 있으므로 해체·수리가 필요하다. 남아 있는 체성(體城) 중 붕괴 우려가 높은 부분을 우선 수리하여 성벽의 추가 훼손이나 붕괴를 방지하고 원형을 보존한다. 더불어 성돌 탈락에 따른 안전사고의 위험을 미연에 제거한다.
- 하지만 훼손된 성벽을 모두 해체 및 수리, 복원한다면 신재(新材)의 다량 사용과 축성법의 차이 등으로 인해 경상좌수영성의 본 모습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에 전체적인 유구 복원보다는 비교적 잘 남아있는 잔존구간을 보존하여 더 이상의 훼손을 방지하고, 발굴조사 결과를 근거로 필요 부분만의 성벽 복원, 성벽 멸실 구간의 형상화를 통하여 경상좌수영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유구를 잘 보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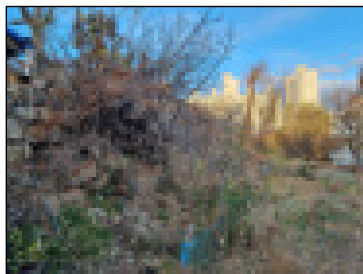
② 사업 내용

- 성벽의 정비는 이미 훼손되고 멸실된 곳이어서 성돌의 확인이 불가능한 추정 구간을 제외하고 유구의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잔존 성벽의 안정적 현상 유지를 위한 보존 구간, 유적의 원형 회복을 위한 복원 구간, 형상화 구간 등 크게 3개 부분으로 구분하여 정비를 실시한다.
- 먼저 성벽 유구가 어느 정도 잔존하는 지점을 대상으로 한 현상(現狀)조사 결과, 3개소에 서 해체·수리를 통한 보존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A구역은 성곽의 남동 모서리 구역으로 보존 상태가 가장 좋은 편이며, B구역은 남문지 좌우 구역이다. C구역은 서문지 동편으로 주택 내에서 축대로 사용되는 성돌이 부분적으로 확인된다. 이처럼 3구역의 체성 보존 상태는 다소 차이가 있다.
- 원형 회복을 위한 복원 구간은 남문 복원사업에 따라 진행되는 지점으로 복원되는 성문 육축부의 좌우 일부 공간이다.
- 형상화 구간은 이미 지상에서는 성벽 유구가 멸실되어 확인이 불가능하고 추후 발굴조사를 통해서만 존재 유무를 파악할 수 있는 곳으로, 과거 성벽의 평면 및 입면 형태를 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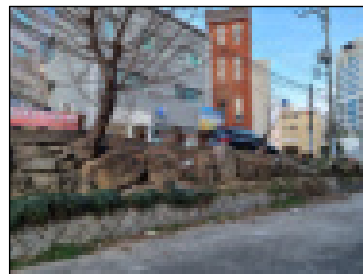
닥과 옹벽, 담장 등에 표현하여 탐방객들에게 경상좌수영성의 규모 및 영역을 인지할 수 있게 한다.



경상좌수영성의 성벽 수리 및 정비구간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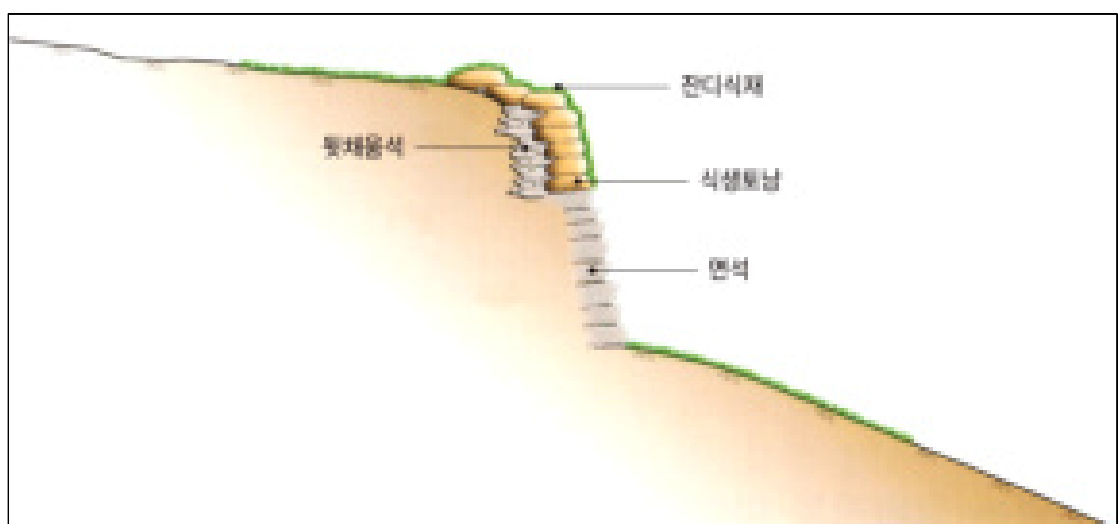
A구간 체성 현황



B구간 체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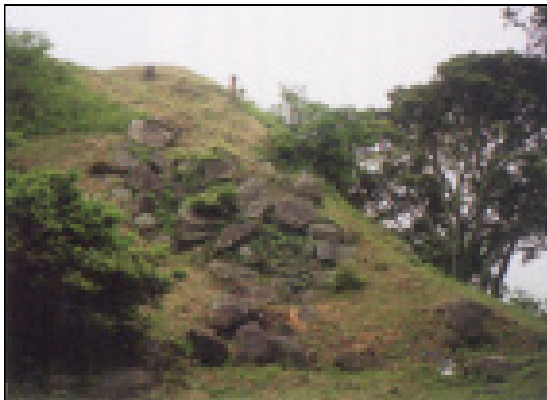


C구간 체성 현황



체성 잔존구간 보존정비 단면 모식도

- 성벽 정비시 축성당시 원형 복원에 목표를 두고 진행할 경우 새로운 성돌의 대거 유입, 축조기법의 차이 등으로 유적의 진정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원본(Original)의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와 폐허 그 자체를 그대로 보존관리하는 ‘폐허의 미학’ 개념에 바탕을 두고 정비해 나간다. 따라서 최소한의 해체·수리를 통해 원위치를 벗어난 부재를 재조립하거나 일부 성돌이 탈락하여 붕괴위험이 있는 성벽에 대해 부분적인 보강을 실시한다.
- 임진왜란 당시 왜군의 출진 기지로 일본 자국 내에서 모범적인 정비사례로 꼽히는 히젠 나고야성(肥前 名護屋城)의 경우 잔존 성벽의 붕괴가 진행되어 해체수리를 실시하였으나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각각 다른 정비개념과 방법을 적용하였다. 본환이나 이지환 등의 성곽 중심부분은 인위적인 파괴의 흔적이 남아 있어 붕괴 부분을 그대로 재현하는 ‘현상 유지적 수리’를 기본방침으로 삼았다. 이 장소는 기존 성벽의 안정 확보를 위해 중앙의 붕괴 부분에도 성벽을 쌓고 그 전면에 성토를 함으로써 수리전의 붕괴상황으로 복원하였다. 그러나 성의 하부 민가에 위치한 야마자토마루(山里丸)를 중심으로 한 일대는 축성 당시의 모습에 가까운 ‘복원적 수리’를 시행하였다.



붕괴가 진행되고 있는 수리 전 성벽 모습
(『佐賀縣立名護屋城博物館 總合案内』72쪽에서 轉載)



붕괴 상황을 재현한 수리후 성벽 모습
(『佐賀縣立名護屋城博物館 總合案内』72쪽에서 轉載)



붕괴 상황을 재현하는 수리공사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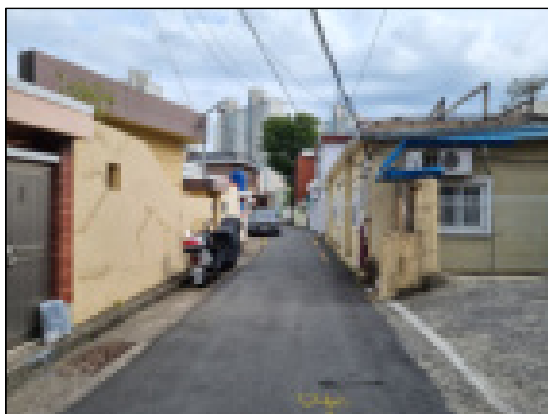


붕괴 상황을 재현한 수리공사후 성벽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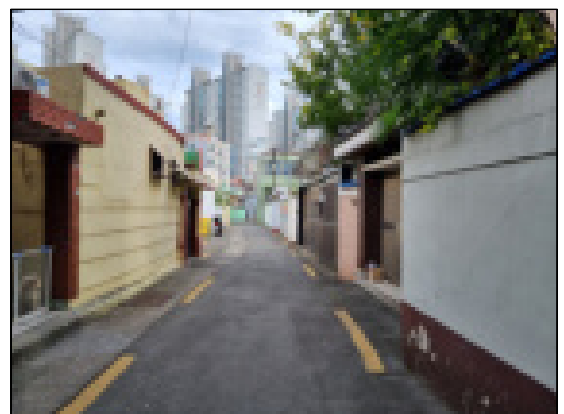
- 전술한 바와 같이 동측과 남동측 성벽에서도 간헐적으로 1~2단 정도의 성돌이 독의 형태로 남아있는데 일부 성벽은 배부름이나 성돌 이탈 등으로 붕괴 위험이 높다. 또한 잔존 성벽이 대부분 현재 사람이 살고 있는 주택 내부에 위치하여 성돌 탈락시 거주자에게 위험을 줄 수 있으므로 해체·수리가 필요하다.
- 해체·수리공사는 먼저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축조방법, 단면 구조 등 유구의 특성을 밝히고 이후의 수리·보수공사에 있어 요구되는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성벽의 수리·보수공사는 석재에 번호를 붙이고, 현황의 석축형태를 참고로 하며 과거 성돌의 쌓기 방법에 유의해 작업을 실시한다.
- 석축 면석이 탈락된 부분이나 탈락될 우려가 있는 부분에도 식생 토낭 등으로 보강하여 더 이상의 탈락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식생 토낭 등의 유적 보존 방법은 유구 뿐 아니라 주변의 사면(斜面) 침식 보호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③ 단계별 사업계획

- 성벽의 해체·수리 공사는 일시에 하기 보다는 시급성, 중요도, 예산확보에 따라 순위를 정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한다.
- 성벽 수리 및 정비공사의 일반적인 절차와 예상되는 소요기간 및 예산은 아래 표와 같다. 소요기간 및 예산은 성벽 정비공사 전체를 산정한 것이며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성벽이 멸실된 구간, 혹은 주변 여건에 의하여 단기 내 복원이 불가능한 지역에는 성벽의 평면 및 입면 형태를 바닥과 옹벽, 주택 담장 등에 표현하여 탐방객들이 과거 좌수영성 성벽의 범위와 규모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체성라인의 골목길[구락로25번가길] 현황



체성라인의 골목길[구락로25번가길] 현황

- 형상화의 위치는 성벽의 추정 구간을 따라 표시하고 기존 좌수영성 발굴유구의 평면 형태를 참고하여 바닥 도색 및 반입체 부조 형식으로 시공하도록 한다. 특히 골목길 진입

부의 성벽 형상화는 탐방객들이 지금까지 모르고 지나쳤던 경상좌수영성에 대해 인지할 수 있게 하며, 잔존구간과 연결하여 성곽의 영역을 이해하고 흥미도 증대시킬 수 있어 홍보적으로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체성라인의 골목길 형상화 예시 이미지

표25. 성벽 수리 및 정비 계획

구분		대상지	규모 (㎡)	금액 (원)	해당 지번 (수영방)
보존 정비	1단계	A구간 (남동구간)	160	1,200,000,000	1-4, 98-5, 4, 4-4, 5, 5-2, 6, 507-9 · 11 · 14 · 17 · 18
	2단계	B구간 (남서구간)	220	500,000,000	295-1, 297
	3단계	C구간 (북서구간)	50	100,000,000	376-2, 376-3, 376-4
체성 복원		남문지	20	남문복원공사	286-1 일원
형상화		북동쪽 골목길	130	200,000,000	구락로25번가길
합 계				2,000,000,000	

㉓ 선소(船所) 정비

① 추진 배경 및 목표

- 현재 경상좌수영성 내에는 성벽 일부가 잔존해 있을 뿐 탐방객에게 수군성으로서의 특징을 인지시켜 줄 시각적 볼거리나 흥미유발 요소가 부족하다. 성곽의 핵심시설 중 하나인 선소(船所)의 경우 경상좌수영성에서는 지형과 형태로 볼 때 동문지 밖으로 추정되며 향후 발굴조사를 통해 정확한 위치와 구조, 규모를 확인해야 한다.
- 이에 탐방객에게 최소한의 볼거리 제공과 향후 뱃길 탐방의 출발지 정비라는 측면에서 선소의 정비·복원을 추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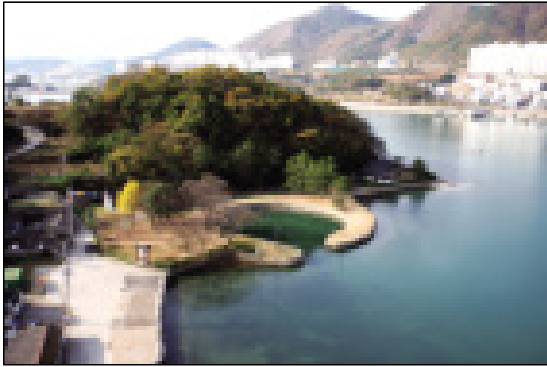
좌수영성지와 선소의 위치

② 사업 내용

- 선소로 추정되는 위치는 동문지 밖 수영구 수영동 499-10번지[현 미광운수]와 수영동 498-7번지[현 영남택시] 일원으로 좌수영성지 내부에서 수영강으로 연결되는 장소에 위치하고 있다. 선소의 정확한 규모는 아직 발굴 조사가 실시되지 않아 알 수 없다.
- 선입지의 형식은 고지도와 문헌자료에 따르면 수사(水使) 선소와 우후(虞候) 선소가 분리된 연접식 구조였다고 판단된다. 향후 도시개발사업 추진시 해당 사업내용에 포함하여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적정 규모의 ‘선소유적공원’ 등으로 정비한 후 수영강을 이용한 뱃길 탐방의 출발지로 활용한다.

③ 단계별 사업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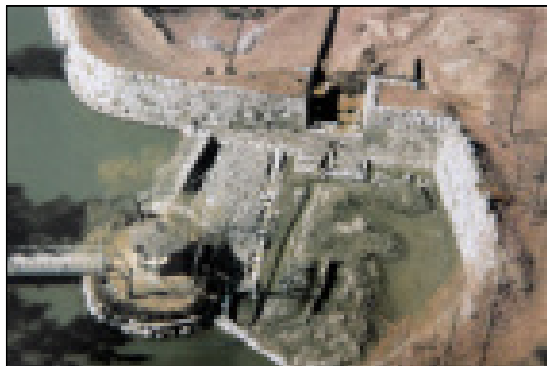
- 사례가 많지 않은 조선 후기 수군의 선입지 복원이라는 측면에서 선창의 세부형식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전 충분한 고증과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 이후 선소 정비·복원사업이 최종 결정되면 발굴조사를 통해 유구의 전체 범위와 구조, 축조방식을 확인하고 당시 선소에 건립되었던 관련 건물지 정비와 연계하여 실시한다.



여수 선소(船所)의 정비사례



여수 선소(船所)의 정비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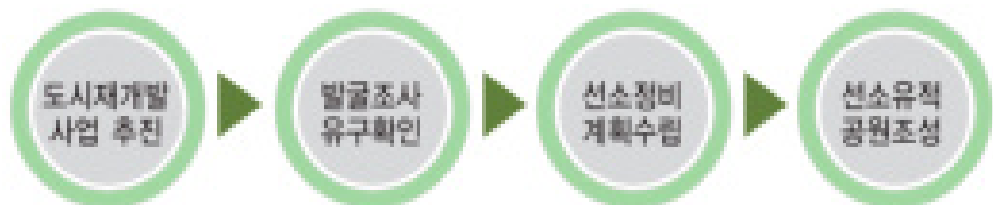


일본 아코성(赤穂城)의 선입지 정비사례



일본 아코성(赤穂城)의 선입지 정비사례

- 경상좌수영성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선소의 복원·정비사업은 그 대상 부지가 매우 넓고 소요 사업비도 막대하여 대상지 전체를 매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먼저 발굴조사를 통해 유구의 잔존 유무를 확인하여야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이처럼 사업의 중요도에 비해 불확실성과 가변성도 크므로 해당 부지의 도시개발사업과 연관 지어 몇 개의 단계로 나누어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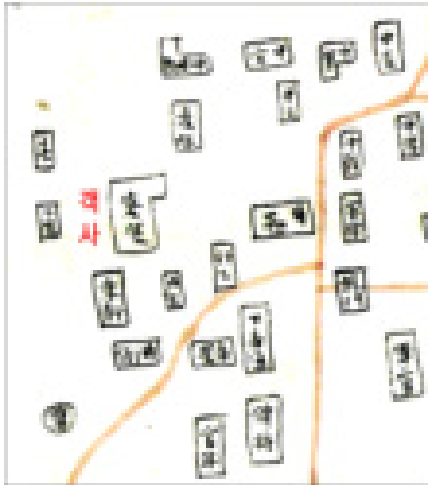


경상좌수영 선소 정비계획 추진 단계

(4) 객사 및 공해 복원

① 추진 배경 및 목표

- 현재 경상좌수영성 내에는 남아있는 관아건물이 전무하지만 문헌기록과 각종 지도자료를 통해 당시의 공해(公廨) 배치나 규모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없다. 하지만 기본적인 시설은 조선후기의 타 수군 영진성(營鎭城)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 조선후기 타지역 수군 영진성의 모습은 각종 문헌기록과 옛 지도(古地圖), 일제강점기의 지형도(地形圖) 및 지적도(地籍圖) 등을 통해 파악이 가능하다. 또한 향후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구체적인 면모가 밝혀지면 그 결과에 따라 객사나 동헌, 원문루(轅門樓) 등 중요도가 큰 건물을 우선 복원한다.



「경상도좌수영관아배설조사도」



객사 전경 (Bibliothèque du Musée d'Arts Décoratifs)



객사 상세 전경 (Bibliothèque du Musée d'Arts Décoratifs)

② 사업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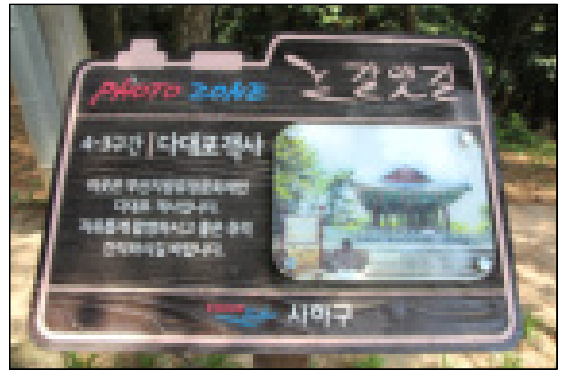
- 조선후기 경상좌도수군영이었던 경상좌수영성 내부에는 군무(軍務)를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관아시설이 있었지만 현재 남아있는 건물이 전무하여 향후 발굴조사가 시행되어야 그 실체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 기록과 근대기 촬영 사진에 의하면 경상좌수영의 객사 명칭은 망일관(望日館)이며 ‘ㄱ’자 모양의 평면 형태를 지닌 단층 와가(瓦家)였다. 근대기 사진을 분석해 보면 당시 객사의 규모는 정면 5칸, 측면 2칸으로 추정된다.
- 이에 경상좌수영 관아건물 중 가장 위계가 높고 상징성을 지닌 객사를 우선 복원하여 최소한의 관람기회를 제공하고 복원된 건물은 전시나 체험공간, 또는 교육시설로 활용한다.

③ 단계별 사업계획

-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객사 건물의 구체적인 면모가 밝혀지면 그 결과에 따라 중요도가 큰 객사를 우선 복원한다.



객사의 정비사례 : 다대포객사



객사의 정비사례 : 다대포객사

- 발굴 조사를 한바 이미 유구가 멸실되어 객사의 규모와 구조, 정확한 배치형태 규명이 어려울 경우, 근대 사진에서 보이는 ‘ㄱ’자 모양의 콘크리트조의 한옥 건물로 건축하여 전시나 체험 공간, 또는 교육시설로 활용한다.

표26. 객사 복원 계획

단계	대상지	규모 (㎡)	금액 (원)	비고
1단계	복원부지 매입	565	2,300,000,000	수영동 251-7, 251-16
2단계	발굴조사	800	(480,000,000)	독당터 발굴조사비 포함
3단계	객사 복원공사	200	1,000,000,000	추정 면적
합 계			3,300,000,000	

(5) 전시관(Larchiveum) 건립

① 추진 배경 및 목표

- 경상좌수영성은 조선 후기 최고의 경상좌도수군절도사영성이라는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에 비하여 남아 있는 성곽 유구나 관련 유적이 다소 빈약하여 교육 및 체험, 흥미유발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 따라서 조선시대 수군들의 활약상과 충의정신을 효과적으로 교육하고, 수군성의 성곽 구조 및 특성, 전선(戰船)과 무기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전시관을 건립한다. 더불어 인근 주변지역과 민속 문화, 수군들과 연관성이 깊은 소금 등의 콘텐츠를 함께 전시함으로써 경상좌수영성지의 문화재적 가치를 제고시키고 방문객에게 흥미 유발과 더불어 지적 만족감을 줌으로써 관광 역량을 강화한다.

② 사업내용

- 전술한 경상좌수영성의 객사 부지 일부를 활용하여 경상좌수영성과 주변지역의 역사성과 성곽 구조 등을 보고 배울 수 있는 전시관 기능과 방문객에게 다양한 정보 및 편의를 제공하는 방문자센터 기능을 통합한 다목적 특화시설을 건립한다.
- 전시관은 도서관(Library) + 기록관(Archives) + 박물관(Museum) 기능을 수행하는 라키비움(Larchiveum) 형식으로 건립한다. 라키비움은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의 기능을 가진 복합문화공간이라 할 수 있다. 현재 경상좌수영성지 내 마을에는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관련 문헌 및 사진 자료도 많으므로 이를 수집하여 보존하고 전시하는 작업이 시급한 실정이다.
- 객사 부지로 추정되는 위치는 수영구 수영동 251-7번지와 수영동 251-16번지 일원으로 경상좌수영성 남문 홍예석 우측이다. 객사의 정확한 규모는 아직 발굴 조사가 실시되지 않아 알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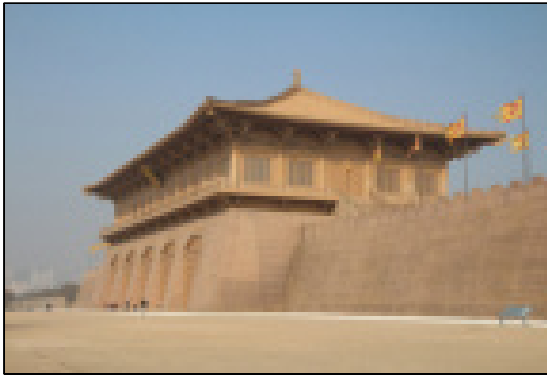
객사[전시관] 위치



객사[전시관] 부지 전경

③ 단계별 사업계획

- 유구가 멸실 되었을 경우 전시 공간 일부를 지하화함으로써 가급적 지면에서 건물이 두드러지지 않는 형태로 건립하여 토지이용률 및 공간 활용도를 높인다.
- 부득이 건물이 평지에 건축될 경우 건물은 가급적 자연적인 재료를 사용하여 친환경적이고 역사적인 경관이 연출되도록 한다.



전시관 외형을 해당 건물형태로 건축한 사례



친환경적인 목조 건물 예시 이미지



전시관 계획안 : 배치도



전시관 계획안 : 1층 평면도



전시관 계획안 : 2층 평면도



전시관 계획안 : 지하층 평면도

표27. 전시관(Larchivum) 건립 계획

구분	내용		
대지면적	565.00 m ² (251-16번지 301.00m ²) (251-7번지 264.00m ²)	건축면적	314.76 m ²
		건축연면적	944.28 m ²
		건물높이	9.80 M
건 폐 율	55.71% (법적건폐율 60%)	용적률	167.12% (법적용적률 180%)
건축계획	층별 구분	용도	면적
	지하층	수장고	81.18 m ²
			기계실
			학예연구실
			도서실
			화장실
			공용공간 (통로,계단실)
			소계
	1층	수군체험실	122.76 m ²
			판매시설
			사무실
			안내데스크
			방풍실
			화장실
			공용공간 (로비,계단,복도)
			소계
	2층	좌수영역사전시실	122.76 m ²
			향토사료전시실
			휴게공간
			화장실
			공용공간 (통로,계단실)
			소계
소요경비	공시지가	251-16번지 1,679,000원/m ² (2022년 1월 기준) 251-7번지 890,400원/m ² (2022년 1월 기준)	
	토지구입비 (공시지가 3배 적용)	301m ² × 1,679,000원/m ² × 3 = 1,516,137,000원 264m ² × 890,400원/m ² × 3 = 705,196,800원 계 2,221,333,800원	
	건축비 (설계비, 감리비 포함)	994.28m ² × 4,000,000원/m ² = 3,977,120,000원	
	인테리어 및 전시	994.28m ² × 2,000,000원/m ² = 1,988,560,000원	
	소프트 프로그램	100,000,000원	
	총사업비	8,287,013,800원	

3) 활용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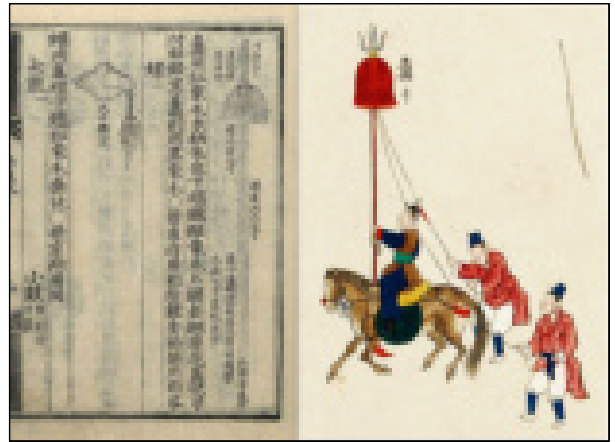
(1) 독제(蠶祭) 재현

① 추진 배경 및 목표

- 좌수영성에는 군신(軍神)을 모시는 제당과 깃발이 있는데, 이를 각각 독당(蠶堂)과 독기(蠶旗)라 부르며 매년 두 차례 독제를 지내왔다. 즉 독제는 수영성의 정체성을 가장 잘 함축하고 있는 의례라 할 수 있다. 전국의 독제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사라졌다. 다만, 경상좌수영에는 독특하게도 독당과 독기가 남아 있으며 당산제의 형태로 전승되고 있다.
- 전술한 바와 같이 수영산신당과 함께 있는 독당(독신묘)의 위치는 원 위치가 아니며, 독기도 변형된 것이다. 이에 독당의 원래 자리를 찾고 독기의 복원을 추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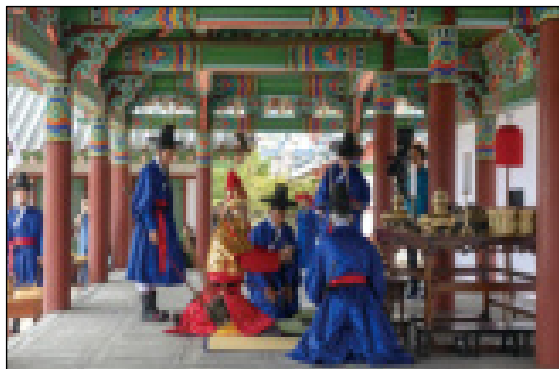
현재 독당에 모신 독기



『악학궤범』과 반차도에 수록된 독기

② 사업 내용

- 역사적 맥락에서 군사적인 성곽으로서 경상좌수영의 정체성을 고려한다면, 독당의 원 위치를 표시하거나 그 자리에 새로이 독당을 건립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독당 내에 모실 독기도 고증을 바탕으로 복원한다. 독당 건립시 전술한 영해의 독당도 참고한다.



2019년 통제영의 독제 재현 모습



2019년 통제영의 독제 재현 모습

③ 단계별 사업계획

- 독제는 제의 절차를 기록한 홀기를 바탕으로 한 고증이 필요하다. 경남 통영과 전남 여수에서는 이미 역사적 고증을 통해 독제를 지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벤치 마킹이 가능하다. 또한 경북 영해에는 독제에 관한 홀기(笏記)가 보존되어 있어 이 홀기를 바탕으로 독제를 복원할 수 있다. 특히 경북 영해의 홀기는 경상좌수영에서 포함된 수군 진영으로서 독제를 복원하는데 적절한 사례를 제공해 줄 수 있다.

표28. 경상좌수영 독제 재현 계획

구분	사업	내용	예산(원)	사업기간
1 단계	• 독제 및 관련시설 복원 및 활용방안 연구 용역	• 독당, 독기 고증 연구 - 독당 위치(수영동 229-1) 고증 - 독기 원형 고증 및 복원 연구 • 독제 연행 절차 연구 - 독제사례 연구: 통영, 여수, 영해 - 제의 절차 및 홀기 분석	100,000,000	2023.05 ~ 2024.05
	• 독당 시발굴	• 독당 시굴	20,000,000	
		• 독당 발굴	450,000,000	
	소 계			570,000,000
2 단계	• 독당 복원	• 독당 부지 확보	시유지	2024.05 ~ 2026.05
		• 독당 설계 및 건축 - 정면 3칸 - 측면 1,5칸 - 약 5평	90,000,000	
	• 독기 복원	• 독기 제작	50,000,000	
	• 독제 준비	• 모의 독제 실시(10월: 상강)	50,000,000	2026.05 ~ 2026.10
	소 계			190,000,000
3 단계	• 독제 실시	• 독제 재현(3월: 입춘)	200,000,000	2026.10 ~ 2027.03
	소 계		200,000,000	
합 계			960,0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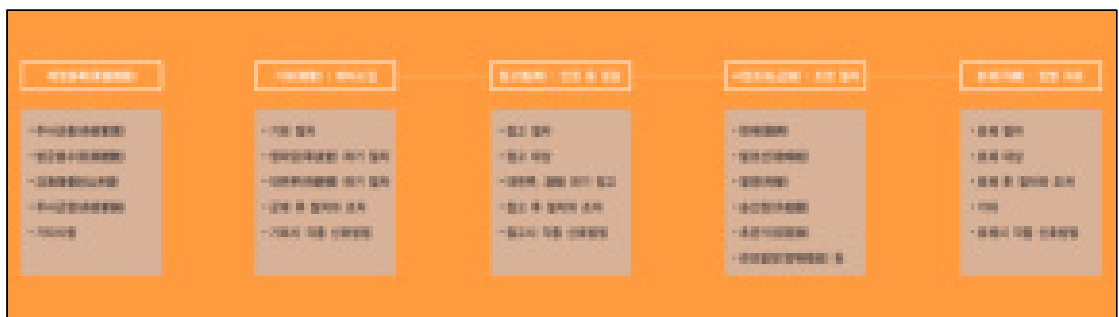
(2) 수조(水操) 제형 및 뱃길 투어 프로그램 개발

① 추진 배경 및 목표

- 경상좌수영성지는 조선후기 수군의 영성(營城)으로 축성되었기 때문에 수조(水操)시 많은 전선(戰船)의 왕래와 정박이 가능한 수영강변에 입지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수영강이라는 우수한 자연자산과 연계할 수 있는 뱃길 투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경상좌수영성의 문화재적 가치를 제고시키고 방문객에게 새로운 경험과 즐거움을 줌으로써 관광역량을 강화한다.

② 사업 내용

- 경상좌수영성의 동쪽 수영강변에 선착장을 설치하고 유람용 소형 목선을 운행하여 광안리를 한 바퀴 돌아오는 뱃길 투어 코스를 개발한다. 더불어 수영강 주변에 축적된 많은 이야기와 역사를 스토리텔링으로 개발하여 관광객에게 들려줌으로써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흥미로운 뱃길 투어가 되도록 한다.



「수조(水操)」에 의한 수조의 절차와 내용



수조 행사시의 동선계획(안)



수조 행사시의 주요 이벤트

③ 단계별 사업계획

- 현재 수영강은 유람용 선박을 운행할 수 있는 충분한 수심 확보가 되므로 부산광역시와 협의하여 사업을 계획하며 조선시대 수군의 전투력 향상과 유사시의 대비를 위해 해상에서 실시되었던 경상좌수영의 수조(水操) 재현 행사를 추진한다.
- 특히 본 사업은 부산광역시가 추진 중인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시 부산의 역사적 정체성과 해양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주요 문화 프로그램의 하나로 적극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 따라서 수조(水操) 재현 행사와 뱃길 투어 프로그램 개발 사업은 관이 주도하기보다는 민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창의성과 자발성을 제고한다.

표29. 수조(水操) 재현 및 뱃길 투어 프로그램 개발 계획

단계	기간	내용	금액 (원)	비고
1단계	2023 ~ 2024	프로그램 개발	100,000,000	문화관광부 지원사업 신청
2단계	2025 ~ 2027	예비 행사 진행	600,000,000	
3단계	2028 ~	민간사업자 공모 및 사업 시행		
합 계			700,000,000	

(3) 탐방로 조성

① 추진 배경 및 목표

- 경상좌수영성에는 방문객을 위한 특화된 탐방로가 없으므로 성곽 둘레길 형태로 조성하여 사철 주야 관광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탐방로는 좌수영성지뿐만 아니라 고읍성, 수영강변, 선소지 등 다양한 역사적 장소를 연결하는 주변 탐방로와 전술한 수영야류의 연행과 관련 있는 각 문화유산을 연결하는 ‘수영야류의 길’로 나누어 조성하여 수영구의 핵심적인 문화콘텐츠로 육성한다.
- 이들 탐방로는 기존의 길을 최대한 활용하며 주요지점에는 탐방객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해 안내판과 이정표를 설치하고 포켓 공원과 같은 소규모 휴식공간도 도입한다.

② 사업 내용

- 경상좌수영성지 주변뿐만 아니라 수영강 일대에 남아있는 유적을 연결하는 탐방로를 개설하고 이 길에 스며있는 많은 이야기를 발굴함으로써 탐방객이나 시민들이 걸으면서 부산과 수영구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역사 가도(街道)로 조성한다.
- ‘수영야류의 길’은 길놀이 고층에 따라 먼물샘에서 시작하여 수영산신당과 푸조와 곶술, 무민사를 지나 시장 공터(현 수영팔도시장)으로 이어지는 루트이다. 이 길은 경상좌수영의 대표적 문화유산인 수영야류 길놀이를 축제화하는 것으로 길놀이 행렬이 지나는 곳에 있는 당산과 문화유산들을 함께 정비한다. 수영야류 길놀이는 야간 등 행렬이 장관을 이루기 때문에 부산의 대표적인 겨울 야간 축제로 발전시켜 관광 자원화한다.
- 탐방로 내 주요지점에는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안내판과 쾌적한 휴식환경을 제공하는 휴게시설 등을 조성하여 방문객의 보행환경과 만족도를 높인다. 특히 안내판은 탐방객의 눈높이에 맞춰 가급적 디지털 기술을 도입한 전자식 안내판을 설치해 동영상 등 시각정보가 제공되도록 한다. 안내판의 배치는 역사적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설치함으로써 탐방객이 걸으면서 유적에 대한 학습과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계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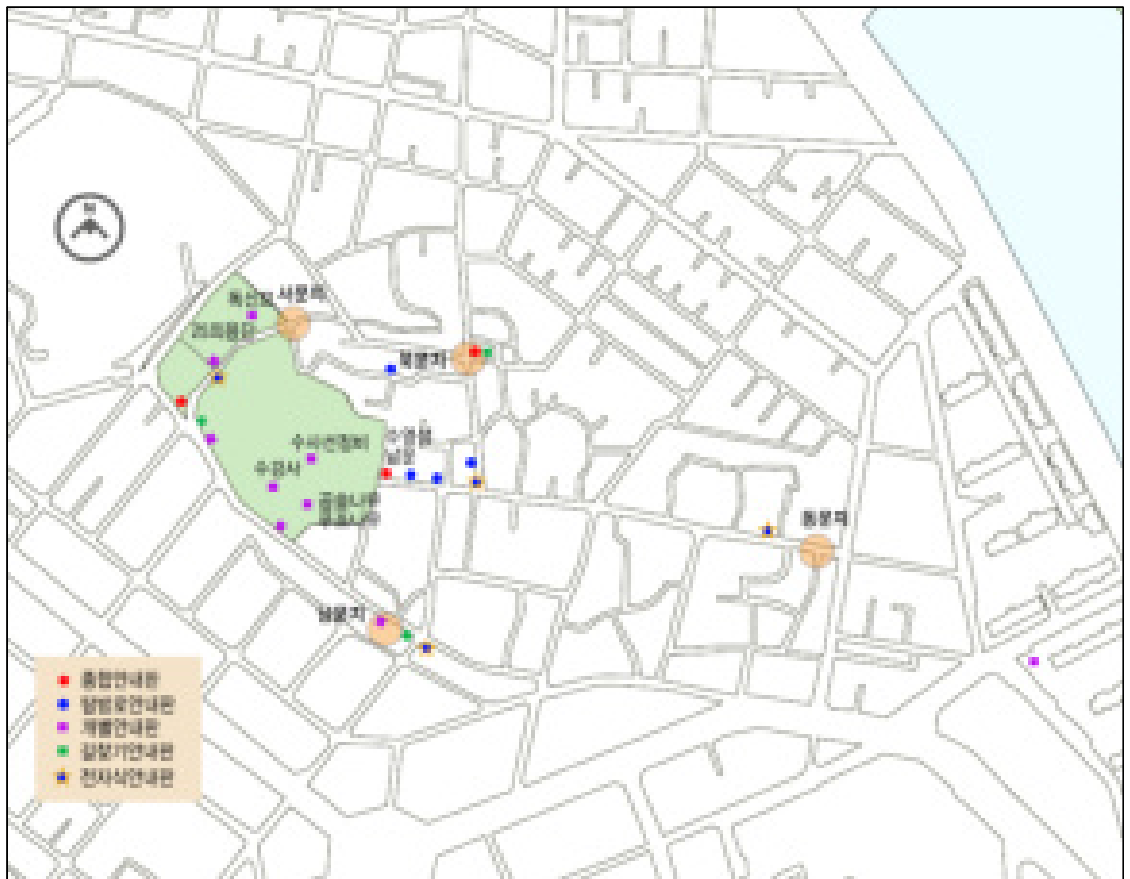
기존 설치 안내판



전자식 안내판

③ 단계별 사업계획

- 기존의 길을 최대한 활용하며 주요 지점에는 탐방객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해 전자식 안내판과 이정표를 설치하고 포켓 공원과 같은 소규모 휴식공간도 도입한다.
- 경상좌수영성지 주변 탐방로는 보행환경 개선, 주변 정비 등을 통해 항상 쾌적한 견학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특히 성내 곳곳에 남아있는 과거의 골목길을 이용하되 몇 개의 테마로 나누어 흥미와 즐거움을 더한다.



전자식 안내판 설치 위치

표30. 탐방로 조성 계획

단계	기간	내용	금액 (원)	비고
1단계	2023	탐방로 실시설계	30,000,000	
2단계	2024	안내시설 및 편의시설 정비	300,000,000	
3단계	2025 ~	스토리텔링 e-book 제작, 배부	100,000,000	전국문화원연합회 지원사업 신청
합 계			430,0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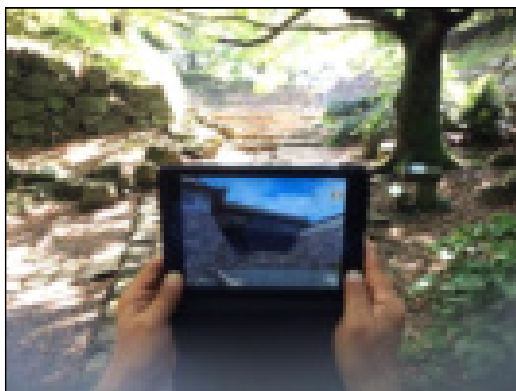
(4) 디지털콘텐츠 개발 구축

① 추진 배경 및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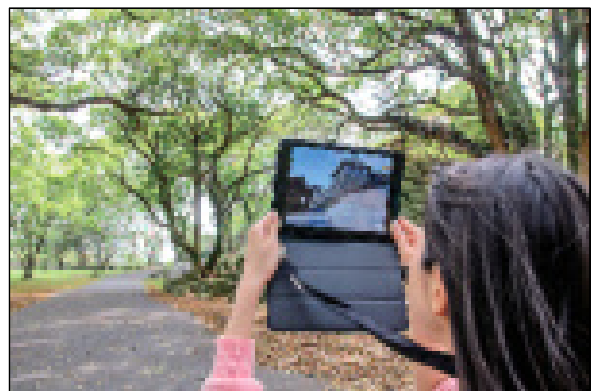
- 단순한 유적의 복원만으로는 생동감이 낮으며, 박물관 등 실내공간에서 제공하는 이미지와 모형만으로 현장감을 얻기 어렵다. 또한 충분한 발굴조사 등 기초조사[연구] 자료가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유적 복원은 진정성에 대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 이에 관람자로 하여금 긴 세월을 지나온 경상좌수영성지의 고졸한 성벽 유구와 그 주변 공간에서 느끼는 폐허의 미학을 제공하여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도록 하고, 첨단 디지털 기술인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등을 활용하여 방문객에게 흥미 유발과 더불어 지적 만족감을 제공한다.

② 사업내용

- 성곽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 중 일부만 남아 있는 경상좌수영성지의 현재 모습만으로는 운영당시 수군성의 원형, 기능, 경관, 수군의 생활상을 유추하기 어렵다. 따라서 최근 문화재 분야에서 도입되기 시작한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과 같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복원사업시 소요되는 예산과 시간을 절감하고 진정성 논란을 미연에 방지하며, 보다 생동감이 넘치는 견학 및 교육환경을 창출한다.
-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은 줄여서 ‘AR’ 이라고 하며, 현실의 이미지나 배경에 3차원 가상 이미지를 겹쳐서 하나의 영상으로 보여주는 기술로 현실과 가상이 혼합된 기술이라고 하여 혼합현실(Mixed Reality, MR)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경상좌수영성에 대한 콘텐츠를 개발한다.
- 경상좌수영성을 대상으로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콘텐츠를 개발할 때 수군제도와 수군성의 구조, 운영방법 등에 대한 제반요소는 전문가의 충분한 자문과 고증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역사적 사실이 충실하게 재현되도록 한다.



AR 개발 및 운영 사례



AR 개발 및 운영 사례

- 또한 경상좌수영성과 수군 역사를 테마로 한 웹툰(Webtoon)을 제작하여 국내의 각종 플랫폼 매체에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관심을 확장시키고 동시에 언제 어디서나 접속할 수 있는 메타버스(Metaverse)에서 유적 홍보가 이루어지게 한다. 디지털콘텐츠의 내용은 전문가의 충분한 자문과 고증을 거치도록 하여 역사적 사실이 충실하게 재현되도록 한다.



웹툰 개발 사례



웹툰 개발 사례

③ 단계별 사업계획

- 먼저 경상좌수영성의 다양한 역사문화적 콘텐츠 중 핵심테마를 선정하고 AR 및 VR를 제작한 후 라키비움(Larchiveum) 건립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운영·확대해 나간다.

표31. 디지털콘텐츠 개발 계획

단계	기간	내용	금액 (원)	비고
1단계	2023	디지털콘텐츠 개발계획 수립	100,000,000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 신청
2단계	2024 ~ 2026	경상좌수영성 VR, AR 제작	1,500,000,000	
3단계	2027 ~	경상좌수영성 VR, AR 운영	200,000,000	전시관 건립 후 연계 운영
합 계			1,800,000,000	

⑤ 교육프로그램 개발

① 추진 배경 및 목표

- 매년 문화재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정문화재를 대상으로 문화재 활용 및 교육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문화재 활용사업 중 생생문화재 사업은 문화재와 연관된 유적·유물이나 이야기 등 내재적 가치를 융·복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역사 문화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즉 문화재의 특색을 살려 숙박형, 유입형, 연계형으로 구성된 특화된 프로그램 및 연중 지속적으로 문화재를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고 수요도가 높은 사업을 선정하여 지역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향토문화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지역 문화유산 교육사업은 지역의 특색있는 문화유산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정체성 강화 및 국민의 창의·인성 함양, 문화유산 애호의식 제고를 위해 실시한다. 지원사업의 유형은 문화유산 방문학교(학교연계교육), 문화유산체험교실(문화재유형별 체험교육), 테마문화재학당(주제중심 교육프로그램) 등이다.
- 2022년 문화재청의 지원으로 부산광역시와 각 구청에서는 문화재 활용 및 교육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수영구에서는 ‘수영성 이야기’라는 테마로 수영야류, 좌수영어방놀이, 수영농청놀이, 수영지신밟기 등 무형문화재를 대상으로 자라나는 세대에게 우리의 역사를 알게 하고 우수한 전통 민속 예술을 보고 듣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문화재 체험교실과 모든 세대가 같이 어우러져서 즐기는 전통 민속예술 콘서트를 운영하였다.

표32. 2022년도 부산시의 문화재청 지원 문화재 활용 및 교육사업 일람¹⁶³⁾

구분		자치단체	사업명	비고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생생 문화재	서구	부산 임시수도 정부청사에서 보낸데이(day)~!	
		동구	문화, 공감의 문을 열다	
		금정구	Exciting! 역사여행 「금정산성 수호대」	
		수영구	수영성 이야기-수영에 뜬 불멸의 별	
		기장군	기장 문화재 스토리텔링	
	문화재 야행	부산광역시	부산 + 2022 피란수도 부산 문화재 야행 (부산, 희망을 꽃피우다!)	부산 전역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	문화유산 방문학교	기장군	‘길상 할머니·할아버지’가 들려주는 기장 문화유산 이야기	
	문화유산 체험교실	연제구	부산의 불을 밝히다	
	테마문화재 학당	금정구	K-story(고전), 금정으로 떠나는 삼국유사 여행	

163) 『2022년 지역문화재활용사업 406선, 문화유산 유유자적』, 『2022 지역 문화유산교육프로그램』, 문화재청

수영성 이야기 - 수영에 뜬 불멸의 별

자라나는 세대에게 우리의 역사를 알게 하고 우수한 전통 민속예술을 보고 듣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문화재 체험교실 / 모든 세대가 같이 어우러져서 즐기는 전통 민속예술의 향연, 비둘기 부엌에서 문화소외계층도 함께 즐기는 전통 민속예술 콘서트

대상문화재

수영대검
(국가무형문화재)
화수염어쥬놀이
(국가무형문화재)
수영농활놀이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수영자신탈기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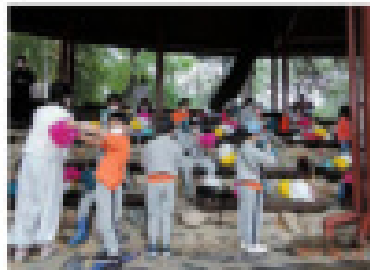
주요프로그램

도담도담 전통 민속 체험교실 2022

일시 4월 1일~10월 30일(총 4회)
장소 수영민속예술관
대상 유치원생, 초등학생
내용 생생한 전통 민속 공연 관람 / 역사
탐방으로 배우는 우리 역사 / 특별
한 전통 체험

하하하 전통 민속 콘서트

일시 6월 11일 토요일 14:00
장소 수영민속예술관
대상 일반인
내용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 민속 공연



문의

수영구청 문화관광과
051-410-4867
(사)수영구역민속예술보존협회
051-752-2947

홈페이지

www.suyeongminsok.or.kr

② 사업 내용

- 2023년도에는 경상좌수영의 역사와 문화를 보다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문화유산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문화재청의 문화재 활용 및 교육지원사업에 다양한 테마로 신청하도록 한다. 먼저 지역문화재활용사업은 수영성을 중심으로 수영사적공원과 25의용단, 팔도시장 등의 역사문화 및 사회자원을 묶어 야경(夜景)·야화(夜畵)·야로(夜路)·야설(夜設)·야사(夜史)·야식(夜食)·야화(夜宿)·야시(夜市)의 문화재야행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 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은 경상좌수영의 수군을 테마로 가족이 함께 조선시대 수군문화를 이해하고 수군의 활약상을 체험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한다. 프로그램 개발 방향은 단편적인 문화유산 해설이나 주입식 교육이 아닌 학습자 스스로 체험과 활동을 통한 교육을 구현하며, 문화유산에 대한 지식 습득을 통해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문화 창조과정에 참여하는 통합적인 교육이 되도록 한다.

표33. 2023년도 부산시의 문화재청 지원 문화재 활용 및 교육사업 신청(안)

구분	사업명	세부		비고
지역 문화재 활용사업 [문화재 야행]	수군수군! 좌수영 별빛여행	야경(夜景)	수영사적동산에 올라 별을 헤다	강의
		야화(夜畵)	고지도로 그리다, 수영바다와 선소	체험
		야로(夜路)	순라꾼! 수영의 골목을 누비다	체험
		야설(夜設)	수영야류 야간 문화공연, 국악 버스킹	체험
		야사(夜史)	후손이 들려주는 25의용 이야기	강의
		야식(夜食)	수군의 주먹밥 만들기 체험	체험
		야숙(夜宿)	수영에서의 잠 못 이루는 밤	체험
		야시(夜市)	팔팔한 팔도야시장 맛보기	체험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	좌수영에서 수군을 만나다	- 좌수군, 전선을 만들다 / - 좌수군, 백발백중 활을 쏘다 - 좌수군, 깃발을 올려 바다로 향하다		강의 체험

③ 단계별 사업계획

표34. 교육프로그램 개발 계획

단계	기간	내용	금액 (원)	대상
1단계	2023 ~ 2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재청 지원사업 신청 - 지역문화재활용사업[야행] - 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 	20,000,000	일반시민 학교연계
2단계	2025 ~ 20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재청 지원사업 시행 	100,000,000	
3단계	202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산광역시 자체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운영 	500,000,000	지자체 부담
합 계			620,000,000	

4.4 역사·문화환경 정비계획

1) 경상좌수영성지의 역사·문화환경 특성

경상좌수영성은 조선 시기 경상좌도 수군절도사영(水軍節度使營)이 있던 수군성으로, 동남해안으로 침입하는 왜구 등의 외적 침입에 대비하여 경상좌도 수군절도사가 주재하는 관아 주위에 쌓은 성이다. 1692년(숙종 18)에 경상좌수사 문희성(文希聖)이 크게 중수한 바 있고, 1872년(고종 9)에는 좌수사 유기대(柳冀大)가 수리했다. 조선 중후기 동남해안을 방어했던 수군성이라는 점에 역사적, 문화재적 가치가 크다.



경상좌수영성지 주변 환경 (위성영상도)

경상좌수영성에 딸린 선소(船所)는 동측 수영강 변에 자리 잡고 있었으나 지금은 매몰되어 현장에서 확인할 수 없다. 선소는 수군들이 전선(戰船)을 만들고 유지관리하던 주요 관방 시설이었으나 근대 이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선착장, 창고 등은 멸실, 매몰되어 고지도 등에 의하지 않고는 흔적을 확인할 수 없다. 이처럼 선소는 매립 및 멸실되어 당초 모습 및 공간적 규모, 배치형식 등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고지도, 항공사진, 지적도 등의 조사를 통해 위치와 규모를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 선소 추정지는 주변 지형의 변화, 도시 개발, 고층 아파트군 건설 등으로 변화가 심하여 발굴에 의하지 않고는 당초 모습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현존하는 경상좌수영성의 성곽은 물론 성내에 있던 관아, 성문 등도 훼손 및 파괴, 멸실되어 남문지 주변과 수영사적공원 서측 등 일부 구간에 낮은 성벽 유구가 노출되어 있을 뿐이다. 이밖에 수영사적공원 초입에 남문(南門) 육축부에 사용된 석홍예 유구가 남아있고, 남문 홍예 안쪽에는 천연기념물인 푸조나무와 곰솔나무가 자라고 있다.

수영사적공원 안에는 지붕을 덮은 민속놀이공연장 등 민속놀이 관련 시설들이 배치되어 있다. 민속놀이공연장 정면(북서측)에 단층 수영사적관, 그 좌측에 수영민속박물관이 각각 자리 잡고 있다. 이들 건물의 외관은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한옥 풍이지만 구조는 대부분 철근콘크리트조이다. 수영사적공원의 서북 측 숲속에는 부산시기념물인 『25의용단』이 도로를 가운데 두고 경상좌수영성지와 인접해있다. 『25의용단』 전면(남서측)에는 관람객을 위한 넓은 주차장이 자리 잡고 있다. 이밖에 수영사적공원 남서측 성벽에 인접하여 안용복 장군의 사당인 수강사가 위치하고 있다.



경상좌수영성지의 주변 환경 및 문화재 분포

경상좌수영에 부속된 선소(船所) 추정지는 현재 매립된 상태이고, 매립지 위에 근현대에 지은 택시회사 건물, 아파트, 도로 등이 자리 잡고 있다. 선소 범위에 속하는 수영동 498, 499번지 일대 토지는 택시회사(미광운수)에서 주차장과 사무소 등으로 이용하고 있다. 선소의 구조와 규모 등을 확인하고 정비하기 위해서는 토지 매입 및 발굴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수영강에 접한 선소 주변부에도 고층 아파트가 건축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토지의 형질과 경관이 크게 바뀌었다. 이처럼 선소 추정지의 지형과 자연환경이 크게 바뀌어 조선 후기 고지도에 보이는 선소의 모습을 현지에서 확인하기는 매우 어렵다. 하지만 경상좌수영성의 보호와 정비를 위해서는 반드시 선소 추정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처럼 경상좌수영성지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수군성의 특징을 보여주는 선소의 발굴 및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현존하는 1910년대 지적도 및 1950년대 항공사진, 각종 지형도와 사진 자료 등을 통해 선소의 규모와 위치를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장차 반드시 선소의 공간적 범위와 구조 및 관련 유구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정비함으로써 수군성인 경상좌수영성의 역사적 정체성을 되찾을 수 있다.

이제까지 경상좌수영성지는 성곽 잔존 유구, 성곽 추정지 및 성문지(城門址, 특히 남문지)를 중심으로 보존되어왔다. 이에 반해 성 내부에 있었던 각종 관아(官衙) 및 수영강에 면해 있던 선소(船所)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따라서 경상좌수영성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간 소홀하게 취급했던 선소와 수군절도사영(水軍節度使營) 등의 주요 관아 및 이를 연결하는 축선에 있는 동문지와 객사지, 선소지에 대해 주목하고, 이를 공간적으로 연계한 정비 활용방안이 수립 시행될 필요가 있다.

부산시가 경상좌수영성지의 역사·문화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고시하여 시행 중인 현상변경허용기준은 문화재의 특성과 정체성 및 지역 개발 방향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 새롭게 밝힌 수군성이 주둔했던 경상좌수영성의 문화재적 특성과 역사적 가치 및 건축 및 도시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 및 적용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2) 경상좌수영성지의 역사·문화환경 보존

(1)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공간적 범위

부산시 <문화재보호조례 제42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부산시 지정 문화재의 역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의 범위는 문화재가 위치하는 지역의 도시계획 등과 깊은 관련이 있다. 문화재가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 및 공업지역에 있는 경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문화재의 외곽경계(또는 보호구역)로부터 200m까지이다. 문화재가 녹지지역과 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경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문화재의 외곽경계(또는 보호구역)로부터 300m까지이다.(표35.)

경상좌수영성지는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지역에 위치하는 문화재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공간적 범위는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200m까지이다.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 중에서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여러 영향요인과 정도를 고려하여 1구역부터, 2구역, 3구역, 4구역 등으로 구역을 세분하고, 구역별로 적합한 건축 허용기준을 만들어 따르도록 하고 있다. 경상좌수영성지의 경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으로 세분하고, 구역별로 서로 상이한 허용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표35.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범위(부산광역시시 문화재보호조례 제42조)

제42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지정)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다음과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있는 문화재의 경우 그 문화재의 외곽경계(또는 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200미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과 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문화재의 경우 그 문화재의 외곽경계(또는 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3. 위에서 정하는 범위 밖의 지역이라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지역
 - 문화재로 지정된 지역의 수질오염을 초래하거나 수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계의 상류에서 행하여지는 건축공사 또는 제방 축조공사
 - 문화재와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하거나 고도 경관 또는 역사·문화·자연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설공사

(2) 용도지역의 분포

경상좌수영성지의 역사문화환경보존구역 내 용도지역은 주로 제1종, 제2종, 제3종 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 중 제2종 주거지역의 면적이 가장 넓으며, 보존 여건이 좋은 수영사적공원 일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제3종 주거지역도 성(城)의 남동 측 모퉁이에서 동문지 남동 측의 아파트군까지 넓은 지역에 걸쳐 지정되어 있다.

이 밖에 주거 기능을 주로 갖되 상업적 기능을 보완하는 준주거지역은 성 내부 남동측 및 남측 성벽의 외부에 위치하고 있다. 준주거지역 남측 대로변 주위 Y자 모양의 구역은 일반상업지역에 속한다. 도시 계획상 일반상업지역에서는 상업 및 업무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중고층 건물의 건축을 허용한다. 문화재 보존의 측면에서 볼 때 잔존 성벽이 선형(線形)으로 남아있는 남측 성벽의 앞쪽이 일반상업지역이라는 점은 바람직하지 않다.

경상좌수영성지의 서북 측에 위치하는 수영사적공원은 고도지구로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10m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Y자 모양 일반상업지역에서도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를 제한하고 있다. 즉 남문지 남측(앞) 준주거지역에서는 33m 이하, 전방의 일반상업지역에서는 78m 이하로 건축할 수 있다.

선소 추정지 중 수영동 499-10(대)은 용도지역상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현재 택시회사에서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조선 후기의 선소는 수영동 499-10(대)번지를 포함하여 그 외곽까지를 포함한 넓은 구역에 걸쳐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공간적 범위는 발굴해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고지도 등 여러 자료에 의해 선소(船所) 추정지로 예상되는 바 이 구역에 대해 무분별한 도시 개발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



경상좌수영성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의 용도지역 지정 현황

(3) 경상좌수영성지 내의 국공유지(國公有地)

경상좌수영성지 내부의 도로 부지는 대부분 건설부가 소유하고 있고, 반면 성 밖의 도로 부지는 대부분 부산시 소유로 되어 있다. 수영사적공원 부지는 부산시와 수영구가 소유하고 있다. 서북 측 성벽 밖에 위치하는 <25의용단>의 토지는 대부분 부산시가 소유하고 있고, 그 밖의 토지는 군(郡)유지로 되어 있다. 그리고 수영사적공원 북측에 남아있는 성터(문화재보호구역)는 기획재정부가 소유하고 있다.

최근 수영구와 부산시는 남문 복원 정비를 위해 남문지 주변 사유지를 적극 매입했으며, 매입 토지는 향후 좌수영성 남문 복원 및 정비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최근 매입한 문화재보호구역 주변 토지는 허용기준상 제1구역에 속하는 토지가 대부분이어서 부산시 문화재인 좌수영성지의 정비 복원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크게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정비계획의 원만한 실행에도 큰 도움을 준다. 아쉬운 점은 수군성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선소(船所) 및 선소와 연결되었던 동문(지)와 주변 토지의 매입에 큰 관심을 가지지 않은 데 있다. 앞으로는 선소 추정지와 동문지와 관련된 토지를 적극 매입하고, 좌수영성지의 정비 방향을 남문에서 동문과 선소로 바꾸어야 한다.

전술한 토지를 제외한 경상좌수영성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토지는 대부분 사유지로 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다. 장차 정비해야 할 성안의 관아지는 대부분 개인이 소유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관아지의 보호와 발굴조사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경상좌수영성지 내외 국공유지 현황

(4) 건축 현황

경상좌수영성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남아있는 건물은 대부분 건축한지 30여 년이 경과했다. 특히 경상좌수영성지 북측 성벽의 내외(内外) 지역에 오래된 노후 건물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 이 중 상당수의 주택은 심하게 설비와 구조체가 노후하여 시급한 수리 및 정비가 필요한 상태이다. 노후한 주택들은 현대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정도이며, 따라서 시급히 주거 개량 및 개축 등이 필요하다.

건축한지 30년을 경과하지 않은 건물은 주로 남측과 동측 성벽의 외곽에 많이 분포하며, 특히 남문지 남동쪽 일반상업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다. 특히 남측 성벽의 전방에 위치하는 5층 이상의 중고층 건물들은 외부에서 경상좌수영성지를 향한 조망을 차폐하기도 한다. 이밖에 수영강 변에 있던 선소(추정지)와 그 주변에 건립되어있는 고층 아파트군은 장차 선소를 발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정비하는데 큰 장애 요인이다. 중장기적으로 향후 아파트 재건축시 일대를 수변공원으로 묶어 선소 유적을 발굴 정비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경상좌수영성지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서 3~4층 규모의 건물은 남측 성벽과 남문지 주위 및 동측 성벽과 선소 추정지 사이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 이들 건물의 최고 높이는 대략 10~15m 정도로, 5층 이상 중고층 건물에 비해 역사 경관과 조망을 훼손 및 차폐하는 정도는 다소 낮은 편이다. 건축물의 형태와 구조가 현대적이어서 전통적인 문화유산인 성(城)과 조화를 이루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성벽이나 주요 조망 점과 50m 이상 떨어지면 역사 경관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다.

1~2층 정도의 건물은 북측 성벽의 배후 지역에 가장 많이 남아있고, 다음으로 북측 성벽

의 내측 및 남동측 잔존 성벽 주위에도 많이 남아 있다. 1~2층 정도의 건물은 대개 높이가 5~8m 정도인 주거 건축으로 문화재를 향한 조망을 차폐하거나 역사문화경관을 심하게 훼손하지 않는다. 경상좌수영성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가장 많이 분포하는 건물의 층수는 1~2층으로, 이는 성 안쪽에서 주거 건축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경상좌수영성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 현황



경상좌수영성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건물 층수

3) 현행 현상변경 허용기준 검토

현재 시행 중인 경상좌수영지 현상변경허용기준은 2016년 11월에 고시한 것이다. 현재 시행 중인 현상변경허용기준(표36.)은 경상좌수영성지의 성벽, 성문 등을 전면적으로 복원 정비하는 것을 전제로 수립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부산시는 경상좌수영성지를 기념물로 보존하면서 문화재지정구역을 따로 정하지 않고 대신 좌수영성지 자체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고시했다. 즉 좌수영성지의 체성 터와 서측 수영사적공원 후부(後部) 일대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어 경상좌수영성지를 보호하고 있다. 이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성지(城址)의 경우 체성, 해자, 성문지 등은 문화재 지정 구역에 포함시키고, 지정구역에 접한 일정한 면적의 외곽구역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일반적인 방식과 크게 다르다.

표36. 현행 경상좌수영지 현상변경허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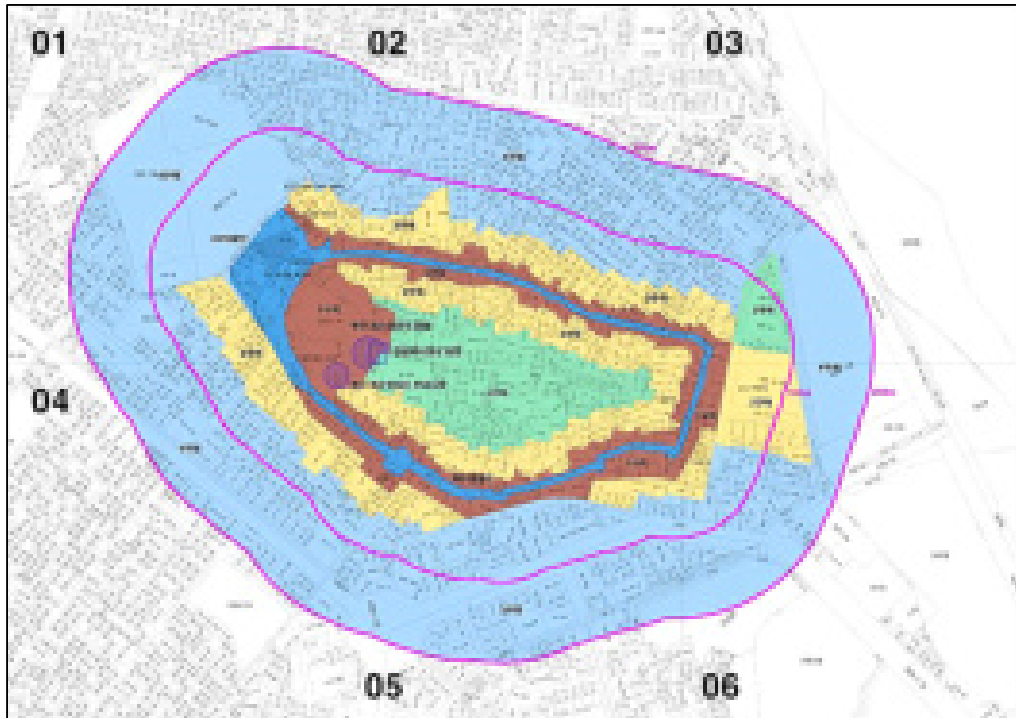
구분	허용 기준	
	평지붕	경사 지붕(2/10 이상)
1구역	개별 심의	
2구역	최고 높이 17m 이하	최고 높이 21m 이하
3, 4구역	부산시 도시계획조례 등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1, 2구역 기존 건물 범위 내 재건축 허용 1, 2, 3구역 터파기 입회 조사 후 결정	

부산시기념물인 경상좌수영성지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범위¹⁶⁴⁾는 문화재보호구역의 바깥 경계에서 그 외곽 200m까지이다. 이는 <부산시문화재보호조례> 제42조에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¹⁶⁵⁾에 있는 문화재의 경우 문화재 외곽구역 또는 문화재 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200m까지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경상좌수영성지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공간적 범위는 문화재보호구역<대개 성지(城址)와 성문지>의 외곽에서 반경 200m까지이다. 하지만 선소(船所) 추정지는 문화재보호구역에도 들어 있지 않으며, 이로 인해 수영강 변 매립지에 고층 아파트군이 건설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경상좌수영성의 역사 문화환경이 크게 훼손되었으나

164)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의 보호)에 시·도지사는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여야 한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지정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문적·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 밖에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외곽경계로부터 500m 안으로 함.(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500m를 초과하여 범위를 정할 수 있다)

165)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함

아직 기본적인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행 경상좌수영성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역도(01~06 블록 구분:필자)

문화재청에서는 경상좌수영성지와 같은 평산성(平山城)에 대해서는 5개 지표 중 장소성 · 조망성 · 마루선 · 일체성 등 4개 지표의 경관 특성을 위주로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부산의 경상좌수영성지는 원위치에 남아있는 조선 중후기 수군성으로 장소성의 가치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주변 자연환경과도 일체성을 잘 유지하고 있다.

다만 산성과 달리 도심(都心)에 위치하는 성(城)으로서 도시의 발달 및 주변 개발로 건축 밀도, 인구밀도가 높아지면서 성과 연관된 인문 및 자연환경이 바뀌긴 했으나 추후 원상회복도 가능하다. 성벽 주변의 건물 지붕이 형성하는 조화로운 스카이라인(마루선)은 특히 성의 남측과 동측의 대로변에 집중 분포하는 5층 이상의 현대식 건물로 인해 훼손된 상태이다. 하지만 대개 5층 정도의 중저층 건물이 대부분 이어서 성 내외에서의 조망을 철저하게 차단하는 정도는 아니다.

시행 중인 경상좌수영성지 현상 변경 허용기준을 살펴보면 문화재보호구역에 인접한 1~2필지 정도의 토지는 대개 1구역에 속해 있다. 1구역에 건축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영향검토를 받아야 하며, 대개 부산시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할 수 있다. 1구역 외곽 사방 30~50m까지는 2구역으로, 이 구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최고 높이는 17m(평지붕) 이하와 21m 이하(경사지붕)이다. 다만 1, 2구역에 기존 건물이 있는 경우 현재 건축면적 범

위 내 재건축은 허용한다. 2구역 외곽에서 200m까지는 3구역 또는 4구역으로, <부산시 도시계획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건축할 수 있다. 단, 1, 2, 3구역에 건축할 경우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해 반드시 터 파기시 입회 조사를 선행하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 4구역에 속한 토지에 대해서는 터 파기시 입회 조사를 강제하지 않으며, <부산시 도시계획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건축할 수 있다.

표37. 현행 경상좌수영성지 현상변경허용기준 검토

- 경상좌수영성의 성벽 유구가 지상에 노출되어 있는 남측, 서측 성벽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의 경우 성벽이 멸실된 상태이다. 성 터에 지어 놓은 민가 등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는 복원 정비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건축 제한으로 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있음.
- 경상좌수영성지의 정비 및 활용의 축선을 남문(지)을 중심으로 제시한 이전 계획은 문제가 있다. 수군성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보존 및 정비 방향이 기존 남문(지) 중심에서 선소(船所)와 동문(지)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간 소홀하게 취급되어 온 선소(지)와 동문(지) 및 주변 지역의 보존 및 정비계획이 허용 기준 조정안에 반영되어야 함.
- 선소 추정지 보호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바 개발 전에 선소의 규모와 형식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발굴조사를 실시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선소(船所) 추정지의 공간적 범위를 협소하게 설정하고 주변 지역 대부분을 4구역으로 처리한 것은 경상좌수영성지의 정체성 구현 및 향후 정비 방향과도 부합하지 않는바 선소 주변 지역의 적용구역 등급을 상향 조정하고, 공간적 범위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오늘날 각종 성(城)의 정비 및 보존은 잔존 유구를 중심으로 보존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같은 문화재 보존 경향에 맞추어 볼 때 경상좌수영성지를 전면 발굴하고, 성벽과 성문, 관아 등을 원형대로 복원 정비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과 경비가 소요될 뿐만 아니라 현실적이지도 않다. 따라서 지상에 유구(遺構)가 남아있는 구역을 중심으로 정비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건축 제한도 이러한 문화재 보존 경향을 따라 융통성 있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성내 거주환경은 건물의 노후와 설비 등의 미비로 성 밖보다 크게 불량하며, 특히 북동측 성벽 내측 구역의 주거환경은 극히 불량하여 주민들의 거주환경 개선을 현상변경허용기준 조정시 반영할 필요가 있음.
- 현행 현상변경허용기준의 제1, 2구역 면적이 과도한 측면이 있는바 성벽 등 유구 잔존 상태 및 정비, 활용 가능성 및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구역의 공간적 범위를 축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경상좌수영성지 내외에 분포하는 국공유지는 문화재 보존 및 보호에 적극 활용하고, 이를 통해 민간 사유지에 가해지는 부담과 제한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경상좌수영성지 현상변경 허용기준에는 동문지 밖에 위치하는 선소 추정지 중 일부 부토지만 2구역에 포함되어 있고, 그에 접한 일부 북측 토지는 3구역에 편입되어 있다. 2구역과 3구역 토지(선소 추정지)의 외곽은 대부분 4구역으로 부산시도시계획조례 등에 따라 건설공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4구역 중 상당한 면적이 선소로 추정되는 바 4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선소 추정지를 4구역에서 3구역으로 변경하여 관련 유구를 적극 보호할 필요가 있다.

경상좌수영성의 성내(城內) 지역의 경우 문화재보호구역에 접한 토지는 1구역이고, 그

외곽 30~50m까지는 2구역으로 되어 있다. 2구역 안쪽은 3구역으로 <부산시도시계획조례> 등에 따라 건설공사는 할 수 있으나 공사를 위해 땅을 굴착 시에는 반드시 경상좌수영 관련 유구의 확인 및 보호를 위해 참관 조사 등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야 한다.

현행 기준에서는 민속놀이마당과 수영민속예술관, 수강사(안용복 장군 사당) 등이 위치하는 수영사적공원에 속한 토지는 대부분 1구역(성 내부) 또는 문화재보호구역(성터 북서 측)에 포함시켜 경상좌수영성지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재보호구역에는 문화재 보존 관련 시설 외에 다른 시설물은 지을 수 없으며, 이는 구릉지 사면에 입지한 경상좌수영성의 역사 및 자연경관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지금의 현상변경허용기준은 장차 남문지(南門址)를 비롯 주변 성 터에 성을 쌓아 경상좌수영성을 복원하려는 계획에 맞추어 수립된 것이다. 하지만 수영강 변에 있었던 선소(船所)의 실제 규모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고, 수군이 주둔했던 경상좌수영성의 문화재적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이밖에 도심에 위치하는 경상좌수영성의 성벽과 성문의 복원이 재원 확보 및 토지 매입의 어려움 그리고 문화재 보존 정비 방향의 변화로 인해 실현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잔존 성벽을 위주로 정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이전 정비계획에 맞추어 성문지 주위와 전체 성지 주변의 건축행위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은 현실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수군성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선소 추정지의 보존 및 발굴조사가 필요하다. 구(舊) 선소의 중심부로 추정되는 터는 택시회사(미광운수)에서 사용하고 있고, 선소(船所) 동측 수영강변 매립지에는 협성르네상스 등 고층 아파트가 건설되어 있다. 이로 인해 경상좌수영성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선소와 그 주변부의 역사 경관과 공간구조는 크게 훼손되었다. 향후 경상좌수영성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선소 추정지에 대한 발굴조사와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동시에 선소 유구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건설행위 등을 적극 규제해야 하며, 이를 위해 현상변경허용기준과 적용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밖에 선소를 정비하여 역사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선소와 연결된 축선 상에 위치했던 동문지(東門址) 및 그 주변에 대한 발굴조사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동문지에 인접한 남동측 성터에는 성벽 유구가 노출되어 있으며, 동북측 성터에도 지하에 성벽 기저부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장차 동문지 주변의 역사 경관을 보호하고 동측에 위치한 선소(船所)와 연계된 경상좌수영성의 축선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현상변경허용기준의 구역도를 조정¹⁶⁶⁾할 필요가 있다.

166) 부산시기념물인 경상좌수영성지의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조정하는 절차는 별도 연구용역을 통해 조정안을 만든 후 부산시문화재위원회 기념물분과의 심의를 거쳐 부산시장이 변경안을 고시하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4)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안)

수군성(水軍城)인 경상좌수영성지는 동쪽에서 남북으로 흐르는 수영강에 면해 축조한 평산성으로, 일반적인 지방 산성이나 읍성과는 그 성격이 다른 도심 관방(關防) 문화재이다. 수군(水軍)은 본래 지상에 성을 축조하고 주둔하는 것이 아니라 전선(戰船)을 타고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여 연근해와 해안 등을 순찰하는 것이 임무인 부대이다. 그러나 진영(鎭營) 주위에 성을 축조해달라는 수군의 요구를 수용하여 조정에서 진영 주위에 성을 쌓도록 허용하면서 경상좌수영성지와 같은 수군성이 조성되게 되었다.

표38. 문화재 유형별 경관 검토기준 (문화재청, 현상변경 등 업무편람, 2018)

지 표	성(城)	궁궐	관아 격사	서원 향교	사찰	전통가옥
장소성	○	○	○	○	○	○
왜소곽	-	-	-	-(도심○)	-	○
조망성	○	○	○	○	○ (진입 조망)	- (비도심○)
마루선	-(평지성 ○)	○	○	○	-	- (비도심 ○)
일체성	○	○	○	○	○	-

경상좌수영성지는 강변에 가까운 구릉지에 위치하는 수군의 성으로 따라서 성벽의 구조와 방어력 등은 일반 산성에 비해 낮은 편이다. 그리고 읍성과 산성 등은 대개 남문(南門)을 중심으로 성내(城內) 공간 및 진입 동선이 구성되지만 경상좌수영성지와 같은 수군성의 경우 관아와 전선(戰船)을 수리하고 건조하던 선소(船所)를 연결하는 축선을 중심으로 각종 시설이 배치되는 특성을 보인다.

따라서 경상좌수영성의 경우 동서 도로를 주축으로 관아-성곽 동측의 동문-선소(船所)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독특한 공간구성을 하고 있다. 선소와 동문을 잇는 축선을 중심으로 성내 각종 관아(경상좌수사 근무 관아 등)들이 배치되어 있다. 경상좌수영성을 정비할 경우 남문보다 선소터와 동문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정비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역사 문화 환경의 보존도 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문화재청이 간행한 현상변경업무편람(2018)에는 문화재 유형별로 검토해야 할 경관 지표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성(城)의 경우 5개 경관 지표 중 장소성·조망성·마루선(평지성)·일체성을 우선 검토해야 하며(표36.), 평지성에 대해서는 마루선을 추가로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평산성(平山城)에 속하는 경상좌수영성지의 경우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시 장소성·조망성·마루선(평지성)·일체성을 검토하면 된다.

그리고 경상좌수영성의 수군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선소 추정지의 보호 및 조사가 필요하다. 구(舊) 선소(船所)의 중심부로 추정되는 터는 택시회사(미광운수)에

서 주차장과 사무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선소(船所) 동측의 강변 매립지에는 고층 아파트군이 자리 잡고 있다. 이로인해 선소 및 주변의 역사문화경관은 심하게 훼손되어 이곳에 선소(船所)가 위치했는지조차 알 수 없을 정도이다. 수영성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선소의 발굴 조사 및 정비를 고려할 때¹⁶⁷⁾ 현행 선소 추정지와 그 주변의 주변현상변경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표39. 경상좌수영성지 역사환경보존지역의 구역별 경관 평가

분류 별	위치	구역 특성	경관 지표 및 평가				
			장소성	조망성	마무선	일체성	계
01 블록	서북·서남 성벽	성벽 일부 노출	5	5	5	5	20
	수영사적공원	완충구역	5	5	5	3	18
02 블록	북서·북동 성벽	매몰, 멸실	4	3	4	4	15
	성 안 서부	관아지 분포	3	3	4	3	13
03 블록	동북 성벽	매몰, 멸실	3	4	3	4	14
	선소 추정지.1	멸실, 매몰 아파트 건립	4	3	2	3	12
04 블록	서남 성벽	노출	5	5	4	4	18
	수영사적공원	노출	5	5	4	4	18
05 블록	남문지 남중·남동 성벽	노출	5	3	3	3	14
	성 안 남부	관아지 분포	4	2	2	1	9
06 블록	동남 성벽	매몰	3	5	4	4	16
	선소 추정지.2	멸실, 매몰 아파트 건립	4	2	2	1	9

167) 현재 선소 추정지는 매몰 및 개발이 이루어진 상태이나 지표하에는 선소 관련 유구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건축(개발)행위를 하기 전에 선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르도록 하여 선소 유구의 파괴를 방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문화재청에서는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향후 개발 가능성이 큰 경우 조망 구간은 건축행위 허용 최소화, 건축 제한, 절대 높이 등을 설정하도록 하고, 개발이 이루어진 경우는 필요시 양각(仰角)을 적용하여 건축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문화재청, 2018, 현상변경 등 업무편람)

현존하는 경상좌수영성지의 역사문화경관을 경관 지표에 따라 검토한 결과는 위 표39와 같다. 잔존 성벽이 지상에 노출되어있는 남벽과 북벽 주변이 위 경관 지표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대로가 통과하는 남벽의 남동측과 남벽과 동벽이 만나는 동남측 성벽 주위에는 5층 이상의 중대형 건물의 밀도가 높아 이것이 조망성과 마루선을 훼손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40. 경관 지표별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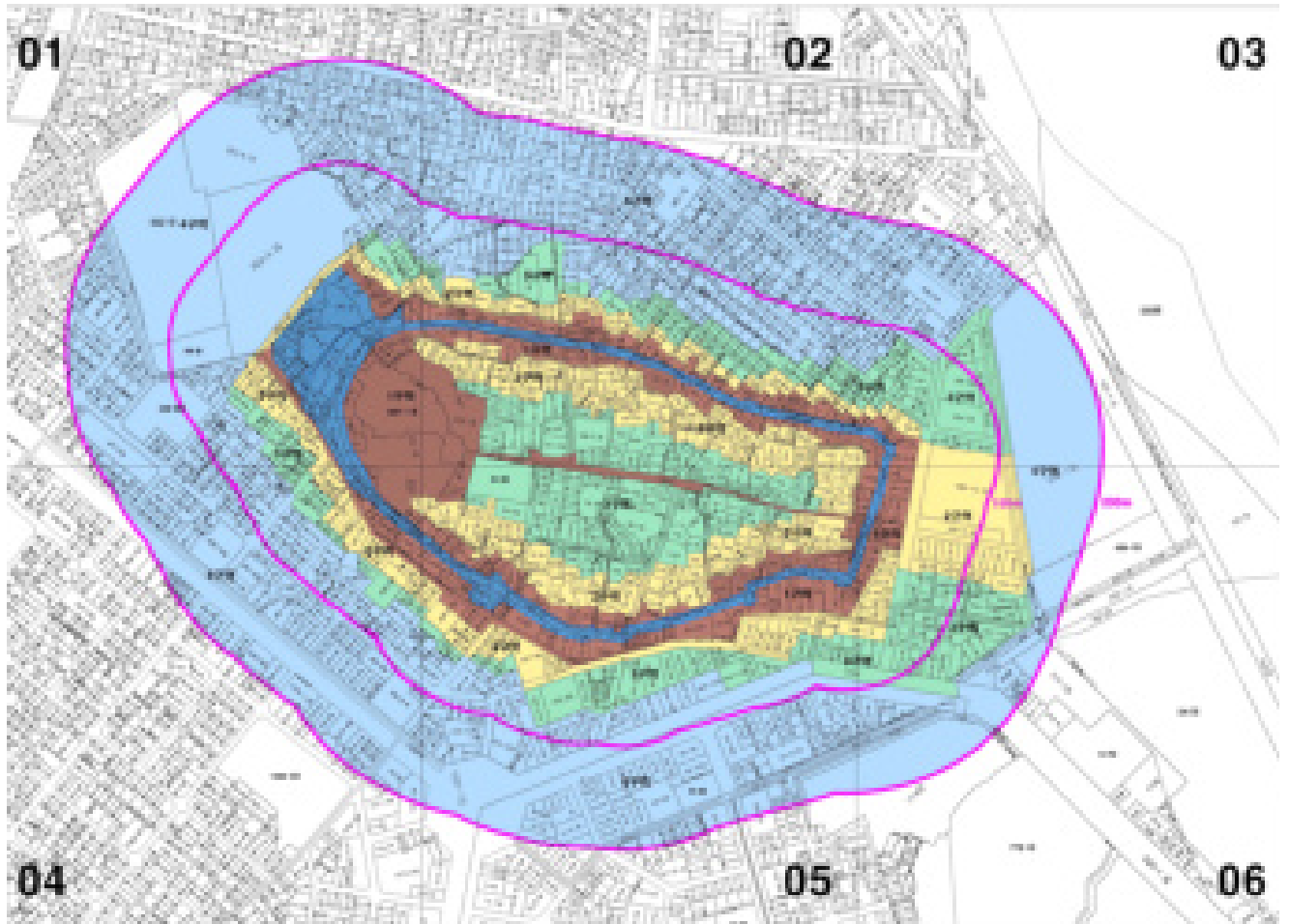
경관 지표	세부 평가사항	5단계 평가
장소성	좌수영 성지에 성벽 등 유구가 남아있는지 또는 정비 가능성이 높은 지? 주민들이 잔존 유구를 통해 역사 문화의 정체성을 인식하는지? 역사 문화 자산의 활용이 용이하고 지역 경쟁력 향상이 가능한지 유구를 통해 문화자산의 특성을 강화하고, 지역 문화의 활성화가 가능한지 주민이 좌수영지의 의미를 이해하고 역사성을 인식하고 있는지	5(매우 양호), 4(양호), 3(보통), 2(불량), 1(매우 불량)
조망성	조망의 방향 및 조망점과 유구(遺構) 사이가 충분히 이격되어 있는지 좌수영 성지를 조망하기 용이한 지형인지, 시지각적인 개방성은 경상좌수영성지 내외에서 성터와 유구를 조망하는 시야각(양각, 부각)은? 좌수영성지를 조망할 때 차폐, 방해하는 건물 등이 있는지 여부	
마루선	과도한 개발로 좌수영지의 역사경관 훼손, 파괴된 정도 문화재 주변에 높은 건물이 스카이 라인을 훼손 또는 파괴한 정도 시각적인 심미감을 주는 가로변 건축물의 높이, 형태 건물의 형태, 높이, 거리와 조화된 시각 매체와 유구의 조화 정도	
일체성	산과 바다, 강 등 자연환경과 좌수영성지가 일체를 이루고 있는지 여부 도시 개발로 좌수영성지와 자연환경과의 유기적인 관계가 훼손되었는지 여부 자연환경과 부조화된 색상과 소재를 사용하고 있는 정도는 좌수영성지의 잔존 유구가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정도	

선소추정지는 장소성의 평가는 좋으나 지형 변화와 수영강 변을 매립시 함께 매몰되어 현장에서 선소의 존재를 확인하기 어려운바 향후 반드시 발굴 조사 등을 통해 반드시 선소의 규모와 공간 구조를 밝히고 이에 따라 정비 활용해야 한다. 선소와 수영강을 연계하여 역사공원 등으로 향후 경우 주민들의 생활과 힐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종합적으로 고려한 현상변경허용기준 조정 방향 및 조정안은 아래와 같다. 무엇보다 현재 시행 중인 현상변경허용기준을 근간으로 조정하되 불합리한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데 목표를 둔다. 단 구역별로 적용하는 허용기준 경관 지표에 의한 평가(표39, 표40)와 경상좌수영성지의 보존 현황, 주변 환경, 정비계획, 도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안을 제시하되 현행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할 때 이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상좌수영성지 현상변경허용기준의 세부조정 내용(표41.) 및 허용구역도면은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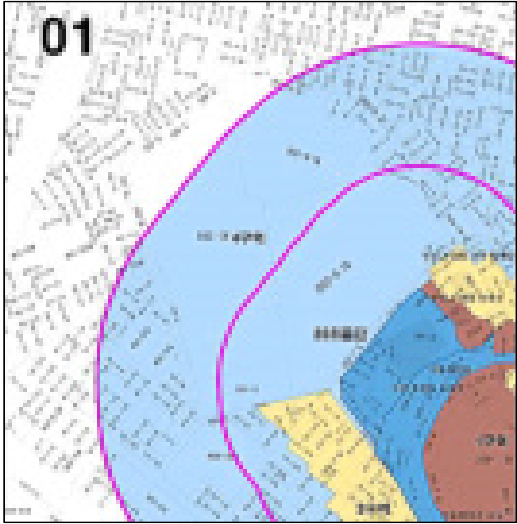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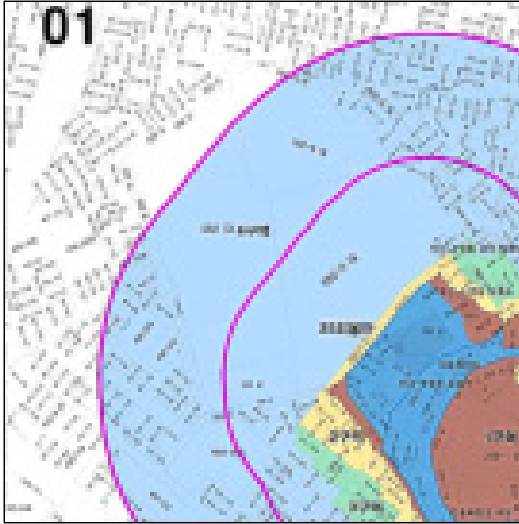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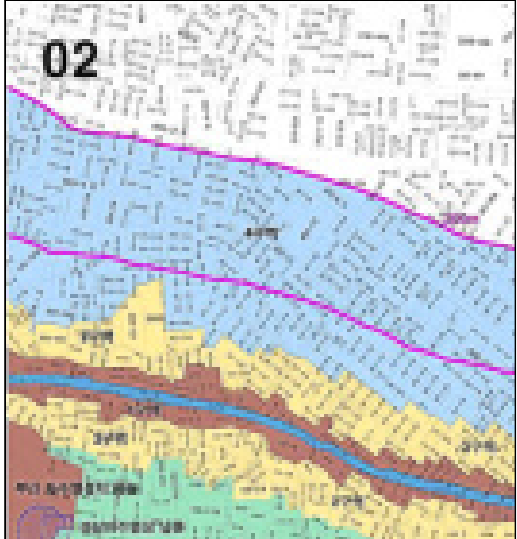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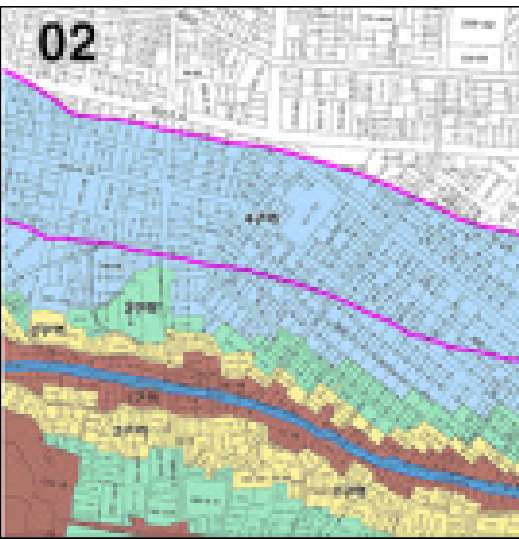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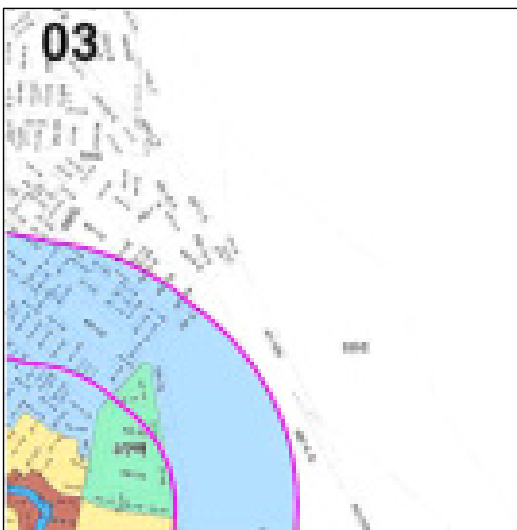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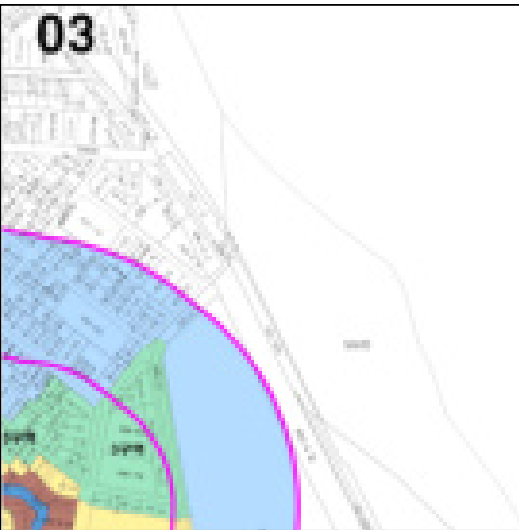
표41. 경상좌수영성지의 보존 현황 및 현상변경허용기준 조정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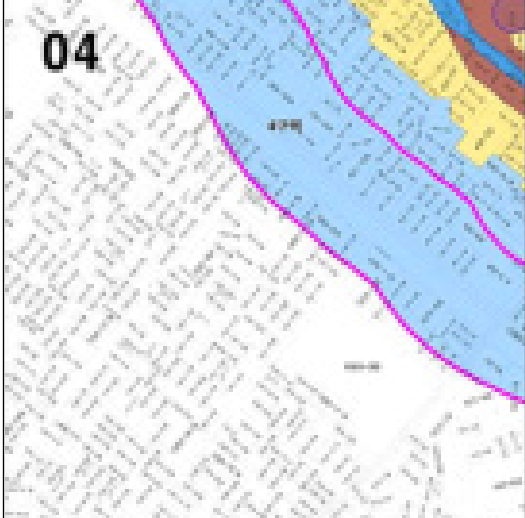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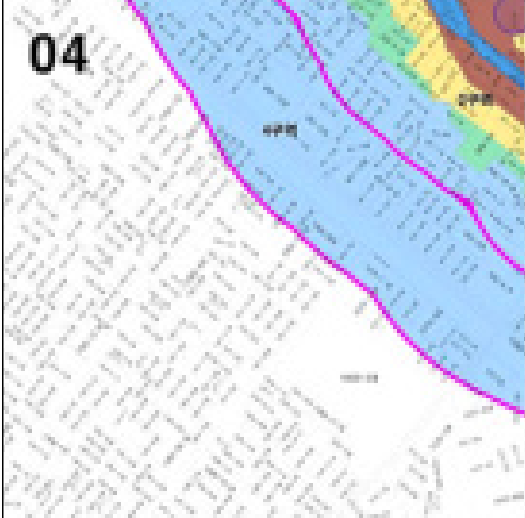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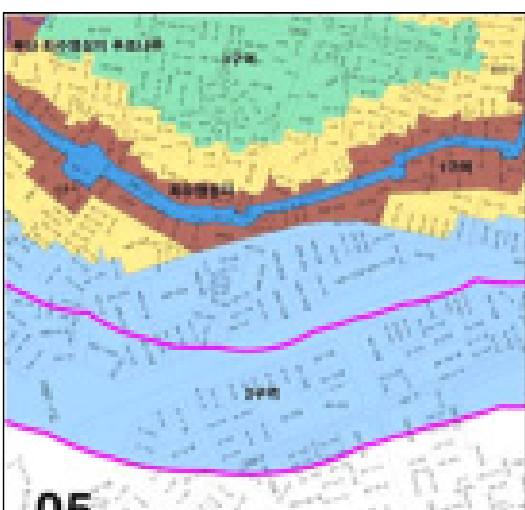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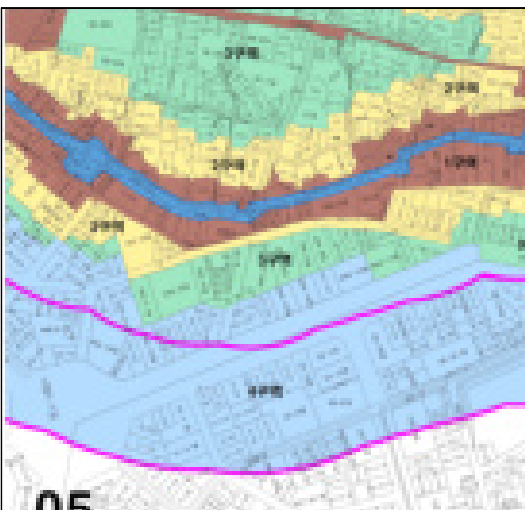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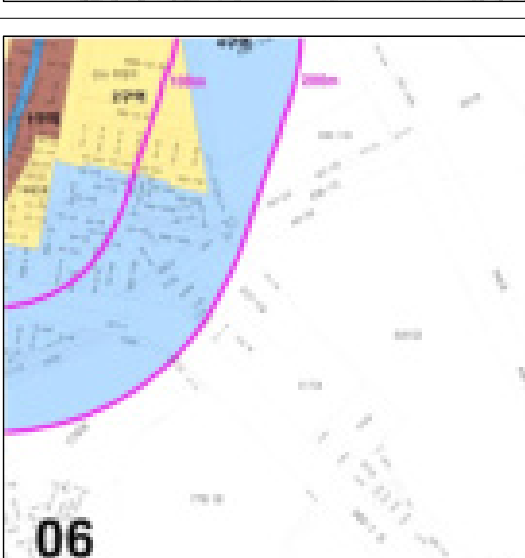

분류		현황 및 허용 기준 조정안
01분역	서북 서남 성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출된 성벽 유구 보존상태 비교적 양호, 성벽 노출 구간은 정비 복원 가능 수영사적공원, 25의용단, 북서쪽에 수영강 동원로알듀크아파트 위치 수영사적공원 일대는 문화재보호구역에 포함되어 있음 수영산신당과 천연기념물인 푸조나무, 곰솔 나무가 위치함 수영사적공원이 있어 역사 경관 보존에 어려움이 적어 현 허용기준 유지 주변부에는 1, 2층 정도의 저층 건물 밀집되어 있음 1구역 유지 및 일부 2구역 범위 축소 조정 2구역 외곽 토지(수영동 455-35, 360-2외 여러 필지)는 3구역으로 조정
02분역	북서 북동 성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부분 성벽 지상부 멸실, 성벽 정비 복원에 어려움 수 차례 소규모 발굴조사로 성벽 기저부 확인, 일부 지상 유구 노출(수영동 376-4) 2구역 외곽에 위치하는 토지(수영동 398-3, 481-18, 491-5외 여러 필지)는 3구역으로 완화 조정(2구역 축소, 3구역 신설)
03분역	동북 성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벽, 지상부 멸실, 추후 선소 정비 활용을 위해 일부 지역 기준 강화 경상좌수영 주시설인 선소(船所)는 매몰, 멸실되어 향후 발굴조사가 필요함 동북 성벽 모퉁이 주변의 2구역을 축소하고 대신 3구역 신설 선소 추정지에 설정한 4구역은 향후 조사를 위해 3구역으로 조정 (수영동 493-12, 13, 15, 18, 22 등 여러 필지)
04분역	서남 성벽 및 성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벽 잔존 구간임, 매입 토지 주변부는 정비 가능(2021년 도시재생사업 시행) 1구역 유지 그리고 2구역 외곽부는 3구역으로 조정하고, 2구역 면적 축소 수영사적공원 동측 경계와 접한 도로인 수영동 254-2와 국공유지인 망미파출소와 수영동행정복지센터 남측의 공지는 향후 조사 및 정비를 위해 3구역에서 1구역으로 조정
05분역	남문지 남동 남성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문지(터)를 중심으로 좌우 측에 2~3단 정도의 성벽이 잔존하고 있음 잔존 성벽을 중심으로 정비 및 활용 가능(2021년 도시재생사업 시행) 부산시가 성벽 복원 정비를 위해 문화재보호구역과 1구역에 속한 토지를 매입하고 있음, 매입 토지에 대해서는 가급적 강력한 허용기준 적용 잔존 성벽 상부에 콘크리트 사용하여 정비(2021년 도시 재생 사업시, 재정비요) 1구역 유지 및 2구역 면적 축소, 2구역 외곽은 3구역으로 조정 해자(壕字)가 잔존할 가능성이 높은 구간은 4구역에서 3구역으로 조정 수영사적공원 동단에 위치하는 수영동 50-4(대)와 50-57(대)는 국공유지인바 완충공간 확대를 위해 3구역에서 1구역으로 조정 서측 관아지에서 동문지, 선소에 이르는 동서 도로(수영동 190)는 좌수영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옛길로 현재의 3구역에서 1구역으로 조정하여 유지 보존 남측 성벽 보호 및 추후 남문 복원 정비 시 수반되는 도로 노선변경 등을 고려하여 남문지 앞 대소 도로 부지(150여m 정도)를 2구역에서 1구역으로 조정
06분역	남동 성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측 성벽은 대부분 멸실되었으나, 남동 성벽 모퉁이에는 성벽 유구 잔존 선소를 가진 수군성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동문지 정비 필요 남측 성벽과 연결하여 잔존 성벽 정비 가능. 현 허용기준 유지 필요 4구역에 포함된 선소 추정지는 3구역으로 조정(개발시 참관 조사 등 필요) (수영동 502-25, 502-8, 503-14, 503-24, 503-17외 여러 필지)
02, 05분역 통 상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재보호구역 및 1구역에 포함된 사유지는 부산시가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 성내 관아는 모두 멸실된 상태이고, 옛터에는 근현대 건물이 자리 잡고 있음 현 허용기준 유지하되, 발굴조사 등을 통해 관아지를 확인한 후 보존 가치가 낮은 구역은 조정 및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 부산시, 수영구가 매입한 토지의 허용기준은 강화하고, 주변 사유지는 완화 조정



경상좌수영성지 현상변경허용기준 조정안(01-06블럭구분 : 필자)

표42. 경상좌수영성지 현상변경허용기준 조정안(영역별)

현 현상변경허용기준	조정(안)
	
	
	

현 현상변경허용기준	조정(안)
	
	
	



제 V 장

사업추진계획

- 1 사업계획 수립
- 2 사업비 산출
- 3 관리 운영계획

5. 사업추진계획

5.1 사업계획 수립

1) 사업추진 방향

(1) 기본방향

- 유적의 현상 보존을 최우선으로 한 정비계획 제시
 - 경상좌수영성지와 주변 지역은 과거와 현재가 어우러진 역사적 산물로 더 이상의 훼손을 방지하고 후대에 물려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임
 - 과도하고 무리한 복원보다는 추가적인 훼손을 막는 보존이 우선 되어야 함
 - 효율적인 보존·관리계획을 통한 유적의 안정적인 상태 보존
- 현실적인 사업 추진계획 제시
 - 경상좌수영성지와 주변 지역 보존활용 계획의 향후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사업추진계획 마련
 - 사업별, 단기·중기·장기 등 단계별 목표연도에 따라 투자계획을 제시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현실성 있는 사업추진계획을 모색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여건 확보
 - 경상좌수영성지와 주변지역의 주변 환경개선과 관광사업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며,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적극적인 지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함

(2) 사업추진 전략

① 조사·연구사업

- 발굴조사
 - 경상좌수영성지와 주변지역 유적에 대한 성격 규명을 위한 학술 시·발굴조사 실시
- 학술연구
 - 경상좌수영성지와 주변 지역의 역사적 가치 재조명을 위한 지속적인 문헌자료 발굴
 - 지표상에 노출된 관련의 유구 성격 조사
- 실행 정비계획 수립
 - 경상좌수영성지와 주변 지역의 정비에 대한 중·장기적인 실행계획 수립

② 유적 정비사업

- 성문 이설 및 복원
 - 남문의 원위치 이설 및 원형 복원

- 성벽 유구 정비
 - 잔존하고 있는 성벽의 보존을 위한 정비
- 선소(船所) 정비
 - 직접 추진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나 수영성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
 -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장기적 시각에서 계획 및 추진
- 주변 정비
 - 토지 매입(보호구역 내, 성내)
 - 우회도로 및 골목길 정비

③ 시설 정비사업

- 안내판 정비
 - 전자식 유적 안내판 및 표지판 설치
- 홍보 및 휴식시설
 -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의 기능을 통합한 전시관(larchiveum) 건립
 - 포켓컴퓨터 설치
- 탐방로
 - 유적지 탐방로 정비
 - 뱃길 탐방로 조성

2) 사업추진 절차

- 문화재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대한 일반적인 정비사업의 진행 절차는 먼저 대상 부지를 매입하고, 시·발굴조사를 통해 대상지의 정확한 성격을 규명한 후 도출된 발굴 결과에 따라 정비의 방향을 결정하는 매입→발굴→정비의 순이다. 경상좌수영성지 및 주변 지역의 정비사업도 이러한 정비단계에 따르되 대상지가 안고 있는 특징을 고려하여 복원 정비의 단계를 결정한다.
- 매입 단계는 정비지역에 대한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 대상부지를 매입하여 국·공유지화 하는 단계로서 대상지의 지가와 지자체의 재정적 능력을 고려하여 토지매입계획을 세우는 단계이다.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토지소유자 파악과 매입에 예상되는 비용 및 매입의 원활성 등을 판단하여 정비사업의 선후(先後)를 결정 시행한다.
- 대상지의 매입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지장물 철거 후 매장문화재에 대한 시·발굴조사를 거쳐 내부의 유적 및 유구를 확인한다. 출토된 유적의 유무 및 중요도에 따라 추가 발굴 여부를 결정하여 발굴을 마무리하고 발굴 결과를 토대로 정비를 진행할 수 있도록 기록화 작업을 실시한다. 경상좌수영성지와 주변 지역 정비사업에서의 시·발굴 조사 범위와

시기는 앞서 서술한 내용에 따른다.

- 발굴된 유구의 중요도 및 주변과의 관계성을 바탕으로 유구의 이전 및 보존 등의 정비 방향을 결정하여 대상지 정비를 진행한다.

3) 단계별 사업계획

(1) 단계별 목표 설정

- 경상좌수영성지와 주변 지역의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은 전체 사업비에 따라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하되, 초기 5년의 정비를 단기 정비로 설정하고 이후의 계획 중 우선시 되어야 하는 부분을 중기, 정비가 완료되는 시점에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을 장기로 구분하여 계획하였다. 단기사업은 정비사업의 기간 및 지자체의 재정적 역량을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였다.
- 정비사업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나 추진 절차, 시급성, 사업비, 사업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성곽 유구, 기반 시설, 주변 연계, 개별 추진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 성곽 유구 정비사업은 가장 핵심적이고 시급한 남문 이설 및 복원, 객사 복원, 그에 따른 토지매입과 발굴조사 사업을 단기 [2023~2027]에 시행하고 지속적이고 장기적 계획하에 추진되어야 할 성벽 수리와 선소 정비사업을 중장기 [2028~2037]에 진행한다. 특히 많은 시민과 탐방객이 함께 향유할 수 있는 활용 및 교육사업은 단기사업 중에서도 우선 실시해야 한다. 또한 성곽의 가장 기본적인 성벽 유구는 성돌 탈락이나 붕괴의 우려가 있으므로 우선 정비구간으로 설정하되 문화재 정비의 기본원칙인 유구의 원형 보존을 위하여 추진한다. 원형 보존이란 적극적으로는 문화재 본래의 모습으로서 정비를 통해 원형 회복을 목적으로 하며 소극적으로는 현재 문화재의 상태를 유지하여 더 이상 훼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경상좌수영성은 추가 훼손의 우려가 크지 않으므로 현재 성벽 유구의 보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관점에서 정비사업을 한다.
- 기반 시설 조성사업은 편리하고 쾌적한 출입 및 동선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을 단기에 시행하고 관광 역량 제고를 위한 방문자센터 건립이나 관광안내소 설치 사업은 중기에 진행한다.
- 주변 연계 사업은 물리적 공사가 수반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용이하고 비교적 큰 사업비가 들지 않으므로 가급적 단기에 시행한다.
- 개별 추진사업은 전체 시행 차수와 관련 없이 진행이 가능한 사항으로 경상좌수영성지와 주변지역 문화유산을 연계하여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사업계획이다. 예산이 많이 필요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총체적인 성격을 띠는 사업은 본 계획에서 중장기[2028~2037]에 진행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부산광역시와 수영구의 정책 순위 변경과 주민들의 요구도, 제반 상황 변화에 따라 추진 시기는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2) 사업추진의 전제

-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추진은 부산광역시와 수영구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관련 예산확보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 대상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소유주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관련 사업을 사전에 협의하여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발굴조사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 중장기적으로 발굴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유적지의 보호와 관리의 상당 부분을 발굴조사기관에서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발굴조사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유적 및 유구의 보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지역 주민과의 협조체계 구축
 - 유적지 정비는 물론 관련 시설들을 조성하는 일련의 사업추진과 더불어 향후 대상지역의 관리 운영 등, 대부분의 사업들이 지역 주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 없이는 사업추진에 많은 애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지역 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지역의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을 통한 관광 자원화, 지역주민의 자긍심 고취, 지역 환경 개선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5.2 사업비 산출

1) 사업별 투자계획

- 경상좌수영성지의 정비사업에 필요한 전체 사업비는 다음 표43.과 같다.
- 경상좌수영성지 관련 사업 시행시 부산광역시로부터 예산의 일정비율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나, 부산광역시 수영구청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할 예산도 있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관광적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등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도 연구하도록 한다.
- 사업 투자계획의 소요 사업비는 2022년의 단가를 기준으로 개략적으로 산출한 것이므로 실제 사업에 있어서는 물가 변동률 및 기타 요소들을 반영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산출해야 한다.
- 일반적으로 토지 매입단가는 공시지가를 근거로 산출한다. 하지만 대상지의 공시지가는 실거래 가격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계획에서는 수영구의 공시지가를 적용

하여 소요 예산을 산출하였다.

- 각 대상별 사업비는 세부 계획 작성시 물가 변동이나 계획 변경의 요인과 시설 규모 구조 등의 변경 요인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표43. 사업별 추정 사업비

구분	사업명	내용	추정 사업비 (천원)	비고
조사 연구 사업	기초조사	식생, 인물, 민속, 경관자원 등	100,000	
	발굴조사	성문지, 성벽, 선소, 건물지 등 유구 발굴	4,200,000	
	학술연구	좌수영 관련자료 수집, 자료집 발간,	330,000	
	학술행사	세미나 및 심포지엄 개최	180,000	연 1회
	소 계		4,810,000	
정비 사업	토지매입	남문지, 객사지 복원 부지 추가 매입	5,000,000	
	남문 이설 및 복원	체성, 문루, 옹성 등 복원, 주변 조경공사	4,000,000	
	성벽 수리 및 정비	잔존 체성의 수리, 복원, 형상화	2,000,000	
	선소(船所) 정비	선소유적공원 조성	-	
	객사 및 공해 복원	객사, 원문(轅門) 등 관아건물 복원	1,000,000	
	전시시설 조성	전시관(larchiveum) 건립	8,287,013	
			20,287,013	
활용 사업	독제(蠶祭) 재현	경상좌수영의 독제, 독기, 독당 복원	960,000	
	수조(水操) 재현	경상좌수영의 수조 재현 및 뱃길 투어 개발	700,000	
	탐방로 조성	‘수영야류의 길’ 등 탐방로 개발 및 조성	430,000	
	디지털콘텐츠 개발	경상좌수영 관련 AR, VR, 웹툰 개발	1,800,000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및 문화유산 교육사업	620,000	
	소 계		4,510,000	
합 계			29,607,013	

2) 연차별 투자계획

- 연차별 사업은 긴급하고 중요한 유적 정비, 후속 사업 진행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조사 연구, 사업을 추진하기위해 필요한 제도적 정비, 토지 매입 및 행정적인 처리 기간, 소요

예산 등과 관계 기관의 협의 사항을 고려하여 항목별로 추진한다.

- 사업 단계의 구분은 단기계획은 5년간[2023~2027]으로 설정하였고, 중장기계획은 10년간 [2028~2037]으로 계획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이 주변 관련 계획들과 연계되어 있어 단계별 시행이 변경될 수 있다.

표44. 단계별 투자계획

구분	사업명	사업기간		추정 사업비 (천원)	비고
		단기 (2023 ~ 2027)	중장기 (2028 ~ 2037)		
조사 연구 사업	기초조사	100,000		100,000	
	발굴조사	1,020,000	3,180,000	4,200,000	
	학술연구	330,000		330,000	
	학술행사	90,000	90,000	180,000	연1회
	소 계	1,540,000	3,270,000	4,810,000	
경비 사업	토지매입	5,000,000		5,000,000	
	남문 이설 및 복원	4,000,000		4,000,000	
	성벽 수리 및 정비		2,000,000	2,000,000	
	선소(船所) 정비				
	객사 및 공해 복원	1,000,000		1,000,000	
	전시시설 조성		8,287,013	8,287,013	
	소 계	10,000,000	10,287,013	20,287,013	
활용 사업	독제(蠶祭) 재현	960,000		960,000	
	수조(水操) 재현	700,000		700,000	
	탐방로 조성	430,000		430,000	
	디지털콘텐츠 개발	1,600,000	200,000	1,800,000	
	교육프로그램 개발	120,000	500,000	620,000	
	소 계	3,810,000	700,000	4,510,000	
합 계				29,007,013	

5.3 관리 운영계획

1) 관리 운영체계

- 관리 주체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의 하부조직으로 구성하여 수영구청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한다.
- 효율적·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 체계는 일원화하여 구성하도록 한다.
- 사업에 따라 관리운영체계를 분명하게 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고, 사업추진 이후에도 효과적으로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 효율적이고 지속적이며 실제적인 사업추진과 사업 진행 또는 사업 이후 관리운영을 위하여 수영구청 산하에 별도로 관리팀을 운영하도록 한다.
- 관리소의 조직은 학예연구사를 중심으로 그 하부에 기술직과 계약직 직원을 두고 유적지 및 관련시설 등을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문화해설사 및 자원봉사자 등을 양성하여 유적지 탐방 안내 등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1) 행정체계

-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 이번 계획에 따른 사업추진은 부산광역시의 재원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관리 감독의 영향력도 크게 미치는 부분으로,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발굴조사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 향후 장기적인 발굴 조사가 진행되어야 하고, 유구의 보호와 관리의 상당 부분을 발굴 조사기관이 담당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발굴조사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유적지의 보존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지역 주민과의 협조체계 구축
 - 유적지 정비는 물론 관련 시설들을 조성하는 일련의 사업추진과 더불어 향후 대상지역의 관리 운영 등,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지역주민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 없이는 실행에 나가기 어렵다. 따라서 지역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
 - 지역의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을 통한 관광자원화, 지역주민의 자긍심 고취, 지역 환경 개선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사유재산 제한에 대한 반대 급부적 효과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실제적으로 세제감면 등의 혜택 부여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 추진위원회 구성

- 경상좌수영성지와 주변지역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관련주체는 물론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 추진위원회는 정비기관, 관련 전문가, 지역 주민 등 민·관·학 협동시스템으로 구성되어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 지역 주민
 - 이장 및 통·반장
 - 청년회, 장년회, 부녀회, 상조회, 환경단체 등 주민대표
- 전문가 집단
 - 부산 수영구문화원 및 향토 사학자
 - 부산광역시 문화재 관련 위원
 - 관련 학술조사 및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 관련 분야별 전문가
- 추진위원회 운영 및 규모
 - 추진위원회 운영은 단기사업 기간을 5년으로 하며, 추진위원은 단계별로 위촉하거나 년차별로 위촉하도록 하고, 단기 사업 이후는 추진위원회의 운영성과 등을 검토하여 동일한 방식의 민·관·학 협동시스템으로 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사항을 이양하도록 한다.

2) 관리 운영사항

- 역사 문화환경
 - 경상좌수영성지와 잔존성곽 및 유적 추정지역
 - 경상좌수영성지와 주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 경상좌수영성지와 주변 문화재
 - 기타 비지정 문화재 등
- 자연환경
 - 경상좌수영성지와 보호구역 내부 자연환경
- 조성시설
 - 전시시설
 - 탐방로
 - 기반시설 : 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 편의시설 : 주차장, 화장실, 안내판 등
- 재정
 - 소요 사업비
 - 관리운영 인력비

- 조성시설 관리유지비
- 탐방객 및 서비스
 - 탐방객 활동 및 행태
 - 홍보, 체험 프로그램, 행사 이벤트 등 서비스
 - 인터넷 홈페이지 등
 - 시민단체 및 자원 봉사자 운영 등



부록

자문 의견

부록

○ 자문 의견(요약) : 1차 중간보고회

자문위원	자문 내용
강봉원 (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군문화와 수군의 역동성을 밝히기 위해 선소에 대한 발굴 조사 필요. * 수군에 대한 유적임을 부각하고 확장성을 가질 필요가 있음. * 특히 일반인들이 수군 유적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발굴과 복원 시기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함.
정진술 (역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상좌수영은 수군 문화의 요람으로 선소가 중요함. * 선소를 복원하기 위해 발굴이 중요함.
강동진 (도시건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수영의 정체성을 살릴 필요가 있음. * 정체성 살리기 사업이 수영의 마을 재생 사업과 중첩되지 않도록 해야 함. * 동문 등의 유적을 VR로 복원하는 것 이상으로 과감하게 원형 복원할 필요가 있음. * 각 유적의 제자리 찾기도 중요하지만 제 모습(원형) 찾기도 중요함. * 수군마을들을 트래킹할 수 있도록 그 당시 골목길 등 공간에 대한 분석 필요. * 염전과 수군 가족의 일상적 삶을 조사할 필요가 있음 .
장세길 (민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조사된 자료 이외의 새로운 자료의 발굴이 필요. * 기록자료 이외의 좌수영성 인근 주민들의 구술자료 조사 필요. * 좌수영 인근 지역 주민들에 대한 근현대 자료에 대한 조사가 필요.
기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현상변경허가 기준과 주변 경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전의 두 번의 보고서 내용에서 차별성을 보일 필요가 있음 * 좌수영의 문화유산과 보존, 활용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을 담아 낼 필요가 있음.

1차 중간 보고서 자문의견서

용역 명	경상좌수영 보존활용방안 연구용역		발주처	부산시 문화유산과
일 시	2021. 12. 27. 14-16시	장 소	부산대 권설관 930호실	

□ 자문의견은 다음과 같음(개조식으로 작성)

- 수군을 중심으로 하는 좌수영성의 정체성 정립이 돋보이는 발표였던 것으로 평가됨
- 특히 수군성의 핵심재인 선소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규명에 집중한 점은 다소 고착 상태에 빠져 있는 좌수영성의 새로운 미래를 논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함
- 그러나 좌수영성은 대도시의 도심지역에 입지한 관계로 여러 도시화의 후유증이 발생하고 있고, 주변지역의 급속한 개발로 인한 지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해소 노력이 요청되는 문화유산지대이기도 함
- 이러한 점들을 전제로 몇 가지 보완점을 적시함

- 1> 연구 목표 중 하나가 '역사적 실체 보존'이니 만큼, 보다 좌수영성의 역사적 실체를 규명하고 이를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 확보되어야 함
- 좌수영성의 공간구성과 구조, 특히 연구를 본격화하고 있는 선소 일대의 공간구조, 토지이용, 수문구조, 방어체계 등에 대한 보다 명확한 학술적 근거 확보와 정밀한 사실 규명이 필요함
 - 이는 본 연구의 최대 성과가 될 수 있기에 심혈을 기울여주기를 요청함
 - 이에 대한 진정성있는 결과가 도출 된다면, 미래 투자(보존 및 활용을 위한)와 관련한 부산시(문화재청 포함)의 전향적인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 결과적으로 부산다음의 상징체 확보와 지역민의 위로 방안으로도 작동할 것임

2> 동문과 주변성벽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보존방안 제시가 필요함

- 선소와 직접 연결되는 동문의 중요성을 드러내고 이를 위한 보존 방안의 제시는 본 연구의 또 다른 성과물이 될 것임. 이는 좌수영성을 본질과 진정성을 재규명할 수 있는 결과가 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올바른 고증 없이 훼손과 변형을 유발하는 각종 재생사업들에 원칙과 근거를 제공하여 보다 체계적인 지역 변화의 길잡이가 되어 줄 것임
- 여의, 남문을 비롯하여 기존 추진 사업들도 역사적 진정성을 전제로 한 복원 등의 실현이 가능하도록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부산시와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3> 수군거리 토설에 대한 올바른 발전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시장길 환경개선 수준에서 수군거리가 논의된다면 100% 실패에 그칠 것으로 사료됨
- 군사성에서 군사들은 생의 핵심요체며, 그들이 걸었던 길이라는 스토리는 좌수영성의 핵심의 스토리라인이 될 수 있음. 수군의 운영관리 체계와 그들의 삶을 연구하여 연구진은 당시 수군들의 마음과 생각 속으로 들어가 기능(역할), 시선, 관심 등을 섬세하게 파악하여 이를 스토리텔링하고 이를 장소화 할 수 있어야 함
- 좌수영성 일대는 전국의 대도시 내 도심지역 중 서울의 정동, 가회동, 통인동 등과 함께 느릿느릿 문화유산을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잠재력을 가진 곳으로 평가됨
- 단순히 (디자인적인)장식 수준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보다 근원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고 이 길을 따라 좌수영성과 공존했던 옛 수군과 가족들, 그리고 수군마을들과 그들이 누렸던 삶의 체계를 학술적으로 규명하여 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연구진은 지역민과 방문자들이 사랑하고 머물고 싶어 하는 '길고 싶은 도심의 문화역사길'이 갖추어야 할 조건들을 심도있게 연구하여 이를 현장에 녹여 제시할 수 있어야 함(이 방안은 재생사업들을 선도적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임)
- 지난 1차중간보고 시 지적된 바와 같이 민속차원에서의 인터뷰 조사도 이를 달성하는 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임
- 수군 삶에 대한 심도깊은 학술적 규명이 현실적으로 연구진이 감당하기 어렵다면, 이와 관련된 인문학적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부산시에 강력히 요청하여 실현되도록 하여야 함

4> 전소 부지 확보방안에 대한 미래 지향적인 제시가 필요함

- 전소 부지는 지가가 높아 현실성이 없다고 치부해 버리고, 안내판 정도만 세우거나 박물관에서 가상현실로 소개를 방안으로 제안하기에는 좌수영성의 상징체로서 잠재력이 너무 큼
- 설지는 압도적도, 단.중.장기적인 방안들(전소부지 확보방안)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이것이 제시되어야 열원을 할 수 있고 반영과 실현의 노력을 시작할 수 있음
- 현장 발굴과 복원이 최선임이지만,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대안들을 검토하여야 함. 현대아파트 재건축이 매우 좋은 기회이며, 서울에서 시행 중인 버스차고지 입체도시 계획의 적용도 좋은 사례가 될 것임
- 특히 현대아파트 재건축 과정을 통해 전소부지의 확보(부분)는 놓쳐서는 안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이에 대해 연구진 뿐 아니라 부산시에서도 적극적인 협상과 설득 작업을 동반한 선도적인 노력에 집중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함(민간 winwin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함)

자문위원

소속: 경성대학교 도시공학과 직위 : 교수 성명: 강동진



1차 중간 보고서 자문의견서

용역 명	경상과수영 보존활동방안 연구용역		발주처	부산시 문화유산과
일 시	2021. 12. 27. 14~16시	장 소	부산대 건설관 930호실	
<p>□자문의견은 다음과 같음(개조식으로 작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상과수영의 역사적 가치를 구명하고 그 중요성을 부각하고자 문헌, 고지도, 항공/사진 등의 자료를 토대로 수행한 연구 성과는 높이 평가됨. 2. 거액의 중요한 성과를거두어간 그동안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필행이 많이 훼손되어 일부만 잔존하여 크게 부각되지 않은 듯함. 3. 잔존하고 있는 성곽 일부라도 잘 보존하고 특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식(예: 등강 현 실)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함. 4. 일부 정비된 성곽 밖에 설치되어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제거하여 원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함. 성곽이 44m 잔존하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판단됨. 정비된 137m에 대해 저감도/재평가를 하여 수리/보완하고 나머지 잔존 성곽에 대한 보존과 활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가치적인 방안을 제시하도록 함. 5. 일제강점기 이진된 남문을 제거하여 복원할 수 있도록 함. 그러기 위해서는 원래 남문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곳에 대해 발굴조사를 수행함. 이 부지는 공유지로 되어 사유지에 의해 절차가 비교적 용이하고 하부구조를 찾는 공사이기 때문에 경비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는 보이지 않음. 발굴 조사하는 그 자체를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경상과수영의 중요성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음. 6. 장기적으로는 선소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굴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현재 선소가 위치한 곳으로 추정되는 문준 택시 회사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조사가 비교적 용이한 것으로 보임. 관련기관에서 선소로 추정되고 있는 부지를 매입·발굴하여 장기적으로 복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도록 함. 선소와 성곽 등 부속 시설이 복원된다면 경상과수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유적 등에 대한 관심도가 고조될 것으로 사료됨. 7. 수관들의 '역동적인 모습'(예: 문헌, 근무교대, 성업)과 성 인근에 거주하던 주민들의 '역동적인 삶'(성업 경제 등)을 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주의를 관심을 기울여도록 함. 				
자문위원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소속: 경주대학교 직위: 명예교수 성명: 장봉원 장봉원 (인, 서명) </div>				


1차 중간 보고서 자문의견서

용역 명	경상좌수영 보존활용방안 연구용역	발주처	부산시 문화유산과
일 시	2021. 12. 27. 14~16시	장 소	부산대 건설관 930호실

□자문의견은 다음과 같음(개조식으로 작성)

1. 경상좌수영 보존활용방안에 대한 용역 수행 방침으로 수군 문화에 치중하겠다는 구상은 매우 잘 된 방향 설정으로 보임.
 - 현재 좌수영 성은 수군 성이라기 보다는 사실상 육군 성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하여도 과한이 아닐 것임.
 - 따라서 좌수영 성을 경상좌수영이라는 수군 성으로 인식시키는 정체성 확립이 매우 중요함.
2. 수군 성으로서 좌수영 성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정비개념 및 방향으로 다양한 구상이 제시되었는데, 모두 다 적극적으로 동의하며 환영함.
 - 예컨대, 남문 이전, 수군거리 조성, 동문과 전소 복원, 열전 정비, 수조재현 행사 통로.
3. 본 자문위원이 적극적으로 제의하고자 하는 것은 전소 발굴과 동문 복원임.
 - 좌수영 성이 수군 성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에는 전소 확보가 매우 중요함.
 - 전소가 없는 수군 성은 사실상 육군 성이나 다름없기 때문임.
 - 따라서 전소 복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발굴이 우선 되어야 할 것임. 이를 위해서는 관할지자체에서 과감한 예산을 투입하여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음.
 - 전소가 발굴되고 인정하여 존재하였던 동문을 복원한다면 비로소 좌수영 성이 수군 성으로 빛을 볼 수 있을 것이며, 그런 뒤에는 다양한 수군문화 예컨대 수조재현 등도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잠재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임.

자문위원

소속: 석위: 연 문화재전문위원 성명: 정 인 슌  (인, 서명)

1차 중간 보고서 자문의견서

용역 명	경상파수영 보존활용방안 연구용역		발주처	부산시 문화유산과
일 시	2021. 12. 27. 14-16시	장 소	부산대 건설관 930호실	


□자문의견은 다음과 같음(개조식으로 작성)

1. 파수영성 보존과 활용방안은 아래의 세 가지 순위가 돌아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역사적 보존과 활용
 - 유형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 무형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2. 무형문화유산은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반드시 연구되어야 함.
 - 과거 자연마을의 유래, 형성, 본모 등
 - 파수영성 사람들의 생업 형태 : 자연마을 별 농업, 어업, 염전, 임업 등
 - 생업에 토대한 다양한 민간신앙 : 자연마을 별 당산제, 뱃고사, 가정신앙, 별신굿 등
 - 파수영성의 지명, 인명과 관련된 전설
 - 현재 거주 주민들의 파수영성에 대한 인식
3. 2.의 항목들은 기존 연구내용의 취합과 함께 현재 생존해 있는 수행지역 토박이 코르(古里)들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현장조사를 통해 새로운 구술해록 자료가 확보되어야 함.
4. 2와 3.의 조사 과정에서 근현대 파수영성과 관련된 사진, 기록자료의 수집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

자문위원

소속 : 동의과학대학교 직위 : 겸임교수 성명 : 오 세 길 오 세 길 (서명)

○ 자문의견서 : 2차 중간보고회


전문가 활용 내역					
가운문화유산연구원		원장		이철영(인)	
연구과제명		경상 좌수영 보존활용 방안 연구용역			
연구비과목		연구활동비		집행여	300,000원
자문위원					
소속	(전)해군사관학교	직급	전,해사박물관기획실장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	성명	정진술
주소	경남 창원시 진해구 봉호로 3번길 14, 102동 1103호(봉호동, 경동원초빌)			연락처	010-9547-0948
차급여	300,000원	금융기관	우체국	계좌번호	900945-02-012278
일자	2022. 4. 07	시간	19:30~15:30	장소	보보나19호 인쇄 등을 이 용하여 비대면 회의 개최
내용	<p>1.원문이란 명칭은 어느 자료에 근거한 것인지, 좌수영성은 특목하게도 성안에 원문 이 있다는 것이 매우 특목한 점입니다. 대개 원문은 성 밖 길목에 위치하는데 이곳 좌수영성에서는 성내에 있다는 것이 특목한 점이며, 정비계획 수립시 이점을 반영해 주기 바랍니다.</p> <p>2.좌수영처럼 연흥강이 별도로 있는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굴강과 연흥강의 차이 는 연흥강은 육상으로 경사진 곳에 바를 끌어 올릴 수 있는 비스듬한 사설이고, 선 소는 물이 깊은 것이 다른 점인지 연흥강과 굴강의 차이 등에 대해 보고서에 구체적 으로 서술하기 바랍니다.</p> <p>3.선소를 발굴조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여지도, 지방지도 등의 좋은 자료가 있어 서 발굴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발행위가 들어오 면 당연히 발굴해야 합니다.</p> <p>4.영어로 표기되어있는 지도는 미군이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보고서 등에 지도를 사용할 때 출처를 제시해주면 좋겠습니다.</p> <p>5.택시회사 주차장을 전면 발굴하게 되면 선소의 확실한 실체가 나올 것 같습니다. 복문 쪽에 해자가 있다는데 공식적인 발굴에서 나온 것입니까? 성채)아니까 해자가 어떤 식으로든 있었을 현대, 해자에도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p> <p>6.연구진에서 제시한 각사 복원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밖에 경상좌수영의 특목한 특성을 잘 보여주는 것은 원문으로 각사와 함께 원문을 복원해서 좌수영성간 의 특성을 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니 이를 제안해주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자문위원 정진술 서명 </p>				

붙임 : 신분증(주민등록증) 사본 1부

전문가 활용 내역					
가운문화유산연구원		원장		이철영(인)	
연구과제명		경상 좌수영 보존 활용 방안 연구용역			
연구비과목		연구활동비		집행여	300,000원
자문위원					
소속	동의과학대	직급	점임교수	성명	오세집
주소	부산시 사하구 화산중앙로 265 312동 102호(가락타운 3단지)			연락처	00-4550-9068
자급액	300,000원 (세금포함)	금융기관	농협은행	계좌번호	852-1320-7442-18
일자	2022. 4. 07	시간	18:30~15:30	장소	코로나19로 인해 공을 이용하여 비대면 회의 개최
내용	<p>1.부산대에서 열린 중간보고회때 말씀드린 내용보다 더 많은 자료 통틀 조사 수집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명, 생업 등 근원대까지 다방면의 조사 내용을 조금만 보완한다면 더 좋겠습니다.</p> <p>2.원장에 가야 답이 나오는 게 정설인데 많이 공감합니다. 수영 토박이들이 가진 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이를 자료를 수집 전시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가진 자료는 골 없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전시할 틀에 모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기 바랍니다.</p> <p>3.제외(除外) 중심으로 발표했지만 콘텐츠가 채워지면 좌수영 민속연구의 기초 자료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을 충실하게 정리해주면 더욱 좋겠습니다.</p> <p>4.특계 활용방안 중 수군 레이아웃에 대해서는 이것이 민속에서 다뤄야 하는 부분인지에 대해 검토해주기 바랍니다. 정체성이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특제와 수군 레이아웃을 실시할 경우 민간과 관(官) 중에서 누가 주도해야 하는지 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자문위원 오세집 오 세 집 (인)</p>				

전문가 활용 내역					
가운문화유산연구원		원장		이철영(인)	
연구과제명		경상 좌수영 보존활용 방안 연구용역			
연구비과목		연구활동비		집행액	300,000원
자문위원					
소 속	경주대학교	직 급	명예교수	성 명	장봉원
주 소	경주시 동문로 68, 102동 209호(성동동 장미동산학원 아파트)			연락처	010-5479-5912
지급액	300,000원	금융기관	국민은행	계좌번호	604-21-1134-019
일 자	2022. 4. 07	시 간	13:30~15:30	장 소	코로나19로 인해 중을 이용하여 비대면 회의 개최
내 용	1. 지난해 말에 있었던 공간보조회시 보다 연구내용 및 성과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좌수영성 조사 결과와 정비계획의 발합은 전보다 구체적이며, 전반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제사 복원은 사진 자료가 있으면 비교적 쉬울 것 같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 이전에 촬영한 사진을 확보하는데 깊은 감사 드립니다.				
	3. 남문(종예리) 이전에 앞서 남문제를 발굴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제사 복원 일제강점기 이전의 사진 자료를 수집하는데도 노력을 기울여주시 바랍니다.				
	4. 독거를 복원(재현)함에 있어 문헌의 도면은 아주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5. 좌수영성지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조정하는 안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절차상 어려운 점이 예상되지만 추진과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호원 교수의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자문위원 장봉원 서명					

붙임 : 신분증(주민등록증) 사본 1부

전문가 활용 내역					
가운문화유산연구원		원장		이철영 (인)	
연구과제명		경상 좌수영 보존활용 방안 연구용역			
연구비과목		연구 활동비		집행액	300,000원
자문위원					
소속	경성대학교 도시공학과	직급	교수	성명	강동진
주소	부산시 해운대구 양운로 182 105-302			연락처	010-7506-1821
제급액	300,000원	금융기관	부산은행	계좌번호	289-12-009651-3
일자	2022. 4. 07	시간	13:30-15:30	장소	코로나19로 인해 공을 이용하여 비대면 회의 개최
내용	<p>1.3편의 주제발표에서 전반 중간보고회때보다 더 구체적이면서 추가로 새로운 사실을 밝혀줘서 감사드립니다. 이를 토대로 정비하면 도시 안에 바다와 강과 연결된 수영성 마을의 미래가 더 밝아질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p> <p>2.중요한 건 좌수영성의 진정성을 지키는 것인데 어떤 연구를 통해 진정성을 확실하게 정리해서 앞으로 진정성만큼은 파괴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랍니다.</p> <p>3.1950년대 좌수영성을 촬영한 사진을 토대로 재미있는 스토리들을 발굴해 주변 좌수영성의 다양한 변화는 물론 다양한 스토리를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전쟁기에도 좌수영성이 잘 남아 있었다는 점에서 이 시기는 수영성을 보존 정비의 시점(地點)이며, 사진에 담겨 있는 것은 정비계획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p> <p>4.독당과 객사 복원계획은 좋습니다만 좀 더 공격적이고 도전적인 계획이면 더 좋겠습니다. 현실에 맞추기보다 조금 더 근본적으로 과감한 안을 제시해주고 그것을 단계별, 기법별로 구분해주면 부산이나 여러 파트에서 하나씩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p> <p>5.독당에서 동문에 이르는 공간구조를 확고하게 복원하는 방법을 제시해주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잘 보존할 수 있게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현대어미트가 재건축될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택시회사 쪽에 선소암이 확실하나 직선, 몇지 부분에 공원을 조성하면 좋겠습니다. 현대어미트가 재건축될 때 그쪽을 공원 부지로 만들면 주거단지도 위상이 높아질 수 있고 보존의 본질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매우 발전된 내용을 발표해준데 대해 감사드립니다.</p> <p>6.<현상변경허용기준 조정안>에 대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길게 잘 들여다보지 않아 정확히 자문하기가 다소 어렵습니다만 조정의 방향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은 발표한 내용이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게 확실하게 되려면 여러 어려운 절차를 거쳐야 되나 문화재 주변 건축규제를 축소 조정해야 하는 것은 당위성만 분명하다면 방향은 옳다고 생각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자문위원 강동진 </p>				

○ 자문위원회의 : 최종보고회

1. 일시 : 2022년 8월 22일(월) 13시 30분 ~ 16시 40분

2. 방법 : 비대면 회의

3. 참석자

- 1) 연구진 7명(연구책임자 이호열, 이철영, 권순강, 구경모 외 3명)
- 2) 자문위원 4명 : 강봉원(역사고고), 정진술(수군사), 오세길(민속), 강동진(경관.도시),
- 3) 부산시청 문화유산과장, 팀장, 주무관 등 관계자

4. 분야별 자문 의견 요약

1) 역사 고고분야 - 강봉원 정진술 위원

(1) 강봉원 위원

- 전반적인 발표내용에 동의함.
- 이번 연구에서 경상좌수영에 해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새로 알게 되었다. 추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굴 조사를 해서 확실하게 있는 것을 밝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번 연구에서 해자의 존재 여부를 좀 더 확실하게 서술했으면 좋겠음.
- 선소(船所) 발굴 절차상 시굴과 발굴 이전에 지표 조사를 넣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선소가 있었던 주변 바다도 일부는 지표조사가 되는 것이 좋겠음.
- 배가 건조되어 바다로 나가는 길목이 중요한바 조사계획 작성 시 고려해 주기 바람.

(2) 정진술 위원

- 상세하게 자료를 수집 분석해서 발표를 잘했음.
- 여러 번 한 이야기이지만 수영강 하구는 동래 복천동 세력의 해양 출구이자 아주 훌륭한 요충지였다. 범선이 해양으로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요충지가 필요한데, 수영성 하구는 범선이 안전하게 정박해서 바람을 기다릴 수 있는 요충지였음. 이처럼 수영성은 훌륭한 입지 조건을 갖고 있다. 이곳은 고대 동래 복천동 세력이 바다로 출입하던 곳이었으며, 후에 이곳에 수영성이 들어서고 주위에 축산포 감포등 이러한 4개의 수군진이 위치했다. 따라서 수영성의 입지는 해양사적 면에서도 뛰어난 곳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바람.

- 좌수영성의 경우 독특하게도 성 내에 원문이 위치하는데, 원문이 성 안에 있었다는 특징을 더 강조했으면 함.

2) 경상좌수영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분야

(1) 강동진 위원

- 재산권과 연결되어 있는 현상변경허용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어려운데 그럼에도 재산권 보호 측면과 발굴조사가 가능하도록 두 가지 측면을 잘 고려했음.
- 2구역중 일부를 3구역으로 변경하고, 5~6블럭에 있었던 선소 등의 발굴조사가 가능하도록 3구역을 확대한 제안에 동의한다. 실행이 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동의와 여러 과정들이 필요한데 이 제안이 실제 작동될 수 있는 방안 즉 여러 가지 인센티브,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최종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언급되면 좋겠음.
- 공공(부산시)에서도 의지를 보여야 한다. 성내 대부분은 3구역인데, 시(市)가 사유지를 적극 매입해서 장래 복원 정비에 대비해야 한다. 공공의 역할에 대해서도 제안해주면 부산시가 수영 일대를 잘 지켜내는데 원칙이 되지 않을까 함.

3) 민속분야

(1) 오세길 위원

- 추후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자문하겠다. 발표자가 여러 명제들을 제시했는데 민속조사는 결론적 명제를 제시하는 것도 중요한 연구의 목적이지만 근거와 자료의 연계성을 제시해서 추후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도 민속에서 큰 주제를 제공하는 것임.
- 지명 유래의 경우 기존 자료를 가지고 했는지 구술사를 통해 조사 연구했는지 궁금함. 성씨별 입향에 관해 문헌에서 언제 입향했다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니나 아직까지 그분들이 계시니깐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최종보고서에 문헌자료 등 근거를 제시할 것.
- 관(官) 중심에서 민(民) 중심, 무민사, 수영지신밟기, 등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제당이 어떻게 변했다 주체가 어떻게 변했다고 설명했다.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체의 변화나 형식의 변화 등이니 잘 살펴봐 주기 바람.
- 제의(祭義) 형식이 유교 체계에서 무속식이나 불교식으로 바뀌고 있다고 했다, 현장 조사시 사진이나 마을 신앙사전에 나와 있는 보고서 등을 근거로 서술될 때, 연구한 여러 결론적 의제가 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발

표자가 제시한 명제는 근거 자료를 보고 판단하겠다. 이 점에 더 관심을 가지기 바람.

4) 정비계획

(1) 경진술 위원

- 전반적인 연구용역의 결과와 방향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고 좋다고 생각함.
- 발주처인 부산시에 꼭 강조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경상좌수영 보존 활용 방안은 정말 중요한 수군성, 수군 문화에 대한 연구용역이다. 기본계획에서 경상도 수영성에서부터 기본 방향을 잘 설정하였다. 전적으로 동의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함.
- 발주하신 부산시에서 실행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가 매우 궁금하다. 수영성의 정체성 확립을 목표로 사업계획을 잘 제시했음. 수군 문화의 정체성이 중요한 주제라면 현 경상좌수영성지로는 수군성으로 볼 수 없는바 수군성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 선소(船所)를 정비해야 함, 부산시에서 최우선적으로 선소를 정비해야 한다. 선소가 일단 발굴되어야 수군(水軍) 문화의 재현할 수 있고, 사업계획도 선소 정비를 1순위로 남문 이전 이런 식으로 정할 수 있음. 이대로 두면 선소 정비는 10년 후가 될지 2~30년 후가 될지 알 수 없다. 선소 정비를 제1 순위로 당겨주실 수 없는지. 무례하지만 이 제안을 함.

(2) 강동진 위원

- 수영성의 정체성 회복에 대한 여러 제안을 했는데,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실천을 위한 추진전략이 필요하다. 사업을 단기에 할 일, 장기에 할 일, 계속 연구해야 할 일 등으로 분류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교한 추진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야 부산시와 수영구가 실행하기 용이함.
- 복원은 오랜 기간이 걸리는 사업이다. 그 과정을 정교하게 나누고 10, 20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 제시해주기 바람

(3) 오세길 위원

- 정비계획에서 수영예술관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현재에도 수영민속예술관은 민원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 민원인들이 민원(주로 공연과 연습시 소음 문제)을 제시하고 있으며, 공연장의 지붕도 소

음 때문에 설치한 것이다. 건물만 올린다고 되는 건 아니다. 협회에서도
장소 이전을 시와 협의하고 있으니 이점을 참고하기 바람.

○ 자문 의견서 : 최종보고서

(1) 강봉원 위원

- 우선 연구 용역에 참가한 책임연구원을 비롯한 모든 연구원들이 열과 성을 다하여 조사에 임하였고 보고서를 분야별로 아주 주도면밀하게 작성하였다는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다. 일반적으로 이런 연구 용역을 수행하면 수박 겉핥기식으로 진행하여 대부분 용두사미(龍頭蛇尾) 격으로 끝나는데 이 보고서는 차원이 다르다.
- 이 용역을 수행하면서 역사 측면에서는 각종 문헌자료와 고지도 그리고 다양한 사진 자료를 섭렵하여 경상좌수영의 과거와 현재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경상좌수영 만이 아니고 한반도 동남해안에 위치하고 있는 다른 경상도 수군 편제관련 자료들까지도 포함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좋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 고고학 분야에 있어서도 발굴조사 전후와 현재 남아있는 체성에 대한 사진 등을 곁들여 정리와 요약은 잘 해 두었고 향후 발굴조사 해야 할 체성과 선소 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설득력이 있다. 실제로 현재 남아있는 체성부분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붕괴와 교란의 위험이 있고 미관상 좋지 않으므로 시급히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경상좌수영 복원사업의 핵심이 될 선소도 가능하면 빨리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 문화와 민속 부분에서도 피상적인 조사가 아니라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들과 면담을 통해 아주 좋은 정보를 많이 취득해서 제시한 것도 돋보인다. 이런 노력이 없으면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20년 이내에는 세상을 저버릴 것이므로 그분들의 말씀과 단어 하나하나가 아주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아울러 현재 수영구의 현황에 대해서도 자료를 잘 수집해서 제시하고 있다.
- 수영 사적 공원의 존재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우선 회색 콘크리트 숲 한 가운데 넓고 크지는 않지만 녹색의 숲이 있다는 자체가 경관 상 그리고 시민들의 정서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또 시민들의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각 분야별 조사자들이 최선을 다한 것이 역력히 보이며 이 연구용역 보고서는 향후 여러 분야에 걸쳐서 아주 훌륭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지침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아무쪼록 이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경상좌수영의 복원, 정비 그리고 활용사업이 잘 마무리되기를 기원하는 바이다. 끝.

2022. 10. 10. 강봉원

(2) 경진술 위원

• 전반적으로 연구 용역의 결과와 방향이 잘 기술되었으며, 권적으로 동의함.

- 조선 초기 경상좌수영이 부산포에서 개운포로 다시 해운포로 이전하게된 복잡한 역사적 과정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하였음.
- 경상좌수영의 군사적 행정적 운영에 대해서도 편제와 군선을 중심으로 잘 기술하였음.
- 좌수영성에 대해서도 문헌 자료와 지금까지의 발굴 성과를 참조하여 조선 후기 좌수영성의 각종 공해를 잘 정리하였음.
- 종합정비계획도 잘 되었으며, 자문 내용도 잘 반영되었음. 특히 경상좌수영성의 수군성으로서의 정체성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할 ‘선소 정비’를, 발굴 필요성을 중심으로 잘 강조하였음.

• 다만 보고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아래 사항 수정이 필요함

- 5쪽, ‘경상좌수영성은 원래 부산포에 있었다가 여러 번 옮겨진 뒤 효종 3년(1652) 다시 부산포로 **해운포**로 옮겨져 고종 32년(1895) 구 군사제도가 폐지될 때까지 사용되었다.’
- 86쪽, 조선 후기 주력 군선의 명칭은 ‘판옥선’이 아니고 ‘전선’임. 판옥선을 강조하고 싶다면, 용어를 ‘전선(판옥선)’으로 표기해야 함.
- 86쪽, ‘포수는 태형의 화기와 소형의 화기인 조총도 포함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 수정 요함,
*포수는 임진왜란 이후 군선에 도입된 조총수로, 비변사등록 숙종 42년 ‘각군선제정액수’에서 처음으로 공식화되었음.
- 95쪽, 수영강의 우안, 좌안이라는 용어는 서안, 동안이라는 말로 대체하여야 독자들이 이해 가능.
- 102쪽, ‘전선**군선**의 경우 판옥선(板屋船)**전선(판옥선)**이 주력 전투함이었고 귀선(龜船)은 전선의 개조형태의 하나로 보이며’.
- 186쪽, ‘(2) 전라좌수영성’을 ‘(2) 전라우수영성’으로 수정 요함.

(3) 강동진 위원

경상 좌수영 보존활용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관련 자문

강동진 경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1. 보고서 형식과 체제 관련

- 1.2장과 3.4장이 구별되는 듯한, 파트 구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임
- 간지를 넣어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음. 현재는 각 장의 구분이 모호하여 식별성이 매우 떨어짐

2. 3.4의 사례검토의 보완이 필요함

- 사례 선정의 이유, 사례의 핵심 내용, 시사점 등이 일목장연하게 정리되어야 함
- 정비계획 상에 소개되는 사례(아이디어)들과의 정합성에 필요함

3. 121쪽 사진(1962년)에 대한 보강 필요

- 본 사진은 좌수영성의 공간 파악에 매우 중요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됨
- 보다 확대하고, 사진 속 내용(건축물, 장소, 길 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4. 통합정비계획 관련

1) 전반적인 큰 그림에 대한 비전이 막힘.

- > 왜 이렇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당위성이 보다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작성되어야 함(현재는 감동어 없고 무당당한 상태임)

2) 전반적으로 학술연구를 바탕으로 하는 정비계획이라는 느낌이 크게 부족함

- > 보다 학술연구와 정비계획이 연동되어 있음이 다양한 측면에서 드러나야 할 것임

3) 4.1과 4.2 사이에 정비계획을 끌고 나가는 '전략'이 필요함

- > 갑자기 토지이용과 통선계획이 등장하여 논리적으로 와 닿지 않음
- > 다양한 접근 전략이 마련되어야 함. 미래 역사정 확보를 위한 핵심 등에 대한 방안도 제안/정리되어야 함

4) 공공사업에 너무 단순 정비사업에 집중되어 있음

- > 수형성의 역사성 복원과 보존을 위한 연구진의 연구과제가 다양한 방법(대안 검토 등)으로 드러나야 함. 현재는 너무 단순하게 결과 중심의 사업 위주로만 정리되어 있음
- > 이러한 경우 사업관련 내외적인 변화가 올 경우 본 사업은 추진이 불가능할 수 밖에 없음

5. 기타 : 도면 정리 등

- 120, 133, 135, 139 쪽에 키맵(삽화)이 등장함. 약식 처리가 요청됨
- 도면, 사진에 대한 집중과 선택이 필요해 보임. 중요 도면이나 사진을 집중 부각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음

자문위원 강동진



(4) 오세길 위원

조사자가 제시한 조사방법은 아래와 같다.

조사 방법으로는 문헌 및 구술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출판물(서적, 유인물)을 조사에 참고하였다. 구술 자료는 주요정보제공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통해 수집하였다. 인터뷰는 주로 수영고적민속예술보존협회와 수영향우회,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기본적으로는 생애사 수집에 집중하였고, 이 자료들을 분석한 후 해당 주제에 대한 심층 면접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1. 이에 따르면 조사자는 이번 연구용역 수행 과정에서 다양한 자료를 확보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본문에서 인용된 구술자료는 거의 다 이전 연구자가 조사한 것이다. 따라서 조사자는 새롭게 확보한 출판물·구술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본문을 서술하여야 하며, 이렇게 할 때 자료의 현재성과 해석의 객관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2. 구술자료 인용 시 민속학 연구논문이나 보고서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각주 처리 방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예컨대 구술 대상자 정보, 구술채록 일시 등 기본적인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는데

다 농사지었지요. 그 때 여기 전부 논밭이었고 어업은 민락동 광안동은 어업했고 수영동 사람은 농업을 대부분 농업을 했지요 (농업이라면) 논이고 밭농사고 (밭농사는) 잡곡이지예. 잡곡 특이한 생선은 없었으예. 좌수영은 어방이니까 고기잡으로 가고 여기는 농업을. 왜냐하면 평야면 몰라도. 특이한 게 없는 여기는 조그만 조그만 하니깐. (김성울)

위와 같은 구술 자료 제시 방식은 구술 채록 시점이 제시되지 않아 자료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다.

3. 본문에서 조사자가 확보한 구술대상자(기본적인 신상정보 포함)·사진자료·출판물(서적, 유인물) 등을 목록화하여 제시해야 한다. 특히 기존의 연구에서 찾아내지 못한 지역 주민들의 출판물 자료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제공과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4. 후속 연구를 위한 자료 제공의 차원에서 이번 용역 기간 중 확보한 여러 방면의 구술 채록물의 전사 자료를 부록으로 게재해야 한다.

참고문헌

부록

참고문헌

[저서 및 논문]

- 『萬機要覽』
- 『戶口總數』
- 『東萊府誌』
- 『輿地圖書』
- 『萊營誌』
- 『嶺南營誌』
- 朝鮮後期 地方地圖, 규장각
- 『東萊府邑誌』(1895년), 鎭堡條.
- 『大典通編』 권 4, 兵典, 外官職, 경상도조.
- 「慶尙道左水營官衙配設調査圖」
- 『경국대전』, 兵典, 諸道兵船, 경상도.
- 국학자료원, 2009, 『조선시대 울산지역사 연구』
- 방상현, 『조선 초기 수군제도』, 민족문화사, 1991.
- 『韓國軍制史(근세 : 조선 전기 편)』, 1968.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제23권)』, 1994
- 경상남도사편찬위원회, 『경상남도사』 1988
- 부산시사편찬위원회, 『부산시사』, 1989,
- 경상북도사편찬위원회, 『경상북도사』 1983
- 한시진, 2014, 「문서행정을 통해 본 조선후기 경상좌수영의 수군 행정 운영」, 부경대 석사학위 논문.
-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건축역사문화연구실 2011, 『경상좌수영성지 종합정비계획 수립 보고서』
- 越智唯七, 1917, 『新舊 對照 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 태학사.
- 재단법인 민족문화추진회, 1989(중판), 『고전국역총서 만기요람Ⅱ』, (주)민문고
- 최영준, 1983, 「영남로 경관변화」, 『地理學』 제28호
- 김성한, 1966, 「한·낙동 양 강의 내륙수도로서의 가치에 대한 연구」, 『지리』 2(1)
- 최영준, 2004, 『한국의 옛길 영남대로』,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 신영훈, 1975, 『한국고건축 단장 上』, 동산문화사.
- 이종봉, 2001, 『한국 중세 도량형제 연구』, 해안.
- 『조선시대 수군진 조사Ⅳ, 경상좌수영 편』, 2018.
- 김준형, 2015, 「조선후기 경상도 별무사의 운영과 경제적 지위」, 부산경남사학회, 『역사와 경계』 97권, p.99.
- 김병륜, 2013, 「판옥선의 승조원 편성에 대한 연구」,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이순신연구논총』 제20호, p.199.
- 선석열, 「장대골 마을」, 『부산역사문화대전』 (<http://busan.grandculture.net>)
- 강용권 1993, 「수영야류」, 『수영전통예능』, 수영고적민속보존회.
- 김승찬 · 황경숙 2005, 『부산의 당제』, 부산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 김종수 2021, 『수영 25의용: 정방록을 찾다』, 부산 : 비온 후.
- 국립민속박물관 2020, 『부산의 마을신앙 4: 금정구 · 동래구 · 수영구 · 연제구 · 해운대구』, 서울: 민속원.
- 부산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2000, 『부산지명총람 제 6권: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편』
- 배도식 2009, 「수영야류 길놀이와 놀이판」, 『수영민속총집』, 수영예술민속보존협회.
- 신석열 2011, 「수영구」, 『부산의 자연마을 제6권: 동래구, 금정구, 연제구, 수영구, 부산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pp 373-459.
- 송석하 1960, 한국민속고, 일신사.
- 이두현 · 장주근 · 현용준 · 최길성 1969, 「부락제당」, 『민속자료보고서 제 39호』, 문화재관리국
- 이은정 2017,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구술 자서전[016] [제43호 수영야류] 조홍복[趙弘福,1933~] 니캉 내캉 함 취 보자』, 국립무형유산원.
- 이은정 2018,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구술 자서전 [032] [제62호 좌수영어방놀이] 김태룡[金泰瓏, 1933~] 한바탕 놀면 속이 후련해요』, 국립무형유산원.
- 이창언 2014, 경상좌수영성 의례의 지속과 변화 : 독제(蠶祭)를 중심으로, 실천민속학연구 제23호, pp. 249-275.
- 정경주 2001, 『국역 내영지(萊營誌)』, 부산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 정상박 2009, 「수영야류」, 『수영민속총집』, 수영예술민속보존협회.
- 최명림 · 윤수경 2007, 『한국의 마을신앙 上』, 국립민속박물관.
- 최명림 · 윤수경 2007, 『한국의 마을신앙 下』, 국립민속박물관.
- 최해군 2005, 「수영구의 역사」, 『수영구의 민속과 문화』, 수영고적민속예술보존협회.
- 태덕수 2005, 「수영구민의 삶」, 『수영구의 민속과 문화』, 수영고적민속예술보존협회.

[인터넷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남수 마을(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822587&cid=55784&categoryId=56523>)

부산 지역의 지명유래: 매품 팔러 온 사람들이 보리를 팔았던 부산 보리전, 지역N문화

(<https://ncms.nculture.org/origin-of-place-names/story/294>)

[네이버 지식백과] 수영동 남수 마을 청주 태씨 세거지(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826969&cid=55784&categoryId=56523>)

[네이버 지식백과] 수영동 밀양 박씨 세거지(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826971&cid=55784&categoryId=56523>)

[네이버 지식백과] 수영동 김해 김씨 세거지(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826972&cid=55784&categoryId=56523>)

[네이버 지식백과] 수영동 함안 조씨 세거지(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826970&cid=55784&categoryId=56523>)

국제신문(2016년 10월 18일자) “수영사적공원 '독신당' 이전 추진”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key=20161019.22008194640>)

경상좌수영 보존활용 방안 연구

2022년 10월 일 발 행

발 행 처 부산광역시

연구 · 편찬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인 쇄 KOEN 프린팅(053-716-1011)

(비매품 한정판)

